



제17차 통일학·평화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

# 통일 기반 조성 과제와 제언

2014. 2. 24 **일** ~ 25 **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17차 통일학·평화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

# 통일 기반 조성 과제와 제언

2014. 2. 24 월 ~ 25 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토론회 진행순서

### 2.24

#### 제1회의 :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과 남북 동질성 회복 (13:00~15:00)

사 회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발표 1 북한 미디어에 드러난 기후변화 대응 산림정책 연구

윤여창 (농업생명과학대) / 토론 : 윤순진 (서울대)

발표 2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과 사회적응 및 정신건강

이순형 (생활과학대) / 토론 : 조은숙 (수원대)

발표 3 남북언어의 어휘 단일화를 위한 성과와 과제

권재일 (인문대학) / 토론 : 조오현 (건국대)

### 2.25

#### 제2회의 : 북한주민 질병형태와 남북 신세대 통일의식 (10:30~12:00)

사 회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발표 1 북한 주민의 질병관과 질병형태

김석주 (의과대학) / 토론 : 이금순 (통일연구원)

발표 2 공간구조와 국가권력-평양시 사례연구

전상인 (환경대학원) / 토론 : 김용창 (서울대)

발표 3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 비교연구

강원택 (정치외교학부) / 토론 : 한정훈 (숭실대)

### 제3회의 : 북한의 자연재해와 체육·여가활동 (13:00~15:00)

사 회 김병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발표 1 북한지역의 토양유실 취약성 평가**

임상준 (농업생명과학대) / 토론 : 김학관 (서울대)

**발표 2 백두산 화산 폭발시 재해의 기상시나리오별 피해분석**

박형동 (공과대학) / 토론 : 김성철 (서울대)

**발표 3 북한의 체육 및 여가활동**

나영일 (사범대학) / 토론 : 김흥태 (대진대)

### 제4회의 :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중국 기업의 대북거래 (15:10~17:10)

사 회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발표 1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북한이탈주민: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비교분석**

한경혜 (생활과학대학) / 토론 : 정은미 (서울대)

**발표 2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에 관한 기초 문헌 연구**

신성호 (국제대학원) / 토론 : 이왕희 (아주대)

**발표 3 중국의 대북한 거래기업 분석: 중국 현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김병연 (경제학부) / 토론 :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 목 차

### 2.24

#### 제1회의 :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과 남북 동질성 회복

- 발표 1 북한 미디어에 나타난 기후변화 프레임: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을 중심으로 09  
윤여창 (농업생명과학대)
- 발표 2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 및 정신건강과 사회적응 ..... 23  
이순형 (생활과학대)
- 발표 3 남북 언어의 어휘 단일화를 위한 성과와 과제 ..... 81  
권재일 (인문대학)

### 2.25

#### 제2회의 : 북한주민 질병형태와 남북 신세대 통일의식

- 발표 1 북한 주민의 질병관과 질병행태 ..... 109  
김석주 (의과대학)
- 발표 2 국가권력과 공간구조: 북한의 수도계획 ..... 123  
전상인 (환경대학원)
- 발표 3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 의식 비교 연구 ..... 151  
강원택 (정치외교학부)

### 제3회의 : 북한의 자연재해와 체육·여가활동

발표 1	북한지역의 토양유실 취약성 평가	189
	임상준 (농업생명과학대)	
발표 2	백두산 화산폭발 시 재해의 가상 시나리오 별 피해 분석	207
	박형동 (공과대학)	
발표 3	북한의 체육 및 여가활동	227
	나영일 (사범대학)	
토론 3	북한의 체육 및 여가활동에 관한 토론	243
	김흥태 (대진대)	

### 제4회의 :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중국 기업의 대북거래

발표 1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북한 이탈주민: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비교분석	257
	한경혜 (생활과학대학)	
발표 2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에 관한 기초 문헌 연구	279
	신성호 (국제대학원)	
발표 3	중국 대북한 거래기업 분석: 중국 현지설문조사를 중심으로	303
	김병연 (경제학부)	



# 제1회의

##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과 남북 동질성 회복

- 발표 1  
북한 미디어에 나타난 기후변화 프레임: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을 중심으로  
윤여창 (농업생명과학대)
- 발표 2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 및 정신건강과 사회적응  
이순형 (생활과학대)
- 발표 3  
남북 언어의 어휘 단일화를 위한 성과와 과제  
권재일 (인문대학)



# 북한 미디어에 나타난 기후변화 프레임: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을 중심으로

2014년 2월 24일

박미선<sup>1</sup>, 윤여창<sup>2</sup>, 이효원<sup>3</sup>

<sup>1</sup>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sup>2</sup>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sup>3</sup>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 I. 서론

### ■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된 당사국이 정기적으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행하는 협력체계(Mintzer and Leonard, 1994: 17)
- 기후변화 문제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자와 기후변화로 인해 유발되는 재난에 대한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드러나는 기후불의(윤순진, 2008)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



## I. 서론

### ■ 기후변화 관련 담론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선행연구

- 영국(Boykoff, 2008), 스웨덴(Kleinschmit and Sjöstedt, 2013), 독일(Weingart et al., 2000) 등 - 선진국 중심의 연구

### ■ 개도국의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 연구 필요

- 북한 사회에서의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 연구
  - 북한 : 1994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가입, 2005년 교토의정서 비준

## II. 북한 미디어

### ■ 북한 미디어의 특성 (편완식, 2001; 강현두 1997)

- 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짐
- 당 지도사상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대량의 정보를 보도하여 당의 원활한 기능 수행과 노동자의 조직화에 공헌함
-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대중을 설득하고 가르치며 교화하는 기본수단으로 사용됨

### ■ 로동신문

- 전국의 모든 로동당원과 당간부들을 독자로 삼고 있음
- 조선노동당 비서국 선전선동부에 소속되어 조직과 예산 등에 있어 철저히 당의 통제를 받음

### ■ 민주조선

- 내각의 기관지
- 전국의 인민정권기관 직원들을 독자로 삼고 있음

# III. 미디어 프레임

- **프레이밍(Framing)**
  - 현실의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강조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해석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능(Entman, 1993)
- **화자 (Speakers)**
  - 특정 기관 및 개인의 주장이나 표현을 선택하여 인용 (Gerhards et al., 1998; Park, 2009; Feindt and Kleinschmit, 2011; Kleinschmit and Sjöstedt, 2013).
- **프레임 유형**
  - 갈등, 인간적 흥미, 경제적 중요성, 책임귀인, 도덕성 (Semetko and Valkenburg, 2000)
  - 진단(diagnostic), 예후(prognostic), 동원(motivational) (Snow and Benford, 1988)
-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 원인제공자, 피해자, 해결자 (von Prittwitz, 1990)

# III. 미디어 프레임

## [책임귀인 미디어 프레임]

환경문제에 관한 이해관계자	프레임 유형
원인제공자	진단
피해자	
해결자	예후, 동원

## IV. 연구설계

### ■ 양적 내용분석

-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서술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내용의 의미에 대한 추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타당한 측정 규칙에 따라 수치를 부여하는 체계적이며 반복 가능한 조사이자 그러한 수치들을 수반하는 관계들에 대한 분석(대니얼 라이프 외, 2001)

### ■ 분석 대상

- 1990년부터 2012년까지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 게재된 기사 중 표제에 ‘이상기후’ 또는 ‘지구온난화’ 또는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기사 총 20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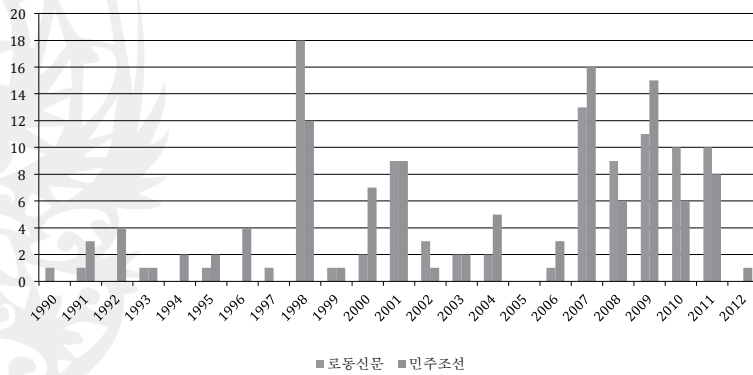


## IV. 연구설계

범주명	범주내용	
기사 발행일	년, 월, 일	
보도된 사건 발생 장소	국내 국외 국내+국외	
화자	국내 국외	정부기관 정치가 국제기구 과학자/전문가 기업 시민단체 개인 사회 기타
이해관계자	원인제공자	
	피해자 해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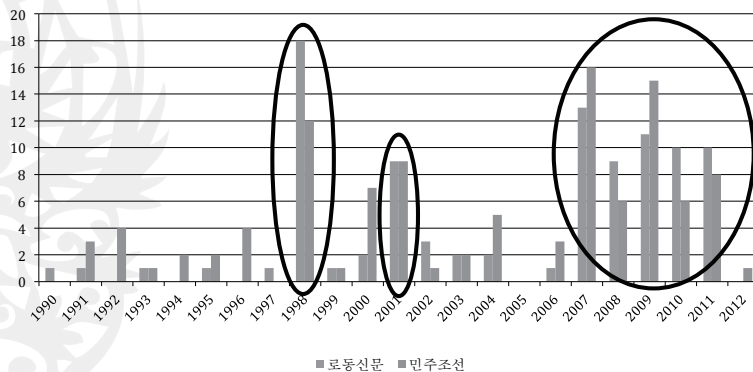
# V. 연구결과

## 1. 기후변화 관련 기사 빈도의 시계열 추이



# V. 연구결과

## 1. 기후변화 관련 기사 빈도의 시계열 추이



## V. 연구결과

### 2. 보도된 사건 발생 장소

신문종류	사건발생장소			
	국내	국외	국내+국외	총
로동신문	21 (22)	71 (74)	4 (4)	96 (100)
민주조선	8 (7)	67 (62)	33 (31)	108 (100)
총	29 (14)	138 (68)	37 (18)	204 (100)

## V. 연구결과

### 3. 화자

화자	국내			국외			총
	로동신문	민주조선	총	로동신문	민주조선	총	
정부기관	33 (38)	6 (21)	39 (34)	132 (50)	23 (19)	155 (41)	194 (39)
정치가	34 (39)	18 (62)	52 (45)	13 (5)	15 (13)	28 (7)	80 (16)
국제기구	0 (0)	0 (0)	0 (0)	42 (16)	33 (28)	75 (20)	75 (15)
과학자/전문가	17 (20)	0 (0)	17 (15)	69 (26)	40 (34)	109 (29)	126 (25)
기업	0 (0)	0 (0)	0 (0)	4 (2)	0 (0)	4 (1)	4 (1)
시민단체	1 (1)	0 (0)	1 (1)	1 (0)	3 (3)	4 (1)	5 (1)
개인	2 (2)	5 (17)	7 (6)	0 (0)	3 (3)	3 (1)	10 (2)
기타	0 (0)	0 (0)	0 (0)	1 (0)	2 (2)	3 (1)	3 (1)
총	87 (100)	29 (100)	116 (100)	262 (100)	119 (100)	381 (100)	497 (100)

## V. 연구결과

### ■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 및 지적

#### □ 1990년, 2000년대 초반

“이상기후현상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상기후현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 1990년대 후반 이후

“비바람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잘된 곡식이 큰물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 댕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 2006년 이후

“자연환경은 사람의 생존과 밀접히 련관되어있습니다”  
“자연환경을 떠나서는 인간의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 V. 연구결과

### ■ 외국 정부기관

“중국대표는 자국이 지속적인 개발전략에 준하여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과 조치들을 취했으며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고 말하였다.”  
(로동신문 2007년 10월 15일자,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국제적움직임)

### ■ 국제기구

- 유엔(UN),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환경계획(UNEP), 유럽동맹(유럽연합, EU), 석유수출국가기구(OPEC)

“유럽동맹은 현재 10년을 주기로 열대림의 5%가 채벌로 인해 사라지고있으나 만일 그것이 보존되어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면 가치가 클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동신문 2007년 6월 5일자, 지구온난화문제를 둘러싼 모순되는 립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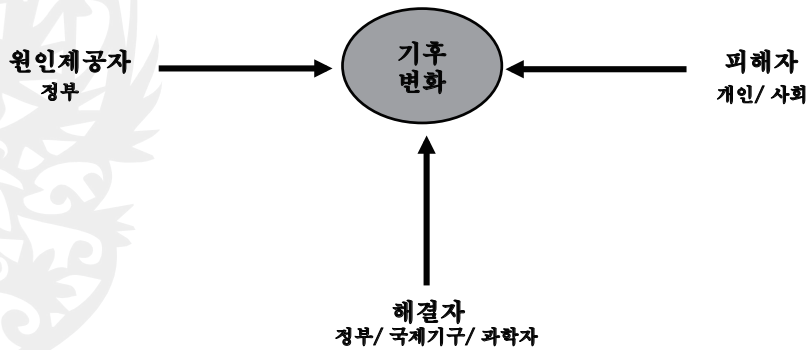
# V. 연구결과

## 4. 이해관계자

화자	원인제공자		피해자		해결자	
	로동신문	민주조선	로동신문	민주조선	로동신문	민주조선
정부	67 (87)	17(90)	135 (41)	4 (3)	146 (49)	27 (59)
정치가	6 (8)	1 (5)	0 (0)	0 (0)	22 (7)	6 (13)
국제기구	1 (1)	0 (0)	17 (5)	0 (0)	44 (15)	4 (9)
과학자/전문가	0 (0)	0 (0)	1 (0)	0 (0)	59 (20)	1 (2)
기업	3 (4)	1 (5)	2 (1)	5 (4)	0 (0)	0 (0)
시민단체	0 (0)	0 (0)	0 (0)	0 (0)	2 (1)	0 (0)
개인	0 (0)	0 (0)	81 (25)	43 (35)	24 (8)	8 (17)
사회	0 (0)	0 (0)	91 (28)	70 (58)	0 (0)	0 (0)
총	77 (100)	19 (100)	327 (100)	122 (100)	297 (100)	46 (100)

# V. 연구결과

## 4. 이해관계자



## V. 연구결과

### ■ 피해자

- 개인과 사회 전체가 주요 피해자로 기술
-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폭우, 가뭄,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 현황  
보도

“지난해 세계적으로 기후와 관련한 자연재해로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는 5만 2천명, 경제적손실액은 6백30억달러에 달하였다.”  
(민조조선 2000년 6월 23일자, 지구온난화와 그 후과)

## V. 연구결과

### ■ 원인제공자

- 정부(기관)를 주요 원인제공자로 기술
- 미국과 일본의 소극적인 협상 태도에 대한 비판

“유엔의 한 기구는 보고서에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66%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를 리용하여 막대한 재부를 축적한 서방나라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로동신문 2010년 2월 7일자, 기후변화의 위험성과 엄중한 후과)

## V. 연구결과

### ■ 문제해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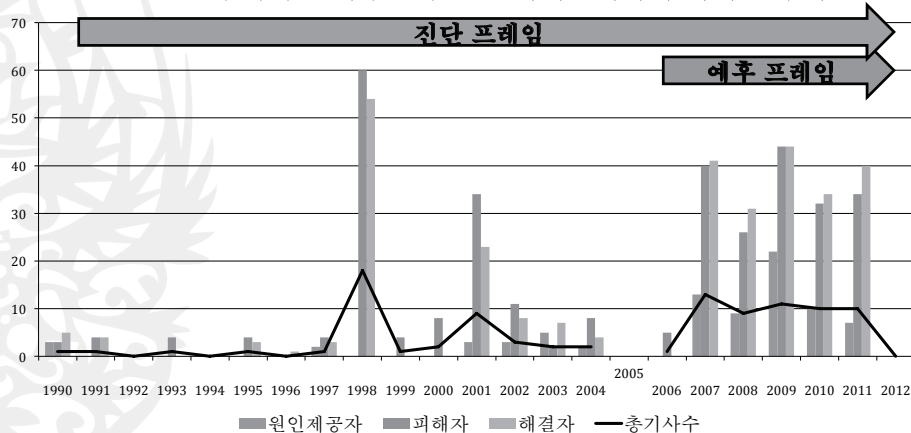
- 정부기관을 주요 문제해결자로 기술
-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전략 소개
- 선진국의 의무 강조

“발전된 나라들은 <교토의정서> 에서 확정한 온실가스방출량삭감지표를 달성하고 발전도상나라들이 기후변화대응능력을 높이도록 도와주며 2012년 후에도 온실가스방출량삭감에 앞장서야 한다.”

(로동신문 2007년 10월 15일자,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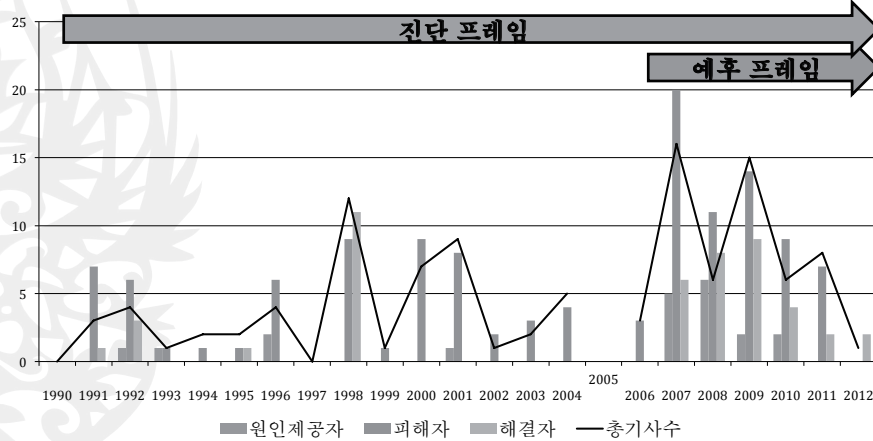
## V. 연구결과

[ 로동신문에 나타난 기후변화 관련 이해관계자의 시계열 추이 ]



## V. 연구결과

[ 민주조선에 나타난 기후변화 관련 이해관계자의 시계열 추이 ]



## VI. 결론

기후변화에 관한 북한 미디어 프레임의 특징

### 1. 사건 발생 장소

- 국내 사건보다 국외 사건을 더 많이 보도함
- 이상기후현상과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
- 국제협상과정에 대한 고찰
- 여러 선진국의 정책 및 전략에 대한 해석과 비판

→ 북한 신문의 여러 기능 중 국제 정책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드러내는 외교수단으로서의 기능(김영주, 1998)

### 2. 화자

- 주요 화자: 정부기관, 정치가, 국제기구, 과학자
- 시민단체의 목소리 저조
- 김일성, 김정일 교시 및 지적

→ 당정책화하는 북한 신문기사 집필의 원칙(김영주, 1998)

## VI. 결 론

### 기후변화에 관한 북한 미디어 프레임의 특징

#### 3. 프레임

- 전반적으로 피해 현황 보도 중심의 진단 프레임
- 2007년 이후부터 예후 프레임 형성

→ 북한신문기사의 고유한 속성인 보도성과 정론성(김영주, 1998)

#### 4.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비교

로동신문이 민주조선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발언 인용, 기후변화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묘사 두드러짐

## VI. 결 론

#### ■ 연구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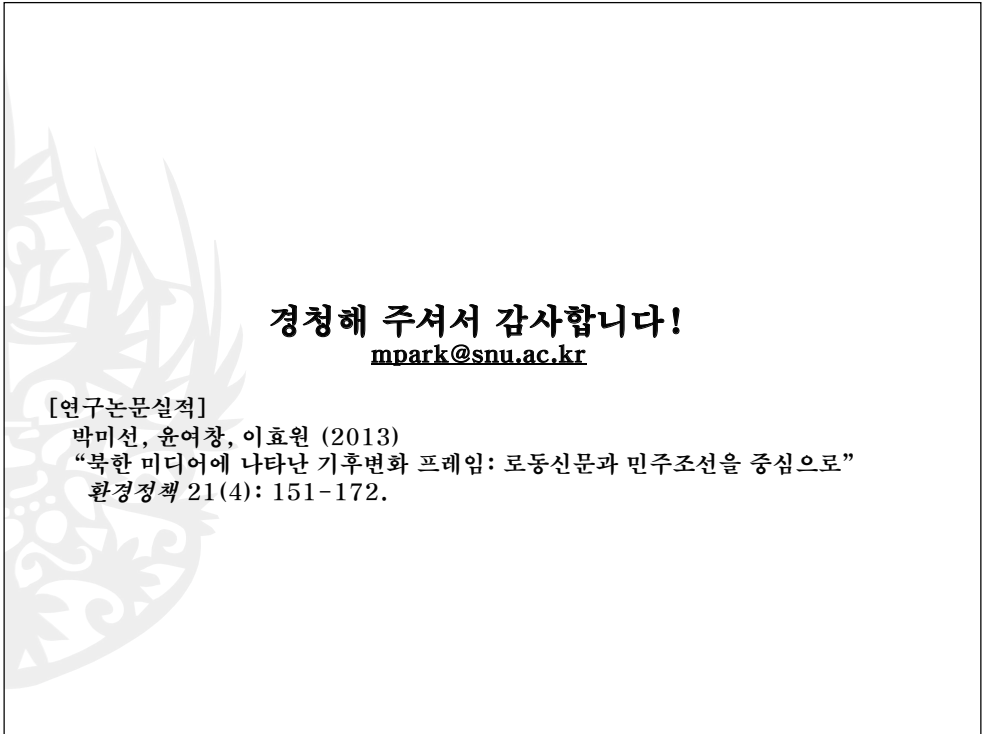
- 표제에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포함한 기사만을 표본으로 함
- 화자와 이해관계자에 집중하여 기사내용을 분석하여 연구대상과 범위가 협소함

#### ■ 연구의 의의

- 북한 사회에서의 환경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 ■ 후속 연구

- 기후변화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한 심층적 분석
- 해외 언론에 나타난 북한 기후변화 기사 분석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park@snu.ac.kr](mailto:mpark@snu.ac.kr)**

[연구논문실적]

박미선, 윤여창, 이효원 (2013)

“북한 미디어에 나타난 기후변화 프레임: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을 중심으로”  
환경정책 21(4): 151-172.



#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 및 정신건강과 사회적응

연구책임자: 이순형  
공동연구원: 최연실  
진미정  
연구보조원: 김호현  
김보경  
이주아  
지혜

제 3회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 작품  
<빨리 북한어린이들에게 우리 아빠 지은 쌀을 보내주자>

## Contents

1. 서론
2. 북한사회와 종교
3. 북한이탈주민의 종교 경험
4. 북한이탈주민의 회심과 갈등
5.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와 정신건강 및 사회적응
6. 결론



# 제 1장 서론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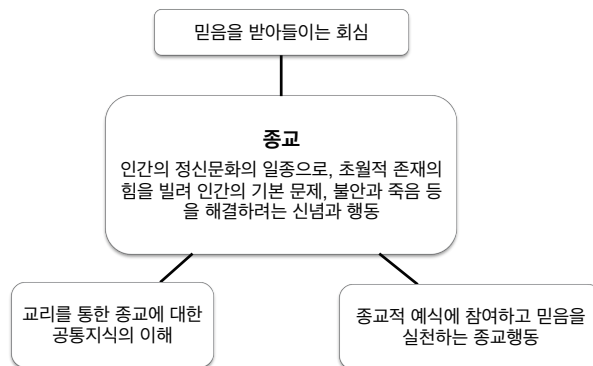
제 4 장

제 5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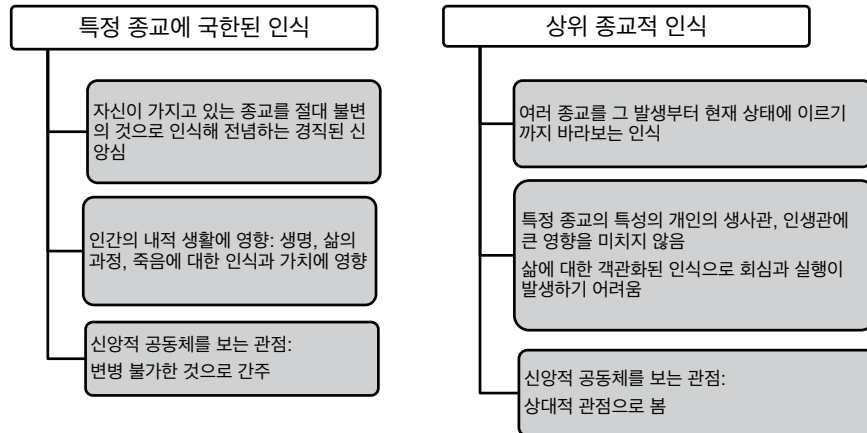
제 6 장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종교의 특성과 교인의 생활



## 1) 상위 종교적 인식



## 2.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와 종교

- 경제난, 식량난으로 북한 주민의 생존 위협 → 북한 탈출
- 제3국 체류 중 종교기관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 받으며, 종교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화, 학습 기회 획득

## 상반된 연구 결과

- 종교가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고양시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유영권, 2005; 전우택, 유시은, 엄진섭, 2009).
-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종교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최승주, 전우택, 정우진, 2006).

종교에 대한 태도나 행동의 변화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이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증적 연구 부족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관이나 종교성은 기본적으로 북한에서의 사회화의 영향을 받고, 탈북과정에서 종교기관과의 상호작용이나 종교적 체험을 통해 발달하게 되며, 남한에 정착한 이후 생활과 경험에 의해 달라질 것으로 예상

## 연구 목적

- ①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이나 이념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봄으로써 개인의 종교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유지되는지, 아니면 사회정책에 따른 획일적 종교 부시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 ② 종교단체나 종교기관의 대북 교류 활동이 주민들의 종교에 대한 이념이나 태도에 변화를 초래할 만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북한 사회에 종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 ③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은 개인마다 그리고 생애과정의 단계나 맥락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생사의 경계, 외부지원이 절실한 상황, 그리고 다시 점진적으로 일상화되는 생활 속에서 종교가 어떻게 개인의 삶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 ④ 생애 초기부터 가진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은 종교의 유일신앙과 상반된 것으로 서로를 배척하는지 아니면 공통성을 가지고 쉽게 동화되는지 알아본다.
- ⑤ 특정종교 몰입 후 다른 종교로 개종 시 어떠한 심리적 긴장과 적응기제가 작동했는지 알아본다.

## 제2절 연구방법

## 1. 질적조사

## 1) 면담참여자 선정

## 초기선정기준

- ① 개신교, 천주교, 불교에 몸담고 있는 종교인 및 탈북인 고루 선정
- ② 북한 내 & 이탈과정에서의 종교경험을 가진 참여자 선정

어려움: 대부분의 종교경험은 개신교로 편중, 종교와 관련하여 독특한 참여자를 종교 별로 균형 있게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

결과: 종교와 관련하여 독특한 경험을 한 이들로 구성되었으나 기독교에 편중

## 제2절 연구방법

<표>면담참여자의  
인구학적 정보

번호	직책	가명	나이	구분	종교	인터뷰 일시
1	목사	신종하	50대 중후반	종교인	기독교	2012.11.23. 17:00-19:00
2	목사	김석환	50대 초반			2012.11.22
3	선교사	김진	40대 중반			2013.01.11 10:00-12:00
4	집사	구자옥	40대 중반	세터민	기독교	2013.01.11 13:00-14:00
5	학생	송아연	20대 후반			2012.12.9. 16:00-18:30
6	직장인	박강식	30대 초반			
7	무직	김민석	20대 후반			
8	스님	김용	60대 중후반	종교인	불교	2013. 01.25 16:00-18:00
9	강사	박여사	60대 초반	세터민		2012.12.2. 10:30-12:00
10	수녀	수녀님	50대 후반	종교인	천주교	2013.01.10 14:00-16:00
11	직장인	신경숙	40대 중반	세터민		2013.01.13 14:00-16:00

## 3) 면담절차

반구조화 질문지를 질문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았으나 실제 면담에서는 면담참여자가 종교경험을 이야기하고, 면담자는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방식

면담 질문은 아래와 같다.

**-북한이탈주민용-**

**연구문제 1** 북한사회의 종교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북한 내 종교에 대한 교육 및 이념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연구문제 1-2** 북한의 종교와 사회정책은 서로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

**연구문제 2** 북한에서의 종교단체 및 북한인의 종교활동과 종교생활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북한 내 종교단체의 활동은 주민들의 종교에 대한 태도의 유지 혹은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연구문제 2-2** 북한 내의 종교단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연구문제 2-3** 북한인의 종교활동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4** 북한인의 종교생활은 어떠한가?

## 면담 질문 (계속)

**연구문제 3** 이탈과정에서 종교는 어떤 기능을 하였는가?

**연구문제 3-1** 종교는 언제 처음 접했는가?

**연구문제 3-2** 종교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첫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정착과정에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연구문제 4-1** 남한의 종교는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수용, 종교성 및 종교유지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연구문제 4-2** 종교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생긴 적이 있는가?(영향, 갈등 등)

**연구문제 5** 북한 이탈주민들이 현재 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1** 종교인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2** 종교는 왜 필요하다고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가?

## 면담 질문 (계속)

**연구문제 6** 주체사상과 유일신앙의 유사성에 의해 종교를 받아들여기가 더 수월했을까? 반대일까? (\*주체사상이 지워지는 과정 및 신앙이 채워지는 과정 혹은 주체사상이 더욱 굳건해 지는 과정)

**연구문제 6-1** 북한생활은 어떠했는가?

**연구문제 6-2** 남한생활은 어떠했는가?

**연구문제 6-3** 지금까지 종교를 접해 본 경험으로 볼 때 해당종교의 절대자는 어떤 분인가?

**연구문제 6-4** 주체사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7** 정서 상태의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7-1** 요즘 기분이 어떠한가? 왜 그런가?(행복한지, 우울한지, 신체 이상은 없는지)

**연구문제 7-2** 기분이 갑자기 변하고는 하는가?

**연구문제 7-2** 종교 활동을 하기 전과는 감정상태가 달라진 점이 있는가?

**연구문제 7-3** 종교 활동의 어떤 점에 의해 달라졌다고 생각되는가?

면담 질문 (계속)

**-남한종교인용-**

**연구문제 1** 국내 종교단체의 활동(선교 및 지원)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어떤 선교활동을 하는가?

연구문제 1-2 어떤 지원을 하는가?(정신적, 물질적, 인적 지원)

연구문제 1-3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북한종교단체의 활동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북한 종교의 전반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북한 종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3 북한을 제외한 타국가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북한 종교인들과의 만남은 어떤 경험이었는가?

연구문제 3-1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연구문제 3-2 국내 혹은 국외의 다른 종교인들과 비교할 때 어떤 인상을 받았는가?

연구문제 3-3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면담 질문 (계속)

**연구문제 4** 이탈을 돕는 과정에서의 종교 활동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1 탈북인들의 이탈을 돕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4-2 이 과정에서 탈북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자금, 생필품 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3 남한인(혹은 종교단체)를 처음 접할 때 탈북인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 정착과정에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연구문제 5-1 탈북인들에게 종교가 어떤 도움이 되는가?

연구문제 5-2 탈북인들은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연구문제 5-3 탈북인들이 종교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 6** 현재 이탈주민과는 어떤 관계인가?

연구문제 6-1 관계를 유지하는가? 혹은 관계유지가 어려운가?

연구문제 6-2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면담 질문 (계속)

**연구문제 7 주체사상과 유일사상**

**연구문제 7-1** 종교인의 눈으로 본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주체사상 중심으로)

**연구문제 7-2** 선교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왜 그런가?

**연구문제 7-3** 탈북인들에게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왜 그런가?

**연구문제 8 탈북인들의 정서 상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8-1**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떻게 보였나?

**연구문제 8-2**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보이는가?

**연구문제 8-3** 탈북인들의 정서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면담일시: 2012년 12월 – 2013년 1월

면담장소: 교회, 성당, 불당, 참여자의 집, 스터디룸

면담시간: 1시간 30분 – 2시간 30분

**4) 면담분석**

분석절차

1. 전사자료를 종교인과 북한이탈주민 별로 구분하여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
2. 초기에 설정한 연구의 구성방식인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종교, 이탈과정에서의 종교경험, 남한 정착과정에서의 종교경험으로 분리하여 면담내용을 개방 코딩
3. 이 세 가지의 코딩틀을 중심으로 11명의 면담참여자의 증언들을 선택적으로 코딩

2. 양적조사

- 연구대상
  -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305명을 대상
-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응답 범주	빈도(%)	변수	응답 범주	빈도(%)	
성별	남성	84(27.5)	종교	기독교	143(46.9)	
	여성	222(72.5)		천주교	83(27.2)	
연령	20-29세	74(24.3)		불교 및 기타	14(4.6)	
	30-39세	79(25.9)		종교 없음	58(19.7)	
	40-49세	99(32.5)		종교를 북한에서부터 가진	7(2.9)	
	50-59세	31(10.2)		남한에서부터	168(70.0)	
월평균 소득 (N=251)	60세 이상	22(7.2)		시기	이탈과정에서	61(25.4)
	100만원 미만	99(39.4)		(N=231)	기타	2(0.8)
	100-199만원	85(33.9)		종교를	1년 미만	4(1.7)
교육정도 (N=302)	200-299만원	40(15.9)		가진 기간	1년-3년 미만	76(31.7)
	300만원 이상	27(10.8)	(N=206)	3년-5년 미만	50(20.8)	
인민학교	인민학교	18(6.0)	5-10년 미만	55(22.9)		
	고등중학교	232(76.8)	10년 이상	21(8.8)		
	대학교 이상	52(17.2)				

• 사회·인구학적 특성 (계속)

결혼지위 (N=290)	기혼	120(41.4)	종교를 열심히 하는 정도 (N=238)	열심히 하지 않음	19(7.9)
	미혼	164(56.6)		믿음이 약함	45(18.8)
	기타	6(2.1)		보통	90(37.5)
현재 하는 일 (N=291)	회사원	67(23.0)	종교모임 참여 (N=238)	약간 열심히	51(21.3)
	학교 재학 중	52(17.9)		매우 열심히	33(13.8)
	영업 및 서비스직	32(11.0)		수회/1주	35(14.6)
	취업교육 및 검정고시 준비 중	32(11.0)		1/1주	132(55.0)
	가사	25(8.2)		1/2-3주	19(7.9)
탈북 시기 (N=304)	공장/건축노동자	23(7.9)	종교교리 숙지 (N=237)	1/1개월	25(10.4)
	구직 중	21(7.2)		1/2-3개월	10(4.2)
	기타(간병, 건강문제)	39(13.4)		아주 드물게	17(7.2)
	1995년 이전	3(1.0)		거의 알지 못함	15(6.3)
	1996-1999년	91(29.9)		별로 알지 못함	54(22.9)
남한 입국시기 (N=303)	2000-2004년	57(18.8)	종교활동 여부 (N=230)	보통	97(40.4)
	2005-2009년	99(32.6)		어느 정도	49(20.4)
	2010-2013년	54(17.8)		매우 잘 암	21(8.8)
종교활동 여부 (N=230)	1999년 이전	2(0.7)	있다	36(15.0)	
	2000-2004년	46(15.2)	없다	194(80.8)	
	2005-2009년	138(45.5)			
	2010-2013년	117(38.6)			

- 조사 도구

변수	도구
정신건강	한국형 정신건강 척도(K-MCH-SF) 14문항 & 한국형 정신장애 척도(K-MDI) 13문항 (임영진, 고영선, 신희철, 조용래, 2010)
회복탄력성	간이회복력탄력성 척도(BRS) 6문항 (Smith, Dalen, Wiggins, Tooley, Christopher, & Bernard, 2008)
탈북 후 변화	탈북 후 긍정적 변화 및 부정적 변화 척도 11문항 (이순형, 조수철, 김창대, 진미정, 2007)
심리적 문화적응전략	북한이탈주민용 문화적응 전략 척도 16문항 (채정민,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2002)
남한 생활 적응	남한 생활 적응 척도 12문항 (이순형, 조수철, 김창대, 진미정, 2007)
정체성	탈북자의 정체성 척도 10문항 (이순형, 조수철, 김창대, 진미정, 2007)
종교성향	내재적/외현적 종교성향 척도 21문항 (Feagin, 1964)

- 분석 방법

- STATA 12.0
-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정, Pearson 적률상관관계, 회귀분석, 일원변량분석 이용
- 부정 진술문에 대해 역산처리
- 신뢰도 수준을 위해 내적합치도를 추정하는 신뢰계수(Cronbach Alpha) 산출

## 제 2장 북한사회와 종교

제 1장

제 2 장

제 3장

제 4장

제 5장

제 6장

### 제1절 북한의 종교 실태

- 북한 종교단체 현황
  - 천도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정교를 관리하는 조선종교인협의회 단체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 결성취지: 조국의 자국적 통일을 지향하는 북반부의 모든 종교인들이 평화와 통일과 애국애족의 민족이념 아래 하나로 굳게 결속하기 위함(하종필, 2003)
  - 그러나 신앙을 위한 친목이 아닌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정치적 단체
  - 헌법과 정책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된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정부는 종교활동을 엄격히 제한
  - 전도활동 참여, 외국인/선교사와 접촉 시 체포되고 처벌 받음(CIRF, 2012)
  - 국제종교자유법(IRFA)에 의거한 특별관심대상국

## 1. 종교별 현황

단체	현황
조선천도교 중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6년 천도교북조선총무원으로 발족</li> <li>- 1970년대 남북대화를 시작으로 국내 및 해외 종교단체와 교류 시작</li> <li>- 1994년 단군제 거행</li> <li>- 2011년 '남북합동시일식' 봉행</li> <li>- 현재, 52개의 천도교당, 801개의 기도처, 1만 5천 여명의 신도</li> </ul>
조선불교도연맹 (조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5년 북조선불교도연맹으로 발족 이후 정치적 목적의 종교활동 시작</li> <li>- 대부분의 사찰은 전쟁으로 훼손, 1953년부터 부분적으로 복구</li> <li>- 2009년부터 금강산의 신계사에서 '신계사 낙성 2주년 기념 남북공동법회'를 매년 개최</li> <li>- 현재, 64개의 사찰, 300명의 승려, 1만 여명의 신도</li> </ul>
조선카톨릭교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8년 조선천주교인협회로 발족 및 평양 장충성당 건립</li> <li>- 2008년 평화통일 기원의 미사 거행</li> <li>- 남북종교회담, 아시아 종교인평화회 참석 등 활발한 대화활동 진행</li> <li>- 현재 카톨릭 신부가 없어 미사집전 불가능, 현재 3천 여명의 신자</li> </ul>
조선그리스도교연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6년 북조선기독교연맹으로 발족</li> <li>- 1988년 불수교회 설립, 1989 칠골교회 설립, 2005년 제일교회 설립</li> <li>- 2006년 남북합동예배 거행, 2011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 개최</li> <li>- 현재 3개의 교회, 30 여명의 목사, 신자 수는 모름</li> </ul>
조선정교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 조선정교위원회 발족</li> <li>- 위원장: 허일진</li> </ul>

## 2. 국내외 종교단체와의 교류

## 1) 국내 종교교류

시기	종교교류
1945년 분단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떠한 종교적 접촉이나 교류는 시도하지 않는 적대적 관계</li> <li>- 종교탄압으로 대부분 월남한 것으로 추정</li> </ul>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적십자 회담 및 남북 공동성명발표, 남북 정당과 사회단체활동 회의 제의를 통해 각종 종교단체 활동 시작</li> </ul>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독교를 중심으로 남북 종교인 대화 시작</li> <li>- 교회와 성당 설립, 조국통일기원법회와 석가탄신일 기념법회 실시 (1988년)</li> </ul>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발한 남북 간의 공식적인 종교교류 진행</li> <li>- 자연재해로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사랑의 쌀 보내기'(1990년), '사랑의 의약품 보내기 운동'(1991년)의 지원활동 전개 및 국수공장 설립(1996, 1998년)</li> </ul>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 영통사, 금강산 신계사의 사찰 복원 지원(2004, 2007년)</li> <li>- 꾸준한 의료, 보건, 영유아 사업에 대한 지원</li> </ul>
2010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5.24 조처'를 취해 남북관계와 대북지원 전면 중단</li> <li>- 순수 종교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2011년 후반부터 부분적인 종교교류 허용</li> </ul>

## 2) 국외 종교교류

시기	종교교류
1970년대	- 1974년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불교평화회의와의 교류 - 1978년 제4차 아시아불교도평화회의(일본, 동경)에서 정식으로 회원국으로 가입
1980년대	- 1984년 제1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개신자간의 대화(오스트리아 빈) - 국외 종교인들의 방북 횟수 급속히 증가 - 1985년 세계교회협의회, 1986년 미국교회협의회, 1987년 일본기독교협의회, 1988년 캐나다교회협의회가 북한 방문 - 1986년 조선기독교연맹대표들과 한국교회협의회 대표들이 초청, 스위스에서 첫 공식적 만남 - 1981년 조선불교도연맹의 불교국가(인도,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방문 - 1986년 소련과 중국 불교 대표단을 평양으로 초청 - 같은 해 세계불교도우의회에 정식으로 가입
1990년대	-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문제에 관심
1990년대	- 활발한 남북 간의 공식적인 종교교류 지행 - 자연재해로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사랑의 쌀 보내기'(1990년), '사랑의 의약품 보내기 운동(1991년)의 지원활동 전개 및 '국수공장 설립(1996, 1998년)
2010 이후	-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5.24 조처'를 취해 남북관계와 대북지원 전면 중단 - 순수 종교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2011년 후반부터 부분적인 종교교류 허용

## 제2절 북한사회에서의 종교정책

## 1. 북한 공산주의의 종교적 속성

## 1) 해방 후 북한체제의 정립

- 해방 후 1950년 중반까지 맑스·레닌주의를 거의 그대로 수용(김재현, 1980)
- 소련군에 의해 북한의 공산화 시작, 공산당정권 설립
-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은 북조선노동당의 위원장으로 실질적 지도자로 자리매김
-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분열과정 동안 북한의 체제는 확고해지고 소련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며 주체 사상에 대한 김일성의 입장이 드러남
- 1967년 김일성은 정식으로 수령으로 승인, 김일성의 비인격화 시작
- 주체사상은 10대 강령 지시에 의해 당의 유일사상으로 자리잡기 시작
- 혁명사상으로 주체사상은 선전과 책자, 문학예술가 사업으로 퍼져나가고, 김정일이 직접 관련 사업을 지도
- 이때부터 맑스·레닌주의가 밀려나고 주체사상이 전면에 부각

## 2) 주체사상의 형성

## (1) 주체사상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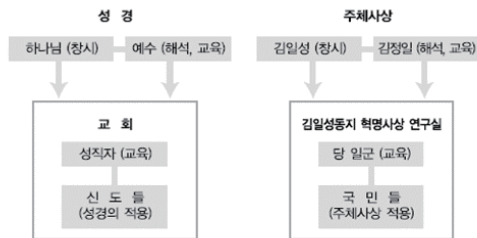
- 1967년부터 김일성 숭배를 전 북한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유일사상 개념 강조
- 1974년 김정일에 의해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 선포되며 주체사상 이론 정립
- 조선로동당 규약과 사회주의 헌법은 주체사상을 당과 국가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강력한지배이데올로기로 주체사상을 활용
- 주체사상의 세 가지 구성요소 (고병철, 1990; 최완규, 1987)
  - 1) 인간중심세계관
  - 2) 근로인민대중집단주의
  - 3) 수령영도론
- 주체사상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외교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로 실제 정책에서 주체성 강조
- 주체사상의 실현
  - 주체사상에 입각한 인간개조론: 계획된 시간생활, 생활총화, 자기비판, 상호비판 등을 통해 성인의 개조가 이루어짐

## (2) 김일성의 종교에 대한 인식

- 김일성이 이론 공산주의적 혁명론
  - 공산당의 논리 외에 모든 것을 부정하는 흑백논리
  - 혁명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인은 타도되어야 할 적 (고태우, 1989)
- 주체사상에 의하면, 혁명은 '타인의 승인,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해 자기가 책임 지고 해야 하며,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외국의 이론과 사상의 모방이 아닌, 그 나라의 주인과 인민이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혁명을 해야 정치, 경제, 국방에서의 자립이 가능
  - 즉, 종교를 주체사상의 경쟁상대로 인식
- 김일성은 종교에 대해 적대적이나 해방 직후 체제정비에 있어 종교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 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종교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북한 정권 창출
- 그 뒤 한국 전쟁을 계기로 종교 말살을 시도하여 공식적인 종교의식, 예배의식, 종교모임은 사라짐

### 제3절 주체사상의 종교화

- 김정일이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10대 원칙’ 선포 & 여러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은 종교적 색채를 띠기 시작
- 문제점 – 김일성에 대한 절대화, 충성심, 나아가서는 ‘신격화’ 시킴
- 주체사상은 영생, 초월적 존재, 낙원 등의 개념을 설파한다는 점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와 닮아 있다.



#### 1. 하나님과 김일성

- 북한에서 김일성 – 주체사상 창시,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를 창시한 시조, 신적인 존재이자 공산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개자
- 기독교의 살아있는 하나님인 예수와 같은 모양새
  - 공산주의 설파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온 예수와 같은 존재

#### 2. 구원과 영생

- 기독교의 구원사상은 북한의 인민해방의 신화와 대비
- 기독교: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있으며, 영혼은 불멸
- 주체사상: 육체(부모가 주신 것)와 사회정치적 생명(수령이 주신 것)으로 나뉘며, 사회적 집단에 속하게 되는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질 수 있음

### 3. 십계명과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 기독교의 10계명과 같이, 주체사상 역시 김일성에 대해 지켜야 할 10가지 원칙을 제시
- 행위규범에 기준이 되는 절대적 규율
- 위반 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기독교의 생활규범보다 훨씬 강력
- 기독교의 여러 형태의 예배의식처럼, 북한 역시 여러 집회가 열림
  - 가장 종교적 성격을 띤 집회가 ‘생활총화제도’
  -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자기 반성의 시간

<표 IV-1> 기독교와 북한의 종교모임 비교

기독교의 집회	집회시간	북한의 모임	모임시간
주일예배	일요일	생활총화	토요일 오전 (또는 오후)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수요강연회	수요일저녁
새벽기도회	새벽 5시	새벽참배	새벽 5시 경
경건의 시간(QT)	아침 일과시간 전	아침독보회	근무전 30분간
가족예배	부분적 시행	가족독보회	부분적 시행
구역예배 (모임)	금요일 (요일변경가능)	인민반회의 (학습)	토요일 오전 혹은 오후, 또는 일요일 저녁(농촌지역은 장마당 전날 저녁)
주간 성경공부	요일 신축적	필요학습원부	필요일저녁(요일변동가능)

- 종교를 구성하는 유사한 형식의 틀에서 주체사상과 기독교는 유사성을 띤다.

## 제4절 북한사회에서의 종교 변화

### 1. 반종교정책

- 해방 직후, 종교 자유를 인정하는 정책 유지하였으나, 한국전쟁 이후 반기독교 성향을 보이며 반종교적 정책 실시
  - 미국에 의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결과, 미국과 연관된 기독교를 미국과 동일시하여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입장 증가
  - 미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목사가 학살에 개입 및 동참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반미, 반기독교 사상을 가짐
- 북한 정부의 탄압과 압력으로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기독교의 세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주민 재등록 사업’ 실시하여 종교사상 성향 분석
  - 종교인과 그 가족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반혁명적으로 규정하고 감시
- 반종교정책을 공격적으로 실시하여 종교의식이나 모임이 사라지게 됨

## 2. 종교이용정책/신종교정책

- 남한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국가에서 종교 자유에 대한 비난
-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북한 내 종교의 자유가 존재함을 보이기 위해 기독교, 불교, 천도교의 종교단체 재조직
- 이는 순수한 종교활동이 아닌, 대외관계의 개선과 통일전선 형성의 목적이었음
- 이후 북한은 종교정책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완화되는 모습을 보임
  - 봉수교회, 장충성당 건축
  - 김일성 종합대학에 종교학과를 신설하여 강의 시작
- 김일성 사망,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시달리며 북한 내 종교활동 증가
  - 중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음
  - 북한 정부 역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적극적인 종교활동 추진
- 반면, 북한 내에서의 종교활동에는 통제
  - 여러 종교활동의 확산으로 북한 주민들이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

## 제 3장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

## 제1절 북한이탈 전 종교생활

### 1. 북한주민의 의식과 가치관

북한주민의 가치관의 변화

-집단주의와 시장경제적 사고의 상충

->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더 이상은 집단주의가 자신들의 생존에 기여할 수 없음을 알게 됨. 따라서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주체사상과 김일성을 구원자로 보는 유일사상과 자신들의 생존은 더불어 갈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혼란을 겪고 있음

## 제1절 북한이탈 전 종교생활

### 2. 북한 내에서의 종교 생활

#### 1) 북한 주민의 종교 인식

송아연: “만약 어떤 집에서 성경책 하나가 나왔다면, 모이는 그런 기미만 보여도 어느새 그 집 방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다 데려가요. 어디로 데려가는지 누구도 몰라요.”  
(2012. 12.09. 면담자료, 기독교 탈북인)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증거

-평양 이외 지역에 교회와 성당 시설이 존재하지 않음

-교회, 성당, 사찰을 해외 종교인과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만 보여주고 주민들의 출입이나 접근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음

-개인차원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탄압한다는 주민들의 증언

(인권백서 2013)

## 제1절 북한이탈 전 종교생활

### 2. 북한 내에서의 종교 생활

#### 2) 탈북 이전 북한 내에서의 종교 경험

연구참여자 박강식의 가족: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 '자유에 대한 갈망',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탈출을 결심->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을 다녀옴->중국에서 목사를 만나 성경과 라디오 반입 후 북한 집에서 몰래 읽음

박강식: "(형이) 두 번째 갔을 때인가,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당을 처음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중략) 북에서 왔다고 하니깐 정말 따뜻하게 후하게 대접을 했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2박 3일 온갖 맛있는 거 대접하고 좋은 옷 사주고. 성경책하고 옷가지나 천이나 달려 같은 것도 지원을 했었고. (성경책은) 처음 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이걸 어떤 책일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렇게 선할 수 있을까? 생전 처음 보는 책이고 물론 내용이 잘 이해되고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2012. 12.09. 면담자료, 기독교 탈북인)

## 제1절 북한이탈 전 종교생활

### 2. 북한 내에서의 종교 생활

#### 3) 중국을 통한 기독교의 북한 선교 노력

연구참여자 김진 선교사 및 김석환 목사: 중국에서 꽃제비, 탈북인들에게 숙식 제공 및 성경 교육, 성경책, 성경MP3 북한으로 반입

김 진: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많이 전달되고... 나왔던 탈북자들 중에서 (북한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 통해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좀 커가지고 많이 들어가진 못해요. 가끔 용기 있는 분들이 들고 가고. 요거는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일부러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2013. 01.11. 면담자료, 기독교 종교인)

김석환: "현재 북한 안에 40만 명 정도의 교인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사역과 선교를 통해서 자생적으로 기독교인이 생겨나고, 순교에 대한 보고도 들어와요.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북한의 다양한 지역의 언더(under)에서 교회가 퍼져 있어요. 이들은 성경을 못 가져가니까 암송해서 가거나, 혹은 책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mp3, mp4로 들어갑니다."

(2012. 11.22. 면담자료, 기독교 종교인)

### 제1절 북한이탈 전 종교생활

#### 2. 북한 내에서의 종교 생활

##### 4) 북한 지하교회의 가능성

지하교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 vs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문장순,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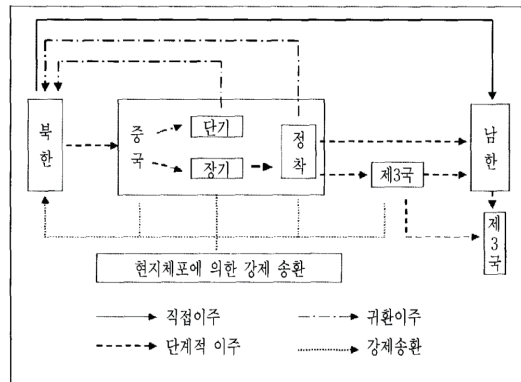
박강식: “북한서 믿음 생활 한다는 건 굉장히 두려웠죠. 발견되는 즉시 온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거기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절대 발각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나 라디오는 항상 옷장 깊숙이 숨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읽고 꼭 숨겨놓고. 위험했지만 그렇게 했어요. 6-7개월 정도.” (2012. 12.09. 면담자료, 기독교 탈북인)

박여사: “북한은 조직적인 봉기가 불가능한 체제이고, ‘가정예배’, ‘지하종교’란 있을 수 없어요. 북한은 거의 조폭 정치 수준이고, 당과 김정일이 우선이라 미신타파 정책을 쓰는데, 그렇게 철두철미한 시스템에서 지하교회를 운영하기는 불가능해요.” (2012.12.02. 면담자료, 불교 탈북인)

가족 단위냐 집단 단위냐의 차이. 지하교회가 존재한다면 박강식의 가족과 같이 단체활동이 아닌 가족들끼리만 조용히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추측이 가능 것이다. 북한 당국 몰래 신앙활동을 하는 것이 지하종교라면 결국 박강식 가족의 경우는 지하종교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

### 제2절 탈북과정에서의 종교경험

#### 1. 탈북 경로와 현황



출처: 문남철(2004).

<그림 > 북한이탈주민 탈북 유형 및 탈북 경로

## 제2절 탈북과정에서의 종교경험

### 2. 탈북 결심

#### 탈북 이유(임순희 외, 2011)

- 자본주의 체득 및 수용
- 체제 자긍심과 최고지도자에 대한 신뢰 약화
- 남한사회의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방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대
- 돈이나 물질 우선의 가치의식

이념형 인간 -> 생계형 인간으로의 변화

## 제2절 탈북과정에서의 종교경험

### 2. 탈북 결심

#### 1) 현실의 깨달음

구집사: “한국에 오게 된 동기는 이래요. 책에 김일성이 사진이 있지요? 그럼 종이를 찢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 찢잖아요, 모르고... 그래도 수용소로 가야 되요. 근데 저는 종이를 사실 고의로 찢은 것도 아니고 모르고 찢었는데 그런 사람들 잡아 가냐? 그런 불만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고... 북한은 아공이에 불 때거 든요. 제가 교과서들을 때기 시작했어요. 교과서에는, 뭐 김일성이 사진도 크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저는 개인의 사진조차도 이렇게 훼손하면 우리 목숨이 죽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생겼어요. 이거는 부당하다, 저는요, 그 때 제 안에 충성이라는 마음이 없었어요.”

(2013. 01.11. 면담자료, 기독교 탈북인)

추위로부터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역설을 견디며 국가의 부당함과 제도와 환경의 낙후함을 깨달음

## 제2절 탈북과정에서의 종교경험

### 2. 탈북 결심

#### 1) 현실의 깨달음

신경숙: “곡괭이질을 하는데, 손이 얼어서 돌에 찢겨져요. 상처가 한 달 동안 가요. (중략) 근데 불을 찌는데, 종이 같은 게 날아가는 거예요. 개성지방이라서 빠라가 항상 있는데, 뭐, ‘북한 인민군 식구들, 올해 여름 계획은 어떻게 짜셨는지요?’ 이렇게 해놓고, 해변가에 아파트도 있고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다가 밑을 봤는데 밴드가 있잖아요? 북한 반창고는 천 같은 건데 돌돌 감게 되어 있었어요. 89년도에. 그 밴드를 그냥 한 번 붙인 걸 일주일 동안 있다가 생각이 나서 풀었는데, 어마, 새 살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남한이 발전하기는 진짜 발전했구나.”

(2013.01.13. 면담자료, 천주교 탈북인)

노동신문에 주로 소개되는 남한에 대한 기사는 사고, 사망, 데모와 같은 논란적인 내용으로 신경숙은 남한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복송된 ‘빠라’에 붙어 있는 밴드를 사용한 뒤 그런 밴드를 만들어내는 남한의 기술에 놀랐음.

## 제2절 탈북과정에서의 종교경험

### 2. 탈북 결심

#### 2) 배신감

신경숙: “장사를 해서 이윤이 나기 시작한 뒤부터 주변에서 막 그냥 뜯어먹으려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수작을 부려서 이사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주거 이동을 할 때 당국에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내가 그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중략) 그런데 보안원의 지시대로 어떤 문건에 빨간색 손도장을 찍었는데, 후에 그 손도장은 노동당연대에 보내지는데 동의한다는 도장이래요. (중략) 내가 얼마나 충실했냐면, 우리 군당 책임비서가 내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변한다고 해도, 내가 확신을 하는데,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만큼 ‘정말 빨강계 무장이 됐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거든요. 감옥에 가야 된다고, 도무지 그 사회에 대한 반항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못살겠다...”

(2013.01.13. 면담자료, 천주교 탈북인)

충성을 다한 자신에게 단 한 번의 실수에 대한 대가가 컸다고 느낀 당시 찾아온 배신감으로 탈북을 결심

## 제2절 탈북과정에서의 종교경험

### 2. 탈북 결심

#### 3) 핍박

박강식: "저희 같은 경우는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었죠. 가정적인 배경부터 따져봐야 하는데요. (중략) 저희 집안은 흔히 북한에서 말하는 성분이 안 좋은 집안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부터. 사실 저희 할아버지, 큰아버지, 저희 집안 어른들 대부분이 북한 정권에 의해 피살당한 그런 경우였어요."  
(2012. 12.09. 면담자료, 기독교 탈북인)

북한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극과 극이었던 신경숙과 박강식이 탈북을 결심한 시점부터는 그 '믿음의 정도'는 차이가 좁혀진다. 믿음의 정도는 생존권을 보장할 만큼의 신뢰도 주지 못하는 나라를 떠나게 만든 계기로 작용

## 제2절 탈북과정에서의 종교경험

### 3. 탈북과정과 종교적 체험

#### 1) “하늘이시여” 비는 마음

구자옥: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바닥에 꺼내놔를 때 펄떡거리다 죽잖아요? 그런 운명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기막혀서 피눈물이 어떤 건지 맛 봤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두 손 들고 허공을 향해서, 하늘이시여, 당신은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당신은 정말로 존재하시는 거 맞습니까

면담자: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자옥: “하늘이시여... 하나님 모르니까요. ‘하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2013. 01.11. 면담자료, 기독교 탈북인)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있다는 칼빈의 말처럼, 삶의 바닥으로 꺼진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찾았다. 김일성이 아닌 하늘을 외쳤다는 것은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

## 제2절 탈북과정에서의 종교경험

### 3. 탈북과정과 종교적 체험

#### 2) 하나님의 존재 인식

구자옥: “(선교사에게 하나님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좀 웃겼어요. 참 웃긴다, 애. 막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뵈냐고 막 따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셨냐고 그러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지도 못하면서 있다는 거는 뭘 가지고 있다고 하나, 이런 식으로 제가 막 논리적으로 따졌어요. 그 어떤 상식과, 어떤 인간적인 이성과 판단 이런 거 가지고 그분을 알려고 애를 썼어요.”  
(2013. 01.11. 면담자료, 기독교 탈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의 씨앗이 머리 한 구석에서 커지기 시작.  
무엇보다 하나님은 한국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월적 도움을 줄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느끼게 됨

## 제2절 탈북과정에서의 종교경험

### 3. 탈북과정과 종교적 체험

#### 3) '거래'로서의 신앙 시작

구자옥: “이 북한에서 도움받자. 우리가 지금 쌀도 다 떨어지고 돈도 일 품도 없는데, 그런 걸 좀 제공받자. 이런 거래의 차원에서 그 선교사님을 받아들였어요. 선교사님이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할 수도 있다고, 그 실수는 잡히는 거다. 잡히는 거는 복성이다. 복성은 죽음이다.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은 실수가 없다. 하나님에 의지해라,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심정은... 막연하게 믿어지지도 않고 증거도 안보이지만... 하나님이 한국 보내 줄 수 있다, 지켜 줄 수 있다, 그 말, 그 말을 붙잡는 게.. 그때는 그만큼 갈급했기 때문에 한국 가고 안전해진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잡았어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확신은 못하지만, 믿음이 없지만 기도를 선택했어요.”  
(2013. 01.11. 면담자료, 기독교 탈북인)

구자옥은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초월적 존재의 힘, 자신도 모르게 '하늘이시여'를 외쳤던 그 때의 '하늘'이 필요했던 것.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가 아닌 의식적인 기도였으나, 필사적이었고, '기적'이 일어났다.

## 제2절 탈북과정에서의 종교경험

### 3. 탈북과정과 종교적 체험

#### 4) 기도예의 의지

구자옥: “저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키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들으시는..’ 뭐 이런 말씀들을 제가 외워가지고 상기해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십시오!’ 막 그랬어요.”

(2013. 01.11. 면담자료, 기독교 탈북인)

신경숙: “저는 지금은 공부를 잘 못하는데 그 때는 힘들 때마다 성경을 막 책상에다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속상하면 생각나는 페이지 펼쳐가지고 읽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튼 성경 속에 길이 있었어요. 읽다 보면 내가 느끼는 거가 있거든요.

(2013.01.13. 면담자료, 천주교 탈북인)

이탈과정에서 기도는 마음의 위안, 안전한 한국행의 보장, 낯선 삶의 위로, 더 나은 삶의 희망을 소원하는 행위. 절박한 순간 구자옥이 하늘을 찾았던 본능이 선교사를 만나고 난 뒤에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본능으로 대체된다. 실체가 없는 ‘어렵곶했던 하늘’이 ‘구체적인 하늘’로 대체된 것이다. 자신의 절박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줄 대상이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지가 보다 명확해졌다.

## 제2절 탈북과정에서의 종교경험

### 3. 탈북과정과 종교적 체험

#### 5) 기적의 회구

구자옥: “우리 딸이, 그 통성기도 하는 시간에 (중략) ‘저 예수님 봤어요’ 하는 거예요. ‘어? ㅇㅇ이 어떻게 예수님 봤어?’ 하니깐 (중략)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 하고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안 생겼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봉쇄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TV를 봐도 기껏해야 백인 흑인, 그것 밖에 모르잖아요. (중략)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데, 그 손끝에서 이렇게 흘러서 자기한테까지 와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그 손으로 ‘내가 너의 길을 밝히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무지개가 떠나고 자기하고 연결됐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무슨 말씀 어디 있다고 하면 다 찾아요, 그 분이. 성경 막 뒤져보시더니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런 말씀 있더라고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하나님이 정말로... 제가 그 환상 보고야 믿었어요. 그전에는 못 믿었어요.”

(2013. 01.11. 면담자료, 기독교 탈북인)

신앙심은 ‘믿자고 마음을 먹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씻기지 않는 의문이 따를 때,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거래하는 마음으로는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힘든 때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적을 눈으로 경험했다고 느낀 순간 의문은 묻히고 신앙은 만개한다.

## 제3절 정착 이후의 종교경험

### 1. 하나원 생활과 종교

#### 1) 하나원 생활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안에는 종교교육도 포함되는데,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치는 동안 이들은 종교를 접할 기회를 가진다. 하나원에는 개신교 목사, 천주교 신부와 수녀, 불교의 승려 등 성직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종교교육의 목표

- ①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종교의 차이 이해) 가지기
- ② 삶과 죽음에 대한 궁극적 물음과 이해
- ③ 일상생활의 여러 문제를 성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 배양
- ④ 이를 통해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교양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기르기

## 제3절 정착 이후의 종교경험

### 1. 하나원 생활과 종교

#### 2) 하나원에서의 종교 선택

##### (1) 종교인에 대한 오해

신경숙: “하나원에서 수녀님들 만났는데 처음엔 무서웠어요. 북한에서 수녀들이 나오는 독일 영화를 봤는데 참 무서웠거든요. 그 때 당시 겨울이라 수녀님들이 검은 옷을 입었거든요. 그 때 독일 영화가 어떤 내용이라면 수녀들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한 어떤 여자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영화가 엄청 무서웠거든요. 그걸 봐서 좀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개신교를 갔어요, 제가. 첫 날에.”

(2013.01.13. 면담자료, 천주교 탈북인)

수녀님: “저희 천주교의 성직자 수도자들은 안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인 거예요. 북한에선 정신병자를 신경환자라고 하는데, 신경환자가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계속 동물원의 원숭이 처럼 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2013.01.10. 면담자료, 천주교 종교인)

## 제3절 정착 이후의 종교경험

### 1. 하나원 생활과 종교

#### 2) 하나원에서의 종교 선택

#### (2) 종교 선택의 기준

##### ① 종교의 친숙성

박강식: “저는 원래 기독교를 믿고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아무래도 기독교 쪽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자주 오는 것 같고, 교회도 많아서 여기저기에서 거의 주일을 정해서 오거든요.”  
(2012. 12.09. 면담자료, 기독교 탈북인)

수녀님: “북한이탈주민 열이다 하면 여섯, 일곱은 개신교와 연결이 된 상태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분들이 순수하고 단순하세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으니까, 종교 이런 거를 떠나서 나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 많이 가고.”  
(2013.01.10. 면담자료, 천주교 종교인)

하나원에서 종교선택의 기준 중 하나는 세 종교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선택보다는 의리로, 혹은 탈북과정에서 이미 기독교를 접했고, 선교사나 목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이들에게 해당

## 제3절 정착 이후의 종교경험

### 1. 하나원 생활과 종교

#### 2) 하나원에서의 종교 선택

#### (2) 종교 선택의 기준

##### ② 다수의 선택 추종

김민석: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며 보는데, 제일 많이 가는 게 기독교예요. 북한식으로 말하면, 뭐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건 뭔가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겠어요.”  
(2012. 12.09. 면담자료, 기독교 탈북인)

신경숙: “처음에는 개신교를 왜 갔냐하면... 아무튼 뭔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는 사람들이 다수일 거다. 정의롭다 하고 갈 것이다, 나쁘다 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쪽으로 막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많이 가는 쪽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한 번 가보자 해서 가봤어요.”  
(2013.01.13. 면담자료, 천주교 탈북인)

다수의 의견을 선택의 준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

### 제3절 정착 이후의 종교경험

#### 1. 하나원 생활과 종교

#### 2) 하나원에서의 종교 선택

#### (2) 종교 선택의 기준

#### ③ 개인적 선택 기준의 중시

신경숙: "제가 천주교로 개종한 이유는, 저는 다른 걸 보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은 가정이 있다. 신부님들은 가정이 없어요.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다 똑같이 불의에 처한 상황이라도 자기 자식부터 챙길 일 없겠다... (중략) 그러나 목사님이라면 정말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 속에 자기 자식이 있다면?... 내 갈아도 내 자식을 돕겠다."

(2013.01.13. 면담자료, 천주교 탈북인)

김민석: "하나원에서 천주교 들어가는 데, 무엇이 나오냐? 북한 노래도 같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하다가 세 번째에는 거기다 예수님을 넣자고 그래요. 근데 난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데리고 노는 감이 탁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천주교는 뭔가 구렁이가 있다' 하는 생각이... 그게 싫은 거예요."

(2012. 12.09. 면담자료, 기독교 탈북인)

종교의 선택은 '이성'과 '감정'이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 제3절 정착 이후의 종교경험

#### 1. 하나원 생활과 종교

#### 2) 하나원에서의 종교 선택

####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교들의 접근방식

박강식: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준다던가 하면 그 교회로 몰리게 되어 있고. (중국에서는 선교사들이) 집을 잡아주고 월세방을 잡아주고, 공부하고, 먹고 살게끔 지원을 해주었죠. 그 분들은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신앙심을 갖게 하고 보호해 주고, 이런 게 목적이었으니까."

(2012. 12.09. 면담자료, 기독교 탈북인)

수녀님: "천주교는 물질적인 건 안 줘요. 왜냐면 이분들이 물질적인 거와 종교를 연결하다보면, 물질이 없으면 종교에 대한 이해, 의미 자체가 완전히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단, 천교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원에서 천주교 20명이 나왔다가, 그럼 또 앞으로 사회 나가서 다니겠냐, 물어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나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2013.01.10. 면담자료, 천주교 종교인)

개신교: 복음주의, 물질과 인간관계맺음의 적극적 선교 -> 다가가는 종교

천주교/불교: 이해와 비물질의 소극적 선교 -> 기다리는 종교

모두 믿음의 신앙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접근의 목적은 같되 그 내용이 다름)

적극성이라는 화두를 두고 두 종교는 '어떻게 적극적이어야 할지'를 생각해볼 필요성

## 제3절 정착 이후의 종교경험

### 2.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제2의 삶과 종교

#### 1) 새 삶에 대한 기대와 생활의 어려움

##### (1)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

구자옥: “설레었어요. 나도 이제는 자유다. 나는 이제 평등하다. 중국에 있을 때는, 야... 내가 불법체류, 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것 때문에, 불안과 공포 때문에 밥 먹어도 목구멍에 넘어가는 거 같지도 않고 그랬는데, 한국에 딱 오니까 자유, 이거 때문에 그렇게 설레고 행복했어요.”

(2013. 01.11. 면담자료, 기독교 탈북인)

##### (2) 한국생활의 어려움

신종하: “북한에 동족들이 왔는데도 사실 관심도 없고, ‘왜 왔냐’ 그런 얘기나 하고. 학교에 가면 ‘김정일이 김일성이 꼬붕이냐?’ 애들도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아이들도 그래서 북한 아이라는 걸 숨기고. 담임 찾아가지고 ‘탈북자’라는 걸 제발 말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이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위축되니까...”

(2012.11.23. 면담자료, 기독교 종교인)

편견과 무시, 외로움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생활에서 흔히 겪는 경험(이순형 외, 2008). 시간이 이러한 문제가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적응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진미정, 이순형, 2006)

## 제3절 정착 이후의 종교경험

### 2.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제2의 삶과 종교

#### 2) 종교의 도움과 신앙생활의 이점

##### (1)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종교의 도움

신종하: “우리 교회 오면 병에 걸린 사람 전부 무료로 치료해줘요. 죽으면 또 장례식 치러주지. 장례식 손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결혼식 주례 해주지, 제주도 신혼여행 보내주지, 합동결혼식 시켜줘서.. 펀드 레이징해서 제주도 신혼여행 보내주거든요. 사실 그런 도움들이 필요하잖아요?”

(2012.11.23. 면담자료, 기독교 종교인)

앞서 수녀님이 말한 ‘상대를 이해하기’는 각 종교에서 이미 실행 중인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다면 기꺼이 거래의 대상이 되어 주겠다는 의지가 보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종교란 신앙과 믿음의 의미가 아니더라도 눈앞의 도움을 넘어서 타국에서의 삶 전반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관.

## 제3절 정착 이후의 종교경험

### 2.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제2의 삶과 종교

#### 2) 종교의 도움과 신앙생활의 이점

##### (2) 신앙생활의 이점

##### ① 마음의 안식처 제공

신경숙: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멋대로, ‘야, 이것들이 우리 탈북자라고?’ 뭐, 이렇게 하고 벗어나게 생각했더라면 내가 적응을 잘할 수 있었겠나? 기도를 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제가 업무 능력에 조금 더 박차를 더 해서 정말 다른 기자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노력, 지혜를 달라던가, 뭐, 그렇게. 속상한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다 사라져요. 진짜예요.”

(2013.01.13. 면담자료, 천주교 탈북인)

종교를 믿는 북한이탈주민들 중 종교를 마음의 안식처로 생각하지 않는 이들은 거의 없다

## 제3절 정착 이후의 종교경험

### 2.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제2의 삶과 종교

#### 2) 종교의 도움과 신앙생활의 이점

##### (2) 신앙생활의 이점

##### ② 나눔과 감사 경험

신경숙: “저는 사심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주는 거는. 저는 나눔다는 거를 그 교리를 배우면서 알았어요. 진짜 아, 서로 나누고 받아들이고... 그니까 나한테 뭔가를 채우려면 뭔가를 비워야 또 찰 수 있잖아요? (중략) 제가 항상 말하는 건 서로 나눔이라던가 용서라던가 배려라던가 이해라던가 이걸 종교에서 안 배웠다... (중략).”

(2013.01.13. 면담자료, 천주교 탈북인)

종교를 통해 신경숙은 나눔과 감사를 알았고 직장 선배로부터 칭찬을 들을 정도로 스스로 성장했다

## 제3절 정착 이후의 종교경험

### 2.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제2의 삶과 종교

#### 3)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회의

박강식: “죽음의 위기를 겪어 봐서 다 신앙심이 깊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북에서 온 사람들도. 중국에 가서 다 교회 도움 받고 거기서 성경 많이 읽고 이런 사람이 태반,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냐,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 많죠. 단지 교회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물질적인 경제적인 지원이나 받고. 그건 신앙심이라기보다는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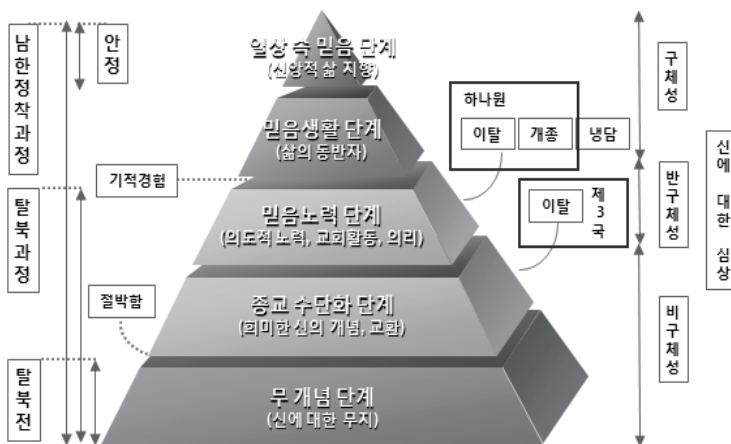
(2012. 12.09. 면담자료, 기독교 탈북인)

송아연: “타국에 있을 때는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그랬거든요. 신앙을 붙들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도 잘하고 재밌게 생활했었는데,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웬지 모든 것이 다 풀리면서, 긴장 했던 것이 다 풀리고, 할 것도 많아요. 대학교 다녀도 우리가 늦은 나이 학교 들어갔는데, 따라가자면 진짜 악을 품고 해야 되는데,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교회 계속 나오라 해봐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2012. 12.09. 면담자료, 기독교 탈북인)

‘목숨을 지키고픈 안전의 욕구’를 뛰어넘었으나 그와 반비례해서 신앙의 정도는 낮아졌다. 이것은 ‘세상 밖으로 나와’ 자기 삶을 찾은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앙심에 대한 고민일 지도 모른다.

## 제4절 소결



[그림]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앙 변화 단계

## 제 4장 북한이탈주민의 회심과 갈등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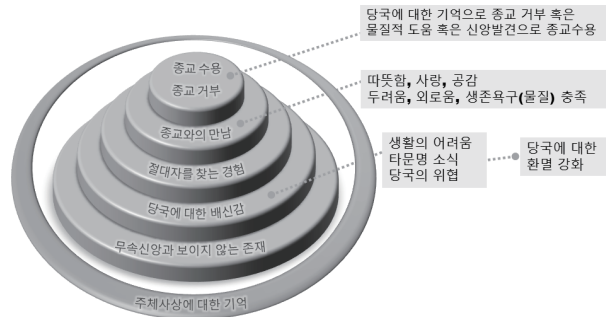
제 5장

제 6장

###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와 이념의 갈등

#### 1. 종교의 수용, 거부

주체사상적 구조를 체화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그 유사한 구조에 의해 기독교 교리를 더욱 쉽게 받아들이는가(종교수용), 혹은 반대로 주체사상의 허구를 체험하고 북한을 떠난 이들이기에 오히려 그와 유사한 구조의 기독교 교리를 거부하는가(종교거부)에 대한 논의



##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와 이념의 갈등

### 1. 종교의 수용, 거부

#### 1) 교리이해

주체사상적 구조와 기독교 교리의 구조가 유사하여 종교의 형식 이해에는 도움

박선교사: “근데 이해는 굉장히 빠르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이나 교리 같은 거 공부할 적에 학습을 꽤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이해를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죠. (중략) (구조가 같아서) 더 인식을 더 쉽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2013. 2. 25. 기독교 선교사)

그러나 교리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신앙을 가질 수는 없다.  
기독교의 종교의식이나 가치관과 수령교의 유사함이 북한주민들의 흥미를 단기적으로 끌 수 있어도 지속적인 신앙생활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다(김병욱 외, 2010)

##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와 이념의 갈등

### 1. 종교의 수용, 거부

#### 2) 종교수용 혹은 거부

박강식: “역작용도 있다고 봐야죠. 북한에서 그동안 아주 철저하게 믿었던 어떤 거기서부터 배신감을 당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그 믿음을 갖는다는게 어쩌면 방해가 될 수가 있죠. 기존에 믿었던 어떤 주체사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012. 12.09. 면담자료, 기독교 탈북인)

김 진: “예수를 영접하는 거가 좀 다른 문젠데, 예를 들어 이런 구조체제에서 있으셨다가, 비슷한, 그러니까 이걸 싫어하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구조체제를 혐오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비슷한 체계를 요구한다고 할 적에 역반응이라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교회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죠.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되시는 분들도 있고. 꼭 이거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2013. 01.11. 면담자료, 기독교 종교인)

북한에서 절대적 믿음에 대한 상실감으로 배신과 혐오를 경험. 북한체제와 유사한 교회의 체계에 대한 반감이 나타남. 한국 종교에서 느껴지는 지위와 권력, 권위를 마주하며 북한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남

##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와 이념의 갈등

### 2. 종교수용의 어려움과 용이성

#### 1) 종교수용의 어려움

탈북인이 종교를 수용하는 조건과 이유와 기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원리의 두 주체가 바뀌는 것만으로는 탈북인의 종교수용을 설명하기는 어려움. 대체 가능성 논리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① 김일성과 신의 차이

북한 주민들은 신과 김일성을 구분하고 있었음. 탈북인들이 주체사상의 김일성을 종교 교리의 하나님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음

##### ② 교리의 어려움으로 단순 대체가 되지 않음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움은 김일성을 신으로 대체하는 것을 방해하고, 쉬이 대체하지 못하게 함.

##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와 이념의 갈등

### 2. 종교수용의 어려움과 용이성

#### 2) 종교수용의 용이성

신에 대한 이해가 낮음에도 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밑바탕이 발견됨.  
북한 주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심상을 이미 가지고 있음. 물을 떠놓고 비는 행위나 굿, 푸닥거리, 무속신앙, 사주와 같은 민간신앙이 북한에는 만연함.

##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와 이념의 갈등

### 2. 종교수용의 어려움과 용이성

### 3) 종교수용의 과정

대체가 아닌 주체사상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지워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논의

(밑바탕)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심상이 자리하고 있음

- ① 북한 체제에 대한 실망과 반감
- ② 절대자를 찾는 경험
- ③ 종교와의 만남(따뜻함, 사랑, 외로움, 생존욕구(물질) 충족)
- ④ 종교 수용

※ 이전 경험한 절대적 믿음에 대한 배신감, 북한에서의 무신론 교육 등은 종교 거부로 이어지기도 함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생활에서의 갈등

### 1. 회심(종교수용) 과정의 개인 내면적 갈등

### 1) 교리 이해의 어려움

김나리: “북한의 주체사상과 하나님의 설교가 똑같다는 거는 신격화하고 신이라는 존재로 표현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그 내용은 전혀 다르죠. 야곱이나 요르단 강이니 이런 거 저는 전혀 몰라요 처음 들어본거고 (종략..) 귀가 질벽인거야. 안들어와요. 도대체 무슨 소린지 별도로 공부하고 제가 지부장 그런거 말아서 남들보다 공부를 조금 더 해도 하나도 없어 머리에. 교리같은 것들이 이해가 안가고 전혀 무슨 말인지 생똥 맞고.”

(2013. 9.18. 탈북인 면담자료)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교리가 구조만 유사하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르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매우 생소하게 다가옴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생활에서의 갈등

### 1. 회심(종교수용) 과정의 개인 내면적 갈등

#### 2) 북한에서의 경험, 교육의 영향

김나리: “(신에 대한) 의심이 들죠. 북한에서 김일성이라는 그 한 사람을 믿고 완전히 신격화하고 그런 사회였는데.. 이 사람은 항상 건강하고 햇빛 넘치는 밝은 이런 그림같은 존재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죽었어. 아프단 말도 없이 갑자기 뭐 김일성 동지께서 뭐 우리 곁을 떠나고 사망. 아 그때 사람들이 그런거죠 아 이 사람은 사람이구나 우린 이 사람을 죽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뭐 아주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인간이었구나 죽었구나 뭐 그때부터는 신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와서 우리가 본 사람도 가짜라고 봤는데 가짜라는 믿음이 있는데 지금 보이지도 않고 요르단 강을 넘어서 무슨 십자가에 못박혀 이거 뭐 저는 안믿어져요. (중략..) 일단은 허구라는걸 이미 한번 경험했고, 북한에는 하나님이었다고 교육받았고 와서 보니까 교회마다 각각 다른 말을 하잖아요 너네 이단이고 우린 ... 개신교는 감리교에 장로교에 엄청.. 뭐 다 틀리고 그리고 아까처럼 목사님들이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전달하는 방식이 다르고 저는 안믿어져요”

(2013. 9. 18. 탈북인 면담자료)

주체사상에서 신적 존재로 추앙되었던 김일성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 종교는 마약이며 하나님은 없다라는 북한에서의 교육이 영향을 미침. 다양한 개신교의 종파도 신적 존재에 대한 의심을 부추김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생활에서의 갈등

### 2. 종교생활과 종교적 실천에서의 갈등

#### 1) 종교생활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박선교사: “북한의 이런 구조체제에서 있으셨다가, 비슷한, 그러니까 이걸 싫어하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구조체제를 혐오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비슷한 체계를 요구한다고 할 적에 역반응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죠.”

(2013. 2. 25. 기독교 선교사)

김나리: “안나오면 왜 안나오냐 목장예배 나와라 안나오면 가정방문 하겠다 안나오면 다음주에 나오겠다. 이 뭐 너무 부담스러운거예요. 일요일마다 니 가나 안가나 아침마다 나와서 야 지금 차왔는데 너 지금 나오라 이게 이거는 완전 하나의 모임이에요. (중략..) 여기 사람들은 오란말 안해도 막 그렇게 가는데 우리 탈북자들은 아니야 그래서 대부분 말 하는거 보면 북한에서 그 생활이 싫어서 왔는데. 오라 가라 나와라 왜 안오니 비판하고 그거 싫어서 왔는데 여기 회가 딱 그거를 하는거예요.”

(2013. 9. 18. 탈북인 면담자료)

이미 북한 체제에서 경험한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체제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기독교의 관리와 체제에 반감을 느끼고 부담스러워 함

- 의무적으로 느껴지는 교회참석
- 지정된 시간에 북한이탈주민 예배에 참석해야 함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생활에서의 갈등

### 2. 종교생활과 종교적 실천에서의 갈등

#### 2) 예배, 기도 등 종교의식들이 생소함

정혜옥 : “아 그때는 안돼조 처음에는 기도가 뭔지 처음엔 중국에는 신자들이 오면 집사님들이 많이 도와줘요 잘 모르기 때문에 주기문하고 사도신경을 많이 외우라고 그리 하면서 기도 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을 붙여주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나한테는 안해도 하나님한테는 솔직해야 한다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 (중략..) 그래서 처음에는 잘하던 못하던 기도만 하면 평평 울다 오던 때가 많았어요.”  
(2013. 8. 20. 탈북인 면담자료)

북한이탈주민들이 종교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서 예배나 기도 등의 종교의식들이 생소하게 느껴짐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생활에서의 갈등

### 2. 종교생활과 종교적 실천에서의 갈등

#### 3) 종교생활의 열의 감소

송아연 :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타국에 있을 때는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힘들고 하면 아무튼 그 어떤 신앙을 붙들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도 잘하고 재밌게 생활했었는데,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왠지 모든 것이 다 풀리면서, 긴장 했던 것이 다 풀리고, 이 사회는 북한이랑 다르니까 정신상태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2012. 12.09. 면담자료, 기독교 탈북인)

정혜옥: “참 그런데 한국에 나오니까 게을러지는 건 있더라고요 여기에 와서는 돈 때문에 돈돈 하느라 새벽기도를 한번 해보기를 하겠나 새벽에는 5시 조금 넘으면 저는 출발하거든요 내 댁에는 혼자서 종일거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하고는 다르지요.”  
(2013. 8. 20. 탈북인 면담자료)

종교를 수용한 경우에도 한국에 정착하기 전에 절박했던 상황에서보다 한국에 정착 후 신앙 생활이 느슨해짐  
- 심리적인 안정  
- 경제활동 또는 학업 등에 치중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생활에서의 갈등

### 2. 종교생활과 종교적 실천에서의 갈등

#### 4) 종교생활이 종교단체가 주는 경제적 지원에 의해 많이 좌우됨

정혜옥: “그런데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공동체에서는 없는데 다른 공동체에서는 뭐가 막 나온다고 하면 막 그쪽으로 옮겨요 제가 지금 OO교회를 다니는데 (중략..) 교통비는 지불해줘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도 그만큼 액수는 다 줘요 그러니까 이걸 뭐 가까운데 다니면 그 돈이 그대로 남잖아요 가까운데 걸어서 다니면 운동도 되고 돈도 받고 그래서 멀리 다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이번주는 이 교회 다음주는 저 교회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없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어디서 뭐 준다하면 다니는거죠.” (2013. 8. 20. 탈북인 면담자료)

김나리: “근데 이제 탈북자 선교를 하는 교회들이 대체로 알아요 탈북자들이 이 교회가 아침 11시부터 12시까지 설교를 하고 저 교회가 3시부터 4시까지 설교를 하면 탈북자들이 주일에 3개, 4개 교회를 가요. 그래서 교인이나까 말을 못하는 거요. (중략..) 그 사람들은 한달에 15만원도 벌고..”

(2013. 09. 18. 탈북인 면담자료)

북한이탈주민들의 종교생활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나 물질적 지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는 교회로 몰려가거나 물질적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교회를 동시에 다니기도 함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생활에서의 갈등

### 2. 종교생활과 종교적 실천에서의 갈등

#### 5) 11조, 헌금, 선교 등의 종교적 실천의 어려움

정혜옥: “사람마다 다른데 저도 힘들 때는 주일날에 빠질때도 있고 헌금 안하고 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 가면 바꾸니를 돌려줘요 그러니까 다른 천원이라도 그런데 그렇게 해도 못내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보편은 연세 있는 분들. 그리고 반갑같은거는 아닌데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교포(조선족)들은 그런것 때문에 교회를 못가겠다 그리고 우리 탈북인들 중에도 많이는 아닌데 조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부담으로 교회 다니기 힘들어하는.” (2013. 8. 20. 탈북인 면담자료)

정혜옥: “제가 보니까.. 전도사쯤 되면 월급이 나오니까 교회에서 그걸 목적으로 전도를 하는 분들도 있고 (중략..) 좀 쉽게 선교를 하면서 교회에서 지원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초반에는 자기 믿음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처음에는 직장 구입도 안되고 내가 도대체 이렇게 힘들니까 이쪽으로 뻗어보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 쪽으로는 별로 없으면서 시작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빠져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내가 힘들니까 그렇게 갔다가 본인이 파묻혀 버리는거죠.” (2013. 8. 20. 탈북인 면담자료)

한국의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적 실천은 매우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남. 종교적 신념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러한 종교적 실천이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며, 때로는 종교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목적으로 선교(전도)에 관심을 가지기도 함.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생활에서의 갈등

### 3. 종교공동체에서의 관계적 갈등

#### 1) 한국 교인들과의 갈등

박목사님: “중국에 왔을 때 만난 선교자들은 탈북자들 돕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탈북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낮이고 밤이고 이야기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정말 쓸 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꿈을 안고 한국에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원에서 끝나고 나오잖아요. 교회 찾아오잖아요. 아무도 자길 위해서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2013. 7. 14. 기독교 목사님)

정혜옥: “한국 교회들이 너무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쟈 처음에 느꼈던 거였어요 중국은 있지 주말날 아침에 딱 환영한다고 써서 입구에 두 분이 서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낯설은 분이 교회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거예요 (중략..) 한국에 와서는 교회에서 처음에 저 1년 동안에는 뽀뽀이 다녔어요 그저 목사님들에게만 인사하고 저희 팀에서만 앉아서 얘기하고. (중략..) 그런데 어느날인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저는 너네 우리를 당기지 않는데 왜 내가 먼저 다가가 이렇게 그게 이렇게 우리 자존심이고 우리는 탈북이라는 그 단어 하나를 하나 앞에 막아놓고 그거를 넘어가려고 못하더라고요.” (2013. 8. 20. 탈북인 면담자료)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 교회의 따뜻함과 호의, 환영을 크게 기억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목사들과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다가오고 포용해주시기를 원하지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부족한 모습들을 보임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생활에서의 갈등

### 3. 종교공동체에서의 관계적 갈등

#### 1) 한국 교인들과의 갈등

정혜옥: “북한말하고 한국말이 너무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상처를 입어요 그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게 아닌데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게 아닌거예요 (중략..) 우리는 새터민인데 우리는 못배워와서 우리는 뭔가 부족해서 이걸 나자신을 부족한 면을 자꾸 씌워놓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걸 까다롭게 받아들여져요. (중략..) 근데 우리끼리 통화할 때는 너 이번주 왜 안왔어? 이렇게 해도 우리끼리는 별로 문제 안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한국분들이 왜 이번주 안오셨어요? 그러면 그게 이상하게 들리는거지? 딱 내가 가야돼나? 내가 안갔는데 어쩔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거죠 헤어놓고 보면은 별 그런데 아닌건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있고.” (2013. 8. 20. 탈북인 면담자료)

정혜옥: “우리 새터민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헤치면은 다 아픈 상처가 있어가지고 가족만 헤치면 울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제일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은 왜 남의 신분 캐논지? 그러면 아니요 그러고 낯색이 싹 굳어지고 그러면 있지 그 상대방이 더 못물어보죠.” (2013. 8. 20. 탈북인 면담자료)

북한과 한국의 말의 어감이 달라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함. 한국 교인들이 무심결에 가족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은 많은 상처를 받음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생활에서의 갈등

### 3. 종교공동체에서의 관계적 갈등

#### 2) 북한이탈주민 교인들과의 갈등

정혜옥: “한달에 한번 모이는데 거기에 예배 끝나면 선물을 줘요. 뭔가 크던 작던 근데 이제 뭐 그 상품이 똑같은 수만은 없잖아요 똑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뭔가 섞여 있을 때는 다 그 좋은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이 뭔가 나를 생각해서 좀 내놔다가 나를 좀 주면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는거야 왜 재는 저라고 나는 이러지. 그리고 어디서 초대를 했다 그러면 너도 불렀어? 그러면 초대를 못받은 아이는 또 상처받고.. (중략..) 우리는 없이 살았어서 아직도 한끼 먹으면 다음 끼를 걱정했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만한데서 만족을 못느끼는거죠. 아직도 여기 꼭 차 있어야 하는데 차지 않는 그게 있어가지고 자꾸 쌓여놓고 싶은 것..”

(2013. 8. 20. 탈북인 면담자료)

북한이탈주민들은 극심한 빈곤과 이탈 과정의 생존적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임. 북한이탈주민들은 물질적 자원에 굉장히 민감하고, 하나라도 더 가져다가 쌓아놓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북한이탈주민 교인들 간의 갈등이 생김.

##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신앙유형

### 1. 종교성향에 따른 유형 구분

Allport 외(1967)의 종교성향에 기반한 Hood의 신앙유형

		외현적(y)	
		낮음	높음
내재적(x)	높음	내재적 성향	친종교적 성향
	낮음	반종교적 성향	외현적 성향

###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신앙유형

#### 1. 종교성향에 따른 유형 구분

<표 > Hood의 신앙유형에 기반한 북한이탈주민의 네 가지 신앙유형

	외현적 종교성향		
		낮음	높음
내재적 종교성향	높음	경직된 전형(1)	유연한 참여(2)
	낮음	비정기적 참여(3)	도구적 이용(4)

###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신앙유형

	외현적 종교성향		
		낮음	높음
내재적 종교성향	높음	경직된 전형(1)	유연한 참여(2)
	낮음	비정기적 참여(3)	도구적 이용(4)

1) 경직된 전형유형

2) 유연한 참여유형

3) 비정기적 참여유형

4) 도구적 이용유형

회심의 측면에서 누구보다 종교를 믿고, 일상에서도 종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유형

특징: 일상과 종교가 일체된 삶

##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신앙유형

	외현적 종교성향	
	낮음	높음
내재적 종교성향	높음	경직된 전형(1)    유연한 참여(2)
	낮음	비정기적 참여(3)    도구적 이용(4)

1) 경직된 전형유형

2) 유연한 참여유형

3) 비정기적 참여유형

4) 도구적 이용유형

신앙의 정도, 일상과 신앙의 일체감 등은 '경직된 전형 유형'과 유사하지만 '직장이나 학교 등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종교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특징: 믿음이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기복이 있음

##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신앙유형

	외현적 종교성향	
	낮음	높음
내재적 종교성향	높음	경직된 전형(1)    유연한 참여(2)
	낮음	비정기적 참여(3)    도구적 이용(4)

1) 경직된 전형유형

2) 유연한 참여유형

3) 비정기적 참여유형

4) 도구적 이용유형

정기적으로 종교생활에 임하지는 않으나 간혹 종교단체 주관으로 열리는 세미나 및 캠프와 같은 행사에만 참여하는 유형. 종교로부터 물질이나 정서적 안정감의 제공을 바라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종교에 완전한 회의감을 가지지도 않는 경우

##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신앙유형

	외현적 종교성향	
	낮음	높음
내재적 종교성향	높음	경직된 전형(1) 유연한 참여(2)
	낮음	비정기적 참여(3) 도구적 이용(4)

1) 경직된 전형유형

2) 유연한 참여유형

3) 비정기적 참여유형

4) 도구적 이용유형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신앙이 깊다고 볼 수 없고,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이유가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외로움을 극복하거나 장학금 등의 지원금을 받는 등 종교를 도구적 목적으로 활용

## 제 5장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와 정신건강 및 사회적응

##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생활 및 종교성 실태

## 1) 종교 유무, 종교를 가진 시기, 종교 모임 참여 정도

&lt;표&gt; 북한이탈주민의 현재 종교

구분		빈도	퍼센트
종교 있음	개신교(기독교)	134	46.69
	천주교	81	28.22
	불교 및 기타	12	4.18
종교 없음		60	20.91
총합		287	100

&lt;표&gt; 종교를 가진 시기(N=227)

구분	빈도	퍼센트
북한에서부터	3	1.76
이탈과정에서	31	18.24
남한에서부터	131	77.06
기타	5	2.94
총합	170 (57)	100.00

##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생활 및 종교성 실태

## 1) 종교 유무, 종교를 가진 시기, 종교 모임 참여 정도

&lt;표&gt; 신앙생활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N=226)

구분	빈도	퍼센트
열심이지 않음	20	8.85
믿음이 약함	42	18.58
보통 수준	86	38.05
약간 열심임	48	21.24
매우 열심임	30	13.27
평균 (표준편차)	3.11 (1.13)	범위 1-5

&lt;표&gt; 종교를 가진 시기와 종교모임 참여 정도 (N=161)

구분	평균	표준편차
북한에서부터	1.67ab	.58
이탈과정에서	2.00a	1.05
남한에서부터	3.05bc	1.92
F	4.83**	

##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생활 및 종교성 실태

## 2) 종교의 기능과 외현적, 내재적 종교 성향

&lt;표4-15&gt; 외현적, 내재적 종교성향(N=235)

집단구분	외현적 종교성향		내재적 종교성향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신교	3.29	.60	3.33	.74
가톨릭	3.19	.37	3.30	.59
불교 및 기타	3.13	.54	2.92	.71
전체	3.24	.52	3.30	.69
<b>F</b>	1.22		1.97	

##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생활 및 종교성 실태

## 2) 종교의 기능과 외현적, 내재적 종교 성향

&lt;표4-16&gt; 외현적, 내재적 종교성향: 회귀분석 결과

	외현적 종교성향		내재적 종교성향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성별(1=여성)	-.09	.08	-.12	.09
연령(세)	.01**	.003	.02***	.003
결혼지위(1=기혼)	.04	.08	.02	.09
탈북 후 기간	-.01	.01	-.001	.01
입국 후 기간	.004	.01	-.02	.02
종교: 가톨릭 <sup>1)</sup>	-.05	.08	.05	.09
종교: 불교	-.08	.17	-.09	.20
종교 모임 빈도	.04+	.02	.11***	.03
종교 교리 이해도	-.02	.03	.22***	.04
상수	3.18***	.19	2.42	.23
<b>F</b>	2.36*		9.48***	
adj. R2	.05		.26	
<b>N</b>	221		218	

외현적 종교성향:  
종교모임 참여빈도와 약한 정적 상관  
관계( $\beta=.04, p=.08$ )

내재적 종교성향:  
종교모임 참여 빈도와 교리 이해도와  
정적인 상관관계

즉, 종교 모임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  
아질수록( $\beta=.11, p=.000$ ), 교리 이  
해도가 높을수록( $\beta=.22, p=.000$ ) 내  
재적 종교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남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와 정신건강

## 1. 정신건강

<표> 정서적 웰빙: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성별(1=여성)	.17	.17	.09	.18
연령(세)	-.001	.01	-.001	.01
결혼지위(1=기혼)	.51**	.16	.42*	.17
탈북 후 기간	.01	.02	.01	.02
입국 후 기간	-.01	.03	-.01	.03
종교 유무(1=종교 있음)	.30+	.18	-	-
종교: 가톨릭 <sup>1)</sup>			.21	.18
종교: 불교			.56	.38
외현적 종교성			-.37*	.19
내재적 종교성			.58***	.16
종교 모임 빈도			.10+	.05
종교 교리 이해도			.21*	.09
상수	1.89***	.30	1.05	.66
F	2.80*		6.00***	
adj. R2	.04		.20	
N	290		218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와 정신건강

## 1. 정신건강

<표> 사회적 웰빙: 회귀  
분석 결과

	모형 1		모형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성별(1=여성)	-.08	.15	-.05	.18
연령(세)	.004	.01	.01	.01
결혼지위(1=기혼)	.31	.15*	.16	.17
탈북 후 기간	-.004	.01	-.002	.02
입국 후 기간	-.02	.03	-.03	.03
종교 유무(1=종교 있음)	.10	.17	-	-
종교: 가톨릭 <sup>1)</sup>			.26	.17
종교: 불교			.16	.37
외현적 종교성			-.19	.18
내재적 종교성			.50**	.16
종교 모임 빈도			.08	.05
종교 교리 이해도			.23**	.08
상수	2.10	.30	.57	.65
F	.98		4.87***	
adj. R2	.00		.16	
N	291		220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와 정신건강

## 1. 정신건강

&lt;표&gt; 심리적 웰빙: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성별(1=여성)	.06	.16	.01	.18
연령(세)	-.001	.01	-.00	.01
결혼지위(1=기혼)	.47**	.15	.42*	.17
탈북 후 기간	-.02	.01	-.01	.02
입국 후 기간	.00	.03	-.01	.03
종교 유무(1=종교 있음)	.15	.17	-	-
종교: 가톨릭 <sup>1)</sup>			.17	.18
종교: 불교			.17	.38
외현적 종교성			-.17	.19
내재적 종교성			.44**	.16
종교 모임 빈도			.04	.05
종교 교리 이해도			.24**	.09
상수	1.89***	.28	1.13***	.67
F	2.06*		4.18***	
adj. R2	.04		.14	
N	291		220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와 정신건강

## 1. 정신건강

&lt;표&gt; 회복탄력성: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성별(1=여성)	-.02	.08	-.01	.09
연령(세)	-.004	.003	-.01+	.00
결혼지위(1=기혼)	.35***	.08	.29**	.08
탈북 후 기간	.01	.01	.01	.01
입국 후 기간	-.02	.01	.00	.02
종교 유무(1=종교 있음)	.10	.09	-	-
종교: 가톨릭 <sup>1)</sup>			.07	.09
종교: 불교			.21	.19
외현적 종교성			-.16+	.09
내재적 종교성			.25**	.08
종교 모임 빈도			.01	.03
종교 교리 이해도			.07	.04
상수	1.89***	.28	2.88***	.33
F	2.06*		3.94***	
adj. R2	.04		.13	
N	291		219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와 정신건강

## 2. 정신건강 문제

<표> 정신장애 증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성별(1=여성)	-.09	.27	-.20	.35
연령(세)	.02*	.01	.02	.01
결혼지위(1=기혼)	-.48+	.26	-.72*	.33
탈북 후 기간	-.03	.03	-.04	.03
입국 후 기간	.01	.05	.07	.06
종교 유무(1=종교 있음)	.13	.29	-	-
종교: 가톨릭 <sup>1)</sup>			-.44	.33
종교: 불교			-.52	.72
외현적 종교성			.66+	.39
내재적 종교성			-.50	.32
종교 모임 빈도			-.24*	.11
종교 교리 이해도			-.20	.16
상수	-.35	.28	-.48	1.28
LR chi2	8.95		31.93***	
N	293		220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와 정신건강

## 2. 정신건강 문제

<표> 정신과 약물 복용: 로  
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성별(1=여성)	.58	.36	.70	.43
연령(세)	.01	.01	-.001	.02
결혼지위(1=기혼)	-1.08**	.35	-1.32**	.43
탈북 후 기간	-.00	.03	-.01	.04
입국 후 기간	-.01	.06	.03	.07
종교 유무(1=종교 있음)	.22	.38	-	-
종교: 가톨릭 <sup>1)</sup>			-.17	.40
종교: 불교			-1.22	1.12
외현적 종교성			.94+	.50
내재적 종교성			-.34	.41
종교 모임 빈도			-.11	.13
종교 교리 이해도			-.19	.19
상수	-2.03	.61	-.48	1.44
LR chi2	16.57*		22.95*	
N	293		220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와 정신건강

## 3. 탈북 후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

<표> 긍정적 변화: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성별(1=여성)	.07	.09	.11	.11
연령(세)	-.01*	.00	-.01*	.00
결혼지위(1=기혼)	.44***	.09	.38***	.10
탈북 후 기간	.01	.01	.01	.01
입국 후 기간	-.02	.02	-.02	.02
종교 유무(1=종교 있음)	.09	.10	-	-
종교: 가톨릭 <sup>1)</sup>			.11	.10
종교: 불교			.29	.22
외현적 종교성			-.08	.11
내재적 종교성			.34***	.09
종교 모임 빈도			-.00	.03
종교 교리 이해도			.11*	.05
상수	3.75***	.17	2.62***	.39
F	4.72***		6.20***	
adj. R2	.07		.21	
N	291		220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와 정신건강

## 3. 탈북 후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

<표> 부정적 변화: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성별(1=여성)	-.11	.11	-.14	.13
연령(세)	.01	.00	.001	.01
결혼지위(1=기혼)	-.48***	.10	-.46***	.12
탈북 후 기간	.001	.01	-.001	.01
입국 후 기간	.01	.02	.02	.02
종교 유무(1=종교 있음)	-.01	.12	-	-
종교: 가톨릭 <sup>1)</sup>			-.31*	.12
종교: 불교			-.38	.26
외현적 종교성			.31*	.13
내재적 종교성			-.23*	.11
종교 모임 빈도			-.02	.04
종교 교리 이해도			-.11+	.06
상수	2.48***	.20	2.69***	.47
F	3.88***		4.68***	
adj. R2	.06		.16	
N	291		220	

##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와 사회 적응

## 1. 북한 지향성과 남한 지향성

&lt;표4-30&gt; 종교 유형별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지향성

집단구분	평균	표준편차	F
개신교	2.41	.49	1.29
가톨릭	2.28	.50	
불교 및 기타	2.26	.57	
종교 없음	2.32	.47	
Total(N=293)	2.35	.49	

##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와 사회 적응

## 1. 북한 지향성과 남한 지향성

<표> 북한 지향성: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성별(1=여성)	-.07	.06	-.07	.07
연령(세)	.004+	.002	.003	.003
결혼지위(1=기혼)	-.07	.06	-.03	.07
탈북 후 기간	-.02**	.01	-.02**	.01
입국 후 기간	.04***	.01	.05***	.01
종교 유무(1=종교 있음)	.03	.07	-	-
종교: 가톨릭 <sup>1)</sup>			-.13+	.07
종교: 불교			-.11	.15
외현적 종교성			.15+	.07
내재적 종교성			-.13+	.06
종교 모임 빈도			-.01	.02
종교 교리 이해도			.01	.04
상수	2.20***	.12	2.42***	.27
F	3.41**		3.28***	
adj. R2	.07		.10	
N	291		220	

##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와 사회 적응

## 1. 북한 지향성과 남한 지향성

&lt;표4-32&gt; 종교 유형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지향성

집단구분	평균	표준편차	F
개신교	3.24	.43	0.45
가톨릭	3.22	.52	
불교 및 기타	3.24	.51	
종교 없음	3.15	.46	
Total(N=293)	3.21	.47	

##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와 사회 적응

## 1. 북한 지향성과 남한 지향성

<표> 남한 지향성: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성별(1=여성)	.12*	.06	.15*	.07
연령(세)	.002	.002	.00	.00
결혼지위(1=기혼)	.05	.06	.06	.07
탈북 후 기간	.01	.01	.01	.01
입국 후 기간	-.02*	.01	-.03*	.01
종교 유무(1=종교 있음)	.06	.07	-	-
종교: 가톨릭 <sup>1)</sup>			-.01	.07
종교: 불교			.03	.15
외현적 종교성			-.02	.07
내재적 종교성			.19**	.06
종교 무임 빈도			.03	.02
종교 교리 이해도			.03	.03
상수	3.01***	.12	2.42***	.26
F	2.65**		3.15***	
adj. R2	.03		.10	
N	291		220	

##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와 사회 적응

## 2. 남한생활 적응

&lt;표&gt; 종교 유형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적응

집단구분	평균	표준편차	F
개신교	3.47	.69	2.25
가톨릭	3.69	.66	
불교 및 기타	3.46	.64	
종교 없음	3.64	.57	
Total(N=293)	3.57	.65	

##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와 사회 적응

## 2. 남한생활 적응

<표> 남한사회 적응: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성별(1=여성)	-.03	.09	-.11	.10
연령(세)	-.01*	.03	-.01*	.003
결혼지위(1=기혼)	.10	.08	.07	.10
탈북 후 기간	.003	.01	.003	.01
입국 후 기간	.01	.01	.01	.02
종교 유무(1=종교 있음)	-.04	.09	-	-
종교: 가톨릭 <sup>1)</sup>			.16	.10
종교: 불교			.21	.21
외현적 종교성			-.09	.11
내재적 종교성			.24**	.09
종교 모임 빈도			.04	.03
종교 교리 이해도			.09+	.05
상수	3.77***	.16	3.12***	.37
F	1.56***		3.48+	
adj. R2	.01		.11	
N	292		220	

**제4절 소결**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94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대다수는 남한에 정착한 이후 종교를 가짐

종교를 가지고 있을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이 1세 높아질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3% 증가,  
-입국 후 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종교가 있을 확률은 11% 감소

정신건강(정신적 웰빙, 회복탄력성, 정신장애 증상 유무)  
-정신적 웰빙의 수준이 높지 않은 반면(평균 2.48점)  
-회복탄력성은 그보다 높은 수준(평균 3.35점).

정신적 장애  
증상이 있는 집단은 총 158명(53.7%)이고, 증상이 없는 집단은 136명(46.3%)  
최근 한 달 이내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64명  
(21.77%)  
이러한 정신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제4절 소결**

사회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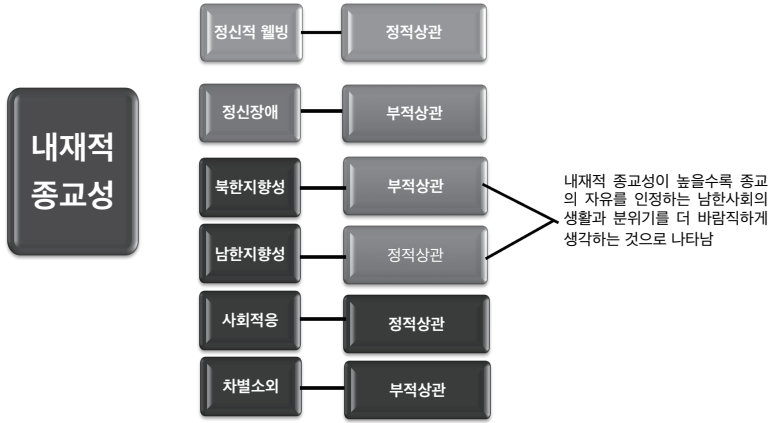
북한 지향성(평균 2.35점) < 남한 지향성(3.21점)

전반적 사회적응(평균 3.57점), 하위 차원의 사회적 차별(평균 2.55점), 개인적 차별(2.52점)  
, 사회적 소외(2.44점), 전반적 만족도(평균 3.23점)에서 보통 정도의 사회 적응이나 만족도  
수준종교가 정신건강이나 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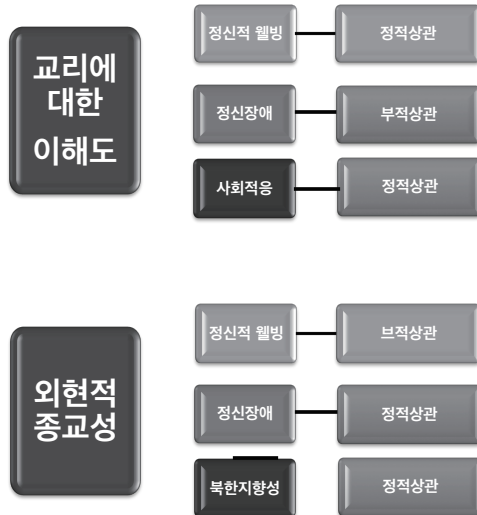
대체로 종교 유무 그 자체나 종교 유형은 정신건강이나 사회 적응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남.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종교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종교 그 자체의 설명력은 별로 없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들 안  
에 편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절 소결



제4절 소결



#### 제4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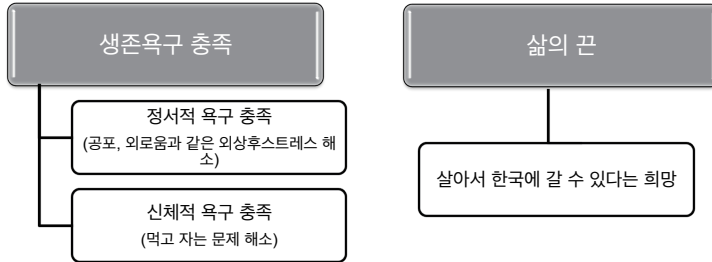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떤 종교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종교의 교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가 이들의 정신건강과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적 개입의 진정성과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가 가진 본질적 의미와 목적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수용하게 할 때 비로소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과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 제 6장 결론

### 제6장 결론

#### 제1절 북한이탈주민과 종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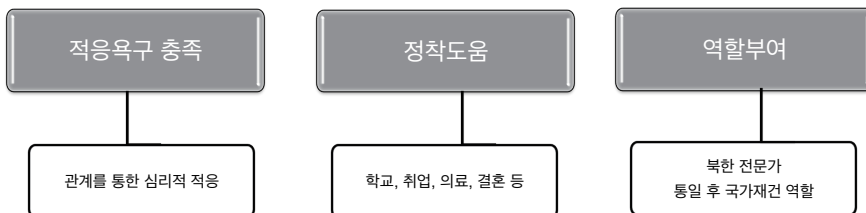
##### 1. 탈북과정에서의 종교의 역할



### 제6장 결론

#### 제1절 북한이탈주민과 종교의 역할

##### 2. 정착과정에서의 종교의 역할



\_\_\_\_\_ 감사합니다 \_\_\_\_\_



# 남북 언어의 어휘 단일화를 위한 성과와 과제

권재일 (인문대학)

1. 남북 어휘 차이와 그 유형
2. 남북한의 어휘 단일화를 위한 활동
  1. 국립국어원과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교류
  2. 남북 공동 겨레말큰사전 편찬
  3. 컴퓨터 용어 단일화
  4. 체육 용어 단일화
  5. 전문용어 단일화를 위한 연구 활동
3. 남북한의 어휘 단일화를 위한 방향

1. 다음 말은 북한말입니다. 남한말로 무엇일까요?

돌가위보	단설기	박띠(縛-)	남새
가두배추	사자고추	기계삽	고정폰드
미누스	깜빠나야	웰남	뿔스카

2. 다음 문장은 북한의 연설문입니다.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현시기 언어 분야에서 민족성을 고수하는 문제는 민족어의 고유성과 우수성을 지켜나가는 근본 원칙으로 될 뿐 아니라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을 높이고 북남 사이의 언어적 차이

를 줄이는 기본 방도로 됩니다. 우리 말과 글의 민족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언어 수단은 우리 겨레가 오랜 옛날부터 창조 발전시켜 온 민족어 유산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족어 유산이라고 하면 오랜 역사적 기간에 창조 계승하여 온 인민 대중의 언어 문화적 재부를 가리킬 수 있으나, 여기에서 주로 문혀 있는 입말 원천을 중심에 놓고 론하게 됩니다. 우리는 민족어 유산을 발굴 정리하는 어렵고 방대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척시켜 나감으로써 겨레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3. “조선말대사전”의 다음 뜻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소젓, 닭알, 사탕가루, 향료 같은것을 섞어 한데 풀어서 크림 비슷하게 하여 얼음같이 차게 하거나 얼음과자처럼 만든 음식의 하나. 제조가에서 균질화하여 잔이나 종이에 싸거나 종이고뿌에 담아낸다.

## 1. 남북 어휘 차이와 그 유형

북한은 1949년부터 한글전용이 국가정책으로 실시된 이래 언어의 규범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법, 표준어의 보급과 함께 어휘의 대대적인 정화인 말다듬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바탕에서 1966년 김일성 교사에 의해 ‘문화어가 만들어졌다. 문화어는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문화어 제정으로 남한의 표준어와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남북한은 현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전혀 다른 체제이다. 이 때문에 첫째로는 이념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어휘가 당연히 서로 다르게 사용되었고, 둘째로는 같은 어휘라 하더라도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었다.

먼저 첫째 경우를 살펴보면, 북한의 문화어 어휘들에는 사회주의 이념이나 북한 특유의 사상, 제도를 가리키는 것이 많다. 정치 분야의 ‘수령, 교시, 선동사업, 경제 분야의 ‘로동영웅운동, 녀성보장이, 문화 분야의 ‘공훈배우, 인민배우, 창작과제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들은 어휘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이념과 제도 차이가 어휘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음 둘째 경우를 살펴보면, 형태의 차이는 없으나 의미가 다르게 남북한에서 사용되는 어휘들도 많다. 역시 정치성이 강한 어휘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다. 대표적인 예로서 ‘동무’의 경우, 남한 사전의 뜻풀이는 ‘늘 친하게 어울려 노는 사람’인데 비해, 북한 사전의 뜻풀이는 ‘같이 어울리어 사귀는 사람, 일반적으로 남을 무관하게 부를 때에 쓰는 말’이라는 뜻풀이에 앞서 ‘로동계급의 혁명 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대오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하게 이르는 말’이라 풀이한다. ‘어버이’ 역시 남한 사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일컫는 말’에 대하여 ‘인민대중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고 친부모도 미치지 못할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배려를 베풀어주시는 분을 끝없이 흠모하는 마음으로 친근하게 높이어 이르는 말’로 북한 사전은 뜻풀이한다. 북한 사회의 이념과 가치가 어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남한말의 기준으로 볼 때, 남한의 어휘와 다른 북한의 어휘를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

광복 이전부터 남북 언어에는 방언적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어휘에서 그러하였다. 그래서 북한의 다듬은말 가운데는 남한말과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이는 평안방언이나 함경방언을 북한에서 문화어로 삼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채소에 대한 ‘남새’, 거위에 대한 ‘계사니’, 옥수수에 대한 ‘강냉이’가 그 예이다. 몇 예를 더 들면 (1)과 같다.

① 문화어		남한말
가마치	←	누룽지
눅다	←	헐하다
닭알	←	달걀
망들	←	맷돌
발쪽	←	족발
오레미	←	올케

###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의미로 쓰는 어휘

남한에서도 쓰고 있으나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는 어휘는 광복 이후 서로 사회 제도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북한 사회 특성으로 ‘동무, 어버이’ 등의 의미와 사용이 달라진 예는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더 예를 들면, ‘선동’의 경우, 남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나 북한에서는 정책 사업을 잘 수행

하도록 부축이고 호소한다는 뜻으로 쓴다. ‘세포’의 경우, 남한에서는 생물학 용어로 쓰는데, 북한에서는 어떤 집단에서 기층 단위가 되는 조직을 말한다. ‘바쁘다’의 경우, 일이 많거나 급히 해야 할 일로 겨를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함에 부쳐어 참기 어렵다, 매우 딱하다는 뜻으로 자주 쓴다. ‘보기 바쁘다, 말하기 바쁘다’는 보거나 말하는 것이 매우 딱하다란 뜻이다. ‘시끄럽다’는 생각하도록 말쟁이나 까탈이 많다,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번거롭거나 번잡스러워 귀찮다란 뜻으로도 쓴다. ‘일없다’의 경우, 남한에서는 필요 없다는 뜻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났을 때 쓰는 말이지만, 북한에서는 예사롭게 괜찮다는 뜻으로 쓴다.

어휘 의미가 변화하는 언어학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사회적 원인이 대표적이라 할 만하다. 바로 남북 어휘 사이의 변화는 사회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제도와 이념, 사상과 같은 요인에 따라 원래 같았던 어휘 의미가 서로 다르게 쓰이게 된 것이다.

### ●북한에서 분단 이후 새로 만들어 쓰는 어휘

남북 분단 이후에 북한에서 새로 쓰는 어휘에는 다듬은말과 외래어가 있다. 먼저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에 따라 (2)와 같이 달라지거나 (3)처럼 새로 만든 어휘들의 예이다.

② 다듬은말		본래말
교예	←	서커스
손기척	←	노크
잔짐	←	소화물
큰물	←	홍수
피들기	←	혈액순환

③ 사로청(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공훈리발사, 로동영웅, 선군사상, 원쑤, 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 주체시대, 혁명가정

다음은 소련이나 동유럽권에서 외래어를 받아들여 남한과 달라진 외래어, 외국 지명의 경우이다. 그 일부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④ 외래어

남한말	북한말	남한말	북한말
달러	딸라	로켓	로케트
마라톤	마라손	마이너스	미누스
백신	왁썬	캠페인	깜빠니아
컴퓨터	콤포터	토마토	도마도

⑤ 외국 지명

남한말	북한말	남한말	북한말
네델란드	화란	러시아	로씨아
루마니아	로므니아	헝가리	웡그리아
바티칸	바띠까노	베트남	월남
스웨덴	스웨리에	시베리아	씨비리
카이로	까히라	폴란드	쁠스카

## 2. 남북한의 어휘 단일화를 위한 활동

남북 언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전개될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의 언어 차이를 최소화하고, 통일 이후에는 언어 통일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 단일화를 위한 연구, 노력은 대단히 필요하다. 그래서 어휘 단일화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 그간 남북한이 이 과제를 위해 함께 노력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의의를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남한의 국립국어원과 북한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사이에 여러 차례 국제 학술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는 주로 남북한의 어휘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음에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남북한 언어학자들이 여러 차례 직접 만나 논의한 어휘 단일화의 대표적인 노력이다.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남북한 언어학 교류, 좁게는 어휘 단일화 교류의 큰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용어, 체육 용어에 대한 남북한 사이의 어휘 단일화 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 1) 국립국어원과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교류

국립국어연구원은 1996년 중국 창춘에서 열린 언어학자 국제학술토론회에서 북한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학자들을 처음 만난 이래 남북 언어 국제학술회의를 모두 7차례 개최하였다. 그 첫째 목적은 남북한 언어학자가 직접 교류하여 남북 언어에 대해 서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었고, 둘째 목적은 남북 언어의 통일에 대한 연구와 이와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 [제1차] 1996년 8월 5일-7일, 중국 창춘시 북극지춘호텔

회의명: '96 Korean 언어학자 국제학술토론회의

주제: 남북 어문 규범 문제

발표 내용

〈철자법 부분〉 김기종(중국, 연변사회과학원): 조선말 '4법' 통일안 모색의 토대 / 안병희(서울대학교): 한글 맞춤법의 연혁과 원리 / 선우룡화(북한, 언어학연구소): 조선말의 자모수와 그 순서 및 이음에 대하여 / 최희수(중국, 연변대학): 한자어 표기 문제

〈띄어쓰기 부분〉 서종학(영남대학교): 띄어쓰기의 역사와 그 규정 / 최윤갑(중국, 연변대학): 조선말 띄어쓰기 변화로부터 생각되는 조선말 띄어쓰기 통일안 / 심병호(북한, 국어사정위원회): 불완전 명사와 보조적 동사의 띄어쓰기에 대하여 / 허동진(중국, 연변대학): 현행 띄어쓰기 몇 가지

〈문장 부호 부분〉 전병선(중국, 연변대학): 문장 부호의 통일과 규범 / 한선희(북한, 국어사정위원회): 문장 부호의 성격과 종류에 대하여 / 양명희(국립국어원): 국어 문장 부호의 변천 / 임홍빈(서울대학교): 우리 외래어의 표기법의 어제와 오늘

이 회의에서는 남한의 국립국어연구원의 연구원과 관련 학자들, 북한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와 국어사정위원회의 연구원과 관련 인사들, 중국의 조선족 학자들이 함께 모여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 조선어의 어문규범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남북은 앞으로 가능한 한 서로의 어문규범을 더 이상 차이나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기로 한다.”라는 것을 합의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 [제2차] 2001년 12월 14일-16일, 중국 베이징시 중원호텔

**회의명: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회의**

### **발표 내용**

〈기조강연〉 남기심(국립국어연구원): 남북 언어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 / 문영호(북한, 언어학연구소): 언어의 민족성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 말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방도 / 최윤갑(중국, 연변대학): 중국에서의 조선어어휘규범화와 그 특성

〈논문 발표〉 김민수(고려대학교), 한자어 정리의 한 방안 / 김영항(북한, 김일성대학): 고대와 중세의 어휘변천과정을 통하여 본 조선어의 단일성 문제 / 리득춘(중국, 연변대학): 어휘사의 측면으로 본 우리 말 어휘발달의 몇개 문제 / 강신항(성균관대학교): 일본어 투 순화 실태와 문제점 / 정 순기(북한, 언어학연구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산생되는 조선어어휘변종에 대한 몇가지 고찰 / 김기종(중국, 연변사회과학원): 중국조선어어휘규범화작업에 대한 회고와 당면한 문제점 및 그 발전전망 / 남풍현(단국대학교): 신라화엄어경사경 조성기의 해독과 그 어휘 / 강리항(북한, 조선인민경제대학): 훈민정음의 창제년월일확정과 민족글자사용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 강은국/강영(중국, 푸단대학): 남과 북의 어휘사용의 이질화에 대한 소고 / 홍윤표(단국대학교): 15세기-19세기 자료에 나타난 국어 어휘의 특성 / 권종성(북한, 언어학연구소): 조선어정보처리에서 나서는 언어학적문제 / 최희수(중국, 연변대학): 규범화에서 제기되는 문제 / 장광군(중국: 뤼양외국어대학): 조선어 한자약어 소고 / 민현식(서울대학교): 국어 순화 정책의 회고와 전망 / 최병수(북한, 언어학연구소): 조선글자의 컴퓨터부호화와 국제표준화에서 나서는 문제 / 장흥권(중국, 중앙민족대학): 〈어휘구성〉의 이해와 대비연구 / 임지룡(경북대학교): 20세기 이후 국어 어휘의 사용 실태와 조어론적 특성 / 리기만(북한, 언어학연구소): 평양문화어어휘구성의 주체적발전 / 태평무(중국, 중앙민족대학): 대비언어학적측면으로부터 본 조선한자어의 구조적특성 / 최용기(국립국어연구원): 광복 이후 외래어 투 순화 실태와 문제점 / 안경상(북한, 언어학연구소): 〈훈몽자회〉에 반영된 15세기 이후의 고유어사용실태에 대한 역사적고찰 / 강보유(중국, 푸단대학): 중국, 조선, 한국의 현행 어휘사용에서의 의미 이질화에 대한 조사와 분석 / 송재목(일본, 오사카경제법과대학): 한국어형용사 반복 구문

이 회의는 남북한, 그리고 중국 조선족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함께 하여 우리말과 우리글에 관해 본격적으로 토론한 첫번째 회의라 할 만하다. 기조연설과 남한, 북한, 중국 학자들의 2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래서 학술회의 이름도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회의'이다. 이 회의를 기반으로 하여 2007년까지 남북한, 그리고 중국 조선족 언어학자들의 학술회의가

어저게 되었다.

기조강연에서 남기심 원장은 남북 언어의 차이가 이질화가 아니며, 어느 정도 달라졌을 뿐임을 강조하고, 특히 어휘가 달라진 원인을 규명하였다. 북한의 문영호 소장은 언어 통합의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논문 발표는 어휘 문제가 중심이 되었다. 한자어, 고유어를 망라하고, 역사적 변화, 어휘 구성의 문제, 순화 또는 말다듬기 문제 등이 폭넓게 발표하고 토론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 [제3차] 2003년 11월 5일-9일, 중국 베이징시 21세기호텔

**회의명:**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2차 남북 국제학술회의

**주제:** 민족 고유어의 통일적 발전과 방언 조사 연구

**발표 내용**

〈기조연설〉 문영호(북한, 언어학연구소): 북남언어의 통일적발전과 민족고유어 / 남기심(국립국어연구원) 문화유산으로서의 국어 / 전학석(중국, 연변대학): 방언조사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

〈제1분과 민족 방언의 공동 연구〉 곽충구(서강대학교): 방언 자료 수집의 현황과 남북 공동 조사 방안 / 홍석희(북한, 언어학연구소): 조선어방언의 공동연구조사계획과 방법 / 방린봉(북한, 언어학연구소): 서북방언분포지역과 조사지점에 대한 연구보고 / 이상규(경북대학교): 한민족 언어지도 제작과 그 전망 / 이기갑(목포대학교): 국어 방언 연구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제2분과 민족 고유어의 통일적 발전〉 강신항(성균관대학교): 민족 고유어 쓰기 / 리호경(북한, 언어학연구소): 어휘정리와 민족고유어 / 박창원(이화여자대학교): 민족어 공동 순화를 위한 제안

〈제3분과 말뭉치와 부호 표준화〉 권재일(서울대학교): 구어 자료를 통한 국어 문법의 통계적 분석 / 권종성(북한, 언어학연구소): 조선어본문코퍼스의 개발원칙과 방향 / 홍윤표(연세대학교): 어휘의 역사 검색 및 사전 편찬을 위한 말뭉치 활용 방안 / 방정호(북한, 언어학연구소): 코퍼스자료의 론리정보언어와 부호 덧붙이기 / 소강춘(전주대학교): 남북 정서법 변환 프로그램 / 리승길(북한, 언어학연구소): 본문코퍼스구축을 위한 조선글입력환경 / 이승재(국립국어연구원): 자료 교환을 위한 파일 형식과 부호 표지 추가 방안

〈제민족어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전수태(국립국어연구원): 민족어 관련 사업의 회고와 전망 / 이승재(국립국어연구원): 민족어 순화 자료의 구축 현황 / 양명희(국립국어연구원): 북남 대역사전을 위한 기초 연구 / 이준석(국립국어연구원): 국제한자코드 표준화 활동의 현황

이 회의는 남북한, 그리고 중국 조선족의 학자들이 우리말과 우리글에 관한 분명한 주제를 정하여 함께 한 토론회라 하겠다. 세 편의 기초연설과 남한, 북한, 중국 학자들의 1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민족 고유어의 통일적 발전, 민족 방언의 공동 연구, 말뭉치와 부호 표준화 등이 큰 주제이다. 이 회의부터 남북 언어 문제에 대한 토론은 **방언과 전산화**, 두 주제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남북의 방언을 공동으로 조사하여 보전하기 위한 방법이 집중적으로 토론되었는데, 공동 조사란 같은 질문지, 같은 장비, 같은 방법으로 남북 각 지역의 어휘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협의를 따로 하여 공동 조사 계획을 확정하였는데 이것은 이 학술회의가 이룬 큰 성과라 하겠다. 이 협의를 바탕으로 실제 2004년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방언 조사를 시작하였다.

또 하나의 주제는 전산화이다. 우리말 어휘 자료를 어떻게 전산화하며 이를 어떻게 서로 교환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상당량의 북한 언어 자료를 말뭉치로서 확보하여 가져올 수 있었다.

**[제4차] 2004년 6월 22일-25일, 중국 베이징시 21세기호텔**

**회의명:**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3차 남북 국제학술회의

**주제:** 민족어 유산의 수집 정리와 고유어 체계의 발전

**발표 내용**

〈**기초연설**〉 문영호(북한, 언어학연구소): 민족어유산을 발굴정리하는 것은 언어분야에서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 / 남기심(국립국어원):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우리말 어휘 / 전학석(중국, 연변대학): 중국에서의 조선어 자료 수집에 대하여

〈**제분과 민족 방언의 공동 연구**〉 김하수(연세대학교): 방언과 사회 발전 / 리기만(북한, 언어학연구소): 황해도방언에서 토의 쓰임에 대하여 / 최명옥(서울대학교): 지역어의 조사 원칙과 조사 방법 / 김성근(북한, 언어학연구소): 민족어유산으로서의 조선어방언의 조사원칙과 방법 / 오철만(북한, 언어학연구소): 방언조사어휘선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 이상규(경북대학교): 방언 조사 항목 선정의 원칙과 방향 / 홍석희(북한, 언어학연구소): 동북방언의 어음론적특성에 대하여 / 백운혁(북한, 언어학연구소): 서북방언(평안남도방언)의 지리언어학적특성과 방언조사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 홍윤표(연세대학교): 민족어 방언 검색 시스템 개발

〈**제2분과 말뭉치의 구축과 활용**〉 권종성(북한, 언어학연구소): 균형코퍼스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의 제작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 소강춘(전주대학교): 민족어 말뭉치 지도 작성 / 권재일(서울대학교): 말뭉치 자료 정보 부착과 남북 문법의 통합 방안 / 김철호(북한, 언어학연구소): 코퍼스를 리용한 다의성처리방법에 대하여 / 이승재(국립국어원): 말뭉치 활용 도구의 개발

이 회의는 남북한 학자들이 '민족어 유산의 수집 정리와 고유어 체계의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한 토론회라 하겠다. 세 편의 기초연설과 남북한 학자들의 14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두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민족 방언의 공동 연구, 말뭉치의 구축과 활용 등이다.

**[제5차] 2004년 12월 20일-25일, 중국 선양시 글로리아플라자호텔**

**회의명:** 민족 방언 연구와 조사 및 코퍼스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

**주제:** 민족어 유산의 수집 정리와 고유어 체계의 발전

**발표 내용**

〈제1분과 민족 방언의 공동 연구〉 이상규(경북대학교): 방언 자료 수집과 전사 자료 관리 / 안경상(북한, 언어학연구소): 방언조사환경과 금후과업 / 최병수(북한, 언어학연구소): 방언소유자선택과 그에 따르는문제 / 김하수(연세대학교): 방언과 방언화자 / 김정대(경남대학교): 방언 조사를 위한 녹음 환경과 설비 및 녹음 자료 관리 / 홍석희(북한, 언어학연구소): 방언의 녹음과 녹음자료의 보관관리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 / 홍석희(북한, 언어학연구소): 방언의 어조와 음가표기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 / 홍윤표(연세대학교): 방언 조사를 위한 그림 자료의 활용

〈제2분과 말뭉치의 구축과 활용〉 권재일(서울대학교): 구어 말뭉치 구축을 위한 자료의 선정과 입력 원칙 / 방정호(북한, 언어학연구소): 조선어본문코퍼스의 개발환경 / 방정호(북한, 언어학연구소): 조선어본문코퍼스에 기초한 통계적언어연구 / 이승재(국립국어원): 말뭉치 구축 형식과 기본 원칙

이 회의 역시 '민족어 유산의 수집 정리와 고유어 체계의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남북한 학자들이 함께 한 토론회라 하겠다. 두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민족 방언의 공동 연구, 말뭉치의 구축과 활용 등이다. 그러나 남북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한 지역어 어휘 조사의 방법론과 관련한 문제가 중심이 되었다.

**[제6차 2005년 12월 12일-15일, 중국 선양시 삼릉중천호텔**

**회의명:**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5차 남북 국제학술회의

**주제:** 민족어 어휘 구성의 변화와 통일적 발전

**발표 내용**

〈기초연설〉 문영호(북한, 언어학연구소): 우리 말 방언조사원칙과 정리방법 / 남기심(국립국어원): 수집 어휘의 구조화 / 최희수(중국, 연변대학): 중국 지역의 조선어 자료 수집

〈제1분과 민족 방언의 공동 연구〉 박경래(세명대학교): 현지 방언 조사 작업의 내용과 문제점 / 박상훈(북한, 언어학연구소): 어휘 정리와 민족어어휘구성의 변화발전 / 홍석희(북한, 언어학연구소): 컴퓨터에 의한 방언의 자료기지화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 / 소강춘(전주대학교): 남북 음성 자료 정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이기갑(목포대학교): 방언 문법의 정밀 조사 / 박명훈(북한, 언어학연구소): 우리 나라 지명에 남아 있는 고유어유산에 대한 간단한 고찰 / 홍윤표(연세대학교): 우리나라 어휘 문헌에 대하여 / 김영렬(북한, 언어학연구소): 민속적인 어휘 부류의 다양성과 풍부성 / 로춘반(북한, 언어학연구소): 〈겨레말큰사전〉 북남공동편찬과 언어유산의 조사연구

〈제2분과 우리말 정보화 분과〉 권종성(북한, 언어학연구소): 우리 말 어휘 빈도수 조사 방법 연구 / 서상규(연세대학교): 국어학 용어의 시소러스 구축 / 권재일(서울대학교): 구어 말뭉치 구축과 형태-통사 정보 / 오금화(북한, 언어학연구소): 조선어형태분석코퍼스의 정보부가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이 회의 역시 '민족어 어휘 구성의 변화와 통일적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남북한 학자들이 함께 한 토론회라 하겠다. 두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민족 방언 분과, 정보화 분과 등이다. 특히 방언 어휘 문제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그러나 방언 중심에 대한 남북 언어학자 회의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공동으로 방언 어휘를 조사하기로 하였지만 북한 사정으로 각 지역별로 방언 조사를 실행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사실상 방언에 관한 학술회의는 이번 회의로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과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사이의 학술회의 역시 동력을 잃게 된다. 그것은 2005년부터 새로이 등장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의 영향이다. 국립국어원의 연구원들 몇몇도 이에 참여하였지만, 북한에서는 언어학연구소 연구원들이 전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의 언어학연구소는 2006년부터는 국립국어원보다는 조직과 예산 규모가 훨씬 더 큰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래서 당장 2006년에는 학술회의가 열리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2007년에 이르러 지금까지와는 다른 주제와 형식으로 학술회의를 이어갔다.

### [제7차 2007년 11월 16일-18일, 중국 옌지시 대주호텔]

회의명: '민족어 발전의 현실태와 전망' 남북 국제학술회의

발표 내용

〈기조연설〉 문영호(북한, 언어학연구소): 민족어 변화의 현 실태와 통일적 발전 원칙 / 김수엽(국어심의회): 겨레말을 하나로 가꾸는 일 / 리득춘(중국, 옌벤대학): 고구려어와 조선어(한국어) 형성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하여

〈**조선어의 규범화와 통일**〉 권종성(북한, 언어학연구소): 우리말 교과서 내용의 단일화에서 기본은 언어규범의 통일성 보장 / 권재일(서울대학교): 남북 단일 어문규범 작성의 현황과 전망 / 리민덕(중국, 연변대학): 문법교수의 예문에 대하여 / 강보유(중국, 푸단대학): 언어규범통일방안과 한국어/조선어 교육 / 박순이(북한, 언어학연구소): 북과 남의 언어규범통일에서 나서는 기본문제 / 이재규(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 겨레말큰사전을 통해서 본 남북 언어 통일의 과제

〈**학술용어의 표준화와 통일**〉 우철남(북한, 언어학연구소): 우리 나라에서 학술용어정리와 술어표준화 / 박동인(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용어 구축 방향에 대한 제언 / 로춘반(북한, 언어학연구소): 술어표준화의 과학기술적요구와 과업 / 이서행(한국학중앙연구원): 남북 학술용어의 이질화 문제와 표준화 필요성 / 김문오(국립국어원):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의 차이와 통일을 위한 준비 / 김광수(중국, 연변대학): 북남 문법용어의 사용의 차이와 통일의 방안

〈**한국어(조선어) 교육 연구**〉 태평무(중국, 중앙민족대학): 중국 조선어의 특징과 당면 우리말 규범화 사업의 과업 / 성기철(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어교육과 한국 언어문화 / 이준석(국립국어원): 문화상호주의 언어 교육 방안에 대해 / 허용(한국의국어대학교):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 / 장광군(중국, 휘양외국어대학): 중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수대강의 제정에 대한 연구 / 김영수(중국, 연변대학): 중국조선어 규범에 관련된 몇가지 문제

〈**한민족어풍부화를 위한 언어유산 조사발굴**〉 럽광호(중국, 칭다오대학): 중국 조선어 및 연변방언의 운명에 대하여 / 김정대(경남대학교): 민족어의 풍부화 방안 / 황대화(중국, 중국해양대학): 평안북도 룡천지역어의 지칭어와 호칭어에 대하여 / 안경상(북한, 언어학연구소): 방언조사사업은 민족어유산을 발굴하고 민족 고유어를 살리는 방도 / 홍석희(북한, 언어학연구소): 방언을 비롯한 입말자료의 전사에서 나서는 언어학적 문제 / 박민규(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사업 현황과 방향

이 회의는 지금까지의 회의와는 주제와 형식이 크게 다르다. 지금까지 방언과 정보화/전산화 중심이었던 회의와는 달리 회의 주제가 다양화되었다. 그리고 남북한 중심에서 중국 조선족 학자가 대거 참여하였다. 회의의 큰 주제도 ‘민족어 발전의 현실태와 전망’이라 하였는데, 주제는 조선어 규범화와 통일, 학술용어의 표준화와 통일, 한국어(조선어) 교육 연구, 민족어 풍부화를 위한 언어유산 조사 발굴 등이다. 기초연설 외에 2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상의 일곱 차례의 학술회의를 통해서 보면, 남북한 언어학자가 직접 교류하여 남북 언어에 대해 서로 이해를 높이면서 남북 언어의 통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을 추진하는,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주제가 중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휘 통일에 관한 방안, 언어 자료의 교류와 남북 공동의 말뭉치/코퍼스 구축에 관한 방안, 민족어 보존과 남북 공동의 지역어 조

사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기가 어려웠고, 또한 어휘 단일화를 위한 제안만 있었지 실천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던 점은 아쉬운 일이다. 남북한은 2007년의 제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아직 까지 남북한 공동 학술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제 그러한 사정이 해소되어 다시 이어지길 희망한다.

## 2) 남북 공동 겨레말큰사전 편찬

“겨레말큰사전”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남북의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려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으로, 분단 이후 남북에서 달라진 어휘를 뜻풀이에 적극 반영하는 사전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국어학자들이 함께 단일 어문규범을 작성하여 편찬하는 사전이며, 기존의 남북 사전에 수록되지 못했던 지역어와 문헌어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올림말로 수록하는 사전이다. 수집한 어휘 자료 가운데 남북이 공통으로 쓰는 말은 우선적으로 올리고, 차이 나는 것은 남북이 합의하여 단일화하고, 이렇게 하여 약 30만 개의 올림말을 실을 대사전이다. 이러한 내용을 2005년 봄 남북한 학자들이 합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해마다 네 차례씩 남북 학자들이 함께 모여, 2010년 천안함 폭침 직전까지, 사전편찬회의를 개최해 왔었다.

### (1) 일반 어휘 단일화

겨레말큰사전의 올림말 선정 원칙은 겨레말큰사전 올림말 선정 작업요강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 작업의 진행은 남북이 각각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의 올림말의 공통점과 차이점, 문제점을 찾아, 먼저 공통적인 올림말을 확정하고 겨레말큰사전에 올릴 수 있는 것과 올릴 수 없는 것, 토의하여 해결할 것들을 가려낸다. 다음으로 두 사전에서 차이가 나는 것 중에서 쉽게 단일화할 수 있는 것과 토의를 더 해야 할 어휘를 가려내며, 겨레말큰사전에 올리지 않을 어휘를 확정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올림말 선정 원칙에 따라 단일화를 합의하면서 나타난 몇몇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 ●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 어휘 가운데 제외된 어휘

- a. 체제나 이념과 관련한 어휘: 건국훈장, 구이팔수복, 국민포장, 국민훈장, 근정훈장, 반공포로석방, 보국포장, 새마을훈장, 육이오사변, 한미상호통상조약, 한미연합사령부 등
- b. 현재 쓰임이 거의 없는 한자어: 교좌(交坐), 구수(丘首), 내후(乃後), 헌춘(獻春) 등
- c. 현재 쓰임이 거의 없는 전문용어: 거양성혈, 동차좌표, 산판겉목돌, 삼갈탑(三葛塔) 등

- d. 외래어: 나이트가운, 맨투맨, 세일즈맨, 엔트리, 커버스토리, 코너아웃, 헤어밴드 등
- e. 고유명사: 김구, 논개, 대한해협, 탑골공원, 흑산군도 등
- f. 동식물이름: 네발가락도롱뇽, 꾸지뽕나무, 솔비녀골풀, 줄방제비꽃, 정영영경귀 등

● **북한의 “조선말대사전” 어휘 가운데 제외된 어휘**

- a. 체제나 이념과 관련한 어휘: 간백산밀영, 간삼봉전투, 백두산밀영, 삼대혁명붉은기, 수령결사옹위, 인민군렬사탑, 조선혁명군, 천리마영예상, 총폭탄용사, 항일녀장수, 항일독립명장, 휘남현성전투 등
- b. 현재 쓰임이 거의 없는 한자어: 가고가대(加高加大), 족대지(足大趾), 호최(蒿崔) 등
- c. 현재 쓰임이 거의 없는 전문용어: 가공유연세포, 비특성찬빛, 뽕프공동현상, 열내기반응, 임플스진폭, 피로게날 등
- d. 외래어: 가니발, 꼬스모뽀리찌즘, 노메르, 데리케트하다, 또치까, 센세이슨, 씩크탱크 등
- e. 고유명사: 구룡소, 까쓰빠해, 빠나마운하, 싘빠뜨로사원, 아마조나스강, 콜로썬움 등
- f. 동식물이름: 가는금빛채찍벌레, 가는다리애기좀진드기, 잔털나무좀, 동해바다골뱅이 등

● **남북한이 서로 다른 형태인데 단일화한 어휘**

단일안	남한말	북한말	
거북이	거북이	거부기	
걸죽하다	걸쭉하다	걸죽하다	
곰곰이	곰곰이	곰곰히	
곱배기	곱빼기	곱배기	
관자노리	관자놀이	관자노리	
근근이	근근이	근근히	(가뜩이, 겁겁이, 그뜩이)
금이	금니	금이	
나뭇기다	나부끼다	나뭇기다	
넋두리	넋두리	넉두리	
널찍하다	널찍하다	널직하다	
널판대기	널판때기	널판대기	
넓죽하다	넓죽하다	넙죽하다	
늦둥이	늦둥이	늦둥이	
더욱이	더욱이	더우기	
도리어	도리어	도리어	

돈중	돈쪱	돈중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맛갈	맛갈	맛갈	
맥놀이	맥놀	맥노리	(가슴노리, 관자노리, 어깨노리)
멋적다	멋쩍다	멋적다	
미쟁이	미장이	미쟁이	(도배쟁이, 땀쟁이)
벗어부치다	벗어부치다	벗어붙이다	
빛갈	빛갈	빛갈	
선부르다	선부르다	서뿌르다	
설거지	설거지	설것이	
숨바꼭질	숨바꼭질	숨박꼭질	
아릿답다	아리답다	아릿답다	
안쓰럽다	안쓰럽다	안스럽다	
얇따랗다	얇따랗다	얇다랗다	(짚따랗다)
외톨이	외톨이	외토리	
이빨	이빨	이발	
일찍이	일찍이	일찌기	
짓궂다	짓궂다	지궂다	
치닥거리	치다꺼리	치닥거리	
타성받이	타성바지	타성받이	(각성받이, 언덕받이)
하마트	하마터면	하마트면	
헤엄	헤엄	헤엄	
훈구멍	훈꾸멍	훈구멍	

● 남북한이 서로 다른 형태인데 둘 다 받아들인 어휘

단일안	남한말	북한말
아내/안해	아내	안해
범씨/벼씨	범씨	벼씨
헵쌀/헛쌀	헵쌀	헛쌀
달갈/닭알	달갈	닭알
오뚜기/오토기	오뚜기	오토기

## ● 합의하지 못한 올림말

- a. 일꾼, 장꾼, 나무꾼 - 일군, 장군, 나무군
- b. 남한의 군인 계급 - 북한의 군사 칭호
- c. 국명(韓, 朝)이 포함된 한자어
- d. 체제 · 이념: 국군(國軍), 인민군(人民軍), 남침(南侵), 북침(北侵), 남북(拉北), 태극기(太極旗), 인공기(人共旗), 애국가(愛國歌), 반공(反共), 멸공(滅共), 빨갱이 등

### (1) 외래어 단일화

남북한의 외래어 표기가 다르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우선 ‘ㄱ’ 항에서 양쪽 사전 모두에 올려 있는 외래어를 살펴보면 남북한이 같은 것은 ‘가솔린(gasoline), 가운(gown), gaze(가제), 게놈(Genom), 게릴라(guerilla), 고릴라(gorilla), 고무(gomme), 골프(golf), 그리스(grease), 기타(guitar)’ 등 85개이며, 서로 다른 것은 ‘갈륨/갈리움(gallium), 갱/깡(gang), 고딕/고지크(gothic), 그래픽/그라히크(graphic), 카피/꼬삐(copy)’ 등 86개이다. 표기가 같은 것과 다른 것이 반반인 셈이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지금까지 겨레말큰사전 편찬에서는 서로 같은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남북이 차이가 있는 것은 3가지로 나누어 단일안을 마련하였다. 즉, 남한 외래어로 단일화한 것, 북한 외래어로 단일화한 것, 그리고 제3의 안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둘 다를 인정하여 복수로 둔 것도 있다.

## ● 남한 외래어로 단일화한 것

단일안	남한말	북한말
가돌리눔	가돌리눔	가돌리니움
고딕	고딕	고지크
공	공	공그
나일론	나일론	나이론
뉴앙스	뉴앙스	뉴앙스
디자인	디자인	데자인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레모네드
마네킹	마네킹	마네킨
마요네즈	마요네즈	마요내즈
매스컴	매스컴	매스콤

미라	미라	미이라
벤치	벤치	벤취
볼링	볼링	보링
비프스테이크	비프스테이크	비프스테크
시럽	시럽	시롭
아마추어	아마추어	아마츄어
저널리즘	저널리즘	저널리즘
코러스	코러스	코라스
크래커	크래커	크랙커
펌프	펌프	뽕프, 펌프

● **북한 외래어로 단일화한 것**

단일안	남한말	북한말
가라데	가라테	가라데
기브스	깁스	기브스
깡	깡	깡
다이나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마이트
라벨	라벨, 레이블	라벨
런닝	러닝	런닝
로보트	로봇	로보트
본네트	보닛	본네트
샤머니즘	샤머니즘	샤머니즘
색스폰	색소폰	색스폰
세퍼드	세퍼드	세퍼드
알콜	알코올	알콜
잠바	점퍼	잠바
컨닝	커닝	컨닝
필림	필름	필림

● 제3의 안으로 단일화한 것

단일안	남한말	북한말
기아	기어	기야
다이알	다이얼	다이얄
리야카	리어카	리야까
메세지	메시지	메쎌지
몽따주	몽타주	몽따쥬

● 복수로 인정한 것

단일안	남한말	북한말
갤런/갈론	갤런	갈론
그래프/그라프	그래프	그라프
달리아/다리아	달리아	다리아
드라이버/도라이바	드라이버	도라이바
라디오/라지오	라디오	라지오
배드민턴/바드민톤	배드민턴	바드민톤
보일러/보이라	보일러	보이라
에너지/에네르기	에너지	에네르기

(3) 뜻풀이 단일화

겨레말큰사전은 집필요강을 작성하여 올림말 속구조를 확정하고 집필 방식, 뜻풀이 방식 등을 합의하였다. 합의한 방식에 따라 실제 공동으로 뜻풀이한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측이 나누어서 먼저 시범 집필을 하고 이를 교환하여 검토한 다음, 최종 합의하는 과정이다. ‘선동(煽動)의 뜻풀이 과정을 예를 들어 보자.

[제1단계] 북한의 시범 뜻풀이

- ① 대중에게 어떤 큰 일이나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호소하고 그들의 기세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 || 힘있는 정치사상적인 {선동}. | 방송차에서는 전투적인 음악과 {선동}연설이 그칠새없이 터져나왔다.
- ②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것. | 기남이는 물에 들어가면 돌맹이 한가지이지만 동무들의 {선동}에 못이겨 그들을 따라 강가로 나갔다. / 술한 떼목군들이 그의 {선동}에

들떠서 돌아친다. 여차하면 폐목촌이 한벌 뒤집힐판이다.

### [제2단계] 남한의 시범 뜻풀이

남을 부추겨 일이나 행동에 나서게 하는 것. || {선동} 활동. 파업 {선동}. {선동을} 벌이다. {선동을} 당하다. {선동에} 넘어가다. {선동이} 효과적이다. | “은척1리 사람 말고는 은척에는 사람이 없나, 집어치워라.” 하며 주먹까지 휘두르면서 {선동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 [제3단계] 북한의 시범 뜻풀이에 대한 남의 검토 의견

- 뜻갈래 배열에서는 기본적으로거나 본질적인 뜻갈래를 앞세운다. 따라서 ②가 ①보다 앞에 나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뜻갈래 배열은 올림말의 글자 그대로 뜻에 가까운 것을 앞에 배치한다. ‘기본적이거나 본질적인 뜻갈래’는 고빈도 용법이 아니라 올림말의 본디 뜻에 초점을 둔다.
- 체제나 이념이 달라 뜻풀이에 차이가 생긴 올림말은 따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원칙적으로 뜻갈래 배열이나 선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우선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따라서 ①은 ② 뒤에 두되, 남한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은 고쳐서 제시한다. 이를 남한측에서 받아들일 만하게 고치면 다음과 같다. <② 북녘에서, 어떤 큰 일에 적극 나서도록 호소하고 기세를 북돋아 주는 사업. || 정치사상적인 {선동}. | 방송차에서 {선동} 연설이 그칠 새 없이 터져 나왔다.>
- 상대측 사상과 이념에 따라 뜻풀이에 차이가 생긴 올림말은 뜻풀이 전체를 최대한 존중하되,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은 고쳐 제시하고 상대측의 검토를 받는다. 지역 정보는 주지 않고, 뜻풀이 앞에서 ‘남녘에서’, ‘북녘에서’로 제한표현을 준다.

### [제4단계] 남한의 시범 뜻풀이에 대한 북의 검토 의견

- 북 원고에 보인 뜻①은 결코 체제나 이념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고취하는 것이 아니며 북의 언어현실을 반영한 것이므로 하나의 갈라진 뜻으로 주었다. 그러나 두번째 뜻으로 할 수는 있을 것이다.

### [제5단계] 남북이 합의한 뜻풀이

- ①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게 하는 것. || {선동} 활동. 파업 {선동}. {선동을} 벌이다. {선동을} 당하다. {선동에} 넘어가다. {선동이} 효과적이다. | 기념이는 물에 들어가면 돌맹이 한 가지이지만 동무들의 {선동에} 못이겨 그들을 따라 강가로 나갔다. / “은척1리 사람 말고는 은척에는 사람이 없나, 집어치워라.” 하며 주먹까지 휘두르면서 {선동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석제: ‘아름다운 날들’).
- ② <대중에게 어떤 큰 일에 적극 나서도록 호소하고 기세를 북돋아주는 사업>을 북에서 이르는 말. || 힘있는 정치사상적인 {선동}. | 방송차에서는 전투적인 음악과 {선동} 연설이 그칠새없이 터져나왔다. (장편소설: ‘별의 세계’).

### 3) 컴퓨터 용어 단일화

모든 영역에서 컴퓨터 활용이 늘어가는 상황이지만, 근본적으로 컴퓨터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용어는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어, 영어를 배우지 않은 초등학생이나 영어를 모르는 이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없게 한다. 또한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새롭게 계승 발전하는 데에 큰 장애 요소가 된다. 이들 컴퓨터 관련 용어를 국어로 순화 정리하지 않으면 현실 생활과 전통 문화 계승 모두에 큰 문제가 있음은 남북한이 한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에 남북한 컴퓨터 용어를 단일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된 바 있다. 이러한 전개 과정은 다음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다.

홍윤표 · 진용옥 1996, “컴퓨터 처리분야 남북한 언어동질화 방안 연구”, 사단법인 국어정보학회 · 문화체육부.

이 보고서는 제1부 ‘컴퓨터 부호계 한글 자모순 남북한 공동안 연구’와 제2부 ‘컴퓨터 용어 남북 통일안 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료로 ‘남북 정보처리용어 통일안 ICCKL 합의 초안’이 덧붙여 있다. 용어 단일화의 몇몇 예는 다음과 같다.

address	주소
alphabetic code set	자모부호화집합, 자모부호화모임
binary operator	2항연산자, 2항연산자
bite	바이트
character	글자
code	부호, 코드
computerization	전산화, 컴퓨터화 / 계산기화, 콤퓨터화
copy	복사하다
data	자료
digitize	숫자화하다 / 수자화하다
factor	인수
hard error	고정오류 / 고정오유
information processing	정보처리
input data	넣기 자료, 입력 자료, 입구 자료
logic function	논리함수 론리함수
output data	꺼내기 자료, 출력 자료, 출구 자료
scanning	훑기
software	소프트웨어, 기능체 / 소프트웨어, 기능체

#### 4) 체육 용어 단일화

그동안 남북한이 국제 경기에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는 사이 남북한의 체육 용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남북한의 체육 용어를 단일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이 같은 언어로 만나고 같은 언어로 소통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체육 용어의 단일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래서 2007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옌벤조선족자치주 옌지사에서 “남북 체육 용어 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 대한 결과는 다음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다.

최기호 2008, “남북 체육 용어 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결과보고서”, 국립국어원 · 국어단체연합.

이 국제학술회의에서는 공동 연구로 30개 종목에 걸쳐 남북 체육 용어를 비교하여 제시하였으며, 남북 교과서에 나타난 체육 용어(축구, 농구, 사격) 가운데 같은 것과 다른 것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남북이 서로 다른 것은 대개는 (1) 어문규범의 차이에 의한 것, (2) 말다듬기의 차이에 의한 것이었다.

#### 5) 체전문용어 단일화를 위한 연구 활동

전문용어란 특정한 분야에서 정확하게 규정된 과학적 개념과 학술적 내용을 담고 있는 특수 어휘라 할 수 있다. 전문용어는 일반용어와 구별되는 구조와 의미의 특성을 지닌다. 또한 전문용어는 간결성, 정확성, 다양성의 특징을 지닌다.

남한과 북한 모두 분단된 이래 각 분야 학문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학문 발전에 힘입어 당연히 각 분야의 전문용어도 다양하게 생성되었다. 그러나 서로 교류 없이,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 관으로 인하여, 전문용어는 꽤 다른 모습으로 생성되었다. 그러나 통일 이전에는 남북한의 원활한 학술 교류를 위해서, 통일 이후에는 효과적인 학문 활동을 위해서, 이러한 전문용어 표준화는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러한 전문용어 가운데, 교과서 용어와 무역 용어를 대상으로 남한에서 연구한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교과서 용어는 전문용어의 가장 전범이기 때문이고, 무역 용어는 남북교류 사업의 중심인 경제 협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학술용어는, 체제와 이념의 차이, 학문 연구와 교육 풍토의 차이, 외부 세계와의 학술 교류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국립국어원에서 기획하여 연구한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2007)는 국사, 세계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천문학, 체육 등 8개 분야의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의 용어를 비교한 연구 결과이며, 이에 이어진 연구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2008)에서는 국어 문법, 문학, 기술, 미술, 음악, 지구과학, 국토 지리, 세계 지리, 한문 등 9개 분야의 용어를 비교한 연구 결과인데, 예상대로 상당한 이질화 경향이 보였다. 이들 용어들을 형태론적으로 분류함과 동시에, 같거나 비슷한 의미의 남북 어휘들을 대조하였다.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남북한 간에 무역 어휘의 통일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과거 남북교역에서 용어상의 불일치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많았고 교역과 투자에서 용어 차이로 인한 분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남북 경제협력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남북한의 어휘 통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아래 연구는 남북한 무역 어휘를 비교하였다.

조명철 2008, “남북한 무역용어 비교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남북한 대외경제 관련 용어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보았다. 하나는 남북한이 서로 다른 어휘를 사용함에 따라 의미 전달과 무역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한이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지만, 경제체제나 제도상의 차이로 인해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먼저 남북한이 서로 다른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북한의 ‘협의’는 남한의 ‘합의를 의미한다. 즉, 북한의 ‘협의’는 상사분쟁에 대해 당사자를 포함하여 관련기관들이 함께 논의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것으로, 사실상 남한의 ‘합의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비해, 남한에서 협의는 양측의 이견이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으로 합의와는 차이가 있다. 합의서 작성 및 해석에 있어 협의를 북한은 사실상 합의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에서 ‘봉사’는 ‘서비스’나 ‘용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한의 경우 봉사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다는 의미로, 비경제적인 용어이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어휘인데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예를 들면, 남북한 모두 ‘무역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남한의 경우 국제 및 국내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국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국가가 계획적으로 정한 무역가격을 의미한다. 북한의 ‘방조’는 남한의 ‘협력을 의미한다. 남한에서 방조는 부정적인 의미인 반면에 북한의 방조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북한의 ‘중개’는 남한의 ‘알선’을 의미하기도 한다. 남한에서는 중개와 알선의 개념은 구별해서 사용되고 있다.

### 3. 남북한 어휘 단일화를 위한 방향

남북한은 분단 이후 상당 수 어휘가 달라졌다. 그래서 어휘 단일화는 남북교류와 남북통일을 앞두고 남북한 언어 문제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이제 위에서 살펴본 남북한의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어휘 단일화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성이 있어 실천 가능한 어휘 단일화 방안을 제시하는 일과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남북한 사이의 공통된 인식이라 하겠다.

1) 남북 어휘 단일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과와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남북한의 언어정책기관인 국립국어원과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가 학술회의를 통해 교류하면서 주로 어휘 문제에 대해 학술 토론을 이어 왔으며,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가 실제로 남북 어휘 단일화를 실천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기관들로 하여 협의기구를 조직하여, 이론적인 측면은 학술회의의 토론을 거쳐 보완하고, 실질적인 단일화 작업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가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 또는 개인들로 어휘 단일화 검증단을 구성하여 단일화한 어휘가 일상 언어생활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남북한의 언어정책가, 어휘 전문가, 언어 사용자가 두루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남북 어휘 단일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어휘 단일화의 실질적인 방안은 겨레말큰사전의 올림말 선정 기준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의 대표적인 사전에서 공통적인 것은 그대로 단일화한 어휘로 삼고, 형태나 의미에서 차이는 것은 (1) 남한의 어휘로 단일화하거나, (2) 북한의 어휘로 단일화하거나, (3) 제3의 새로운 어휘를 제시하거나, (4) 남한과 북한의 어휘를 공동으로 쓰는 복수 어휘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3) 남북한이 서로 다른 어휘에 대해 단일화를 하기 위하여 몇몇 원칙을 정하여 남한의 어휘든, 북한의 어휘든, 제3의 어휘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어휘가 일상 언어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려면 형태가 간결해야 한다. 남한에서 북한 어휘를 받아들였을 때나 북한이 남한 어휘를 받아들였을 때, 기존의 어휘에 비해 간결성이 떨어진다면 대중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의미 영역이 정확하면서 동질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소하거나 어색하지 않고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4) 남북 어휘 단일화는 연구 단계에 멈춰서는 안 된다. 관련 협의기구에서 단일화한 어휘는 언어 사용자들로 구성된 검증단의 검증을 거쳐 확정된 후, 실제 남한과 북한에서 함께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한쪽이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단일화한 어휘를 적극 교육하고, 언론은 이를 널리

리 보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국외에도 보급해야 할 것이다.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에게는 물론이고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국외 교포들에게도 보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선족의 “조선말규범집”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언어 사용자들이 남북 어휘 단일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일이다. 남북 어휘 단일화의 필요성을 인식해야만 관련 기관에서 힘을 받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제시된 단일안에 대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실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반 언어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종이에 적힌 기록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한때 다듬은말인 ‘얼음보숭이’처럼 묻혀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모든 언어 사용자들이 힘모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은 어휘 가운데서도 전문용어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남북 어휘 단일화는 어느 날 우리 앞에 다가올 국토, 정치, 경제 통일의 날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어휘규범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으로, 값으로 따지기 어려운 언어학적인 의의가 있다고 확신한다.

## ■ 참고 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2006/2007),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누리집 (<http://www.gyeongmal.or.kr>)
  
- 광충구 2001, 남북한 언어 이질화와 그에 관련된 몇 문제, “새국어생활” 11-1, pp.5-27, 국립국어연구원.
- 권재일 2006,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총서\_20, 서울대학교출판부.
- 권재일 2012, “북한의 『조선어학전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문오 · 전수태 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김선철 · 김건희 20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국립국어원.
- 김선철 2009, 국립국어원의 북한어 연구 현황에 대하여, “2009년 남북 언어 학술대회 논문집”, pp.15-23, 국립국어원.
- 김창섭 1991, 북한의 ‘말다듬기’ 이론과 ‘다듬은말’, “주시경학보” 7, pp.3-27, 주시경연구소.
- 남기심 2002, 남북 언어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pp.7-12, 국립국어연구원
- 문영호 2002, 언어의 민족성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 말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방도,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pp.14-22, 국립국어연구원.
- 민현식 2010, 남북 및 재외동포 언어의 현재와 미래, - ‘표준 한국어’의 수립을 위하여, “남북 언어 통합과 재외동포 언어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pp.1-44, 국립국어원.
- 박상훈 2005, “조선어어휘정리론”,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 이승재 2002,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 1, - 남과 북이 서로 같게 순화한 용어를 중심으로 -”, 국립국어연구원.
- 이승재 2003, “남북 언어 순화 자료 협의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조명철 2008, “남북한 무역용어 비교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남호 2009 북한 언어 자료의 구축, “2009년 남북언어학술대회논문집”, pp.3-14, 국립국어원.
- 조오현 · 김용경 · 박동근 2002, “남북한 언어의 이해”, 도서출판 역락.
- 조재수 2000, 남북한 표준말 차이와 공동 표준말 가꾸기, “교육한글” 13, pp.55-89, 한글학회.
- 최기호 2008, “남북 체육 용어 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결과보고서”, 국립국어원 · 국어단체연합.
- 최호철, 1999, 남북한 언어의 통일을 위한 과제 - 국어 정책 부문 -,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1, pp.36-95,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 홍윤표 · 진용옥 1996, “컴퓨터 처리분야 남북한 언어동질화 방안 연구”, 사단법인 국어정보학회 · 문화체육부.
- 홍종선 · 최호철 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 제2회의 북한주민 질병형태와 남북 신세대 통일의식

- 발표 1  
북한 주민의 질병관과 질병행태  
김석주 (의과대학)
- 발표 2  
국가권력과 공간구조: 북한의 수도계획  
전상인 (환경대학원)
- 발표 3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 의식 비교 연구  
강원택 (정치외교학부)



# 북한 주민의 질병관과 질병행태

## Illness Model and Illness Behavior of North Korean People

김석주 (의과대학)

연구책임자 : 의과대학	의학과	성명 : 김 석 주
공동연구원 : 의과대학	의학과	성명 : 이 왕 재
		성명 : 박 상 민
		성명 : 이 혜 원
보조연구원 : 의과대학	의학과	성명 : 최 희 란
	의과대학	성명 : 민 경 하
	치과대학	성명 : 한 재 란

###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배경

북한 보건의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 주민에게는 특유의 질병관과 질병 행태가 생겨났을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질병관이나 질병행태는 다른 나라나 남한 주민의 질병관이나 질병행태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질병 행태와 질병관은 제도나 경제적 상황이 바뀌어도 오랜 기간 작용한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주민과 전혀 다른 질병 행태나 질병관을 가진다면, 남한 주민의 질병 행태를 기반을 둔 의료 자원 및 제도의 통일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 이후 효율적인 보건의료통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질병행태/질병관 파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이나 제도, 의료 윤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북한 주민의 질병행태나 질병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의 질병 행태와 질병관에 중심을 둔 포괄적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 고찰, 북한 관련 의료진과의 면담,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하여 북한 주민의 질병관과 질병행태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과 형성 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질병행태 변화를 예측하는 데 있다.

### 2) 연구 방법

#### (1) 문헌 고찰

북한 주민의 질병관과 질병행태를 간접적으로라도 추정할 수 있는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문헌 고찰은 다음 일곱가지 주제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1) 질병관과 질병행태 이론에 대한 문헌, (2) 한국인의 전통적 질병행태 및 질병관 관련 문헌, (3) 사회주의 국가 국민들의 질병행태 및 질병관 관련 해외 문헌, (4) 빈곤 국가 주민들의 질병행태 및 질병관 관련 문헌, (5) 로동신문 의료 관련 기사, (6) 북한 의료 제도나 현실 관련 문헌, (7) 북한이탈주민의 보건 의료 이용 실태, 질병관, 질병행태에 대한 문헌

#### (2) 심층면담

북한 주민의 질병관과 질병행태를 추정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대상은 다음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1) 대북 의료 지원 실무자(8명), (2) 북한이탈주민 전문 진료 및 의료 지원 경험자(11명), (3) 북한에서 진료 경험이 있는 북한 출신 새터민 의료진(10명). 질문 내용은 그룹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였다: (1) 의료기관 이용 행태, (2) 질병 및 건강 지식, (3) 투약 및 검사 행태, (4) 의사 환자 관계, (5) 건강 증진 행태, (6) 한의학 관련 행태, (7) 특수 질환 관련 행태, (8) 임종 관련 행태, (9) 고난의 행군 이후 변화.

#### (3) 설문조사

북한이탈주민 200명과 남한 출신 주민 200명에게 질병관과 질병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였다: (1) 질병상태 및 의료 이용, (2)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질병의 원인, (3) 건강과 질병에 대한 통제 소재, (4) 건강 습관, (5) 의사 환자 관계,

(6) 고난의 행군 전후 변화, (7) 의료 기관(치료자) 선택, (8) 건강 증진 관련 행태, (9) 병원 치료 경험, (10) 탈북 정보, (11) 인적 정보.

### 3. 연구 결과

#### 1) 문헌 고찰

근대 이전까지 한국인들은 질병에 대해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해석과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통적인 한의학적 질병관에서는 진단 중심적 질병관보다는 증상 중심적 질병관을 가진다. 한의학적 질병관은 인간과 세계, 자연을 연결하는 전일론을 바탕으로 하였다. 근대 이후 서양의학이 도입되었다. 초기 외세에 대한 저항감과 주술적 질병관으로 인해 서양의학 도입에 장애가 있었으나, 곧 서양 의학의 효능에 대한 신뢰감이 증가하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전통 사회의 초자연적인 질병관은 배척하였으나, 반면 고려의학(동의학, 한의학)은 장려하는 정책을 취했다. 외국과의 교류가 많지 않고 민족을 강조하는 북한의 민간에는 초자연적인 질병관과 증상 중심적 질병관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의사-환자 관계가 수직적이고,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 수동적인 편이었다. 사회주의에서 벗어나는 탈 사회주의 과정에서 더 이상 국가가 개인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 탈 사회주의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체 국민의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도 역시 수직적 의사-환자관계와 수동적인 환자 태도가 있을 수 있으나, 고난의 행군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빈곤 국가 주민들은 전통적 치료를 현대 생의학적 치료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과학적인 생의학적 치료보다 전통적 치료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접근성 때문인 경우가 많다. 빈곤 국가에는 공공의료기관 외에 사설의료기관이 있는 경우도 많다. 주민들이 사설의료기관을 선호하는 이유도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접근성 때문이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얻을 수 없거나,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사설의료기관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빈곤 국가 주민들은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의약품을 가장 중시하는 편이다. 그러나 경제성과 편리성 때문에 의약품을 자기 처방하거나 비전문적 약품 판매

상에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약품의 오남용이 쉽게 일어나기도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북한에서도 역시 전통적 치료나 사설의료기관의 이용이 높아지고, 의약품의 가치가 올라가며, 약품 오남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의료제도는 무상치료제, 예방의학, 의사담당구역제도라는 특징이 있다. 의료진은 원칙적으로 철저한 검열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제도 하에서 주민들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으며, 지위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가 다를 수 있으며, 의료진에 따라 진료 수준의 차이가 크다. 북한에서는 정성의학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의료진의 희생과 봉사를 강조했다. 의료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 환자가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었다. 북한에서는 새로운 약품이나 의약기술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무상의료제가 무너지고, 개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챙겨야 했다. 이에 따라 이전의 질병행태와 의사환자 관계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양한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의 문제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정착 이후 의료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등 남북한 사회, 언어, 문화의 차이로 적절한 건강 행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통일이나 개방 이후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의료 체계나 문화에 바로 적응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 2) 심층면담 결과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먼저 주민들을 찾아가서 환자를 발견해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체계를 추구하였으나, 경제난 이후 이러한 시스템은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았다. 북한주민들은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야만 병원을 방문한다고 하였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 의료 기관에는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병원을 방문해도 치료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이 병원에 잘 방문하지 않는 이유로 제기되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입국 이후 의료기관 방문 빈도가 낮지는 않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도 자각증상이 없으면 필요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북한의 규정상 환자가 원한다고 상급병원을 선택해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사의 파송증이 상급 병원 이송에 필요하다고 한다. 다만, 최근 다른 구역 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진단서 없이도 가기 쉬워졌다는 보고도 있다. 병이 중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은 상급병원이나 큰 병원을 선호한다고 한다. 교통이 환자 이송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질병이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스스로 치료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 가벼운 질병이나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민간요법을 사용하거나 간단하게 장마당에서 알아서 약을 구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병원에서 약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 외에도 병원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나 경제적 접근성이 낮을 때 자기 치료 행태가 흔하다.

북한 주민들의 자기 진단/치료 과정에서 잘못된 의학 상식이 퍼지거나, 건강에 해가 되는 행동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주관적인 증상이 없으면 제대로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증상과 진단을 구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진단을 내리기도 한다고 보고되었다.

북한 당국은 질병이나 건강에 대한 지식을 의무적인 위생 선전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초기 북한 주민들의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지식 정보원으로 위생 선전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각 개인들이 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 위생 선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은 알고 지내던 의료인이나 장마당의 약장사에게 의료 정보를 얻기도 한다.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정보를 일반 주민들끼리 공유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되었다. 공유되는 정보는 주로 자신이나 주변의 경험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민들의 민간요법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민간요법으로는 주로 식품이나 약초 등을 이용하였다. 일부 민간요법은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거나 수술적 성취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플 때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는 북한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현대 의학이 제공되는 남한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은 민간요법을 계속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남한에서도 비과학적이거나 비위생적인 민간요법을 지속하다가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들도 보고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약을 귀한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 약품을 일종의 재산 가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적 시장에서 북한 의료인은 진료 행위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약에 대한 대가만 받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한다. 따라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꼭 현재 필요한 약이 아니더라도 약을 충분히 챙기고, 진료를 받으면 약을 받고 싶어 한다고 보고되었다. 의약품이 주민들끼리 공유하거나 빌리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서도 나타났다.

북한주민들은 주관적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약을 먹고, 주관적 증상이 없거나 경하면 치료가 필요해도 더 이상 약을 먹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무료로 지급되는 약은 받고 싶어 하나, 당장 증상이 없거나, 약을 복용하기 불편한 경우,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경우 약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약을 과다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다. 약을 과다 복용하는 경우는 자신의 불편을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덜기 위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항생제, 진통제, 수면제, 소화제 등을 과다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한 항생제 내성, 습관성 약물 부작용 등의 상승 위험이 보고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주사와 같이 빠르고 강력한 약을 선호하고 원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북한주민들은 약의 안전성 보다는 효과의 신속성이나 강력함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북한에서 불법 습관성 물질(필로폰, 아편 등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장마당의 약 중 가장 다수가 중국약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외국 약의 경우 약 내용을 잘 모르고 자기 처방을 하여 남용의 위험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검사비용이 무료일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 검사를 받고 싶어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많다고 보고되었다. 남한에서 장비를 통한 검사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무언가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대북지원가나 탈북 의사들은 정성 정신에 따른 의사들의 헌신성과 희생정신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환자들에게 정성이 없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강했으며, 보수 없이도 환자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정성의학 정신을 발휘하는 경우 의사들에게 실질적 이익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의사들의 정성의학 정신이나, 국가 충성도, 환자에 대한 열정이 과거에 비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의사들도 심한 경제난을 겪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움작이게 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지 못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의사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부업을 가지기도 하였으며, 의료 행위를 통해 비공식적인 수익을 얻기도 하였고, 장마당에서 약품을 팔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대북 의료 지원가들은 북한 의사들이 남한 의사들에 비해 권위적이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탈북의사 중 일부도 남한 의사에 비해 북한 의사들이 권위적이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반면 북한의 의사들이 남한에 비해 높지 않은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권위적이라는 탈북의사들도 적지 않았다. 이는 남한 의사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북한 의사들의 명령하는 식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대북 의료 지원가들은 북한의 의사들과 환자들이 친밀도가 높으며, 의사 환자 관계가 좋다고 보고하였다. 북한 의사들의 이야기에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신뢰하며 복종한다고 한다. 또한 의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 친밀감, 감사의 마음도 크다고 한다. 남한에 온 북한이탈주민 역시 의사에게 대부분 공손한 편이라고 한다. 의사에게 공손한 것은 감사의 마음 외에도 의사와의 사적관계가 개인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의사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는 크게 하락하였다.

북한에서 입원환자나 중환자의 경우 협의를 통해 치료 방법이 결정되므로 의사 개인이 독단적으로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의가 형식적인 경우도 많으며, 중환자가 아니면 의사의 개인적 재량권이 크다는 보고도 있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의사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탈북의사들은 북한 환자들이 북한 의사들의 말을 잘 따르며 잘 믿는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전문 의료진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은 증상을 강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북한이탈주민 전문 의료진들은 보고하였다. 북한에서 증상을 심하게 호소해야 병으로 인정받고, 치료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특히 진단서를 받아야 하거나, 의무를 면제 받으려 하거나, 원하는 시술이나 검사가 있거나, 정신과적 불안이나 신체화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을 과도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증상과 진단(질병명)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기 진단이나 치료가 만연되어 있고, 객관적인 검사를 받지 못하여 어떤 증상은 곧 어떤 병이라는 식의 잘못된 상식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한다.

진단서가 발부되어야 직장에서 결근해도 무단결근이 아니고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 진단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진단서를 받으면 주민들은 직장을 빠지고 개인적인 일을 추구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최근에는 진단서 없이 개인적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예전보다는 진단서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진단서를 노동 면제나 수급 유지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서도 나타난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위생 선전 등을 통해 예방을 강조해 왔지만, 경제난 이후 치료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예방에 대한 강조는 실효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예방 접종은 사회적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탈북의사들은 보고하였다. 금연이나 절주에 대한 보건 교육은 북한에도 존재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북한 주민들은 금연이나 절주에 대해 신경을 적게 쓴다고 한다. 당장의 생존에 급급한 현실 때문에 미래의 건강에 무관심한 편이라고 보고하였다. 건강을 위한 운동을 별도로 하는 일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평소에 많이 걷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은 충분히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개념을 가지기도 한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합병증 예방을 위한 무증상 질병 치료를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전문가가 많았다. 이는 장래의 문제를 미리 생각해서 치료를 받을 경제적 여유도 심리적 여유도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증상 위주로 건강을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 증상이 없는 질환은

질환으로 간주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비슷한 이유로 북한에서 만성 환자의 합병증을 막기 위해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역시 만성 질환의 관리나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이나 의사들에게 고려의학의 신뢰도가 높으며 실제 치료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일부 탈북의사들은 한약의 신뢰도가 남한에 비해서 높을 수 있겠지만, 양약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고려의학이 북한에서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에서 양약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또 다른 이유로는 주체사상이나 북한의 국가적 자존심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치료를 할 때 양약과 고려약을 적절히 배합하는 것을 지시하여, 실제 의사들이 이를 잘 지켰는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의사들이 한약을 개발하여 실제 임상에서 직접 적용하고 학문적으로 발표하도록 장려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고려의학 중 효과가 느린 한약보다는 효과가 빠른 뜸이나 부항을 선호한다고 한다. 비전문가에게 침을 맞거나 뜸을 뜨는 경우가 많으며, 뜸이나 부항은 자기 스스로도 많이 한다고 한다. 이러한 치료는 피부 화상 자국을 유발하기도 한다.

최근 북한에서는 환자나 가족들이 수술을 위한 물품이나 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확실한 치료로서 수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북한 주민과 북한 의사 모두에게 생소한 개념이었다.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이유로 생기는 증상에 대해 다른 내과적인 질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의사들이나 주민들 모두 정신과에는 심한 정신질환 환자들만이 간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들도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을 때 내과적 질환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거부하고 내과 검진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쓰는 질환은 전염성 질환이라고 한다. 전염병 때문에 심한 사회 갈등이나 주민 간 갈등은 없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고 탈북의사들은 보고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 유공자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시각이 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북한에서는 예방, 진단, 수술, 약물 등의 개념에 비해 재활의 개념이 약하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별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 북한에서는 당장 편안한 것이 중요하지 오래 살고 싶은 욕망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아 죽음에 대해 담담하게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다. 북한에서는 난치성 환자의 임종에 대해 주로 가족들에게만 알리고, 본인에게는 알리지 않는 편이라는 탈북의사가 많았다. 집으로 돌아가 임종을 맞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3) 설문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에서 겪었던 감염성 질환(폐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말라리아)과 영양 관련 질환(빈혈, 영양실조)의 비율은 남한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과 같은 무증상 만성 질환은 남한 출신 주민들보다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더 드물었다. 이는 남북한의 자주 생기는 질병의 특성이 다름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무증상 만성 질환이 더 드문 것은 증상이 없는 경우 예방을 위한 행태가 약해 질병을 자각하고 있지 못 할 가능성 역시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보다 북한에서 의사 오진을 더 경험하였으며, 치료를 받아도 병이 낫지 않았던 경험도 북한에서 더 많았다. 남한보다는 무상의료를 표방한 북한에서 오히려 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더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의 의료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무상의료가 무너져 의료에 대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생명이 위협할 수 있는 병이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에서는 병원보다 장마당을 우선적으로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기와 상처 등의 가벼운 증상에서는 치료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병원에 가는 이들의 수가 적었다.

북한에서 병원에 가지 못 한 경우가 많았으며, 병원에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빈곤과 치료약 부족이었다. 북한이탈주민들 중 88%가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경제적 이유로(60%), 치료 효과가 없어서(34%), 치료받을 수 없어서(21%), 교통이 불편해(18.5%), 기다리기 싫어서(16.5%) 등이 북한에서 의료기관 방문을 막는 주된 이유였다. 반면 남한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의료기관 방문을 막는 주된 이유는 진단에 대한 불안(40.5%)과 직장 문제(26.5%)이었다. 남한 출신 주민의 경험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경험을 비교했을 때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과 비교할 때 경제적 이유, 진단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남한에서도 병원에 가지 않는 경향이 더 흔했다. 이에 반해 남한 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예약 불편, 교통 불편, 치료 효과 부족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더 흔했다.

자기진단, 자기 치료, 민간요법을 남한에서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보다는 북한에서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많았다. 북한에서 자기진단을 한 이들이 20.5%, 자기치료를 한 이들이 32.5%, 민간요법을 활용하는 이들이 17.0%에 달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 18가지 모두에 대해서 북한에 있을 때 보다 남한에 입국한 후 중요성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였다. 이는 북한에서는 질병의 원인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남한 간 비교와는 달리 북한이탈주민(남한에서의)과 남한주민 질병 요인 중요성 인식은 병원 실수, 가족, 스트레스(북한이탈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과 과로(남한 주민이 중요하게 생각) 4가지 요인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건강통제감 비교에서 내적 통제감과 강력한 외부 요인에 의한 통제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한 주민이 높았다. 다만 우연에 의한 통제감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행동이나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운이나 우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보는 편이었다.

의료진 제공 정보나 일반인 제공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남한 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한의학에 대한 신뢰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높은 경향성이 있었다. 이는 고려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신뢰감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존재함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거의 모든 문항에서 북한에서의 의사환자 관계에 비해 남한에서의 의사환자 관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남한의 의사가 친절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사의 권위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산술적으로는 남한 의사가 권위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북한의 저하된 의사 환자관계는 주로 치료 효과 부족이나 의료 수준 낙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성의학에 기반을 둔 북한의 의사-환자 관계는 고난의 행군 이후 신뢰도는 떨어지고, 수직적인 측면만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남한의 의사들을 더 권위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연 시도나 금연 의지는 북한에서나 남한 입국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술을 끊으려는 시도 역시 북한에서나 남한 입국 이후에 차이가 없으나, 단주 의도는 남한 입국 이후에 증가하였다. 운동 시도와 운동 의도 양쪽 모두 남한 입국 이후 북한에서보다 증가하였다. 이상은 남한 입국 이후 건강 증진 행태가 다소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에 가거나 자택진료를 하는 경우가 늘었고, 병원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병원에서 치료의 대가를 요구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었다. 오래전 탈북한 이들은 고난의 행군 이후 병원보다 장마당을 먼저 찾는 경향이 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최근 탈북한 이들은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 약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자택 진료의 증가를 보고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 진료가 의료의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최근 탈북한 이들일수록 장마당 의료나 약약품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4. 결론

### 1) 북한 주민의 질병관, 질병 행태 결과 종합

면담에서 북한 주민들은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진료소(병원)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보고 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장마당에서 약을 구해 자기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려는 경우가 많다. 가벼운 질병이나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민간요법을 사용하거나 간단하게 장마당에서 알아서 약을 구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양적 연구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위독한 중병 외에는 모든 증상에서 병원보다 장마당을 우선적으로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와 상처 등의 가벼운 증상에서는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져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남한보다 북한에서 자기진단, 자기 치료, 민간요법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담에서는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가 주로 약이 없기 때문이라고 묘사되었으며, 양적 연구에서는 경제적 이유, 치료 부족, 치료 불가능, 교통 불편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많은 빈곤 국가 주민들의 의료 행태와 유사하다. 빈곤국가에서는 경제성과 편리성 때문에 약품을 자기 처방하거나 약품 판매상에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면담에 따르면 최근의 북한 주민들은 약품을 일종의 재산 가치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에 의해 약품 부족이나 교통 불편도 초래되므로 북한 주민의 병원이나 진료소 방문이 줄어든 것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결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면담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위생 선전 등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고난의 행군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북한 주민들은 그 외에도 장마당의 약품 판매상에게 정보를 얻거나 자신이나 주변의 경험을 통해 건강 정보를 얻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약품 판매상이 의료인의 역할을 하는 것 역시 다른 빈곤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중앙의 지도와 교육을 통해 보건 정보를 전달하던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이 약화되면서 빈곤 국가에서 나타나는 형태와 유사하게 사적네트워크를 통한 보건의료 정보 유통이 만연해 진 것으로 보인다.

면담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민간요법을 많이 한다고 한다. 이중 일부 민간요법은 비과학적이거나 비위생적이기도 하며, 수술적인 측면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는 북한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양적 연구에서도 북한에서 민간요법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질병의 원인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우연이나 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빈곤국가에서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접근성 때문에 전통적 치료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근대 이전

까지 한국인들은 질병에 대해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해석과 처방을 하였다. 북한에서의 민간요법의 만연은 경제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 민간요법의 주술적 특성은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이 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주의에 근간한 북한에서는 무속적인 질병 행태는 금지하지만, 한의학(고려의학)은 장려하였다. 면담에서 고려의학이 북한에서 인정받는 것은 양약을 구하기 어렵다는 경제적 이유와 북한의 국가적 자존심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이유가 제시되었다. 양적 연구에서도 다른 건강정보에 대한 신뢰감은 남한 주민이 유의하게 높았지만, 한의학에 대한 신뢰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높은 경향성이 있었다. 면담에서 북한 주민들은 한약에 대한 신뢰도보다는 침이나 뜸과 같이 빠른 효과를 보이는 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뜸의 경우 비전문적 자기치료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계속 정성의학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의료진의 희생과 봉사를 강조해 왔다. 북한에서는 호담당의사제도로 인해 주민과 의사의 친밀도가 높다. 면담에 따르면 의사는 질병에 대해 지도하고 지시하고, 북한의 환자들은 의사들의 이야기에 신뢰하고 순응하는 관계가 주로 묘사되었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의사를 존경하고 친밀하게 느낄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관계는 수직적인 편이다. 수직적 의사-환자 관계는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이 나타났다. 남북한 의사의 권위적 태도에 대해서는 면담에서 상반된 답변이 나왔으며, 양적 연구에서는 남북한 의사의 권위적 태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한 의사가 친절도가 높다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남한 의사의 권위적 태도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북한 의사의 권위적 태도는 사회주의 전형의 수직적 의사-환자 관계(흔히 부모-자식에 비교된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환자들이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면담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의사들이 정성의학 정신과 희생정신이 강했으나, 고난의 행군 이후 의사들 역시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면서 의사들의 정성의학 정신이나 열정이 과거에 비해 확연히 떨어졌다고 한다. 경제난 이후 의사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도 크게 하락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양적 연구에서도 남한에서보다 북한에서 의사-환자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한보다 북한에서 오진도 많았으며, 치료 효과도 없었으며,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들이 자신의 생존이나 수익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은 빈곤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정성의학 정신의 쇠퇴는 경제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들은 과거처럼 건강에 대해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자기 치료 등 개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적절한 자기 치료로 인한 부작용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의 붕괴와 경제난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의사-환자 관계와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린 것으로 추정된다.

면담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주관적인 증상과 진단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즉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곧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때문에 증상 호소가 더 극적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양적 연구에서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병은 인지하지 못 해 무증상 만성 질환은 남한 주민이 더 많이 보고하였다. 증상과 진단의 혼용은 한의학적 세계관에서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으나 결국 의료진에 의한 의학적 진단 시스템이 붕괴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도 거의 생각하지 않아 양적 연구에서 모든 질병 유발 요인의 중요성을 남한에서 크게 인식하였다. 이는 질병의 원인에 대한 비과학적 오해도 있을 수 있으나, 질병의 원인에 대한 관심 자체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질병과 건강에 대한 북한 주민의 사고 방식에서 두드러지는 부분 중 하나는 당장 현재 느끼는 부분을 중시하면서, 장기적인 결과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었다. 면담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지금 당장 느끼는 증상이 없으면 건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신과적 장애에서도 심리적 증상보다는 신체적 증상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 또한 증상을 느낄 때만 약을 먹고, 증상이 없으면 합병증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안전한 치료 보다는 주사나 수술과 같은 빠르고 강력한 효과가 있는 치료를 선호한다고 한다.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위해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항생제, 진통제, 수면제, 소화제 등을 과다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금연이나 금주, 운동과 같은 건강 습관에 큰 관심이 없다고 하며, 신체를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개념을 가지기도 한다고 한다. 죽음에 대해서도 당장 편한 것이 중요하므로 크게 공포스러워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러한 현재 중심 사고의 이유로는 북한 주민들이 장래를 생각할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 2)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한 예측과 대비

질병관이나 행태는 변화의 속도가 느려 제도적/경제적 회복 이후에도 현재의 질병관과 질병행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향후 북한의 경제 회복과 의료 체제 재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질병관과 질병행태는 분명히 다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의료 체제가 개선되지 않고, 경제난이 지속될 경우 장마당 약품 구입이나 자기 치료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의사-환자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정확한 건강 정보가 떠돌고, 주술적이거나 의학적으로 위험한 민간요법이 더욱 횡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적 회복과 의료 제도를 재건하는 경우 질병관과 질병행태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예방과 교육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질병행태와 정성의학, 의사의 헌신, 환자의 존경에 기반을 둔 수직적 의사-환자관계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 이후에도 통일 한국의 경제상황과 채택한 의료 제도에 따라 남북한 주민의 질병행태와 질병관은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의료 제도 하의 통일이 되든 간, 북한 주민의 질병 행태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는 대비해야 한다.

우선 북한 주민의 자기 진단, 자기 처방,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 선호, 의약품에 대한 정보 부족, 약품 판매상의 역할 등으로 약품 오남용이 심각해질 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 특히 이로 인한 항생제 내성, 신경안정제 습관성, 기타 심각한 약물 부작용 등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비위생적이거나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의 부작용을 대비해야 한다. 과학적인 방법이라도 비전문가나 자기 스스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 생길 부작용도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 잘못된 질병에 대한 지식을 교정해야 한다.

자기가 느끼는 증상 위주로 건강이나 질병을 판단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과도한 치료를 해서 건강을 악화시키고, 당장 증상이 없으면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기도 한다.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역시 만성 질환의 관리나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의 궁극적 건강을 위해 증상과 질병의 차이에 대한 교육과 자기 진단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적절한 의료 이용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달리 남한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의료기관 방문 빈도가 낮지 않다고 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이탈주민 모두 큰 병원을 선호하고, 검사를 받고 싶어한다고 보고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을 때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거부하고 각종 검사를 반복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통일 이후 의료 수준이 높은 남한의 의료 시설을 불필요할 정도로 이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북한 주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

북한 주민들의 질병행태는 가난과 사회주의적 특성, 한국적 전통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어 왔으며, 남한 주민의 질병행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국가권력과 공간구조: 북한의 수도계획

전상인 (환경대학원)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1) 수도계획론
  - 2) 극장국가론
3. 북한의 건축·도시·수도계획 원리
  - 1) 건축 계획
  - 2) 도시 계획
  - 3) 수도 계획
4. 수도 평양의 공간구조(Spatial Structure)
  - 1) 평양의 가로 및 경관
  - 2) 평양의 건축 및 조형물
5. 수도 평양의 공간행태(Spatial Behavior)
  - 1) 정례 행사
  - 2) 비정례 행사
  - 3) 일상생활
6. 결론

##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수도 평양을 도시계획, 그 가운데서도 특히 수도계획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관련 학계는 북한을 대표하는 평양의 정치적 상징성에 주목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도시관련 학계는 북한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무관심에 더하여 도시계획과 구분되는 수도계획의 차원에서 평양을 면밀하게 고찰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계획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sup>1)</sup> 근대 국가에서 수도가 차지하는 위상은 일반적으로 막강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의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할 것’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가장이다. 평양은 명실상부한 ‘북한의 심장’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북한을 기본적으로 ‘극장국가’로, 그리고 평양을 그것의 대표적 ‘공연무대’로 인식한다.

수도계획의 관점에서 평양을 연구하는 일은 학문적으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어야 한다. 정치사 회학이나 역사사회학, 도시사회학은 물론이고 건축학이나 지리학, 도시계획학, 도시계획사 분야와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수도 평양을 실제로 분석하는데에는 자료의 제한과 접근성의 한계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 2 이론적 배경

### 1) 수도계획론

무릇 도시는 저절로 탄생하거나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그것은 역사적으로 탄생하고 인공적으로 관리된다. 통상 도시라는 말 뒤에 계획, 설계, 건설, 개조, 재생, 재 정비 등이 붙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그런데 도시를 인위적으로 처음 ‘발명한 것은 지배 권력이었다. 그런 만큼 도시와 정치는 본질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도시형태(urban form) 자체가 나름 정치적 의미를 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시 형태는 특정한 정치적 가치의 결과적 징표(symptom)일수도 있고, 의도적 상징(symbol)일수도 있다(Sonne, 2003:29). 도시에 대한 독해법 가운데 하나는 정치적 도상학(political iconography)이다.<sup>2)</sup>

공공의 이름으로 도시에 대한 ‘계획’이 본격화된 것은 근대 이후다.<sup>3)</sup> 두말할 나위 없이 이는 근대

1) 대한민국은 수도계획을 제대로 고민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시대 왕도(王都)에서 출발하여 대한제국과 일제 식민지를 거친 서울은 그저 관습상의 수도로 이어져 당연하게 ‘재활용’되어 왔을 뿐, 대한민국 건국 이후 근대국가의 수도로서 기대되는 특단의 공간적 업그레이드는 별로 없었다. 급속한 도시화에 대처하는 도시계획이 수도계획을 우선하고 압도해 왔을 따름이다. 언필칭 ‘독재자’ 대통령 혹은 ‘제왕적’ 대통령조차도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수도계획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2) 짐멜에 의하면 대칭형 도시 형태는 대체로 모든 독재체제에,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는 비대칭형 도시형태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Sonne, 2003:30).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형태와 정치체제의 연관성에 대하여 “방어 목적에 관련하여 성채(acropolis)는 과두정치나 군주정치에 적합하고, 평지(plain)는 민주주의에 적합하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귀족정치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그것은 일련의 강건(剛堅)한 장소(a number of strong places)를 선호한다”고 주장했다(Aristotle, 1981:422).

3) 계획의 기원을 고대 도시까지 소급하기도 하지만, 계획 특유의 미래지향성을 고려하면 그것은 계획이라기보다 설계에 가깝다(Connell, 2009:87).

국가의 태동과 산업혁명의 여파에 의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유럽사에서 근대의 문을 연 것은 그곳 특유의 자치도시들(corporate towns)이었다(브로델, 1995).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자본주의의 온상으로서 이들은 농촌중심의 분권적 봉건체제를 붕괴시켰다. 유럽의 17-8세기는 따라서 새로 등장한 근대국가가 기존 중세도시들과의 관계가 재조정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푸코(2011:33)에 의하면 그것은 도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순환 공간 내에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곧, 기본적으로 폐쇄성과 방호적(防護的) 성격을 가지고 있던 중세시대의 도시는 근대국가 체제 하에서 공간적, 법률적, 행정적, 경제적으로 해방되었다.

근대국가는 특히 그 나라의 대표도시, 곧 수도의 건설을 요구하였다.<sup>4)</sup> 유럽에서 근대국가와 수도건설은 동반성장적 관계였다. 푸코(2011:33)가 17세기 중반 알렉상드르 르 메트르가 쓴 〈수도론〉에 주목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르 메트르는 “영토의 수도화” 개념을 제시하면서 영토와 수도의 바람직한 관계를 세 가지로 요약했다(푸코, 2011:35-38, 42).<sup>5)</sup> 첫째, 훌륭한 국가는 원의 형태를 가지며, 그 중심에 수도가 존재하는 기하학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둘째, 수도는 “영토의 장식”으로서 양자의 관계는 미학적이고 상징적이어야 한다. 셋째, 수도는 “상업의 장소”로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7세기 유럽에서 태동한 근대국가는 19-20세기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발흥하고 풍미했다. 그리고 근대국가의 확산과 경쟁은 당연히 수도 및 수도계획의 발전을 동반했다. 수도계획은 도시계획의 일종이면서도 그것과 구분되는 그 무엇이였다(Gordon, 2006:1). 우선 수도는 영토를 읽는 ‘국가의 눈’이 되었다. 푸코에 의하면 근대사회의 규율장치는 파놉티콘(Panopticon) 원리에 입각한 시선의 힘이다(푸코, 1994). 그리고 근대적 국가권력의 원천 또한 자연과 세상에 대한 가독성(legibility)의 획기적 증대에 있다(스콧, 2010). 이 때 수도는 이른바 ‘국가처럼 보기’(seeing like a state)의 공간적 거점 혹은 원형감시 망루가 된다. 국가의 응시 혹은 독해 역량을 늘리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이 국가 단순화(state simplification) 프로젝트인데, 여기에는 중앙집권적 교통망과 통신설비, 도량형 통일, 표준어 제정, 성씨 제정 등이 포함된다(스콧, 2010:97-140).

이처럼 수도는 국가의 눈이면서 ‘국가의 입’이기도 하다. 근대국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존재를 시각적, 언술적 실행을 통해 나타내려는 경향이다. 국가는 관료제나 강제력 등으로 표현되는 ‘사물’(thing)이기도 하고, 사회집단이나 계급 등과 맺고 있는 ‘관계’(relation)이기도 하지만,

4) 두말할 나위 없이 수도는 국가를 전제로 성립되는 개념이다. 로마 제국 멸망 이후 유럽에서는 수도라 부를 만한 도시가 없었다. 중세 유럽에서 발전한 자치 도시는 권력의 공간이 아니라 신혼 부르주아들의 경제적 거점일 뿐이었다.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지향했던 동양, 그 가운데 특히 중국의 경우가 수도의 발전을 선도한 것은 따라서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전통사회에 있어서 중국의 수도란 현대국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수도는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면의 종합적 시대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의 위치 선정은 “그 왕조나 시대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규정”하였다(박한제, 2000:46).

5) 〈수도론〉에 의하면 국가는 하나의 건축물과 같은 것으로, 수도의 존재는 국가에게 필수적이다. 무릇 국가는 농민, 장인(匠人), 그리고 관료 세 요소로 구성되는데, 농민은 농촌에, 장인은 소도시에, 그리고 주권자와 관료는 수도에 거주해야 한다는 논리였다(푸코, 2011:35). 푸코가 보기에 17세기에 제기된 수도론은 관방학(官房學) 혹은 중상주의의 산물이었다. 말하자면 “주권국가, 영토국가, 무역국가의 중첩”을 지향한 것이다(푸코, 2011:37-38).

영토의 내부 및 외부,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 발현하는 ‘효과’(effect)이기도 하다는 의미에서다(한석정 1999:29, 37, 40, 46-47, 231). 효과로서의 국가에 주목할 경우, 국가는 발언하고 주장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 때 말을 하는 입이 다름 아닌 수도다. 근대국가의 지배엘리트들이 수도를 거창하고 상징적인 의례 중심으로 변모시키는 일에 서로 경쟁적으로 임했던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다카시, 2003:60-62).

요컨대 근대국가들에게 있어서 수도는 국가의 눈이자 입이다. 수도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의 목표가 수도를 일국(一國)의 눈과 입으로 만드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나폴레옹 3세 치하 오스만의 파리대개조 사업이 대표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도시계획이 있었다. 엄청난 도시면적, 사통팔달의 대로, 육중한 공공건물 등은 파리를 위시하여 마드리드, 상트페테르부르크, 빈, 베를린, 로마, 워싱턴, 런던을 휩쓸었고, 그 파장은 인도나 호주 등 식민지국가의 수도까지 도달했다. 대한제국을 선언한 고종이 한양에서 황도(皇都) 건설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두 번째 수단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수도계획이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개별국가의 독특한 정체성을 각인하고 과시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동원된 수단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은 흡스봄(2004)이 말하는 ‘전통의 발명’(invention of tradition)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국민국가가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유럽에서는 전통들이 대량생산되기 시작했다. 이는 근대국가의 권위와 특권을 고양하기 위해 국경일, 의례, 영웅, 상징물 등을 전통의 이름으로 창조하려는 국가전략이자 사회공학이었다. 이 때 태동한 공식의례나 공공기념물은 대개 수도를 무대로 삼았으며, 그런 만큼 수도공간은 공적 ‘기억의 경관’(memoryscape)을 형성했다.

하지만 수도의 디자인 정치를 순수한 민족주의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Vale, 2006:30-31). 수도가 민족적 정체성을 진작시킬 수도 있지만 개인적, 권력적 혹은 초국가적 야망의 구현에 목표를 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도계획이 도시계획 일반과 전혀 무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에 대한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의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수도는 당대의 첨단 도시계획에 비해 오히려 ‘복고적’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국가적 도시’라는 지위 혹은 ‘국가적 미장센’이라는 위상 때문에 시민적 친근함을 고려하는 대신 넓은 도로나 강한 축선에 기초한 전근대적 감수성을 드러내는 일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Vale, 2006:36). 결국, 수도에 대한 계획과 설계는 그것이 그곳에 위치하게 된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힘과 분리할 수 없다(Vale, 1992; Vale, 2006:15). 분명한 것은 계획적으로 건설된 수도일수록 국가권력의 적나라한 상징이 된다는 점이다(Sonne, 2003:29). 수도계획은 기술·기능적 혹은 형식적인 이슈를 넘어 정치적 맥락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Sonne, 2003:32).

유럽사를 기준을 볼 때 수도는 18-9세기 이후의 산물이다. 특히 20세기 국민국가의 전성시대를

맞이하여 수도건설 내지 수도재건이 범세계적으로 성행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1900년과 2000년을 비교할 경우, 백 년 전의 수도 가운데 3/4은 백년 후에 수도의 지위를 잃었다는 사실이다(Vale, 2006). 이는 제국주의의 붕괴, 두 차례의 세계대전, 신생국가들의 태동, 초국가적 국제기구의 등장 등에 의해 초래된 거대한 정치변동의 결과였다. 요컨대 수도의 기능이나 위상, 혹은 판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따라서 언제부터가 수도는 “한 나라의 정부가 입지한 곳”이라고 한 마디로 간단히 정의할 바가 아니게 되었다.<sup>6)</sup>

이와 관련하여 홀은 현존하는 수도의 종류를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Hall, 2006). 첫째는 ‘복합기능 수도’(Multi-Function Capitals)로서 최고 수준의 국가기능 전부 혹은 대부분을 수행한다. 런던, 파리, 도쿄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는 ‘세계적 수도’(Global Capitals)로서 일국의 수도이지만 정치나 무역 등에 차원에서 초국가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인데, 런던과 도쿄에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정치적 수도’(Political Capitals)이다. 이는 워싱턴 DC나 오타와, 캔버라처럼 정부만 입지한 도시를 의미한다. 넷째로는 ‘이전(以前) 수도’(Former Capitals)가 있다. 정치적 역할은 상실했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역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상페테스부르크나 리우데자네이루가 대표적이다. 다섯째는 ‘제국의 구(舊)수도’(Ex-Imperial Capitals)인데, 현재에는 일국의 수도이지만 과거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 상업적 및 문화적 역할을 여전히 중요하게 수행하는 경우다. 런던이나 바엔나, 리스본이 이 경우다. 여섯째는 밀란이나 시드니, 토론토 같은 ‘역내수도’(Provincial Capitals)이다. 이는 한 때 사실상의 전국의 수도 기능을 수행했으며, 현재까지 주변 지역에 대한 수도의 역할이 남아있는 도시들을 말한다. 독특하게도 뉴욕은 세계적 지역수도다. 끝으로 ‘초국가 수도’(Super Capitals)가 있다. 이는 브뤼셀이나 제네바, 뉴욕처럼 일국의 수도 여하와 상관없이 국제기구의 중심부가 된 도시를 일컫는다. 물론 지구상의 수도들이 위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확실히 분류되지는 않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 존재하는 수도는 전통적인 ‘복합기능 수도’이며, 북한은 수도인 평양도 여기에 해당한다.<sup>7)</sup>

## 2) 극장국가론

서구 근대국가의 역사적 태동과 그것의 작동원리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권위를 확보하고 있던 막스 베버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강제적 물리력에 기반을 둔 ‘제도적 실체’(institutional reality)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인류학자 기어츠(Geertz, 1980)의 생각은 그것과 크게 달랐다. 기어츠는 문명국가 혹은 근대국가의 반대 입장에 서서, 19세기 말 발리 섬의 왕실의례를 연구하였다.

6) 가령 우리나라에서도 인천은 경제수도, 창원은 환경수도, 광주를 문화수도를 각각 자임하고 있다.

7) 수도에 관련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제8의 유형을 선보이는 측면이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에 따른 수도 분할 현상 때문이다. 특별시 자격의 수도가 두 군데 존재한다는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다.

그곳에서 그는 ‘네가라’(Negara), (발리어로 정치적 영역 또는 국가)가 외래 인도문명으로부터 받아들인 힌두이즘을 사회운영의 사나리오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네가라의 경우 정치적 권위는 왕이 사회와 우주의 중심임을 주기적인 의식을 통해 과시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가어츠는 권력이란 “상호작용하는 상징의 체계”(systems of interacting symbols) 혹은 “상호 작동하는 의미의 양식”(patterns of interworking meanings)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 국가운영의 핵심원리는 다름 아닌 연극인데, 이런 맥락에서 도출된 것이 바로 ‘극장국가’(theater state) 이론이다. 요컨대 극장국가는 권력의 정치(politics of power)가 아니라 ‘과시의 정치’(politics of display)다. 그리고 이때 수도나 궁정은 연출을 통해 과시되는 우주적 질서의 미니추어(miniature)가 되는데, 이를 가어츠는 ‘모범적 중심’이라 불렀다.

극장국가에서는 국민 전체가 연기의 행위를 공유하면서 연극에 동참한다. 예컨대 발리 섬에서 왕은 사나리오를 갖고 있는 흥행주이고, 승려는 연출가이며, 농민은 배우와 관객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존재다. 결국,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나리오를 함께 엮어 있는 연기자라는 점에 극장국가의 특징이 있다. 연기가 곧 정치인만큼, 극장국가는 모든 사람이 정치적으로 서로 얽혀있는 ‘정치지상주의’를 지향한다. 그곳에는 각자 맡은 바 충실한 연기수행을 통해 국가전체를 극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종목표다. 따라서 정치적 갈등은 원천적으로 부재(不在)할 수밖에 없다.

극장국가론의 가치는 19세기 발리 섬의 통치구조가 비록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원리의 측면에서 볼 때 결코 특이하거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권력의 상징체계 중심에 위치하는 신성한 왕을 숭배하는 의례는 “본질적으로 불변의 문화형태”로서, 가어츠의 극장국가는 결코 어느 특정한 왕조에 국한된 극장이 아니라는 것이다(다카시, 2003:47). 네가라 모델은 따라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유사해 보이는 제도들 전체의 표상을 구성하기 위한 안내서이자 일종의 사회학적 청사진”의 의미를 갖게 된다(다카시, 2003:48).

극장국가론은 근대 서구에서 출현한 국민국가 역시 궁극적으로는 일종의 상징적 의례 혹은 문화적 현상의 예외가 아니라고 이해한다. 전통국가의 권력이 제도적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장엄한 종교의례 같은 공연을 토대로 했던 것처럼, 세속적 현대국가의 권력도 군사력의 화려한 스펙터클이나 종교적 모습의 대중연설 같은 주로 권력의 의례화된 상징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작동 원리는 마찬가지로라는 것이다(권현익·장병호, 2013:96). 프랑스 정치인류학자 발랑디에(Georges Balandier)가 말하는 무대권력(scene politics)와 연극정치(theatrocracy)의 개념도 이와 유사하다. 그에 의하면 “권력이란 의례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의 전환, 이미지의 생산, 상징의 조작과 조직화를 통해서만 창출되고 유지된다”(하상복, 2007:25-27에서 재인용).

아닌 게 아니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근대국가의 형성 및 세계적 확산 과정에서 극장국가의

원리는 활발히 도입되었다. 특히 각국의 수도는 엄청난 변모를 거쳐 국가의례를 공연하는 거대한 공공무대로 변모했다(다카시, 2003:13). 가어츠가 말한 것처럼 수도는 극장국가의 ‘모범적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후발 근대국가 혹은 권위주의 국가일수록 그랬다. 가령 일본의 경우, 개국 이후 메이지 시대 말까지는 공간적 차원에서 “새로운 표상 시스템이 형성되는 시대”였다(이효덕, 2002). 이런 점에서 메이지 국가는 “전형적인 극장국가”였다(토오루, 1993:9-10, 29). 토오루에 의하면 일본은 과거에도 중국문명에 기초하여 국가경영을 했는데, 그는 일본인에게 “극장국가 국민으로서의 연기본능이 있다”고도 말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출범한 일본의 근대국가는 도쿄를 “국가의 상징적 지형”으로 부상시켰다(다카시, 2003:61). 도쿄는 “눈부사게 새롭게 구성된 황실 패전트의 중심적인 노천무대”로 등장하면서 행재소(行在所)<sup>8)</sup>에서 제국의 수도로 급변했다(다카시, 2003:36). 물론 그 과정에서 메이지 정부 지도자들에 의해 수많은 ‘전통의 발명이 생산되었고, 이러한 ‘기억의 경관’(memoryscape)을 통해 도쿄는 극적인 국가의례를 펼치는 중심무대가 되었다(다카시, 2003:60-130). 일본이 1932년에 건설한 괴뢰국가 만주국도 매우 유사한 양태를 보여준다. “처음부터 만주국은 이벤트의 나라”였다. 만주국은 “일제가 외부세계를 향해 행사는 일종의 연극 같은 것”이었는데, 수도 신징(新京)도 이런 맥락에서 계획되고 건설되었다(한석정, 1999).

나치 독일의 히틀러도 베를린을 “세계의 수도”로 재건설하고자 했다. 그는 수도계획 프로젝트를 통해 이른바 “돌로 쓰인 단어”를 베를린에 남기고자 했는데, “국가는 국민에게 가능한 거대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의 그가 설정한 목표였다(권형진, 2011). 히틀러는 수도계획과 국가건설을 사실상 동일시한 것이다. 하지만 극장국가는 전통왕조의 유산만도 아니고, 근대국가 건설 초기의 현상만도 아니며, 또한 우파 전체주의 국가의 전유물만도 아니다. 극장국가는 여전히 세계적이고 보편적이다. 가령 사회당 출신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추구한 국립묘지 “뺑테옹의 상징정치”는 극장국가로서의 근대국가를 재현하는 또 하나의 단면이다(하상복, 2007). 만약 북한이 극장국가라면 이는 결코 북한 특유의 현상이 아니다. 극장국가는 어디까지나 정도와 방법의 문제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우리 시대의 간판급 극장국가로 여길만한 근거는 충분히 많다.

북한의 국가권력과 정치체제는 지금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개념화되어 왔다. 사회주의, 전체주의, 수령제, 조합주의, 신유교 가족국가, 유격대국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런 개념들을 관통하여 북한체제를 특성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론이 바로 극장국가론이다. 최근 북한의 극장국가적 성격이 크게 부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권현익·장병호(2013:13-15)에 의하면 “북한정치체제의 수수께끼는 특이한 개인숭배의 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행의 특이한 지속성”이다. 말하자면 북한은 카리스마 권력의 비영속성을 극복한 특이한 사례인데, 그 비결이 새로운 국가정치 기술의

8) 천황이 순회 시 잠시 머무르는 임시궁전

발명 곧 “대중적 사회동원과 대중적 정치교양”이라고 했다.

북한은 “식민지의 고통과 빨치산 투쟁의 기억”을 창조하고 “만주시대에 대한 국가적 서사”를 통해 국가 전체를 극장화 혹은 무대화한다(권현익·정병호, 2013:43-46). 특히 김일성 사후 북한은 기본적으로 “장례와 추모의 정치”를 강화하고 있다. 극장국가론이 인식하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정치지상주의’의 나라인데(권현익·정병호, 2013:21-23), 이 때 정치의 핵심은 ‘급진적인 도덕정치’다. “우리 조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에 비하면 경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이 이를 웅변한다. 말하자면 정치라는 개념이 “지고의 도덕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극장국가와 정치지상주의 사이의 선택적 친화력이 북한의 경우를 놓고 재확인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다.

메들리코트(Medlicott, 2005) 역시 북한을 기본적으로는 전근대 동아시아 유교국가로 치부한다. “상징적 연출(symbolic performance)이 북한의 국가주권 생산을 매개하는 거대한 층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와다 하루키 또한 “김정일이 연출가이자 디자이너로 있는 북조선의 유격대국은 바로 가이즈가 규정한 ‘극장국가’의 성격을 분명히 부분적으로는 띠고 있다”고 본다(와다, 2002:156). 북한에서는 영도예술이라는 이름의 “통치의 연극화, 통치의 예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북한의 수도 평양이 있다. 북한은 극장국가이며, 평양은 극장국가의 핵심적이고도 대표적인 무대공간이다.

### 3. 북한의 건축·도시·수도 계획 원리

#### 1) 건축 계획

북한에서 건축은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필요한 정신적 및 물질적 조건을 보장하여주는 수단”(백과사전출판사, 1995:548; 김정일, 1992:3)으로 “실용성과 사상예술성은 건축의 본질적 속성”(김정일, 1992:11)으로 규정한다. 곧, 기능성, 안전성 등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건축의 기능 외에도 사상 교양적 역할이 강조된다.

특히 기념구조물, 장식구조물, 선전구조물과 같은 ‘건축구조물’은 “조형적 처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하며 예술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인민의 사상교육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다. 수령의 혁명위업을 칭송하는 대기념비는 도시의 중심축에 주변 건축물보다 크고 웅장하게 건설함으로써, 그곳에 담긴 사상적 위대성과 심오함을 직관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수령의 동상은 인민들이 언제나 바라 볼 수 있도록 중심부의 가장 높은 곳에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김정일, 1992:38-45). 조각과 벽화, 장식, 공예 등도 건축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고 체제의 우월성과 수령의 원대함을 강조하는데 사용된다. 조각과 회화의 경우, 형태, 색채, 명암 등을 통하여 상세한 묘사가 가능하여 인민들에게 사상적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김정일, 1992:100-102).

1970년대부터 북한 건축은 ‘주체건축’을 추구하는데, 이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완전무결하게 실현해주는 것으로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건축”이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축의 본보기”(백과사전출판사, 1995:550)이다. 주체건축의 강조는 기능주의, 구조주의, 표현주의 건축의 배경으로 이어진다. 기능주의 건축은 건축의 기능만을 절대화하여 그것이 지녀야 할 사상예술성의 중요성을 간과하며, 구조주의는 재료와 구조로 다양성을 강조하여 자본주의 건축의 반동성을 옹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표현주의 건축은 퇴폐적이고 말세적인 미적 취미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이들은 모두 주체건축의 조건인 민족성과 사상예술성을 모두 부정하는 “반인민적이며 반동적” 행위이다(백과사전출판사, 1995:559; 김정일, 1992:24-25).

따라서 북한 사회 내에서 건축가<sup>9)</sup>는 강한 정치적 권력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지는 않는다. 인민대중 중심의 주체건축을 성공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곧 수령의 구상과 의도가 담긴 ‘혁명적 수령관’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 계획과 설계는 당의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전문건”과 같으며, 건축가는 “수령이 펼쳐준 구상을 실현해나가는 기술자이며 창작가”에 불과하다. 때문에 북의 건축가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당 정책을 깊이 체득하는 것”이다(김정일, 1992:17, 151, 156, 158-159). 건축가는 끊임없이 수령의 사상의식을 체득해야만, 비로소 훌륭한 혁명적 건축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건축가동맹’이라는 건축가들의 사상적 교양을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있다. 건축가동맹은 건축가, 건설기술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토론회, 강습회,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가적 건축 사업에 설계현상모집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축가동맹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바로 건축가들에게 당의 건축창작방침과 건축 사상이론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건축은 수령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9) 북한의 건축기술자 양성기관은 4년제로는 평양건축종합대학이 유일하며, 각 지역에 설계전문학교, 견재전문학교 등의 2~3년제 전문대학이 있다. 평양 건축종합대학은 1953년 김일성종합대학의 토목공정계열에서 분리되어 탄생한 대학교로 건설건재대학(1970년), 평양건설건재대학(1997년)을 거쳐, 김정은 체제에 들어 종합대학으로 승격(2013년)되었다.

## 2) 도시 계획

북한에서 도시란 “농업토지와 직접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 주민지”를 의미한다. 곧, 북한은 생산수단으로서 토지의 이용 여부를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도시는 기능에 따라 생산도시(공업도시, 채굴광업도시, 수산도시, 암업도시), 소비도시(행정문화도시, 과학도시, 군사도시, 관광도시, 요양도시 및 휴양도시, 살림집도시), 상업 및 교통도시(무역도시, 교통도시 등)로 나뉜다.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50-100만, 20만명-50만명), 중도시(10만명-20만명, 5만명-10만명), 소도시(1만명-5만명, 1만명 이하)로 구분된다(백과사전출판사, 1998:256-257).

한편, 북한의 도시 계획은 도시계획법<sup>10)</sup>에 준하여 작성된다. 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은 ‘도시와 마을계획영역의 토지를 이용하여 건물, 시설물, 녹지 같은 것을 건설, 개선, 정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계획(도시계획법 제2조)으로, 도시건설계획이라고도 한다. 도시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총계획, 세부계획, 순차및연차 건설계획, 구획설계의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도시총계획으로 20년의 장기 발전계획이다. 세부계획은 도시용도별 지역이나 특정 구역을 단위로 도시총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 대하여 건축, 도로교통, 상·하수도, 전기체신망 등 부문별 세부계획을 작성한다.

북한의 도시계획은 공간계획을 넘어 사회계획에 가깝다. 도시는 사회제도적 특성, 국가의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의 발전정도를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담아내는 발현체(백과사전출판사, 1998:258)<sup>11)</sup>이며, 도시건설은 “사상과 이념에 관한 문제”(김정일, 1995:61)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기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건설구상과 건설방침에 근거하여 철저히 계획되어야 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8:258-259). 그리고 계획의 핵심은 “사회주의 도시의 경치”가 가장 잘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백과사전출판사, 1998:266).

이를 위해 도시 중심부는 가장 심혈을 기울여 건설해야하는 공간이다. 공간 구조상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며, 도시 전체의 기본 축이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도시 중심부의 가장 좋은 자리에는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그 주변에 광장, 공원, 조형예술작품 등을 건설하여 강력한 이념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5:559). 또한 중심부를 보다 웅장하고 화려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강, 바다, 구릉, 녹지와 같은 자연 지리를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8:267).

10) 북한의 도시계획법은 2003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36호로 채택되었고, 제1장 도시계획법의 기본, 제2장 도시계획의 작성, 제3장 도시계획의 비준, 제4장 도시계획의 실행, 제5장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11) “도시건설에서 국가의 정치경제적 면모가 나타납니다. 건설을 잘하면 국가의 면모가 좋아지고 건설을 잘못하면 국가의 면모가 초라해집니다.”(김일성, 1980b:359).

도시중심부는 북한 체제의 사상적 상징성을 드러내는 공간임과 동시에 혁명적 수령관을 배양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사회가 도심부가 주로 상업, 업무, 서비스 등의 용도로 압축적이고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도시 중심부 김일성 동상을 중심으로 박물관, 문화회관, 극장 등의 공공문화시설이나 군중집회, 시위, 경축야회 등의 행사가 열리는 중앙광장을 위치시킨다. 이는 인민들의 사회정치생활과 문화생활을 집중시켜, 수령의 위대성과 업적을 체득하고 사상과 정서 교양을 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도시의 중심부와 경치 좋은 곳에 권력기관 건물을 세우고 유흥장을 꾸리며 호화주택을 건설하고 거리마다 초고층 건물을 빼곡히 세우는”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건설방식이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치제도의 산물”이라면, 사회주의 국가의 도심부는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고 흥청거리게 하며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차 넘치게”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한다(김정일, 1992:9-10).

한편, 북한은 ‘도시경영을 전국가적·전사회적 사업으로 강조한다. 도시계획 혹은 도시건설이 도시의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도시경영은 주택, 공공건물, 유원지, 교통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보수하는 사업이다. 북한은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2003년보다 훨씬 앞선 1992년에 이미 도시경영법을 채택하였다. 도시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주민들의 중요 임무이다. 주민들이 직접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를 정중히 꾸리고 깨끗하게 관리함으로써, 스스로 애국 정신을 강화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은 4월과 10월을 도시미화월간으로, 매달 첫 번째 일요일을 도시미화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2013년에는 ‘도시미화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도시 환경미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연합뉴스, 2013.05.15).

### 3) 수도 계획

평양은 해방 직후 북한의 임시 수도로 지정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거의 초토화되었다. 평양시 청사, 평양2백화점 등 대형건물들은 벽체만 앙상하게 남게 되었고 중앙광장, 스탈린거리, 모택동거리 등의 평양 도심부는 황폐해졌다. 북한 자료에 따르면, 8,700여개의 공장, 기업소, 60여만호의 살림집, 5,000여개소의 학교, 1,000여개소의 병원과 진료소, 260여개소의 극장과 영화관, 670여개소의 과학연구기관 및 도서관, 수천개소의 문화후생시설들 등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결국 전쟁으로 인해 평양의 도시 조직과 경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리화선, 1993a:329; 장세훈, 2005:229-230).<sup>12)</sup>

북한에게 장기간 폭격을 맞은 평양을 복구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었다. 김일성은 1951년

12) 서울의 경우, 미국의 폭격은 주요 군사시설물에 집중되었다. 철도, 도로, 교량, 터널 등의 거점시설, 철도 공작장, 병기창, 고사포 진지 등이 밀집한 용산지역, 공업시설이 밀집한 영등포지역 등이 주요 폭격 대상이었다. 무엇보다 공궐과 문화유적이 밀집한 종로구는 정부가 맥아더 사령부와의 협상을 통해 폭격 대상에서 제외시켜 사대문-동대문을 경계로 종로 이북 지역은 폭격 피해가 적었다(장세훈, 2005:230).

1월 21일 평양 복구의 기본 방향에 대한 연설을 통해, 이전의 낡고 퇴폐한 도시 건설방식을 배격하고 “민주수도 평양을 전쟁전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웅장하고 현대적으로” 건설하고자 했다(김일성, 1980a:278). 그리고 평양의 복구개건사업을 조직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1951년 12월 내각에 도시건설성을 설치하였고,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하였다. 전쟁 이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도시 ‘평양’ 재건에 돌입하여, 김일성은 1953년 7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평양시 복구 총계획에 대하여’를 결정하고, 평양시 복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폐허가 된 평양은 과거의 도시조직과 마찰을 겪을 일이 없어, 이상적인 사회주의 도시로 재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소련 및 동구권에서 유학 한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들이 평양 재건을 주도하면서, 사회주의 도시계획 원칙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모스크바 건축대학에서 공부한 건축가 김정희(1921-1975)가 제시한 ‘평양 마스터플랜’(1953년)은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전형이다.<sup>13)</sup> 그리고 오늘날 평양의 모습은 평양 마스터플랜에 의해 형성된 도시기반을 토대로, 이후 제시된 도시건설계획에 의한 도시개발들이 혼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임동우, 2011:127).<sup>14)</sup>

평양시총계획, 평양 마스터플랜 등과 같은 국가계획을 비롯하여 이후 발표된 수많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현지 교시들에서 발견되는 평양의 수도계획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 전 국토의 상징이며, 북한의 사상과 이념 체계의 응축물로서 평양 건설이다. 도시가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적 면모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 라면, 수도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특징짓는 얼굴”과 같은 것이다(백과사전출판사, 1998:259). 평양은 “조선인민의 심장이며, 사회주의 조국의 수도이며, 우리 혁명의 발원지”(김일성, 1981:622)로서 당의 주체적 건축사상이 철저하게 구현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북한은 평양중심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계획하여 체제의 우월성을 부각하고 혁명적 수령관을 압축적으로 담아내는 공간으로 건설하였다. 인민들의 군중집회와 시위, 열병식과 경축야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도심부 상징광장과 수령관을 담아내는 기념비적 공공건물, 이를 중심으로 넓게 뻗어나가는 주요 간선 거리와 고층 살림집 등은 수도를 보다 웅장하고 화려하게하며 인민 수도로서 면모를 과시하도록 계획되었다(백과사전출판사, 1998:267-268).

수도 평양 건설은 대외적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일제 강점기 평양은 사회주의 사회의 이념에 맞지 않는 “기형적이며 비문화적”(리화선, 1993a:341)이었기에, 전후 평양 복구 방향은 이전의 낡고 퇴폐한 도시 건설방식을 배격하고 “전쟁전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웅장하고 현대적으로” 건설되어야 했다(김일성, 1980a:278). “조국의 얼굴”인 평양을 잘 건설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13) 김정희는 다핵화를 통해 지역 간 위계를 평등하게 만들었으며, 핵 간에는 풍부한 녹지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250m×250m의 격자형의 소구역을 하나의 유닛으로 하였고, 격자형 블록마다 하나의 상징 광장을 두었다.

14) 북한은 평양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후, 이후 시기별 세부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꾸준히 평양 복구 작업을 진행하였다. 세부전략들은 마스터플랜에 비하여 보다 상세한 액션플랜이지만, 반드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단기간에 괄목한 성장을 보여주기 위하여, 마스터플랜의 전체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계획이 채택되기도 하였고, 김일성 혹은 김정일이 현장을 직접 시찰하면서 현지교시를 내리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혁명의 수도다운 모습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다(김정일, 1995:60-61). 특히 ‘설계의 표준화’, ‘건설의 기계화’ 등을 통하여, 수도 건설의 속도를 높이므로써 평양을 깃대미로 만든 미국에게 북한 체제의 승리를 보여주고자 했다(김일성, 1980a:276; 김정일, 1995:59).<sup>15)</sup> 곧, 평양 건설은 김일성 조국의 존엄, 사회주의 조선의 권위와 이어지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였다(노동신문, 2011년 08월 11일).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지속된 극심한 경제 침체 속에서도 전시(展示) 도시로서 평양 가꾸기에 몰두한다. 1998년 ‘수도평양시관리법을 지정하였다. 이는 국가는 평양시 관리에 투자를 확대하고 전체 인민은 평양시관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평양을 보다 웅장하고 화려하게 관리하고자하는 것이다. 2002년부터는 ‘21세기형 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김정일의 지시로 ‘평양시 개진·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평양시 도심 지역의 주요 거리의 포장, 건물 외벽, 가로등 등을 교체하고 대규모 건축물을 보수하는 등 평양 미관개선이 주된 사업 내용이다. 김정일은 이어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아 평양 내 10만세대 살림집 건설을 목표로 세우고 내각 소속 수도건설부를 국방위원회 산하 수도건설사령부로 승격시켰다. 후계자 김정은도 2012년 04월 수도건설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총리급 위원장을 선임하였다. 그는 2014년 신년사에서 강성국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sup>16)</sup> 군민협동작전으로 평양시 건설에 총력을 다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끊임없는 평양 단장 프로젝트는 권력 이양을 가속화하면서 3대 세습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왕조적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 4. 수도 평양의 공간구조(Spatial Structure)

### 1) 평양의 가로 및 경관

서울이 강남, 잠실, 목동 등 특정 지구를 중심으로 개발된 것과 달리, 평양의 도시화는 주요 거리가 개선되고 확장하면서 주변지역이 하나의 새로운 구역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5) 북한은 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단 기간에 최상의 양적·질적 건설 성과를 내고자 하는 건설 운동으로서 ‘건설 속도’를 강조한다. 전후복구건설과정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 노력경쟁 운동의 일환으로 ‘하루 천리를 가자’는 ‘천리마운동’을 제시한 바 있으며, 1958년 한해동안 조립식 건설과 규격 강재를 통해 2만여 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평양속도’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김정일은 ‘회천속도’를 제시하였으며 김정은은 ‘마식령 속도’를 내세우면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속도에 대한 의지를 비쳤다(2009.09.25. 노동신문; 2013.06.23.노동신문). 이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대내외적으로 체제의 건재함을 과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16) 2014년 김정은의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 ‘건설’은 총 38회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과학(20회), 사상(17회), 경제(15회), 사회주의(12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조선일보, 2014.01.02).

(임동우, 2011:103). 건축물을 거리를 중심으로 일정 구역 안에 집단적으로 배치하여 통일되면서도 웅장한 사회주의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시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에서 ‘거리’는 가장 우선해야 할 설계요소인 것이며, 이러한 선적(線的) 개발은 건설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함으로써 체제의 우월성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선전하는데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평양의 주요 거리들은 거리의 형성 연대, 거리가 위치한 자연·지리적 조건, 거리에 주어진 기능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설계 및 계획 수법들이 적용되었다. 전후 실시된 초기 가로들은 주로 4-6층의 살림집 건물들이 길을 따라 건설되고, 살림집 아래층에는 다양한 편의봉사시설들을 배치하여 연속성을 주었다. 그러나 1950년대~1960년대에 건설된 거리들은 건물들을 거리에 사선 혹은 직각이 되게 배치하는 등 단조로움에서 탈피하고자 시도하였다(리화선, 1993a:345-348). 1960년대 이후에는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 지붕의 형태 등이 서로 다른 건물들을 적극적으로 혼합하여 배치함으로써, 보다 역동적인 거리 경관을 창출했다.

평양의 거리 형성은 1970년대~1980년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많은 거리들이 이시기 건설되었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큰 구역을 포괄하면서 형성되었다. 사자형, 톱날형, 누자형 등 다양한 평면을 지닌 20층 이상의 고층 건물들이 들어섰으며, 이들을 들쭉날쭉 배치하는 것을 넘어 한 개의 건물을 여러번 꺾어 전개함으로써 가로를 보다 입체적이고 웅장해 보이도록 하였다. 지형을 이용하여 변화감을 주기도 하였는데, 저지대에 중저층 건물을, 고지대에 고층건물을 배치하여 건축적 대조를 극대화하기도 하였다. 이는 남한의 가로설계가 고지대에 저층건물을, 저지대에는 고층건물을 건설하여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위화감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김신원, 2007:185-186; 리화선, 1993b:163-170).

〈그림 1〉 평양의 주요 거리



1970년 노동당 제5차대회를 맞아 건설된 천리마거리는 1단계 공사에서 1,000세대의 낡은 집들을 허물고 6,060세대의 새로운 살림집을 건설하였다. 이들 살림집은 8~15층의 현대식 살림집이었으며, 상점, 양복점, 식당, 꽃방, 사진관 등의 봉사시설을 다층 살림집 아래층에 두었다. 북한은 불과 반년 만에 제1단계 공사를 끝내고 1980년대 초까지 인민문화궁전, 평양체육관, 빙상관 등을 비롯한 공공건물과 16층, 25층 살림집 건설을 지속하였다. 거리의 서쪽면은 보통강 기슭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공공건물을 여유롭게 배치한 반면, 동쪽면은 8~10층의 살림집을 병렬로 배치하고 그 사이사이에 12층, 15층 살림집을 두어 높낮이의 변화를 두었다(김기호, 2006:224-226; 리화선, 1993b:45-46).

〈그림 2〉 천리마거리 전경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 선포된 노동당 제6차대회에 맞춰 1980년에 건설이 시작된 창광거리는 평양역에서 보통문에 이르는 북한 최대 변화 거리이다. 김정일은 창광거리 건설을 “건설부문에서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는 시발점”이자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기존 틀과 낡은 기준을 대담하게 깨고 도시건설에서 비약과 변혁을 일으키는 전환점”으로 삼고자 하였다(리화선, 1993b:175). 실제 창광거리는 이전에 비해 보다 대담하고 현대적인 설계 특성을 보인다. 18층~30층에 이르는 고층의 살림집들은 다채로운 형태와 색채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매스와 층수의 건물들을 혼합하여 배치함으로써 입체감과 변화감을 형성하고 있다. 또 고층건물을 집합하여 배치함으로써, 거리를 보다 웅장해보이도록 하였다. 현재, 창광거리에는 15~40층의 고층아파트 30여동과 더불어 쌍탑 형태의 고려호텔, 평양역전백화점, 락원백화점, 창광원, 고려항공 본점 등 소비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고려호텔 앞에는 30여개의 음식점이 밀집하여 ‘창광음식점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2009년 한해 동안 ‘평양시 개진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창광음식점거리는 현대적 주방설비 설치, 외장재, 간판, 조명 등 교체, 보도블럭 포장 등의 개진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3〉 창광거리의 고급아파트



〈그림 4〉 개보수를 마친 창광음식점들



문수거리는 대동강구역 문수네거리로부터 문수무궤도전차 주차장까지 3km<sup>2</sup>에 이르는 구역으로, 창광거리 제1단계 공사가 끝난 뒤인 1980년 11월부터 조성되었다. 1만 7천여세대의 주택들과 거리 주변으로 청년중앙회관, 동평양대극장, 대성백화점 등의 상업·편의 시설들이 들어서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만수대대기념비, 주체사상탑, 당찬건기념탑 등 기념비적 건축물과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거리를 따라 크게 8개 구획으로 분할되는데 그 중 6개 구획은 살림집 위주로, 북쪽의 2개 구획은 현대적 유흥시설들을 갖춘 공원과 주차장으로 분리된다. 살림집의 기본 층수는 10~12층인데, 8, 9, 15, 18층의 각각 다른 형태의 고층 살림집을 적절히 혼합하여 배치함으로써 다양성과 화려함을 보장하였다. 문수거리는 창광거리 건설경험을 새롭게 창조하고 적용한 거리라고 할 수 있다(리화선, 1993b:179).

이어 북한은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1989년)을 앞두고 광복거리를 건설하여 2만 5천 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김일성 80회 생일인 1992년 4월과 전승절 40주년인 1993년에 통일거리 1, 2단계 사업을 완공하였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을 한 동안 중단하였으나, 김정일은 2012년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맞아 평양 중심부의 만수대거리와 창전거리 재개발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만성적인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에 따른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대규모 건설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전후 복구사업에 건설된 4층짜리 낡은 살림집이 밀집해있던 만수대거리는 6-18층의 살림집이 건설되었으며, 창전거리에는 평양에서 가장 높은 45층 건물 등 타원형과 원형의 초고층의 살림집 14동과 백화점, 이발소 등의 편의시설과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들이 새로 들어섰다. 조선혁명박물관, 만수대의사당, 천리마 동상, 옥류관 등으로 둘러싸인 창전거리는 북한의 핵심지역으로 중앙당 간부, 예술단원, 부유층 등 일부 특권층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다(동아일보, 2013.08.29).

〈그림 5〉 창전거리 준공식



〈그림 6〉 창전거리 야경



## 2) 평양의 건축 및 조형물

### (1) 1950년대

북한의 도시를 대표하는 평양은 혁명의 중심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북한은 평양을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평양의 건설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는 문화도시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자연보호 및 무공해 대책을 수립, 인민생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문화시설 건설에 주력하였다.

해방 당시 평양의 공공건물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소련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당시 사회주의 리얼리즘 양식인 신고전주의 양식을 적극 수용하여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병원 등을 비롯한 각종 학교, 극장, 병원, 호텔 등이 건립되었다.

하지만 곧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양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등장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당시 김일성은 소련의 영향력에서 탈피하고자 하였고, 소련의 신고전주의 양식은 당시 조선민중들에게는 낯선 유럽 문화양식이었으며, 조선민중을 억압했던 식민지 시대의 지배기구 건축물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심리적으로 경계되는 면도 있었다(송승섭 2003:130-131). 이에 김일성은 전후복구 3개년 계획 시기 여러 연설 등을 통하여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부여해야 한다'고 부단히 강조하고 있다.

“설계에서 선진적인 건축학이 요구하는 것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건축에서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민들에게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건축물들이 근로인민의 요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일성, 1980c:38-39)

1950년대 초반 활발했던 기술전문직의 동구권 국가로의 유학은 1960년대 초반에 이르러 전면 중단되었다. 또한 이미 유학을 다녀온 대다수의 기술 관료들은 반당·반혁명분자로 분류되어 숙청되었다.

## (2) 1960년대

195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민족적 형식에 민족전통양식과 사회주의 신념과 의지를 표현한 건축을 평양 곳곳에서 실현한다. 1960년 완공된 평양대극장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극장 건물로,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첫 현대 조선식 건물의 하나”로 설명한다.(리화선, 1993a:394). 대동강 강기슭 절벽에 위치한 옥류관은 절벽에 의지하여 축대를 높이 쌓고 그 위에 2층으로 된 조선식의 건물이 놓여있다. (리화선, 1993a:401-402).

또한 전후복구가 한창인 이 시기, 북한은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생산력 발전의 열망을 반영하는 조형물도 건립한다. 인민군 열사탑, 우의탑, 천리마 동상 등이 그것이다. 1961년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에 맞춰 제막되었다.<sup>17)</sup>

〈그림 7〉 평양대극장



〈그림 8〉 옥류관



## (3) 1970년대

북한은 196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사회주의 도시화 노선과 북한 현실간의 조화를 꾀하려 노력하였다면 1970년대 들어서부터는 ‘우리식’으로 도시 공간을 건설하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부각되었다. 김일성광장 북쪽에는 또 다른 작은 규모의 광장이 조성되었고 작은 광장 서쪽에는 만수대 예술극장(1976년)이 새롭게 건설되었다.

북한은 1967년 이후 많은 변화를 겪는다. 제4기 15차 전원회의 이후 갑산파가 숙청되면서 김일성과 김일성 후계문제를 반대할 수 있는 정치 세력들이 모두 제거되었고, 당은 유일사상체계를

17) 위키피디아 '천리마 동상' 검색 내용(<http://ko.wikipedia.org/wiki/%EC%B2%9C%EB%A6%AC%EB%A7%88%EB%8F%99%EC%83%81>)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이를 위하여 체제 강화용 대기념비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전국에 대량으로 건설한다.<sup>18)</sup>

1972년 김일성 60세 생일을 기념하여 건립된 만수대 대기념비는 전례없는 규모와 폭을 가진 기념 건축이다. 만수대 대기념비의 중심에는 20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규모를 자랑하는 김일성 동상이, 동상의 왼쪽에는 항일혁명 투쟁상<sup>19)</sup>, 오른쪽에는 사회주의혁명 건설상<sup>20)</sup>이 세워졌다. 동상의 뒤편에는 조선혁명역사박물관이 건립되었으며 백두산 천지 모습의 대규모 모자이크 벽화가 장식되어있다. 2011년 김정일 사후, 북한은 만수대 대기념비에 김일성 동상과 같은 크기의 김정일 동상을 세워 현재는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sup>21)</sup>

〈그림 9〉 만수대 대기념비 김일성 동상(1972년)



〈그림 10〉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2013년)



한편, 건축에 양식에 있어서 전통건축요소를 직접적으로 수용하던 60년대와는 달리 이 시기에는 전통요소를 현대화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안창모, 2012:138). 북한 건축은 모더니즘 건축의 개념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면서, 민족적 건축양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반영한 기존의 건축 양식에서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결합하고 실용성과 현대적 건축미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 (4) 1980년대 이후

북한의 도시 건설은 1980년대 초부터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평양, 신의주 청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도시 건설에 적극 나섰지만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대도시에서는 중앙의 지원부족, 자재 및 인력부족 등으로 신도시 건설을 마무리하기 어려웠다.(장세훈, 2004:301-302)

북한은 1980년대 후계자 김정일은 후계자로서 능력을 보여주기위하여 그리고 1989년 세계학생

18) 이 시기 조성된 주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는 만경대, 칠골, 봉화리, 보천보, 삼지연, 청봉, 고산진, 용포리 등이 있다.

19) 김일성동상의 왼쪽에 세워져 있으며, 120군상이 조각되어 있고 높이는 22.5m이다.

20) 김일성동상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09군상이 조각되어 있고 높이는 50m이다.

21) 2012년 2월 만수대의 김일성 동상 옆에 세워진 김정일의 동상은 코트 차림이었으나 2013년에는 점퍼 차림을 하고 있다.

청년축전을 대비해 1980년대 평양을 예술성을 갖춘 대규모의 건축물과 기념비를 대거 건립하였다.<sup>22)</sup>

북한은 수도 평양의 중심부를 대중적인 정치·문화적 행사가 일어나 항상 사람들이 흥성거리는 인민적인 중심부로 형성하고자 하였는데<sup>23)</sup>, 인민대학습당의 건립을 통하여 마침내 수도 평양의 중심부가 완성되었다고 평가한다.

한편, 1980년대 당시 민족건축형식에서 탈피하여 국제적 경향성을 따르는 방향으로 선화하기 시작한 것이다(안창모, 2012:139). 특히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를 전후로 현대적 건축미를 중시하는 공공건물들이 많이 건립되었다. ‘청년중앙회관’이나 ‘동평양대극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1980년대 이후 북한은 어려운 정치·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건축물들을 축조한 것은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욕구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1〉 인민대학습당



### (5) 200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최악의 경제난을 겪으면서 유경호텔처럼 진행되던 대규모 공사들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의 대규모 건설이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유경호텔 공사가 재개된 것은 물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에 맞춰 평양 10만호 주택건설 사업이 시작되었다. 재원조달과 자재 부족으로 평양의 중심거리에 집중되면서 창전거리에는 최고 44층 규모 초고층아파트 14개동이 완공되었으나 변두리 지역은 공사비 부족으로 중단된 곳이 많다.<sup>24)</sup>

22) ‘대 기념비창조에서 김일성동지 영상을 형상에서 기본으로, 중심으로 삼으며 혁명역사를 내용하는 창작사업에서 혁명사적에 대한 역사주의적 원칙을 견지하면서 건축구조물의 규모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하며 우리 식대로 형성할 것에 대한 문제 등 창작에서 제기되는 원칙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주었으며 창작에서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주체사상적 내용을 옹기 형성하도록 하였다.’(리화선, 1993b:128)

23) 김일성은 “광장 곁이나 변화한 거리에 정권기관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을 세우는 것은 인민들을 관료주의적으로 통치하던 자본주의사회의 잔재”라고 비판하면서 “광장 옆이나 변화한 거리 옆에는 국가기관보다는 근로자들을 위한 궁전, 극장, 영화관 같은 문화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4) “北, “평양 10만호 주택 공사 중단 차질”(2013년 12월 10일자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1061264>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사적소유의 범위가 늘어나고, 주택의 사용권이 사유화가 가능해지면서 노후화된 평양의 아파트들이 리모델링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리모델링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거래되면서<sup>25)</sup> 부유층 들을 사이에서 주택 리모델링 붐이 일어나고 있다.

(그림 12) 동평양지구 상업거리건설착공식 사진(2014.1.16.)



또한 김정은은 최근 평양역, 순안공항 현대화공사를 지시하였고<sup>26)</sup> 중국과 협작을 통해 동평양 상업거리를 착공하였다.<sup>27)</sup> 이렇게 김정은은 평양의 대규모 건설을 주도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존재감과 위상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25) "北 평양서 주택 리모델링 붐...전문 업자 호황"(2013년 11월 19일자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604380>

26) 북한 철도성은 평양역 개보수 외에 철도의 과학기술 발전을 언급하고 "현대적인 철도차량들을 연구개발한다"며 철길을 중량화, 현대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조선신보 北, 올해부터 평양역 현대화 사업"(2014년 1월 21일자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21/0200000000AKR20140121120300014.HTML?input=1179m>

27) "北, 中과 협작해 동평양 상업거리 착공"(2014년 1월 16일자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16/0200000000AKR20140116216200014.HTML?input=1179m>

## 5. 수도 평양의 공간행태(Spatial Behavior)

### 1) 정례 행사

#### (1) 태양절 행사: 평양 전역 및 전국

태양절은 김일성의 생일(4월 15일)을 기념하는 북한의 최대 명절이다. 축하행사는 수도 평양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평양미술축전, 김일성화전시회, 우표전시회, 만경대상 체육축전, 조선인민군 청년군인 웅변대회, 국가도서전람회, 만경대상 국제마라톤대회와 전국청소년 만경대 고향집 찾기 행군 등이 그것이다. 김일성 광장에서는 청춘남녀가 정장을 하고 춤을 추는 대규모 무도회가 열리고 불꽃놀이도 진행된다.<sup>28)</sup> 이 기간에 진행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평양 전역에서 진행된다. 인민들은 이 축전 기간 동안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그림 13〉 태양절,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0돌 기념 경축 무도회



#### (2) 아리랑 공연: 평양 5.1 경기장

아리랑축전은 북한이 지금까지 개최한 국가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상징적 국가공연이다. 2002년 4월 15일 태양절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아리랑 공연은 10만 명의 공연자, 2만 명의 배경대(카드섹션), 10만 명 이상의 관객이 참석하는데,<sup>29)</sup> 2002년 처음 개최된 이후 2006년 홍수로 인해 행사가 취소된 것을 제외하고는 2013년 현재까지 거의 매년 개최되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이 공연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8) 시사상식사전 '태양절' 검색 내용(<http://terms.naver.com/entry.nhn?cid=505&docid=928930&mobile&category/id=505>)

29) 아리랑 공연이 열리는 5.1경기장은 1989년 8월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준비하면서 만들어졌으며 수용인원은 15만 5천명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2010년 10월 9일 당창건 기념일 전야제에 개최된 아리랑 공연에서는 당시 후계자 인 김정은이 김정일과 함께 주석단에 자리하여 대중들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김정은을 대규모 국가의례를 통해 드러나게 함으로써 후계자를 확인시켜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극장국가’ 북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4〉 5.1 경기장



〈그림 15〉 아리랑 축전



### (3) 대규모 퍼레이드: 김일성 광장

평양의 중심부에 위치한 김일성 광장에서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연중 거행된다. 대규모 퍼레이드는 태양절, 당 창건기념일, 전승기념일 등 연례적인 국가 행사 외에도 김일성과 김정일 장례식, 미사일 발사, 인공위성 발사 성공 시에도 진행하고 있다. 곧 평양의 중심부인 김일성 광장에서는 연중 수많은 기념행사와 대규모 퍼레이드, 축전 등이 열리고 있으며 이는 방송을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전파된다.

이와 같이 평양의 중심부 김일성 광장에서는 대규모 국가의례 및 행사가 자주 열리고 있고 인민들은 그 상징적 국가의례 행사에 주인공 또는 관객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상징적 국가의례 행사는 수령과 국가, 민족과 인민들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믿음체계를 내면화하는 기능을 한다. 인민들은 극장국가의 상징적 공연에 배우와 관객으로 직접 참여하는 화려한 경험과 그것과는 현격하게 대비되는 어려운 일상생활을 ‘공작-사적 영역’과 ‘공식-비공식’ 상황으로 구획화하는 행동 패턴을 익히게 되어, 생활의 어려움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은 별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장병호, 2010:34).

〈그림 16〉 대구모 군사 퍼레이드



〈그림 17〉 김정일 장례식



## 2) 비정례 행사

김일성 광장, 만수대 언덕 등 평양의 중심부에서는 연중 정치적 기념일들에 대규모 정치행사들이 진행된다. 하지만 평양의 중심 광장에서는 정해진 행사들만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평양의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도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다.

2014년 1월 6일 김일성 광장에서는 여러 간부들은 물론 시민 수만명이 모여 군중대회를 열었다. 이러한 신년사 과업관철 군중대회는 평양을 시작으로 도·시·군별로 광장에서 전국적으로 열렸으며 광장 뿐 아니라 4.25문화회관 등 평양의 주요시설에서도 개최되었다.

〈그림 18〉 신년사 과업 관철 군중대회(김일성 광장, 2014.1.6.)



김일성 광장에서는 문화적 일상적 행사들도 진행되는데 2013년 3월 16일 김일성광장에서는 “전시가요대열합창경연대회”가 열렸다.<sup>30)</sup> 그 외 광장에서는 항상 북한 주민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30) “北 “전국서 1950년대 전시가요 열풍””(2013년 3월 16일자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16/0200000000AKR20130316051500014.HTML?input=1179m>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추석과 설과 같은 민속 명절에 김일성 광장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게다가 김일성광장에서는 많은 행사가 열리는 것은 물론 행사 준비를 위한 연습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9〉 북한대학생들의 행사 연습(2013.3.6. 김일성광장)



사회주의 도시의 중심부 광장의 역할이 주민들의 정치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치사회화의 적극적인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평양의 주요 광장을 비롯한 도시 중심부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일상생활

평양시민은 ‘혁명의 수도에서 사는 특별하게 배려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이주철, 2003:106). 북한은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인민들에 대한 성분조사를 실시하였고 1997년에는 공민 등록법을 채택 평양시민증을 발급하였는데 이는 평양시민과 지방주민을 구분, 수도 평양으로의 인구유입을 막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평양 시민들은 일반적인 북한 주민의 일상 외에 추가적인 일과들이 부여된다.(이우영, 2013:44)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하는 ‘정성작업’은 우상화시설이 집중 건설되어있는 평양 시민들에게는 더 많이 부여되는 일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평양은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연일 각종행사가 진행된다. 평양시민들은 보통 한주에 한 번정도는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지방 사람들보다 평양시민들에게 더 많이 부여되는 것들이다. 평양시민들은 정치행사에 상시적으로 참석해야하기 때문에 가정에는 행사참가 용 부채, 지화꽃다발, 기발 등이 구비되었다.

이렇게 평양시민은 일반 주민과는 다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물론 연중 평양시 전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군중대회 및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 정치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평양시민들의 다양한 행사의 빈번한 참여는 정권과의 통합 또는 주민들 간의 통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이우영, 2013:47) 이는 곧 의례를 통한 사회적 통제가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평양시 주민들에게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0〉 평양시민증과 공민증



## 6. 결론

북한은 정권 수립기보다 1950년 전쟁 후 수도 평양의 도시건설에 집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후 복구사업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도 계획은 '상징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전후 복구과정 초기,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의 지원으로 세워진 '민족성이 포함되지 않은 건축과 도시 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고, 도시건설과 건축에 있어서 '민족적 형식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수도계획과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이데올로기, 즉 '사상성을 중시하는 북한은 1970년대 이후 정치 이데올로기가 '주체사상'으로 변화하면서 수도 평양의 도시 계획에도 '주체건축론'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정책실패와 국내의 정세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정치적으로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후계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수도 평양은 엄청난 규모의 광장과 육중한 공공건물 등을 건립하면서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모습을 강화해 나갔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은 수도 평양의 도시건설의 양적 확충과 함께 대규모 국가의례가 눈에 띄게 많아지고 화려해진 것이다.

이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기존의 지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서 수도 평양이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를 제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난의 지속과 특히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위기의 가중은 북한으로 하여금 극장국가적 성격을 보다 크게 부각하도록 만들었다. 2002년에 시작된 아리랑 공연, 비정기적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와 집체 시위의 증가,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이들의 빈번한 대외 노출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1980년대 후계자 김정일의 등장 시기에는 대규모의 기념비 건축사업이, 또한 김일성 사망이후에는 대규모 국가의례의 동원이 두드러졌던 것처럼, 김정일시대의 3대 세습이 진행 중인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은 유훈통치의 미명 하에 극장국가의 면모를 더욱 더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 과정에서 평양은 핵심적 무대공간으로서 특별히 치장되고 관리될 공산이 더욱 더 높아 보인다. 하지만 북한 전역의 심각한 파폐화와 무관하게 수도계획에 몰두한다는 점 자체가 목하 북한체제의 구조적 위기를 방증하는지도 모른다. 재일 정치학자 강상중(2013)이 말한 것처럼, 근대화와 세계화의 대세 속에 오래전부터 일본 도쿄는 Tokyo로, 그리고 한국의 서울도 언제부턴가 Seoul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작금의 평양은 여전히 전근대 왕조 시대의 평양성(平壤城)에 더 가깝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최종발표

#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 의식 비교 연구

2014. 2. 25

## 연구배경

## 연구 배경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한반도 분단 이후 통일은  
남북한이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제로 받아들여짐

분단 및 상호 단절의 장기화는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초래

통일관의 변화는 분단, 냉전의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남

## 연구 배경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최근 젊은 세대 내 통일관의 변화는  
남한만의 현상으로 볼 수 없음

폐쇄적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도  
분단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세대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 예상됨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 및 정치사회 인식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통일 과정과 그 이후의 국민 통합을 위해 필수적”**

## 연구방법

# 연구방법

## 1. 문헌분석

## 2. FGI(Focus Group Interview)

- 총 9명

## 3. 설문조사

- 남북한 젊은 세대에게 동일한 설문조사 실시

연구 방법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b>남한</b>		<b>북한</b>		
<b>모집단</b>	전국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성인남녀					
<b>표본크기</b>	<b>504명</b>		<b>354명</b>			
<b>표본추출</b>	2012년 2월 29일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추출					
<b>조사방법</b>	한국리서치 MS패널을 활용한 웹조사(CAWI)			연구진 및 탈북학생이 직접 설문 조사		
<b>조사기간</b>	2012년 5월 4일~10일 7일간			2012년 5월 21일~6월8일 19일간		

## 북한 20~30대 설문조사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table border="1"> <thead> <tr> <th>학교 및 기관</th> <th>설문안료(名)</th> </tr> </thead> <tbody> <tr> <td>동국대</td> <td>21</td> </tr> <tr> <td>한국외대, 건국대, 총신대 등</td> <td>210</td> </tr> <tr> <td>서강대, 이화여대</td> <td>29</td> </tr> <tr> <td>한양대</td> <td>7</td> </tr> <tr> <td>새터민 지원센터(대구)</td> <td>16</td> </tr> <tr> <td>나우 북한인권단체</td> <td>6</td> </tr> <tr> <td>연세대</td> <td>13</td> </tr> <tr> <td>북한사랑선교회</td> <td>18</td> </tr> <tr> <td>송실대</td> <td>4</td> </tr> <tr> <td>공릉 종합사회복지관</td> <td>30</td> </tr> <tr> <td><b>Total</b></td> <td><b>354</b></td> </tr> </tbody> </table>		학교 및 기관	설문안료(名)	동국대	21	한국외대, 건국대, 총신대 등	210	서강대, 이화여대	29	한양대	7	새터민 지원센터(대구)	16	나우 북한인권단체	6	연세대	13	북한사랑선교회	18	송실대	4	공릉 종합사회복지관	30	<b>Total</b>	<b>354</b>			
학교 및 기관	설문안료(名)																											
동국대	21																											
한국외대, 건국대, 총신대 등	210																											
서강대, 이화여대	29																											
한양대	7																											
새터민 지원센터(대구)	16																											
나우 북한인권단체	6																											
연세대	13																											
북한사랑선교회	18																											
송실대	4																											
공릉 종합사회복지관	30																											
<b>Total</b>	<b>354</b>																											

## 응답자 분포



## 응답자 분포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연령

	20~25세	26~30세	30~34세	35~39세	Total
남한 학생	66	131	182	125	504
탈북 학생	159	108	58	19	344
<b>Total</b>	<b>225</b>	<b>239</b>	<b>240</b>	<b>144</b>	<b>848</b>

### 성별

	남자	여자	Total
남한 학생	261	243	504
탈북 학생	133	207	340
<b>Total</b>	<b>394</b>	<b>450</b>	<b>844</b>

## 응답자 분포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현재 거주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total
남한	113	34	23	29	16	16	11	125	13	34	31	55	4	<b>504</b>
북한	231	4	16	25	3	0	0	56	0	4	0	4	0	<b>343</b>
<b>Total</b>	<b>344</b>	<b>38</b>	<b>39</b>	<b>54</b>	<b>19</b>	<b>16</b>	<b>11</b>	<b>181</b>	<b>13</b>	<b>38</b>	<b>31</b>	<b>59</b>	<b>4</b>	<b>847</b>

### 응답자 분포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과거 북한 출생지역

평양	강원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량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Total
10	8	7	7	18	2	6	22	33	227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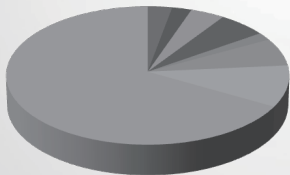
#### 과거 북한 거주지역

평양	강원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량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Total
10	11	4	7	14	2	5	17	33	238	341

### 응답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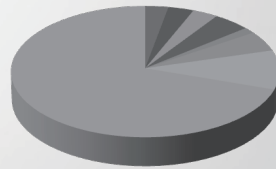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과거 북한 출생지역



- 평양
- 강원도
- 황해도
- 평안도
- 자강도
- 량강도
- 함경남도
- 함경북도

#### 과거 북한 거주지역



- 평양
- 강원도
- 황해도
- 평안도
- 자강도
- 량강도
- 함경남도
- 함경북도

## 응답자 분포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남한에서의 교육 경험 (명)

	남한	북한
초등학교 졸업	1	3
중학교 졸업	0	8
고등학교 졸업	109	41
대학교 졸업	348	205
대학원 이상	46	2
교육받은 적 없음 /무응답		78
기타(대안학교 등)		5
<b>Total</b>	<b>504</b>	<b>342</b>

### 과거 북한에서의 교육 (명)

	북한
소학교 졸업	54
고등중학교 재학	73
고등중학교 졸업	161
전문학교 재학	14
전문학교 졸업	13
대학교 재학	10
대학교 졸업	12
교육받은 적 없음 /무응답	5
<b>Total</b>	<b>342</b>

## 응답자 분포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탈북 학생들의 남한 거주 기간

	(명)	%
1년 미만	48	13.99
1년	47	13.7
2년	42	12.24
3년	60	17.49
4년	47	13.7
5년	40	11.66
6년	22	6.41
7년	9	2.62
8년	8	2.33
9년	15	4.37
10년 이상	5	1.46
<b>Total</b>	<b>343</b>	<b>100</b>

## 응답자 분포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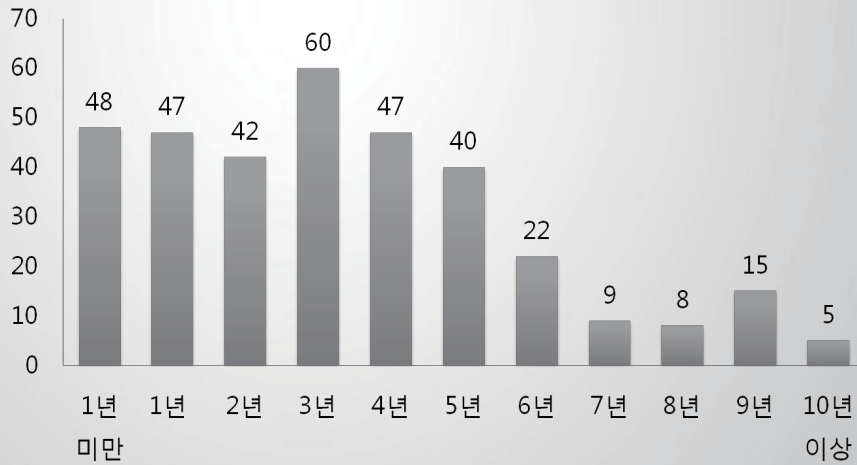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탈북 학생들의 남한 거주 기간 (명)



## 연구결과(기초분석)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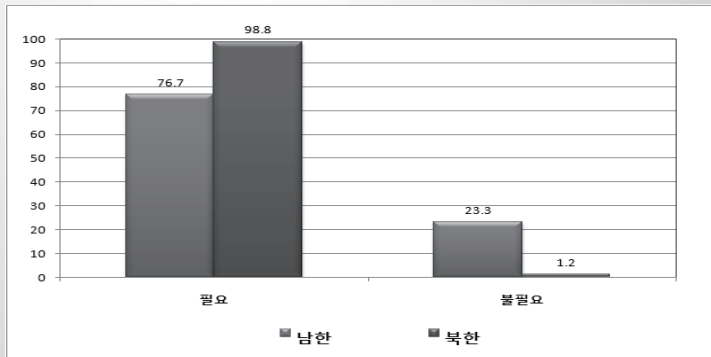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1> 남북한 통일 필요성 비교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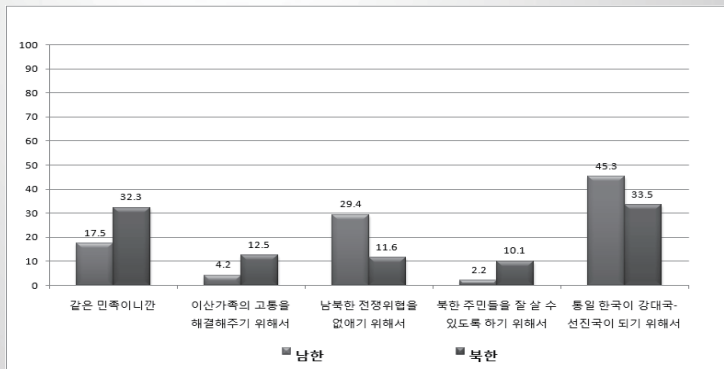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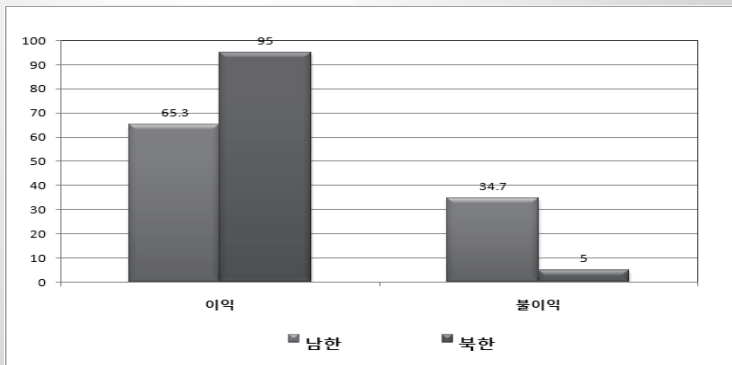
<그림 2> 남북한 통일의 이유 비교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통일의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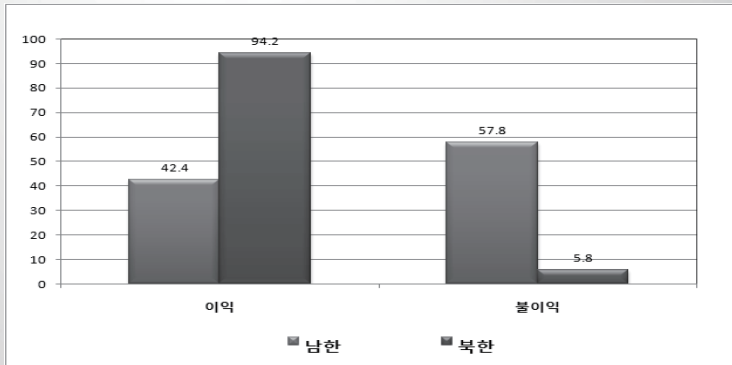
<그림3>통일과 남한의 이익 비교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통일과 개인의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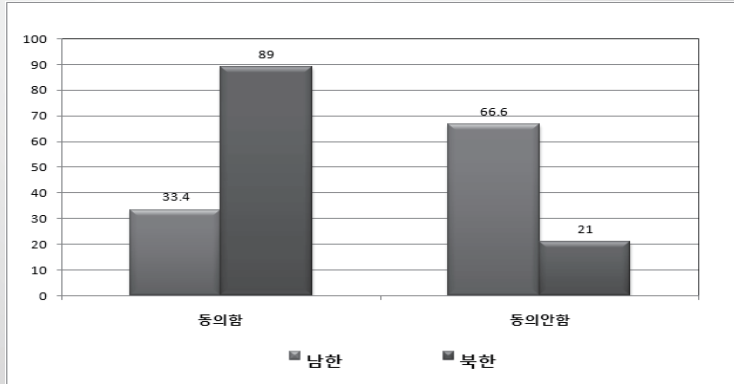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4> 통일과 개인의 이익 비교

## 조속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그림7> 조속한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비교

## 연구결과(심층분석)

#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 의식: 민족적 당위와 현실적 이익의 문제

## 1장.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 의식: 민족적 당위와 현실적 이익의 문제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남북한 세대 변화와 통일

오늘날 민족적 당위와 현실적 이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남북한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입장.

이러한 요인들이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비용의 부담에 대한 남북한 젊은 세대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

## 연구 모델과 변수의 조작화

종속변수:

1)통일의 필요성.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2) 통일비용 부담 여부.

“통일 이후 북한 재건을 위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연구 모델과 변수의 조작화

종속변수(2)= $\alpha + \beta_1 * \text{통일의 민족적 당위} + \beta_2 * \text{통일의 현실적 이익} + \beta_3 * \text{성별} + \beta_4 * \text{연령} + \beta_5 * \text{이념성향} + \beta_6 * \text{소득수준} + \beta_7 * \text{정치관심도} + \beta_8 * \text{삶 만족도} + \epsilon$

• 독립변수 설명

-통일의 민족적 당위: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 현실적 이익:

“통일이 남한, 북한,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통일의 필요성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남한 젊은 세대		북한 젊은 세대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오차)	Exp(β)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오차)	Exp(β)
상수	-6.915*** (1.317)	0.001	-10.437 (8.302)	0.000
통일의 민족적 당위	0.890*** (0.315)	2.434	0.691 (1.251)	1.996
통일의 현실적 이익	0.849*** (0.099)	2.337	0.682* (0.406)	1.977
성별	0.209 (0.275)	1.233	-1.471 (1.333)	0.230
연령	0.012 (0.028)	1.012	0.163 (0.243)	1.177
이념성향	-0.109 (0.071)	0.897	-0.253 (0.402)	0.777
소득 수준	-0.037 (0.065)	0.964	-0.203 (0.466)	0.816
정치관심도	0.949*** (0.270)	2.583	17.581 (2243.156)	43203558
삼 만족도	0.088 (0.083)	1.092	0.829 (0.548)	2.291
-2로그우도	390.988		21.707	
카이자승	146.715 (p=0.000)		21.095 (p=0.007)	
사례수	504		344	
적중률	83.3%		99.0%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통일의 필요성 (로지스틱 회귀분석)

#### 결과 1.

- 남한 젊은 세대의 경우, 민족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통일이 남한, 북한,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정치관심도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임.
- 북한 젊은 세대의 경우, 통일이 남한, 북한,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임.

## 통일의 필요성 (로지스틱 회귀분석)

### 결과 1.

- > 남한 젊은 세대가 북한의 젊은 세대와 비교하여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지 않고, 이로 인해 좀 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통일의 필요성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 통일의 필요성

### 결과 2.

- 남한의 젊은 세대는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민족적 당위와 현실적 이익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고민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북한의 젊은 세대는 민족적 당위보다 현실적 이익의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북한 젊은 세대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현실적 이익의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통일 비용 부담 (로지스틱 회귀분석)

- 남한 젊은 세대에 있어서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통일비용 부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북한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이 통일 비용의 부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정부신뢰 및 정부신뢰의  
결정요소 분석: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젊은 세대 비교

## 정부신뢰 비교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북한 젊은 세대의 정치적 태도와 가치관은 다른 모습을 나타냈으며, 특히 정부 신뢰와 같은 제도신뢰는 큰 차이를 보였음.

이들 간의 정치적 의식이나 가치의 유사점, 차이점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임.

## 정부신뢰 비교

또한 북한 젊은 세대가 지나고 있는 정치적 인식과 가치관을 통해 북한사회의 정치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될 수 있을 것임.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이 필요로 하는 배려와 지원을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정부신뢰 비교 (로지스틱 회귀분석)

#### 결과 1.

남한과 북한의 젊은 세대는 정부 신뢰에서 큰 차이를 나타냄.  
한국 정부에 대하여 남한 젊은 세대는 낮은 신뢰를 보인 반면  
북한 젊은 세대는 높은 신뢰를 나타냄.

분석결과,

북한 젊은 세대의 경우

정치만족, 물질주의적 가치관, 정치관심 내적 정치효능감 등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침.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정부신뢰 비교

		신뢰 함	신뢰 안함	
행정부	남한	21.8%	78.2%	151.08***
	북한	64.0%	36.0%	
입법부	남한	7.5%	92.5%	151.45***
	북한	43.4%	56.6%	
사법부	남한	36.5%	63.5%	88.23***
	북한	69.5%	30.5%	
전체	남한	5.2%	58.9%	198.17***
	북한	30.4%	16.1%	

\*p < 0.1, \*\*p < 0.05, \*\*\*p < 0.01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정부신뢰 비교 (로지스틱 회귀분석)

#### 결과2.

정치에 대한 만족과 경제상황을 인식하는 정도에서 차이.

남한 젊은 세대는 정치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낮았으나 북한의 경우는 다른 결과를 나타냄.

남한 젊은 세대는 정부정책에 대한 실망과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정치에 대한 만족이 낮을 수 있음.

반면 북한 젊은 세대의 경우 정부정책의 결과로

남한에서 생활하는데 직접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정치에 대해 만족하였을 것임.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남한 체류기간에 따른 정부신뢰

	1년 이하	1년~2년	3년~4년	5년~6년	6년 이상	평균	$\chi^2$
행정부	69.6%	71.7%	61.00%	65.9%	55.9%	64.0%	4.00
입법부	56.5%	44.7%	43.6%	40.7%	35.6%	43.4%	4.95
사법부	74.5%	65.2%	70.6%	72.6%	62.7%	69.5%	2.67
전체	45.7%	31.1%	27.3%	30.0%	23.7%	30.4%	19.20

\*p < 0.1, \*\*p < 0.05, \*\*\*p < 0.01

## 정파와 이념에 따른 20·30 대의 정치적 태도 비교 분석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정파와 이념에 따른 태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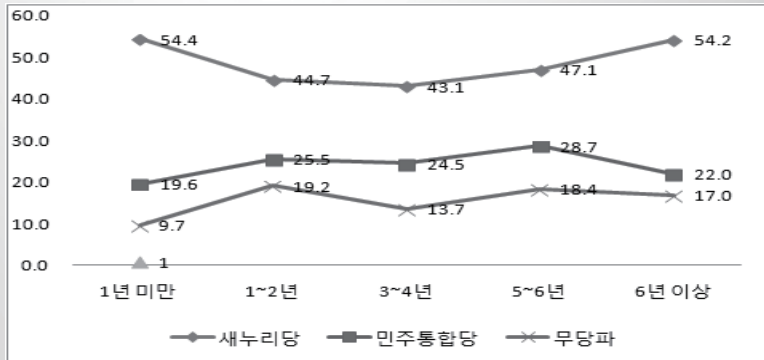
남북한 젊은 세대들의 정치적 정향과 이념 성향에 따른  
통일의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

남한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과 정치의식은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가치관의 혼재 상황을 미리 준비  
하고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

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과 정치의식은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통일시대  
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 정파와 이념에 따른 태도 비교

###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체류기간별 정당선호도



## 정당선호와 통일

통일의식에 관한 분석에서  
정당선호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사항은  
통일 관련 주장에 관한 내용.

새누리당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경우  
인도적 지원 강화보다는 북한핵의 선제 포기를 강조,  
민주당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경우  
인도적 지원 강화와 교류 협력 강화를 지지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정당선호와 통일이유

정당 선호와는 무관하게 남북 젊은 세대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였음.

그 이유로는,  
'강대국/선진국이 되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다음장의 그래프 참고).

-> 기존 연구들과 비교할 때,  
젊은 세대의 경우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보다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차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연구 결과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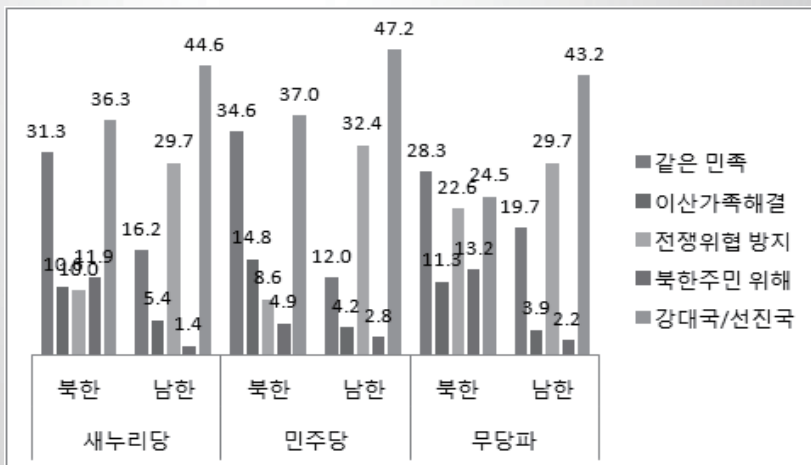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정당선호와 통일이유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이념 성향과 통일의 이해관계

		통일 남한 이익	통일 북한 이익	통일 개인 이익
진 보	남한	69.7	97.4	45.4
	북한	92.5	100.0	94.0
	전체	<b>76.7</b>	<b>98.2</b>	<b>60.3</b>
중 도	남한	61.2	95.5	38.8
	북한	94.6	98.9	93.6
	전체	<b>74.2</b>	<b>96.9</b>	<b>60.3</b>
보 수	남한	73.8	93.4	50.8
	북한	98.8	98.8	95.0
	전체	<b>87.9</b>	<b>96.5</b>	<b>75.9</b>
전체		<b>77.2</b>	<b>97.2</b>	<b>63.2</b>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이념 성향과 통일의 이해관계

이념성향과는 무관하게, 남북한 젊은 세대들 모두  
통일은 북한에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며,  
개인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가장 적게 나타났음.

통일이 남한과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보수적 이념성향을 가진 응답자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북한에 이  
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진보적 이념성향의 응답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왔음.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이념성향과 정치적 관심도

	진보			중도			보수			전체
	남한	북한	전체	남한	북한	전체	남한	북한	전체	
정치적 관심도	77.6	69.1	<b>75.0</b>	58.1	68.4	<b>62.1</b>	73.8	82.5	<b>78.7</b>	<b>68.3</b>

보수, 진보, 중도 순으로 나타남.

중도와 보수적 이념성향의 북한 젊은 세대들이

남한의 젊은 세대보다 정치적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진보적 이

념성향의 경우 남한 젊은 세대들이

북한 젊은 세대들보다 높게 나타났음.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 분석:  
사회문화적 측면

## 사회문화적 측면 분석

- 북한 이탈주민의 87.2%는 통일 후 남북한 사람들이 큰 문제없이 잘 어울려 살 수 있을 것이라 응답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3년 북한이탈주민의식과 사회변동조사”).
- 그러나 이는 정착초기 강한 민족적 친밀감으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 남북한 주민들 간 사회적 거리는 큼.

## 사회문화적 측면 분석

- 남북한 사회와 문화, 사람들에 대한 상호간의 몰이해는 단일한 사회권으로 통합함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음.  
즉,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 제도,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화합이 중요함.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남북한 젊은 세대가 갖는 가치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함.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

		매우 동의함 (A)	동의함 (B)	A+B
사회이익을 개인이익보다 우선시함	남한	4.4	54.8	59.2
	북한	15.7	52.2	67.9
	차이	+11.3	-2.6	+8.7

		매우 동의함 (A)	동의함 (B)	A+B
개인은 사회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남한	2.1	32.3	34.4
	북한	8.7	46.4	55.1
	차이	+6.6	+14.1	+20.7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

남북한 젊은 세대에서는 집단주의적 성향을 양측 모두 가지고 있으나 각기 차별화된 특징을 보임.

- 남한은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하며 충효사상에 대한 중요도보다는 자신과 가족중심으로 사고.
- 북한의 정치사회화 과정을 거친 젊은 세대들은 체제를 떠나있음에도, 북한 사회의 특징이 내면화되어 충과 효,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는 성향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FGI 인터뷰 내용

“남한에서는 옆집 사람들을 몰라요.”, “맞아요, 북한에서는 다 알아요. 다 친해요. 한 동네 살면서 이웃에 대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북한에서는 동네사람끼리 다 도와줘요.”

“북한사람들은 순수해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도와줘요.”, “북한 사람들처럼 순수한 사람이 서울에는 없어요. 농촌으로 가야해요. 가면 있을까.”, “남한 사람들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하지만 말로만 좋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믿을 수는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진실돼요. 남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다.”, “남한 사람들은 뽕뽕 돌려서 얘기해요.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안그래요. 다 솔직하고 직접 말해요. 거짓말 못하고”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FGI 인터뷰 내용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과정에서 남한문화에 자발적으로 흡수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음. 인터뷰에서 북한 젊은 세대는 남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한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음.**

“남한 문화에 빨리 적응해야해요. 특히 가장 빨리 고쳐야 하는 것을 억양이예요.”

“북한문화를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말을 해서는 남한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 결론

남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향이 나타났음.  
FGI에 참여한 대다수의 남한 젊은 세대들은 북한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도 부재했으며, 북한을 '못사는 옆에 나라'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도 다수.

이처럼 남한에서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단절된 채 통일에 대한 담론을 이어가는 듯 보임.  
통일에 대한 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북한의 현실과 실상의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

남북한 젊은 세대와  
탈물질주의

## 남북한 젊은세대와 탈물질주의

탈물질적 가치가 오늘날의 남한 젊은 세대의 한 특성으로 본다면, 과연 남한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며, 남한에서의 삶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연구

- 1.민주주의
- 2.정치적 효능감
- 3.집단주의와 개인주의
- 4.경제발전과 민주주의

## 물질주의-탈물질주의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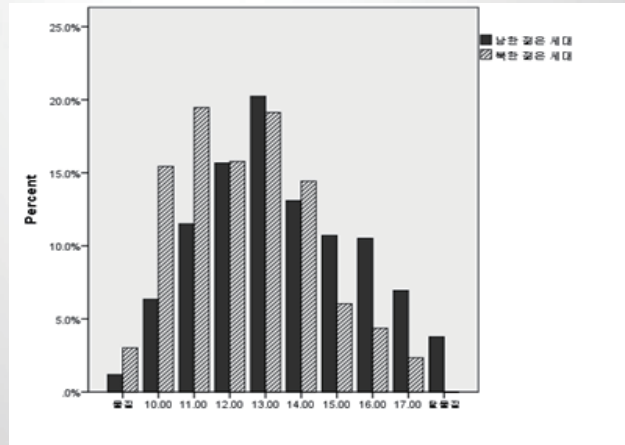
“남한과 북한의 젊은 세대 간 상이한 가치가 확인되었음.”

이슈	구분	평균 (stv)	n	t-test
탈물질-물질주의	남한	13.5 (2.17)	504	t=7.56 p<0.00
	북한	12.4 (1.89)	298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남북 젊은 세대의 물질-탈물질주의 분포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민주주의

### 물질-탈물질주의적 태도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비교

	평균	표준편차	n	ANOVA
남한 물질주의	11.4	2.76	277	F=23.6 p<0.00
남한 탈물질주의	9.8	3.08	227	
북한 물질주의	12.0	2.73	216	
북한 탈물질주의	11.2	2.85	81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정치적 효능감

## 물질-탈물질주의 가치에 의한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비교

	평균	표준편차	n	ANOVA
남한 물질주의	8.37	1.59	277	F=11.3 p<0.01
남한 탈물질주의	7.69	1.77	227	
북한 물질주의	8.53	1.88	215	F=21.3 p<0.01
북한 탈물질주의	7.85	1.53	79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 물질-탈물질주의적 시각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비교

	경제발전이 훨씬 중요	경제발전이 좀 더 중요	민주주의가 좀 더 중요	민주주의가 훨씬 중요	합 (n)
남한 물질주의	23.8	43.0	27.4	5.8	100.0 (277)
남한 탈물질주의	4.4	18.5	51.5	25.6	100.0 (227)
북한 물질주의	39.2	23.5	25.3	12.0	100.0 (217)
북한 탈물질주의	23.5	17.3	42.0	17.3	100.0 (81)

Pearson 카이제곱 159.1 p<0.01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누가 물질주의자이고, 탈물질주의자일까?

남한과 북한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도  
물질주의-탈물질주의라는 태도의 차이에 따라  
그들의 정치적 인식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렇다면, 젊은 세대들 가운데  
누가 탈물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누가 물질주의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북한 젊은 세대

## 성별, 남한에서의 교육, 북한 교육에 따른 비율 비교

	성별		남한에서의 교육 경험 여부		북한에서의 교육			
	남성	여성	있다	없다	소학교	고등중재학	고등중졸업	전문학교 이상
물질	74.1	71.3	69.7	82.6	70.2	57.4	79.2	77.3
탈물질	25.9	28.7	30.3	17.4	29.8	42.6	20.8	22.7
합 (n)	100.0 (116)	100.0 (178)	100.0 (228)	100.0 (69)	100.0 (47)	100.0 (61)	100.0 (144)	100.0 (44)
$\chi^2$	0.27 p=0.69		4.43 p<0.05		10.92 p<0.05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북한 젊은 세대

	거주기간 (개월)	출생연도	이념성향
물질	46.1	1985.5	5.21
탈물질	53.2	1986.5	4.86
t-test	t=-1.77 p<0.1	t=-1.64 p>0.1	t=1.10 p=0.27

- 북한 젊은 세대 중 탈물질주의적 태도를 갖게 된 이들은 남한에서의 삶이나 교육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습득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
- 북한 출신 젊은 세대 간의 가치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사회화 가설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남한 젊은 세대

## 물질주의-탈물질주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B	p	Exp(B)
성별	0.24	0.20	1.27
출생연도	0.00	0.92	1.00
소득	-0.06	0.24	0.95
이념	-0.31	0.00*	0.73
교육	0.65	0.00*	1.91
상수	-1.27	0.51	

n=504분류정확 63.1%, Cox & Snell R<sup>2</sup> = 0.10, -2Log우도= 641.2

종속변수: 물질주의 0, 탈물질주의 1)

독립변수 중 성별: 여성 0, 남성 1)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결론

남한과 북한 젊은 세대 간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비교적 일관되고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났음.

민주주의, 정치적 효능감,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경제발전 대 민주주의라는 네 가지 기준에서 모두 남한 젊은 세대가 보다 정치 참여와 비판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정치적 효능감이 컸으며, 보다 개인적, 자유적이며, 경제발전보다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구 결과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응답자분포

연구결과

### 결론

그러나, 중요한 발견점은 남한과 북한의 젊은 세대를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네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남한 대 북한 출신 간의 차별성보다, 물질주의자 집단과 탈물질주의자 집단 간의 차이가 보다 뚜렷하고 일관되게 나타났음.

남한 물질주의자들보다 북한 출신 탈물질주의자들의 민주주의나 정치 참여,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태도가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감사합니다**

## 제3회의 북한의 자연재해와 체육·여가활동

- 발표 1  
북한지역의 토양유실 취약성 평가  
임상준 (농업생명과학대)
- 발표 2  
백두산 화산폭발 시 재해의 기상 시나리오 별 피해 분석  
박형동 (공과대학)
- 발표 3  
북한의 체육 및 여가활동  
나영일 (사범대학)

### 토론 3

북한의 체육 및 여가활동에 관한 토론  
김흥태 (대진대)



# 북한지역의 토양유실 취약성 평가

임상준 (농업생명과학대)

## 1. 서론

### 1) 연구 배경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의해 발생하는 흙탕물은 하천의 수생태계를 교란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흙탕물은 대부분 토양유실 (soil loss)에 의해 발생한다. 토양유실이 단강우 등에 의해 지표면의 토양이 씻겨 하천이나 댐 등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표토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을 유출시킴으로 토양의 지력을 감소시켜 농작물의 생장을 저해하는 한편, 하천의 탁도를 높이고 어류 등의 산란장소를 파괴하는 등 심각한 수질문제를 야기한다. 흙탕물이 호소나 댐 등으로 유입되면 취수가 어려워져서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며, 호소 등 수체의 부영양화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북한강은 한강의 상류유입 지류로서 유역면적은 전체 10,739 km<sup>2</sup>이며, 이 중에서 약 22%인 2,353 km<sup>2</sup>가 고성군 등의 북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하천일람, 2010, 국토해양부). 따라서, 북한강 상류지역에서 발생한 흙탕물 (토사)은 하류에 위치한 한강으로 유입되어 일시적으로 상수원 취수를 제한하거나, 토사 제거를 위한 부대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경제적·환경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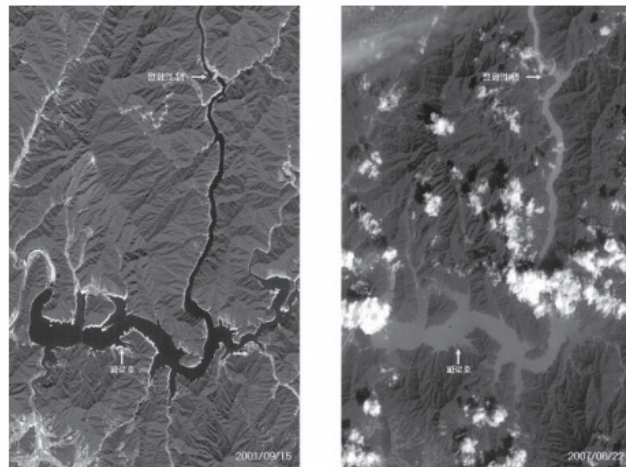
실제적으로 2002년 1월과 2007년 8월에는 북한 지역으로부터 많은 량의 흙탕물이 유입되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1호가 2007년 8월 22일에 평화의 댐과 원산지역을 촬영한 항공영상을 비교하면 <그림 1 참조>, 홍수로 인해 하천의 폭이 크게 확대되고 침수 범람 피해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흙탕물이 한강 하류로 유입되어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2007.08.27.).

일반적으로 흙탕물이란 강우 등에 의해 유실된 토사가 유출되어 하천 등을 통해 흘러가는 것을 말한다. 흙탕물을 일으키는 토양 유실은 강우, 지형, 토양, 토지이용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북한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림 훼손, 다락밭 등을 위한 산지 개발 등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토양 유실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부족한 농경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경사 16°이상의 산간지를 농경지로 전환하는 다락밭 건설사업을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마을주변 산지나 하천변 등의 미간지를 개간하여 임의로 채소 등을 재배할 수 있는 패기밭을 개별적으로 조성하였다. 이러한 토지이용의 고도화는 결과적으로 표토 유실로 인한 농지의 황폐화 및 하천 내 토사의 퇴적으로 인한 홍수 범람 등의 문제를 가져왔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락밭 등의 개간지로부터 유실되는 토양은 연간 19~20 ton/ha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1998), 이는 황폐한 산림지의 연간 토양유실량 추정치인 12.5 ton/ha보다 1.6배 정도 많은 량이다. 이러한 토양유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과도한 토양 유실이 예상되거나 취약한 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림 1〉 홍수 전 (좌 2001.9.15.)과 후 (우 2008.8.22.)의 항공영상 (경남도민일보, 2007.8.27.)



## 2) 국내외 연구 사례

북한지역의 토양 유실 및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는 자료접근이 제한적이고, 토양 유실량을 계량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현장 계측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역의 토양유실 문제는 농경지의 농업생산력 저하로 인한 식량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UNEP (2003)보고서는 북한지역의 환경문제-산림, 물, 공기, 토양, 생물다양성-의 심각성을 언급하면, 산림의 개간 및 경사지의 농업활동으로 인한 토양유실의 가속화는 수질의 악화를 가져오는 한편, 직접적으로 농경지의 토양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생물다양성 등의 간접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심각한 토양 유실에 의한 농경지의 지력 약화는 부수적으로 비료 등의 과도한 투입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로 인한 식량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Habib 2008, Ahn 2005; 한국농자재신문 2012.06.20).

한편, 유실된 토양이 하천에 쌓여 하상을 높이고 하천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권태진 2006; 송봉선, 2007; 임상철 2006). 노건길 등 (2001)에 의하면, 다락밭 및 패기밭 등의 조성으로 산사태 및 표토 유실이 가속화되고, 홍수시에 유실된 토사가 지속적으로 하천에 퇴적되어 천정천을 만들고, 결국에는 하천의 범람을 가져오며, 농경지의 침수, 유실 및 매몰 등의 홍수재해를 반복적으로 유발한다고 하였다. 북한의 호우피해가 과거에 비해 증가한 원인중의 하나는 경사지 개발로 인한 토양 유실량의 증가와 산림의 황폐화 때문이다 (김천과 정강호 1999; 이승호 2004).

Walling와 Webb (1996)은 우리나라의 토양침식량을 5~7 ton/ha/년으로 추정하였으며 <그림 2>, Lvovich 등 (1991)은 서해 및 북한지역의 토양유실량은 2~10 ton/ha/년, 서해일부를 제외한 남한지역은 10~50 ton/ha/년으로 추정하는 등 <그림 3> 연구자에 따라 토양유실량 결과가 다르게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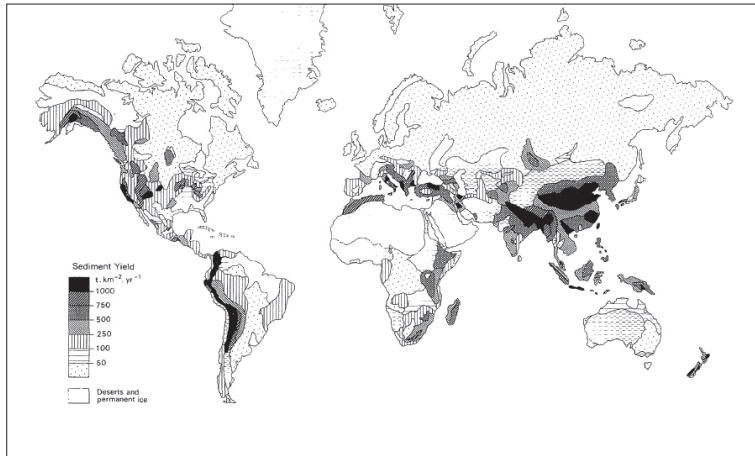
그러나 북한지역의 토양 유실량 추정에 관한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이다. 장영상 등 (2002)은 북한 전역에서 수집된 75개의 월 강수량자료로부터 토양유실량 예측에 필요한 강수인자를 추정하였다. 이준학과 허준행 (2011)은 수정 IAS지수를 적용하여 북한지역의 강우침식인자를 계산하였다. 이민부 등 (2008)은 RUSLE 모형을 적용하여 임진강 유역 DMZ 지역에 대한 지표침식량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옥수수 밭의 개간과 산림 훼손 등에 의해 북한지역의 토양유실량이 남한 지역보다 약 3배정도 많다고 하였다.

이제까지의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하며, 북한지역의 토사유출량은 산림훼손 및 경사지 개간 등에 의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토양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홍수재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지역의 토사유실 취약성은 이제까지 몇몇 연구자에 의해 평가되었으나 국가별 평가 수준에서 광범위한 면적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정책수립의 자료로 이용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내에서도 북한지역의 토양유실량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몇몇 연구자에 의해 실제적 토양유실량의 계량화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시험연구의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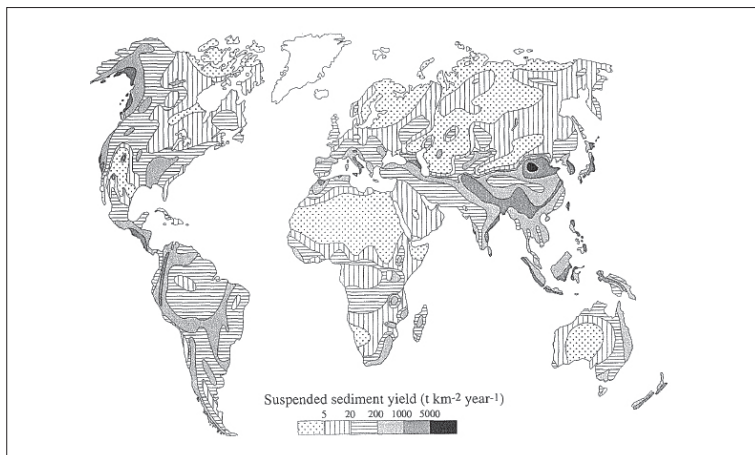
### 3) 연구의 목적

본 과업에서는 위성영상 및 GIS 자료를 활용하여 강우에 의한 북한지역의 토양 유실 취약성을 평가하고, 토양유실 취약성 지도를 작성하며, 토양 유실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그림 2〉 세계의 토양유실량 추정 (Walling와 Webb, 1996)



〈그림 3〉 세계의 토양유실량 추정 (Lvovich 등, 1991)



## 2. 연구 방법

### 1) 토양유실량 추정

토양침식 혹은 토양유실량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토양유실포 (field plot) 실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토양유실량 예측모형 등을 활용하여 강우 및 유역의 특성 자료로부터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북한지역은 현장 접근이 제한적이므로 토양유실량을 직접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기 구축된 공간정보 및 위성영상 정보 등을 활용하여 토양유실량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다.

Neal (1938)의 경사와 강우강도에 따른 토양유실 취약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시작으로, 경사장과 경사도에 따른 토양침식 (Zingg, 1940), 식생 및 토양침식인자, 강우강도 및 식생피복인자와 토양침식 (Musgrave, 1947, Smith and Whitt, 1947)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등, 오랜기간 동안에 걸쳐 토양유실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965년에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범용 토양유실량 예측공식 (USLE; Universal Soil Loss Equation)이 개발되었다 (Wischmeier and Smith, 1965).

Renard 등 (1993)은 농경지에 제한적으로 적용가능한 USLE 모형을 수정·보완하여 하천, 계곡, 그리고 산림지역과 같은 복잡한 지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수정 범용 토양유실량 예측공식 (RUSLE; 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강우인자, 토양인자, 식생인자, 지형인자 등을 활용하여 토양유실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토양유실량 예측공식은 1970년 이후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토양유실량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지난 40여 년간 국내에서도 토양유실량을 산정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한편, 토사유실량 예측공식은 미국을 위주로 개발 및 수정·보완되어 왔기 때문에 미국 지역에 적합하도록 발달되어 왔다. 이 때문에 북한지역에 기존에 개발된 USLE 공식의 계산과정과 매개변수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한계가 있으며, 대상지의 조건에 적합한 강우인자, 토양인자, 식생인자의 값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과업에서는 현재 수준에서 구축가능한 북한지역의 공간자료를 이용하여, 강우인자, 토양인자, 경사 및 경사 길이 인자, 작물 및 토양관리인자 등을 각각 계산하여, 북한 산림지역의 연평균 토양유실량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였다. 이를 위하여 강우침식인자 (R), 토양침식인자 (K), 식생피복인자 (VM), 지형인자 (LS)에 대한 주제도를 각각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북한 산림지역의 토사유

출 취약지도를 작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 산림 지역에 대한 평균적인 토양 유실량 추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별, 시기별 강우 특성이나 토지 이용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 2) RUSLE 모형

연평균 토양유실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RUSLE (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를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Renard 등 (1993)이 미국의 National Runoff and Soil Loss Data Center에서 개발한 연평균 범용 토양유실량 예측공식 (USLE; Universal Soil Loss Equation)을 수정·보완하여 산림지역과 같은 복잡한 지형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였다. RUSLE 모형은 아래의 (식 1)과 같다.

(식 1)

여기서	A	=	연평균 토양유실량 (ton/ha/yr)
	R	=	강우침식인자 (MJ·mm/h·ha/yr)
	K	=	토양침식인자 (h·ton/MJ·mm)
	VM	=	식생피복인자
	LS	=	지형인자

RUSLE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의 강우, 지형, 토양 및 식생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표 1>은 본 연구에 이용된 기초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강우침식인자는 <그림 4>와 같이 북한 지역의 기상관측소 27개소의 강우량 자료로부터 계산하였으며, 토양침식인자는 농업과학기술원의 토양도, 식생피복인자는 농업과학기술원의 토지피복분류도, 지형인자는 수치고도모델 (DEM)을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구축된 자료는 ArcGIS 9.3.1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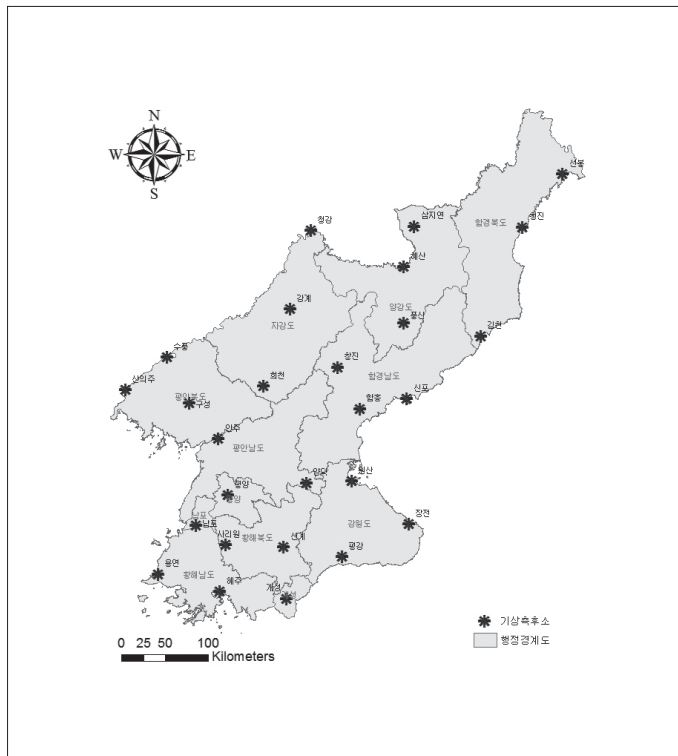
RUSLE 모형을 이용하여 토양유실량을 추정하는 방법은 <그림 5>와 같다. 강우침식인자는 정영상 등 (2002)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토양침식인자 (K)는 토양도의 토양통 정보를 이용하여 각각의 토양에 대해 계산하였으며, 피복인자 (VM)는 토지피복 분류도를 이용하여 얻었다.

〈표 1〉 RUSLE 인자별 GIS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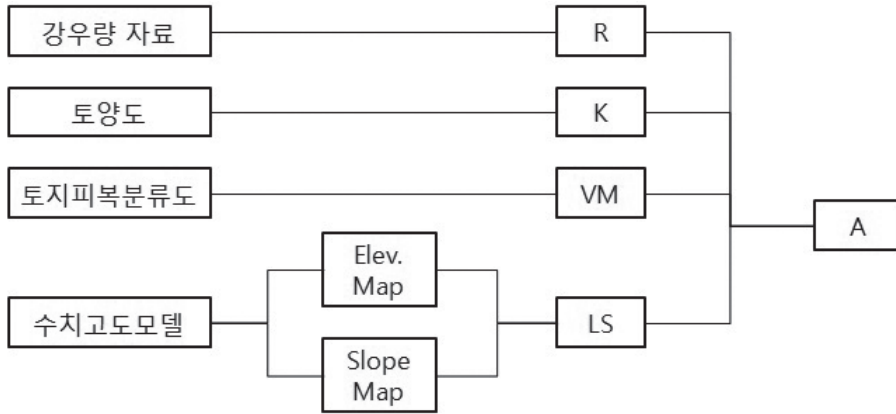
RUSLE 인자	관련 GIS 자료	자료 출처
강우침식인자	강우량 자료	정영상 등 (2002)
토양침식인자	토양도	농업과학기술원
식생피복인자	토지 피복 분류도	STRM
지형인자	수치고도모델 (DEM)	농업과학기술원

한편, 지형인자를 계산하기 위하여 수치고도모델 (DEM)을 이용하였다. 먼저 수치고도모델 (DEM)로부터 수문분석과 지형분석을 실시하여 침식 경사면의 길이인자 (slope length factor)와 침식경사면의 경사인자 (slope steepness factor)를 각각 계산한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Grid를 이용하여 지형인자 (LS)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4〉 북한의 강우관측소 자료



〈그림 5〉 토양유실량 산정 방법 흐름도



### (1) 강우침식인자 (R)

강우량 자료는 〈그림 4〉와 같이 북한기상 20년보의 27개소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강우침식인자 (R)의 산정방법은 정필균 등 (1983)이 개발한 식을 수정 보완한 정영상 등 (2002)의 계산방법을 따랐다. 정영상 등 (2002)이 제안한 강우침식인자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RM_i = 0.0378 \cdot (X_i)^{1.419} \quad (\text{식 2})$$

여기서,  $X_i$  = 월 평균 강수량

$$RY_j = \sum_{i=January}^{December} RM_i \quad (\text{식 3})$$

여기서,  $RY_j$  =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 평균 강수량의 합

12월부터 3월까지의  $RM_i$  값은 겨울철 적설의 영향을 고려하여 그 량의 15배를 적용한다 (Wischmeier와 Smith, 1978). 지역성을 고려한 R 값의 지역인자 ( $U_{adj}$ )는 정영상 등 (1999)의 자료로부터 중북부 지방의 9개 지역에 대한 R 값과 강수의 7, 8월 집중도의 관계로부터 구한 다음, 이를 보정하여 R 값으로 계산하였다.

$$R(EI_{30}) = Mean(RY_j) \cdot U_{adj} \quad (\text{식 4})$$

(식 4)로부터 북한지역의 강우침식인자를 <표 2>와 같이 산출한다. R 값은 107에서 493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6>은 북한지역에 대해서 IDW 보간법 (Inverse Distance Weighted)을 이용하여 Grid별 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 방법은 특정지점의 관측 값을 이용하여 구하고자 하는 지점의 값을 예측하는 방법이며, 주변의 가까운 점으로부터 선형으로 결합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새로운 Grid의 값을 결정한다.

<표 2> 북한 지역의 기상관측소별 강우침식인자 계산 결과

기상측후소	$U_{adj}$	강우침식인자
강계	0.858	200.4
개성	1.133	410.5
구성	1.325	493.2
김천	0.714	121.1
남포	1.092	258.8
사리원	1.258	275.0
삼지연	0.566	160.0
선봉	0.817	145.7
수봉	1.080	286.7
신계	1.178	408.0
신의주	1.083	291.6
신포	0.864	179.4
안주	1.252	379.6
양덕	1.156	330.9
용연	1.037	264.1
원산	0.812	360.8
장전	0.530	298.4
창진	0.790	166.8
청강	0.884	156.5
청진	0.721	107.7
평강	1.147	465.9
평양	1.097	271.8
풍산	0.767	139.9
함흥	0.942	216.4
혜산	0.767	114.8
해주	1.068	327.9
희천	1.221	434.0

## (2) 토양침식인자 (K)

K 인자는 토양의 침식성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북한지역의 토양도를 이용하여 구한다. 통일분류법 (USCS)에 의해 분류된 토양자료를 Rivas (2006)와 Stewart 등 (1975)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토양침식인자를 결정하였다. 북한지역의 토양분류에 따른 토양침식인자는 <표 3>과 같다. <그림 7>은 토양분류별 토양침식인자 값을 도시한 결과이다.

## (3) 식생피복인자 (VM)

VM 인자는 식생이 토양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토양 피복 분류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토지 피복 분류는 논, 밭, 간척지, 초지, 산림, 나지, 도시지역, 수역, 그리고 염전으로 구분하였으며, Yoshikawa 등 (2004)이 제시한 값을 이용한다. 각각의 토지 이용별 토양 침식성 값에 대하여 아래의 <표 4>와 같이 VM값을 배정한다. <그림 8>은 토지이용별 식생피복인자 값을 나타낸 것이다.

## (4) 지형인자 (LS)

LS는 지형인자로서 지형에 따른 토양 침식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침식경사면의 길이 인자 (slope length)와 침식경사면의 경사 인자 (slope steepnes)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Troeh 등, 1991). 지형인자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Wischmeier와 Smith, 1978).

$$LS = (\ell / 22.13)^m (0.065 + 0.045s + 0.0065s^2) \quad (\text{식 5})$$

본 연구에서는 100×100 m 정밀도의 수치고도모델 (DEM)을 이용하여 지형인자를 산정한다. 경사길이 ( $\ell$ )는 <표 5>와 같이 토지이용별로 정의하여 구하며(Kim 등 2014), 지형분석을 통해 Grid별 경사길이 지수 (slope contingent variable)를 <표 6>과 같이 재분류하였다 (McCool 등, 1993).

<그림 9>는 L 인자와 S 인자를 이용하여 북한지역에 대하여 지형인자 (LS)를 구한 결과이다.

〈표 3〉 북한지역의 토양분류별 토양침식인자 계산 결과

USCS 토양분류	USDA 토양분류	K
GW	Sand (gravel)	0.026
GP	Sand (Gravel)	0.026
GM	Sand (gravel)	0.026
GC	Sand (gravel)	0.026
SW	Sand	0.039
SP	Sand	0.039
SM	Loamy Sand	0.129
SC	Sand Clay Loam	0.323
ML	Silt	0.672
CL	Clay	0.213
OL	Organic Silt	0.543
CH	Clay	0.213
MH	Silt	0.672
OH	Organic Clay	0.258

〈표 4〉 북한지역의 토지이용별 식생피복인자

RUSLE 인자	관련 GIS 자료	자료 출처
논	논	0.01
밭	밭	0.24
간척지	수역	0
초지	초지	0.02
산림	산림	0.004
나지	나지	1
시가화/건조지역	도시	0.02
수역	수역	0
염전	수역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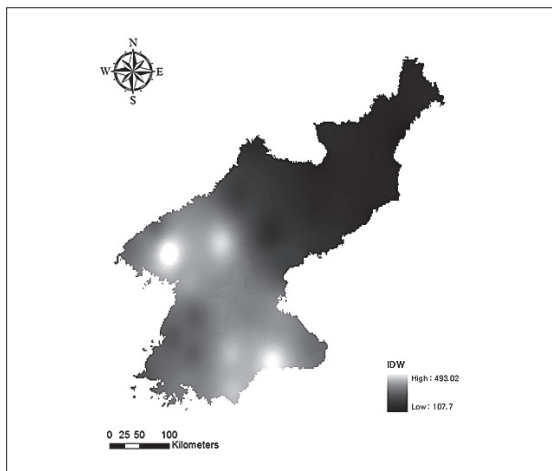
〈표 5〉 흐토지이용별 경사길이 (slope length)

토지이용	경사길이(m)	토지이용	경사길이 (m)
논	70	나지	85
밭	50	시가지	85
간척지	85	수역	0
초지	15	염전	0
산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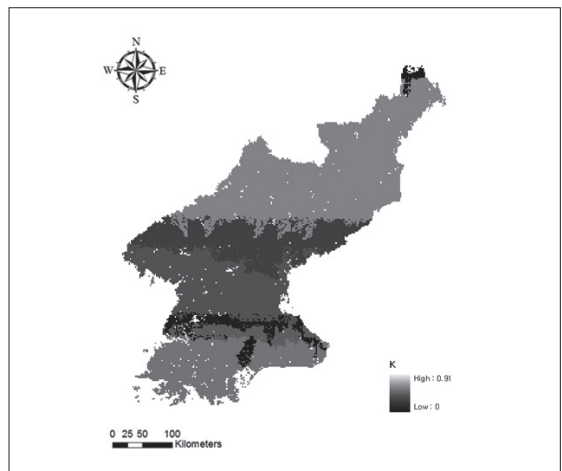
〈표 6〉 경사 길이 지수 (slope contingent variable) 값

경사 (%)	m
slope $\leq$ 0.2	0.04
0.2 < slope $\leq$ 0.5	0.08
0.5 < slope $\leq$ 1.0	0.15
1.0 < slope $\leq$ 2.0	0.24
2.0 < slope $\leq$ 3.0	0.31
3.0 < slope $\leq$ 4.0	0.36
4.0 < slope $\leq$ 5.0	0.40
5.0 < slope $\leq$ 6.0	0.43
6.0 < slope $\leq$ 8.0	0.48
8.0 < slope $\leq$ 10.0	0.52
10.0 < slope $\leq$ 12.0	0.55
12.0 < slope $\leq$ 14.0	0.57
14.0 < slope $\leq$ 16.0	0.59
16.0 < slope $\leq$ 20.0	0.61
20.0 < slope $\leq$ 25.0	0.64
25.0 < slope $\leq$ 30.0	0.66
30.0 < slope $\leq$ 40.0	0.68
40.0 < slope $\leq$ 50.0	0.70
slope > 50.0	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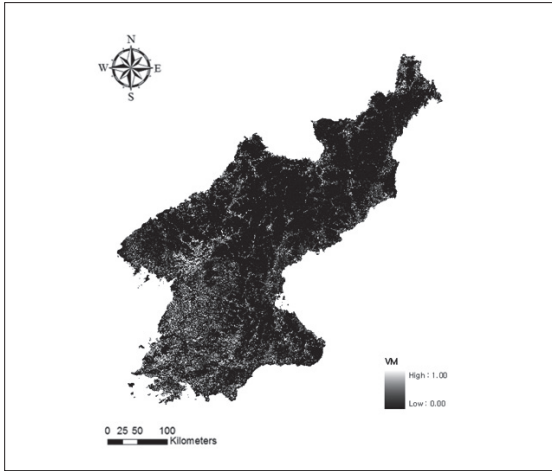
〈그림 6〉 북한지역의 강우침식인자 (R)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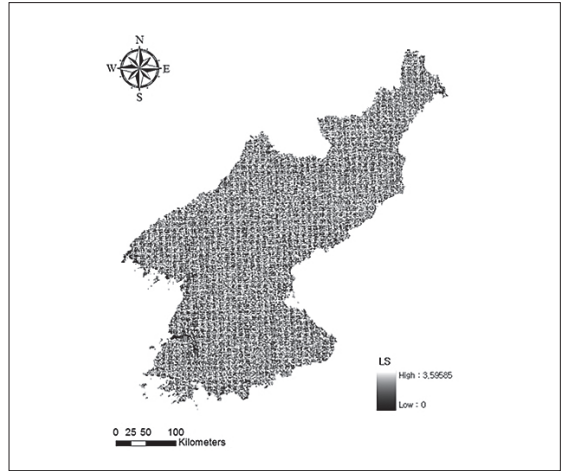
〈그림 7〉 북한지역의 토양침식인자 (K) 분포



〈그림 8〉 북한지역의 식생피복인자 (VM) 분포



〈그림 9〉 북한지역 지형인자 (LS) 분포



### 3. 연구 결과

2장에서 논의한 각 인자들의 계산 값을 적용하여 (식 2)로부터 Grid별 토양유실량을 계산하였다. 토양유실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토양유실량 계산 결과에 따라 ① 토양유실이 매우 적은 지역 (< 6 ton/ha/yr), ② 토양유실이 적은 지역 (6-11 ton/ha/yr), ③ 토양유실이 보통인 지역 (12-22 ton/ha/yr) ④ 토양유실이 심한 지역 (23-33 ton/ha/yr) ⑤ 토양유실이 매우 심한 지역 (> 33 ton/ha/yr) 으로 각각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Wall 등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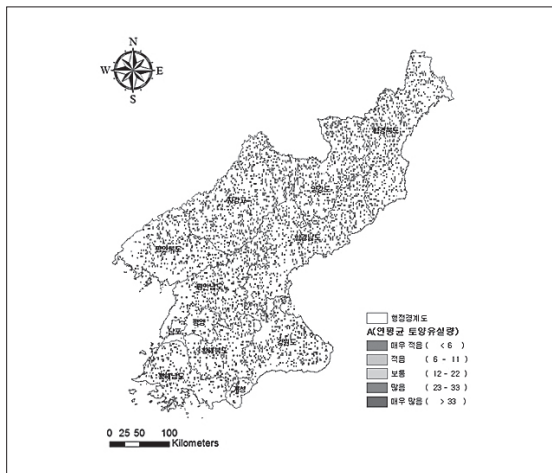
〈그림 10〉은 북한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유실 취약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토양유실에 매우 취약한 곳은 남포, 황해북도, 강원도 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구역별 북한지역의 연간 평균 토양유실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북한의 연간 평균 토양유실량은 39.11 ton/ha/yr으로 토양유실이 전체적으로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중에는 남포 (125.27 ton/ha/yr)의 토양유실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황해북도 (73.92 ton/ha/yr)와 강원도 (59.64 ton/ha/yr) 등이 행정구역단위 중에서 토양유실에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계산되었다. 반면에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양강도 등의 토양 유실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행정구역별 토양유실 취약 정도를 평가하면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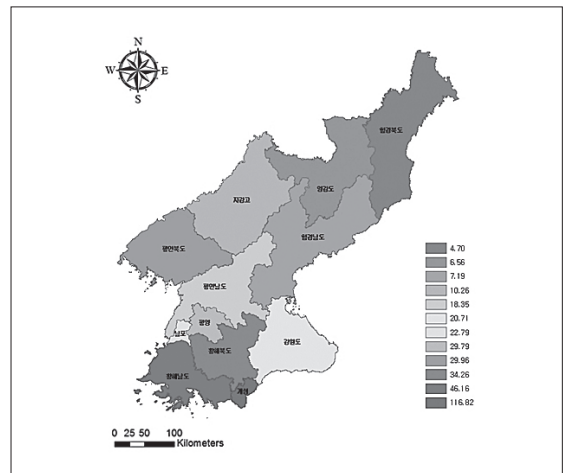
〈표 7〉 행정구역별 연평균 토양유실량 발생량 (ton/ha/yr)

행정구역	계산단위별 최대 토양유실량	연평균 토양유실량
강원도	32,567	59.64
개성	6,978	45.23
남포	10,394	125.27
양강도	14,581	22.34
자강도	34,869	52.29
평안남도	25,147	50.00
평안북도	17,300	43.31
평양	18,639	56.45
함경남도	15,242	20.47
함경북도	8,235	11.60
황해남도	13,028	40.82
황해북도	23,687	73.92

〈그림 10〉 토양유실 발생 취약성 분포



〈그림 11〉 행정경계별 연평균 토양유실량 분포



## 4. 요약 및 결론

강우로 인한 토양유실은 농경지의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하류 하천 등의 수계에 대한 수질오염 등을 유발한다. 북한은 과도한 산림벌채와 다락밭 개간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토양 침식이나 토양유실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강우로 인한 북한의 토양유실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강우량, 토지이용, 토양 등을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연간 토양유실 발생가능량을 추정하였다.

북한의 연 평균 토양유실 발생가능량은 약 39.11 ton/ha로 나타났으며, 행정구역별로는 남포시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황해북도 지역도 토양유실 발생량이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토양유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농방법 개선이나 체계적인 토양 관리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구조적으로 황폐지나 나지를 조림하거나 경사가 급한 다락밭은 다시 산림으로 전환하는 대책 등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최근 북한에서 경사지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림농복합경영(혼농임업)은 노출된 지표면을 최소화하고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토양 침식을 줄여 지표면의 토양 침식 방지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토양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지역별, 토지이용별 토양유실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관련 자료 및 통계가 필요하지만, 자료의 접근성 등의 제약으로 아직까지 연구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 보완과 연구 개발을 통해 북한에 대한 체계적, 학술적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 참고 문헌

1. 권태진, 2006, 북한의 홍수 피해 상황과 농업부문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김천, 정강호, 1999, JERS-1 OPS 자료를 이용한 북한 희천분지 지역의 홍수피해 분석, 대한원격탐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45-50.
3. 노건길, 2001,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원.
4. 농촌진흥청, 1998. 남북한 통일대비 농업자원관리 정책수립연구, p. 241.
5. 송봉선, 2007, 북한 수해는 김정일이 실행한 주체농법이 부른 인재, 북한, 430: 89-9.
6. 이민부, 김남신, Shizhu Jin, 김항덕, 2008. 임진강유역의 토지이용에 따른 지표침식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3(3): 263-275.
7. 이승호, 2004, 북한 산림자원의 황폐화 현황과 남·북한 임업협력의 발전방향, 농업생명과학연구, 38(3): 101-113.
8. 이준학, 허준행, 2011. 수정 IAS 지수를 이용한 북한지역의 강우침식인자 추정, 한국토양비료학회지, 44(6): 1004-1009.
9. 임상철, 2006. 북한 홍수피해의 실태와 대책: 북한의 홍수피해는 천재가 아닌 인재이며 예방의 첩경은 산림복원이다. 북한, 417: 130-134.
10. 정필균, 고문환, 임정남, 임기태, 최대웅, 1983, 토양유실량 예측을 위한 강우인자의 분석, 한국토양비료학회지, 1: 112-118.
11. 정영상, 권영기, 임형식, 하상건, 양재의, 1999, 강원도 경사지 토양유실 예측용 신 USLE의 적용을 위한 강수인자와 토양 침식성 인자의 검토, 한국토양학회지, 32(1): 31-38.
12. 정영상, 박철수, 정필균, 임정남, 신제성, 2002. 북한지역의 월 강수량으로부터 토양 유실 예측 공식 적용을 위한 강수 인자 산출, 한국토양비료학회지, 35(2): 87-92.
13. 한국하천일람, 2010, 국토해양부.
14. Ahn, C., 2005, Famine and the future of food security in North Korea, Policy Brief No. 11, Institute for Food and Development Policy, CA, USA.
15. Habib, B., 2008, Climate change and the terminal decay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 Oceanic Conference on International Studies, Brisbane, Australia.
16. Kim, S.M, Jang, T.I., Kang, M.S., Im, S.J. and Park, S.W. 2014. GIS-based lake sediment budget estim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land use change in an urbanizing catchment area. Environmental Earth Sciences 71: 2155-2165
17. Lvovich, M. I, Karasik, G. Y, Bratseva, N. L., Medvedeva, G. P., and Maleshko AV. 1991. Contemporary intensity of the world land intercontinentl erosion. Moscow: USSR Academy of Sciences.

18. McCool, D. K., Brown, L. C., Foster, R. G., Mutchler, K. C., Meyer, L. D., 1987, Revised Slope Steepness Factor for the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Transactions of the ASAE, Vol 30(5).
19. McCool, D. K., George, G. E., Freckleton, M., Douglas, C. L., and Papendick, R. I., 1993, Topographic effect of erosion from cropland in the Northwestern Wheat Region,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ing 36: 771–775.
20. Musgrave, G.W., 1947, The quantitative evaluation of factor in water erosion—a first approximation, Journal of Soil and Water Conservation, 2(3): 133–138.
21. Neal, T. H., 1938, Effect of degree of slope and rainfall characteristics of runoff and soil erosion, Agri. Engng 19.
22. Renard, K. G., Forster, G. P., Wessies, G. A., McCool, D. A. and Yoder, D. S., 1993, Predicting soil erosion by water: A guide to conservation planning with the 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RUSLE), U.S. ARS Publication.
23. Rivas, T., 2006. Erosion Control Treatment Selection Guide. USDA FS Report, 0677 1203–SDTDC. P. 53.
24. Smith D. D., and Whitt D. M., 1947, Estimating soil losses from field areas of claypan soils, Soil Sci. Soc. Am. Proc, 12: 485–490.
25. Stewart, B.A., Woolhiser, D.A., Wischmeier, W.H., Caro, J.H. and Freere, M.H. 1975. Control of Water Pollution from Cropland. US EPA Report, EPA–600.
26. Troeh, F. R., Hobbs, J. A., and Donahue, R. L., 1991, Chapter Six: Predicting Soil Loss, Soil and Water Conservation, 2nd ed.
27. UNEP, 2003, DRP Korea: state of the environment 2003, UNEP RRCAP, Thailand.
28. Walling, D. E., and Webb, B. W., 1996. Erosion and sediment yields: a global overview, Proceedings of the Exeter Symposium, IAHS Publ. No. 236.
29. Wall, G. J., Coote, D. R., Pringle, E. A., and Shelton, I. J., 1997, 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for Application in Canada,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Ottawa, Ontario.
30. Wischmeier, W. H., and Smith, D. D., 1965, Predicting rainfall erosion losses from cropland east of the Rocky Mountains, Agriculture Handbook.
31. Wischmeier, W. H., and Smith, C. B., 1978, Predicting rainfall erosion losses: a guide to conservation planning, U.S.D.A. Handbook.
32. Yoshikawa Seiko., Yamamoto Hiroshi., Hanavo Yoshio., Ishihara Akira., 2004, Hilly-Land Soil Loss Equation (HSLE) for Evaluation of Soil Erosion Caused by the Abandonment of Agricultural Practices, JARQ 38(1): 21–29
33. Zigg, A. W., 1940, Degree and length of land slop as it affect soil loss in runoff, Agricultural Engineering 21: 59–64.



# 백두산 화산폭발 시 재해의 가상 시나리오 별 피해 분석

2014. 2. 25. 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박형동 교수  
(hpark@snu.ac.kr)

1

## 목 차

- I. 서론
- II. 연구대상지역
- III. 천지못 유출수의 피해영향범위 산정 방법
- IV. 백두산 천지 지반 붕괴 가상 시나리오
- V. 홍수 피해영향범위 예측 결과 및 해석
- VI. 마그마 챔버에 의한 지표 변위 변화 분석 방법
- VII. 마그마 챔버 특성 및 지반 조건 시나리오
- VIII. 챔버 공동에 의한 지반침하 결과 및 해석
- IX. 결론

2

## 연구과제 기본 정보

### ■ 연구과제명

- 백두산 화산폭발 시 재해의 가상 시나리오별 피해 분석  
 (세부주제 1) 백두산 천지 붕괴 가상 시나리오 별 천지못 유출수의 피해영향범위 예측  
 (세부주제 2) 백두산 하부 마그마 챔버의 존재 특성 시나리오 별 주변 지반의 응력 및 변위 평가

### ■ 연구기간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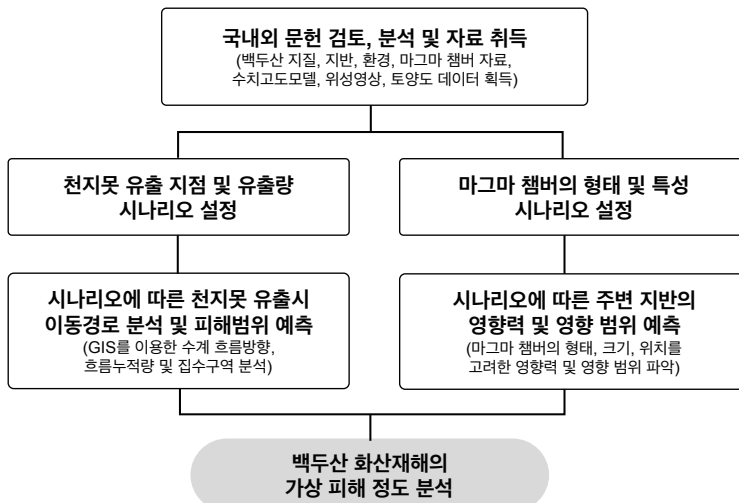
- 2012년 9월 - 2013년 8월

### ■ 참여연구원 (6인)

- 연구책임자: 박형동 교수 (에너지자원공학과, 이하 동일)
- 공동연구원: 송재준 교수
- 보조연구원: 서장원 박사, 김성민, 손진, 류성훈

3

## 연구 추진전략 및 체계



4

## I-1. 서론 (배경이론)

### ▪ 최근 대규모 화산재해 현황



<피나투보 화산>

- 지역: 필리핀 루손섬
- 발생시기: 1991년 6월
- 피해정도:
  - 약 800명 사망
  - 약 100,000명의 난민발생



<에이야프얄라요쿨 화산>

- 지역: 아이슬란드
- 발생시기: 2010년 4월
- 피해정도:
  - 20여개국 항공 운행정지
  - 약 100,000명 여행자 피해



<메라피 화산>

- 지역: 인도네시아 중양자바
- 발생시기: 2010년 10월
- 피해정도:
  - 353명 사망
  - 약 350,000명 피난

5

## I-2. 서론 (연구배경 및 목표)

### ▪ 연구배경

-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전조현상 관찰 (윤성호 등, 2007; Wy et al., 2009)
  - 천지 지하에서 발생하는 지진 빈도 증가
  - 천지 하부 규장질 마그마방의 상승
  - 백두산 화산체의 지형 변화
  - 천지 암벽 균열
  - 천지 주변 온천수의 수온 상승
  - 화산가스 발생량 변화와 화산가스 분출로 인한 식물 고사
- 기존 연구들은 주로 '화산재에 의한 재해 예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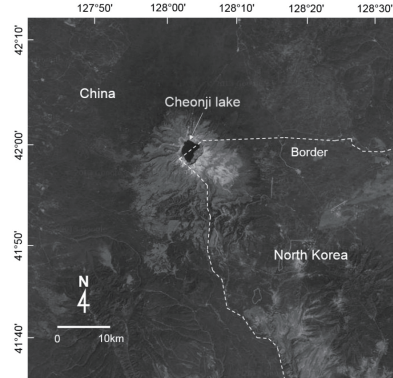
- (1) 백두산 분화 전 천지못 주변 지반의 붕괴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유출수의 이동경로와 홍수 피해영향범위를 시계열로 예측
- (2) 백두산 하부에 위치한 마그마 챔버의 특성과 지반 조건에 대한 시나리오 별 주변 지반의 변위에 대한 변화를 분석

6

## II. 연구대상지역

### ■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을 포함하는 영역(약 5,000km<sup>2</sup>)

- 백두산 화산체의 지리적 좌표: N41°50'~42°10', E127°50'~128°15'
- 백두산 지형
  - : 현무용암대지(600~1,100m) / 10° 이내의 완만한 지형
  - : 현무용암고원(1,100~1,800m) / 15° 이상의 경사 지형
  - : 화산원추체(1,800~2,750m) / 5~30° 경사 지형
  - : 화산활동으로 인한 다수의 화구 및 분지 지형 존재



<연구대상지역>

(Modified image from <https://maps.google.co.kr>) 7

## II. 연구대상지역

### ■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을 포함하는 영역(약 5,000km<sup>2</sup>)

- 백두산 천지: 세계에서 가장 높고 깊은 화산호수, 아시아에서 가장 큰 화구호  
27개의 산봉우리(장군봉 등)로 둘러싸여 있음



<백두산 천지 전경>

(Image from <https://www.googl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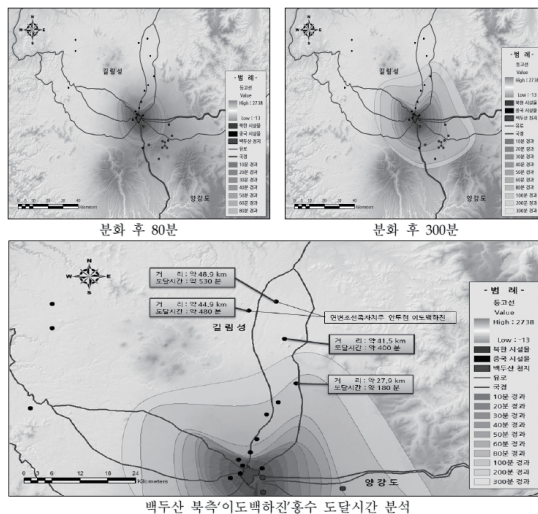
백두산 천지		천지 물의 기원과 유출량		
남북 길이(m)	455	기원(억 m <sup>3</sup> )	강수	0.126
동서 너비(m)	352		지표수	0.035
면적(m <sup>2</sup> )	943,000		지하수	0.252
해발 고도(m)	2,914		합계	0.415
저수량(억 m <sup>3</sup> )	20.0	유출량(억 m <sup>3</sup> )	0.431	
평균 깊이(m)	204~213	연 유출량 (만 m <sup>3</sup> )	3,870	

# Part 1. 백두산 천지 붕괴 가상 시나리오 별 천지못 유출수의 피해영향범위 예측

## III. 천지못 유출수의 피해영향범위 산정 방법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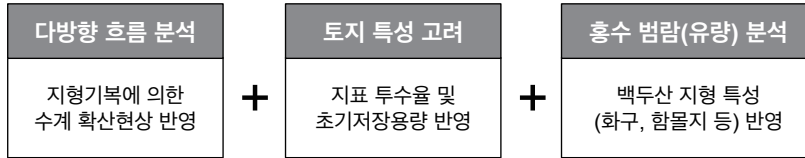
- 기존 연구 검토(홍수피해예측)

- 천지못 유출 시 기존 강으로의 유입과 범람만을 평가 (국립방재연구원, 2012)



### III. 천지못 유출수의 피해영향범위 산정 방법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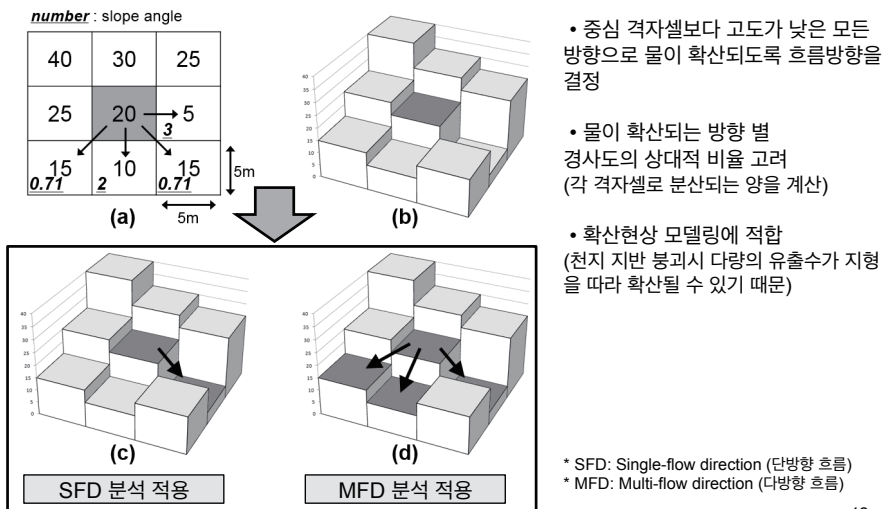
▪ GIS 기반의 수계분석 알고리즘의 특성 및 장점



- 연구대상지역의 물리적,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수계 흐름 및 집수구역 분석 가능
- 기타 홍수 분석 소프트웨어에 비해 물의 양적 이동을 모사하기에 유리
- 계측형 자료 지향형 홍수 예측 모델에 비해 자료의 취득과 입력이 용이

### III. 천지못 유출수의 피해영향범위 산정 방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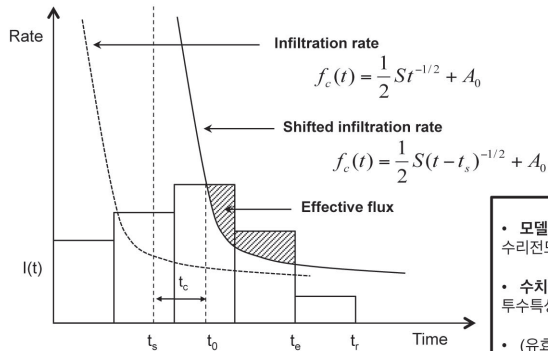
▪ 지형기복을 이용한 다방향 흐름 분석 기법의 원리



### III. 천지못 유출수의 피해영향범위 산정 방법 (2)

▪ 지표 토양의 투수율과 초기 저장 용량을 고려한 수계 모델링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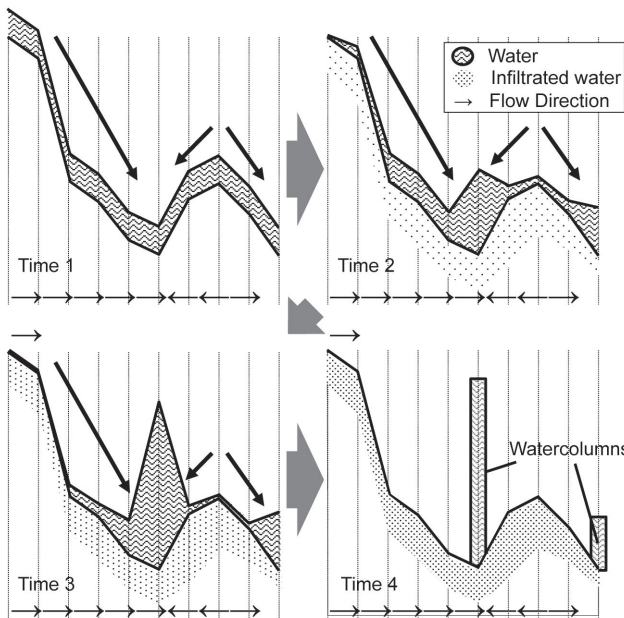
- Philip two-term infiltration model (1969) 적용



- 모델입력변수: 초기포화도( $S_m$ ), 유효공극률( $\eta$ ), 수리전도도( $K_s$ ), 공극크기분포지수( $\lambda$ ) →  $S, A_0$  계산
- 수치해석적용: 각 셀마다 유입되는 물의 유량과 투수특성을 반영하여  $t_0, t_s$  산정 → 모델 계수 결정
- (유효유입량) = (유입량) - (흡수량),  $t_0 \leq t \leq t_e$

13

### III. 천지못 유출수의 피해영향범위 산정 방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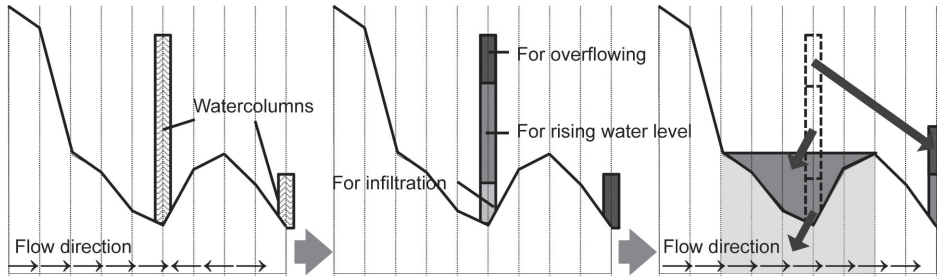
- 래스터 자료 기반의 시계열 수문분석 알고리즘 (Jain and Singh, 2005)에 MFD 기법 적용 가능하도록 알고리즘 수정 및 보완
- 수치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이전 시간대의 주변 고도, 수위, 유속, 경사 정보를 토대로  $\Delta t$  이후의 수위, 유속을 계산

- 지배방정식 (유입량)-(유출량)=(수위변화)  
 $\rightarrow h^{*t} = h_t + \frac{\Delta t}{A_t} (Q_{in}^t - Q_{out}^t)$

14

### III. 천지못 유출수의 피해영향범위 산정 방법 (3)

#### ▪ 홍수 범람(Flooding simulation) 분석 기법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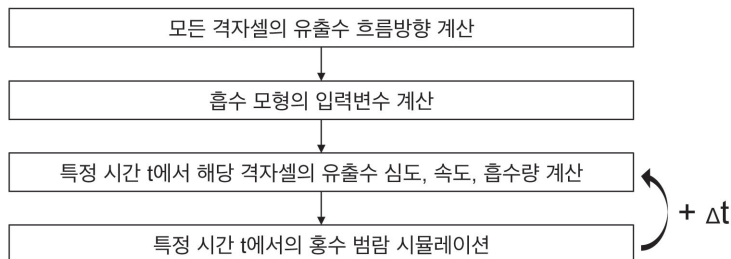


- 유출수의 확산패턴 모델링시 함몰지형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고려
- 유입된 유량에 따른 수계변화를 반영
- 침수 및 범람 발생 지역의 분석에 용이

15

### III. 천지못 유출수의 피해영향범위 산정 방법

#### ▪ GIS 기반 수문분석 알고리즘의 계산 순서



16

## IV-1. 백두산 천지 지반 붕괴 가상 시나리오

### ■ 백두산 천지 주변 지반 붕괴 지점 및 유출량 시나리오

- 백두산 분화시 천지못 붕괴 지점이나 지형 변화에 대한 예측은 거의 불가능
  - 천지못 유출 지점이나 유출량에 대한 객관적 정보 획득의 어려움
  - 다양한 시나리오 구성을 통한 예측 결과 비교 분석

Scenario #1: 천지못 경계 전체 방향의 지반 붕괴

Scenario #2: 천지못 남쪽 경계 지반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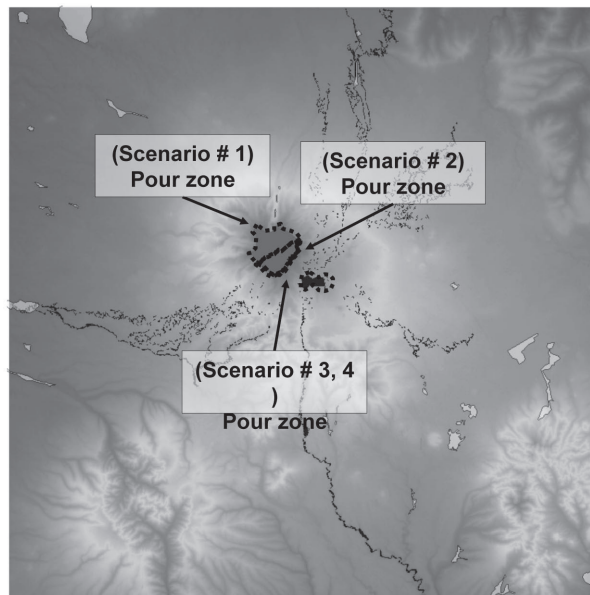
Scenario #3: 천지못 남쪽 경계 지반 & 남동쪽 산봉우리(2,200m 이상 지역) 붕괴

Scenario #4: 천지못 남쪽 경계 지반 & 남동쪽 산봉우리(2,150m 이상 지역) 붕괴

- 유출량: 20억톤으로 가정 (화산재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가장 보수적인 관점 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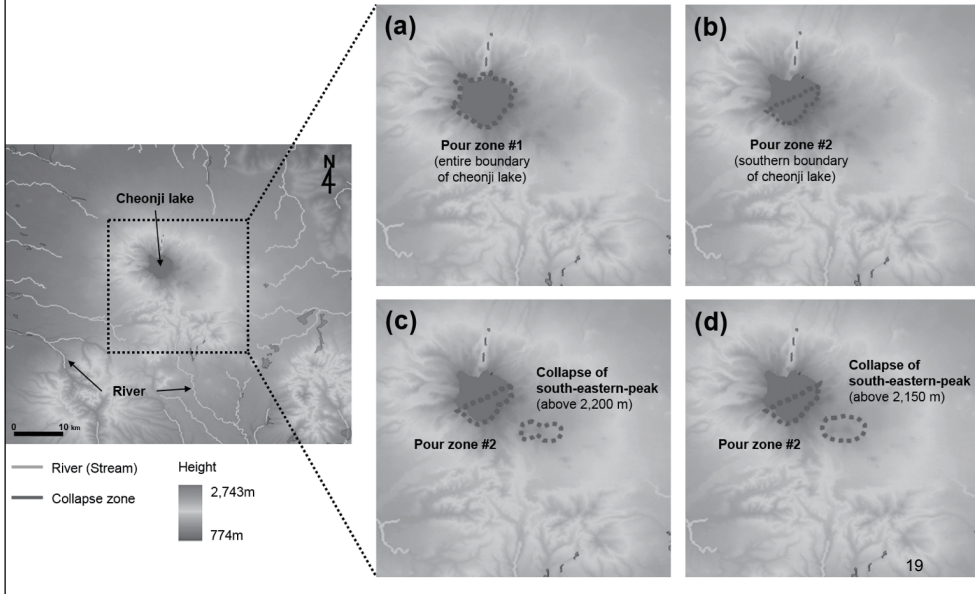
17

## IV-2. 백두산 천지 지반 붕괴 지점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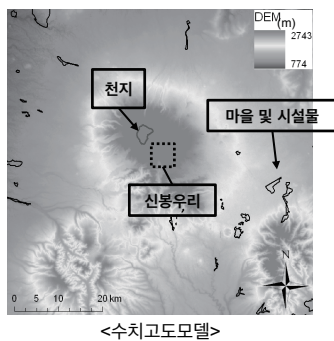
## IV-2. 백두산 천지 지반 붕괴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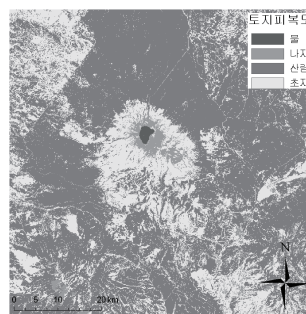
## V-1. 현장적용 및 결과 - 입력자료 및 변수

### ■ 입력자료

- 수치고도모델: ASTER Global DEM 이용 (공간해상도=60m)
  - 최저고도 774m, 최고고도 2,743m (백두산 실제 높이: 약 2,750m)
- 토지피복도: Landsat 영상으로부터 피복분류 (USGS Earth Explorer 제공)
  - 영상분류 된 피복별 면적 비율: 물(0.2%), 나지(2.9%), 산림(67.5%), 초지(29.4%)
- 백두산 주변 지역의 마을 및 시설물: Google earth에서 디지털라이징 (KMZ → Shape)



<수치고도모델>



<토지피복도>

## V-1. 현장적용 및 결과 - 입력자료 및 변수

- 시나리오에 따라 수문 분석 프로그램에 입력된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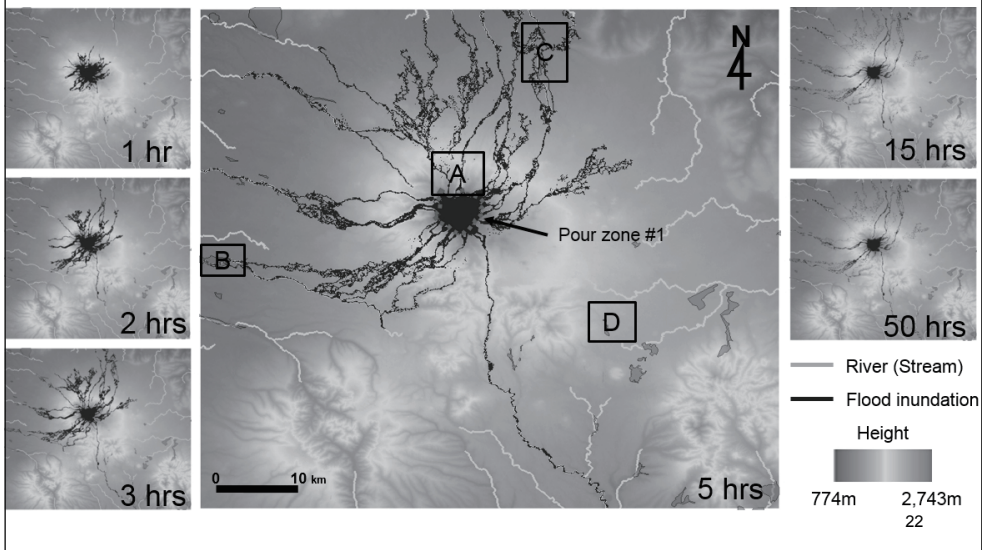
Scenario	Infiltration conditions			Pour conditions				
	Porosity	Index of pore size distribution	Initial saturation	pour time [hr]	pour zone [cells]	pour zone [m <sup>2</sup> ]	water level per cell [m]	precipitation [cm/hr]
#1	0.3	0.3	0	1	2,564	20,768,400	96.3	9,630
#2					845	6,844,500	292.2	29,220
#3					845	6,844,500	292.2	29,220
#4					845	6,844,500	292.2	29,220

- Scenario #1: 천지못 경계 전체 방향의 지반 붕괴
- Scenario #2: 천지못 남쪽 경계 지반 붕괴
- Scenario #3: 천지못 남쪽 경계 지반 & 남동쪽 산봉우리(2,200m 이상 지역) 붕괴
- Scenario #4: 천지못 남쪽 경계 지반 & 남동쪽 산봉우리(2,150m 이상 지역) 붕괴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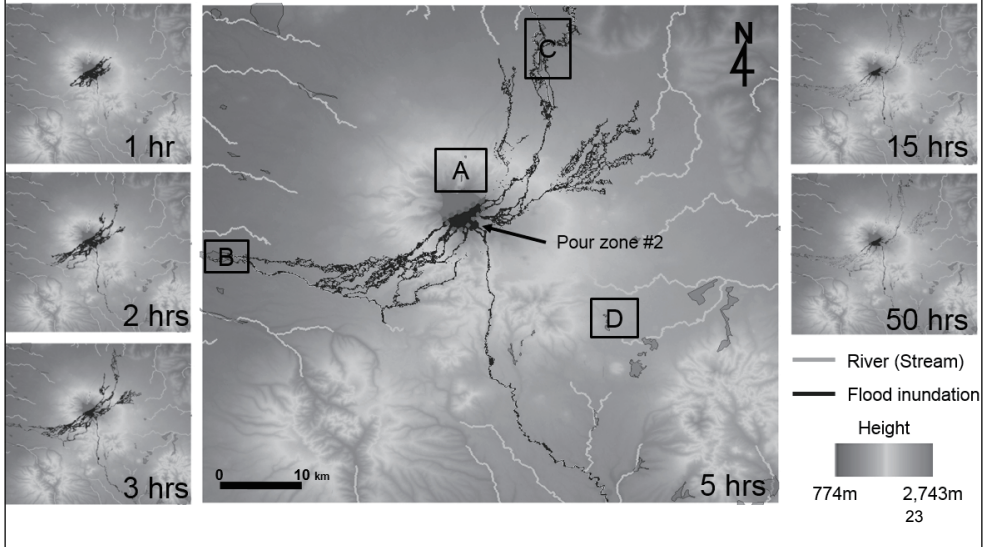
## V-2. 현장적용 및 결과 - 시나리오 1에 의한 결과

- Scenario #1: 천지못 경계 전체 방향의 지반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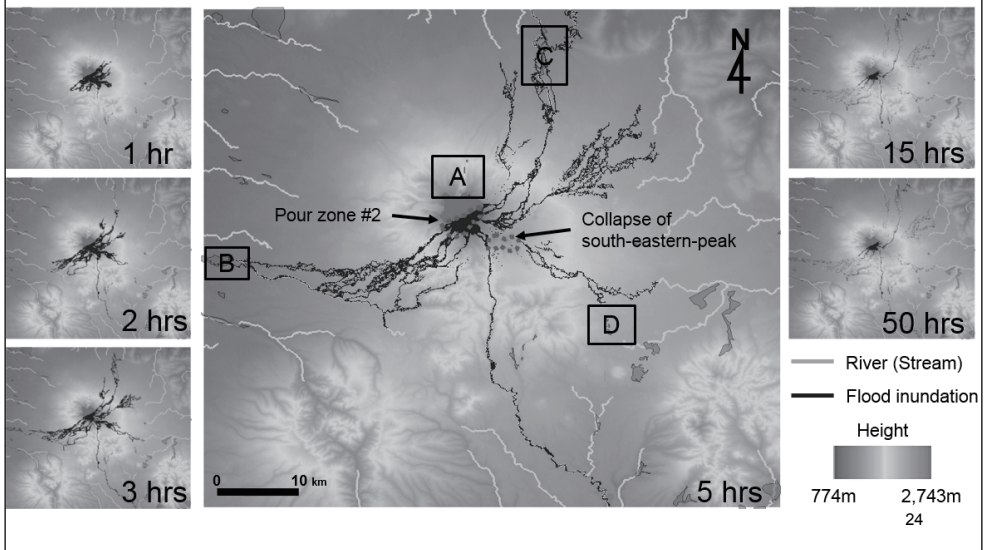
## V-2. 현장적용 및 결과 - 시나리오 2에 의한 결과

- Scenario #2: 천지못 남쪽 경계 지반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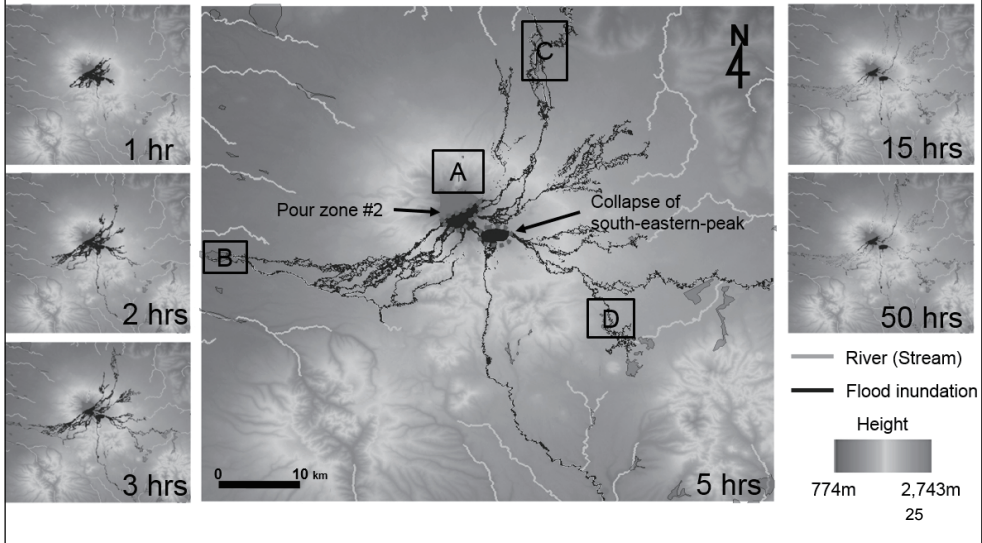
## V-2. 현장적용 및 결과 - 시나리오 3에 의한 결과

- Scenario #3: 천지못 남쪽 경계 지반 & 남동쪽 산봉우리(>2,200m)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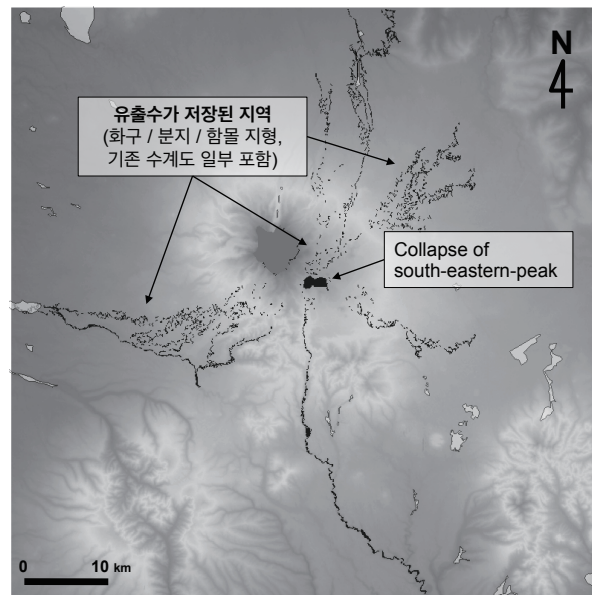


## V-2. 현장적용 및 결과 - 시나리오 4에 의한 결과

- Scenario #4: 천지못 남쪽 경계 지반 & 남동쪽 산봉우리(>2,150m) 붕괴



## V-2. 현장적용 및 결과 - 유출수 저장 지역(5hr 경과)



26

### V-3. 현장적용 및 결과 - 지역별 홍수 피해량

[unit: million tons]

Scenario	Time [hr]	0.5	1	1.5	2	2.5	3	3.5	4	4.5	5
	Zone										
#1	A	3.5	81	196	260	287	301	309	314	316	318
	B	0	0	0	0	0	38	136	234	289	307
	C	0	0	0	0	0	21	81	136	165	174
	D	0	0	0	0	0	0	0	0	0	0
#2	A	0	0	0	0	0	0	0	0	0	0
	B	0	0	0	0	0	77	255	413	495	525
	C	0	0	0	0	0	41	139	227	276	291
	D	0	0	0	0	0	0	0	0	0	0
#3	A	0	0	0	0	0	0	0	0	0	0
	B	0	0	0	0	0	77	255	413	495	525
	C	0	0	0	0	0	41	139	227	276	291
	D	0	0	0	0	0.1	1.6	2.0	2.1	2.1	2.1
#4	A	0	0	0	0	0	0	0	0	0	0
	B	0	0	0	0	0	77	255	413	495	525
	C	0	0	0	0	0	41	137	225	272	287
	D	0	0	0	1.3	8.3	15	17	17	17	17

### Part 2. 백두산 하부 마그마 챔버와 지반 조건 시나리오 별 주변 지반의 수직 변위량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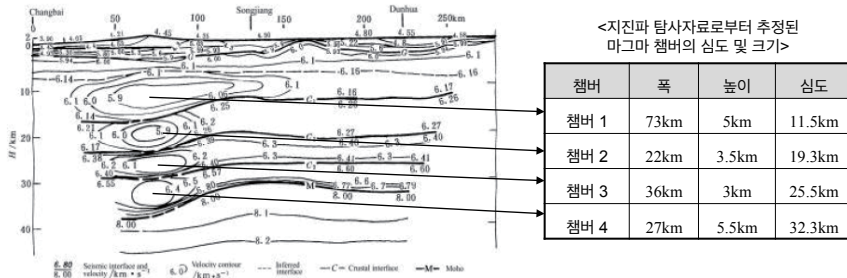
## VI. 마그마 챔버에 의한 지표 변위 변화 분석 방법

- 백두산 지하 마그마 챔버의 특성과 지반 조건에 의한 지반 변위 변화 분석**
  - 국내외 문헌 조사를 통해 백두산 화산지대 지하에 위치할 수 있는 마그마 챔버 조건(부피, 높이, 폭)과 지반 조건(단열대 여부, 지반 물성, 현지응력상태)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
  - 단열대를 고려할 수 있는 개별요소법(PFC2D)을 적용하여 입력변수와 환경조건을 설정
  - 부피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최상단 마그마 챔버 부분에 공동이 생긴다고 가정, 마그마 챔버의 특성과 지반 조건 시나리오에 따른 지반 변위(지표침하량)을 비교 분석
  - 마그마 챔버의 상승으로 인해 야기되는 균열 발생 가능성 검토

29

## VII. 마그마 챔버 형상 및 부피 시나리오

- 백두산 지하의 단열구조 발달 상태**
  - 백두산 원추체의 사방 경사면에 방사상 단열이 발달, 대부분은 수직경사를 이룸
  - 백두산의 여러 단층계 중 단층계의 규모가 제일 큰 마이하-양강 단층계는 길이 약 120 km, 폭 5~7 km, 동남 방향의 경사, 경사각은 70~80°
- 백두산 지하의 마그마 챔버의 형태, 위치적 특성**



<P파의 속도 분포로 해석된 백두산 지하의 마그마 챔버의 존재를 보여주는 단면도(Zhang et al., 1998)>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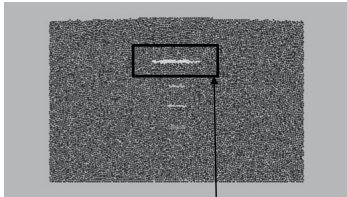
## VII. 마그마 챔버 형상 및 부피 시나리오

### ▪ 마그마 챔버의 형상과 부피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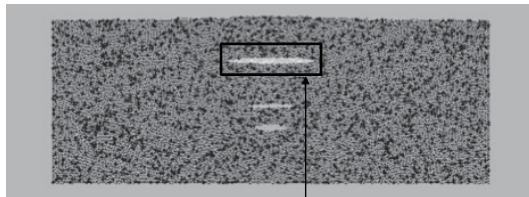
- 앞에서 제시된 마그마 챔버에 관한 특성 중에서 마그마 챔버의 부피와 형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 (Anderson and Segall, 2011)
- 최상단 마그마 챔버만 분출하여 공동이 생긴다고 가정

<수정된 최상단 마그마 챔버 부피 및 형상 시나리오(높이와 폭은 설정된 부피에 의해 변화)>

시나리오	마그마 챔버 부피 (km <sup>3</sup> )	챔버의 환산 폭 (km)	챔버의 환산 높이 (km)	해석단면 폭 (km)	해석단면 높이 (km)
Case 1	10	16	1.1	80	53
Case 2	50	27	1.9	135	53



<최상단 마그마 챔버 부피 = 10 km<sup>3</sup>>  
(일반적인 규모의 마그마 챔버 크기를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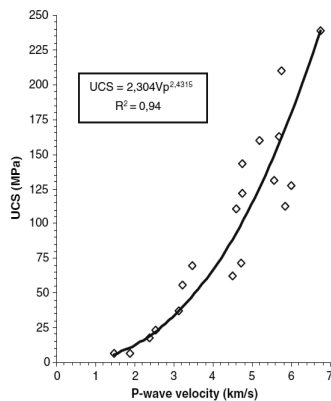
<최상단 마그마 챔버 부피 = 50 km<sup>3</sup>>  
(대규모의 마그마 챔버 크기를 가정)

31

## VII. 지반 조건 시나리오 - 지반 물성

### ▪ 지반 물성

- 단축압축강도 환산 수치 = 90~220 MPa  
(백두산 일대의 탄성파 속도 분포인 4.5~6.5 km/s 로부터 아래 회귀식을 이용하여 계산)
- 단열대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의 단축압축강도는 20 MPa로 가정



<P파 속도와 단축압축강도간의 회귀식>  
(Kiliç and Teymen, 2008)

<탄성파 속도를 이용하여 추정된 백두산 하부 지반의 강도>

	단축압축강도(MPa)	탄성계수(GPa)	포아송 비
Case 1	100	35	0.16
Case 2	200	70	0.09
Case 3*	20	6.7	0.26

\* Case 3: 단열대를 포함하고 있는 지각의 강도

32

## VII. 지반 조건 시나리오 - 현지응력상태, 단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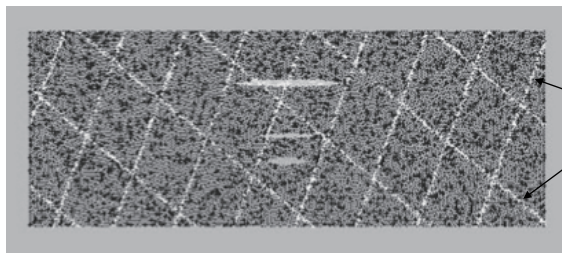
### ■ 현지응력상태

- 축압비(k) =  $\frac{\text{수평 응력}}{\text{수직 응력}}$

- 백두산 일대의 현지응력상태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여, 국내의 일반적인 현지응력상태 (이희근 외, 1999)인 축압비 0.5, 1, 2 의 상황을 가정하여 해석 수행

### ■ 단열대 분포 특성

- 단열대가 존재할 경우 응력이 단열대에 집중되므로  
단열대 존재 유무에 따른 지반 거동 양상이 크게 달라짐



<추정된 단열대의 분포 특성>

	단열대 경사 (°)	단열대 간격 (km)
JSET 1	70	15
JSET 2	40	20

\*JSET2는 분석자가 가정

<최상단 마그마 챔버 부피 50 km<sup>3</sup> 조건에 단열대를 포함한 지반의 모습>

33

## VII. 마그마 챔버 및 지반 조건 시나리오 (종합)

### ■ 전체 시나리오 정리

시나리오	챔버 부피(km <sup>3</sup> )	지반강도(MPa)	축압비	단열대 유무
1	10	100	0.5	無
2	10	100	1	無
3	10	100	2	無
4	50	100	0.5	無
5	50	100	1	無
6	50	100	2	無
7	10	200	0.5	無
8	10	200	1	無
9	10	200	2	無
10	50	200	0.5	無
11	50	200	1	無
12	50	200	2	無
1-1	10	100	0.5	有
2-1	10	100	1	有
3-1	10	100	2	有
4-1	50	100	0.5	有
5-1	50	100	1	有
6-1	50	100	2	有
7-1	10	200	0.5	有
8-1	10	200	1	有
9-1	10	200	2	有
10-1	50	200	0.5	有
11-1	50	200	1	有
12-1	50	200	2	有

34

## VIII. 연구결과 - 챔버 공동에 의한 지반침하 해석 (1)

<마그마 챔버 크기 변화에 따른 침하량 결과>

Case 1) 10 km <sup>3</sup> -100 MPa-0.5k					
	-15 km	-7.5 km	0 km	7.5 km	15 km
침하량(m)	42	50	60	49	41
Case 4) 50 km <sup>3</sup> -100 MPa-0.5k					
	-15 km	-7.5 km	0 km	7.5 km	15 km
침하량(m)	96	118	226	120	97

<지반물성 변화에 따른 침하량 결과>

Case 1) 10 km <sup>3</sup> -100 MPa-0.5k					
	-15 km	-7.5 km	0 km	7.5 km	15 km
침하량(m)	42	50	60	49	41
Case 7) 10 km <sup>3</sup> -200 MPa-0.5k					
	-15 km	-7.5 km	0 km	7.5 km	15 km
침하량(m)	6	16	21	16	15

<현지응력상태 변화에 따른 침하량 결과>

Case 1) 10 km <sup>3</sup> -100 MPa-0.5k					
	-15 km	-7.5 km	0 km	7.5 km	15 km
침하량(m)	42	50	60	49	41
Case 2) 10 km <sup>3</sup> -100 MPa-1k					
	-15 km	-7.5 km	0 km	7.5 km	15 km
침하량(m)	18	15	44	21	17
Case 3) 10 km <sup>3</sup> -100 MPa-2k					
	-15 km	-7.5 km	0 km	7.5 km	15 km
침하량(m)	2	9	22	4	20

35

## VIII. 연구결과 - 챔버 공동에 의한 지반침하 해석 (2)

<단열대 존재 유무에 따른 침하량 결과>

Case 1) 10 km <sup>3</sup> -100 MPa-0.5k					
영향반경	-15 km	-7.5 km	0 km	7.5 km	15 km
침하량(m)	42	50	60	49	41
Case 1-1) 10 km <sup>3</sup> -100 MPa-0.5k (with joints)					
	-15 km	-7.5 km	0 km	7.5 km	15 km
침하량(m)	49	57	64	54	46
Case 4) 50 km <sup>3</sup> -100 MPa-2k					
영향반경	-15 km	-7.5 km	0 km	7.5 km	15 km
침하량(m)	96	118	226	120	97
Case 4-1) 50 km <sup>3</sup> -100 MPa-2k (with joints)					
영향반경	-15 km	-7.5 km	0 km	7.5 km	15 km
침하량(m)	106	121	241	129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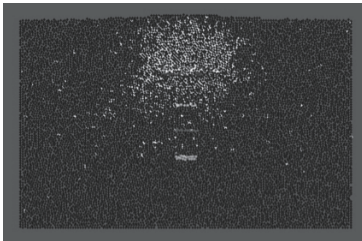
Case 3) 10 km <sup>3</sup> -100 MPa-2k					
영향반경	-15 km	-7.5 km	0 km	7.5 km	15 km
침하량(m)	2	9	22	4	20
Case 3-1) 10 km <sup>3</sup> -100 MPa-2k (with joints)					
	-15 km	-7.5 km	0 km	7.5 km	15 km
침하량(m)	3	9	20	6	20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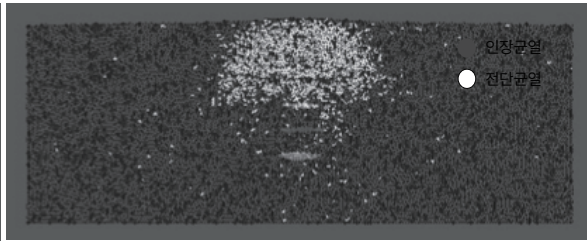
## VIII. 연구결과 - 챔버 공동에 의한 지반침하 해석 (3)

### ▪ 마그마 챔버 상승에 따른 지표면의 균열 발생 모사

- 백두산 하부의 마그마 챔버는 15년 동안 8 km 상승(= 0.0002 m/s) (윤성호, 2010)  
(해석 시 최상단 챔버를 이루고 있는 볼에 해당 속도 부여 - 주변 지반에 응력발생 -  
발생한 응력이 안정된 이후(=균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 발생한 균열을 살펴봄)
- 챔버의 규모가 10 km<sup>3</sup> 일 때에 비해 50 km<sup>3</sup> 일 때 더 많이 발생
- 지표면에 발생하는 균열의 폭은 마그마 챔버의 폭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
- 백두산 인근 지표면에 발생하고 있는 균열의 위치를 파악하면  
역으로 마그마 챔버의 크기를 추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마그마 상승에 따른 균열 발생 양상>  
(최상단 마그마 챔버 부피 = 10 km<sup>3</sup>)



<마그마 상승에 따른 균열 발생 양상>  
(최상단 마그마 챔버 부피 = 50 km<sup>3</sup>)

37

## 종합 결론

38

## IX. 결론 - 천지못 유출수의 피해영향범위 예측

- **백두산 천지 붕괴시 시간 변화에 따른 유출수의 확산 패턴 분석**
  - 지형 경사가 다양한 백두산 지형 기복을 반영한 유출수의 다방향 흐름 분석
  - 지표 토양의 흡수율과 초기저장용량을 고려한 백두산 지역의 물리적 특성 반영
  - 천지못 유출수 흐름 및 집수구역 산정 시 홍수 범람 시뮬레이션을 통한 백두산 화산 지역의 지형적 특성(화구, 함몰, 분지지형 등) 반영
- **백두산 천지 주변 지반 붕괴 시나리오 별 유출수의 피해영향범위 산정**
  - (모든 시나리오) 천지못 유출 발생 3시간 후: 중국 지역의 마을 지역에 홍수 피해 발생
  - (시나리오 1, 2) 북한의 경우 유출수가 기존 수계로 유입되나 홍수 발생 가능성은 미약
  - (시나리오 3, 4) 천지 남동쪽 산봉우리 붕괴시: 북한쪽 마을에도 홍수 피해 발생 예측됨
- **백두산 화산재해 저감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 제공**
  - 북한쪽 마을(D)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공학적 대처 방안 필요(댐 or 수로 설치 등)
  - 백두산 분화 시 인명 및 환경적 피해 저감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 지도 제공

39

## IX. 결론 - 백두산 주변 지반의 변위 변화 평가

- **백두산 주변 지반의 변위 분석 종합 결과**
  - 마그마 챔버의 부피가 클수록, 하부지반의 강도가 약할수록, 축압비가 작을수록, 단열대가 존재할 경우에 침하량 증가
  - 시나리오 별 침하량과 균열발생 가능성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지반 변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마그마 챔버의 부피인 것으로 판단됨
- **제언**
  - 탄성과 탐사 결과 마그마 챔버의 형태는 렉비공 모양과 유사한 타원체이므로, 향후 연구에도 마그마의 형상(장축과 단축의 비)는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백두산 지하에 존재하는 마그마 챔버의 부피와 정확한 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0

## 북한의 체육 및 여가활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원 체육교육과 나영일  
통일연구원 안지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원 체육교육과 현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원 체육교육과 신영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원 체육교육과 진현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원 체육교육과 성제훈



## 연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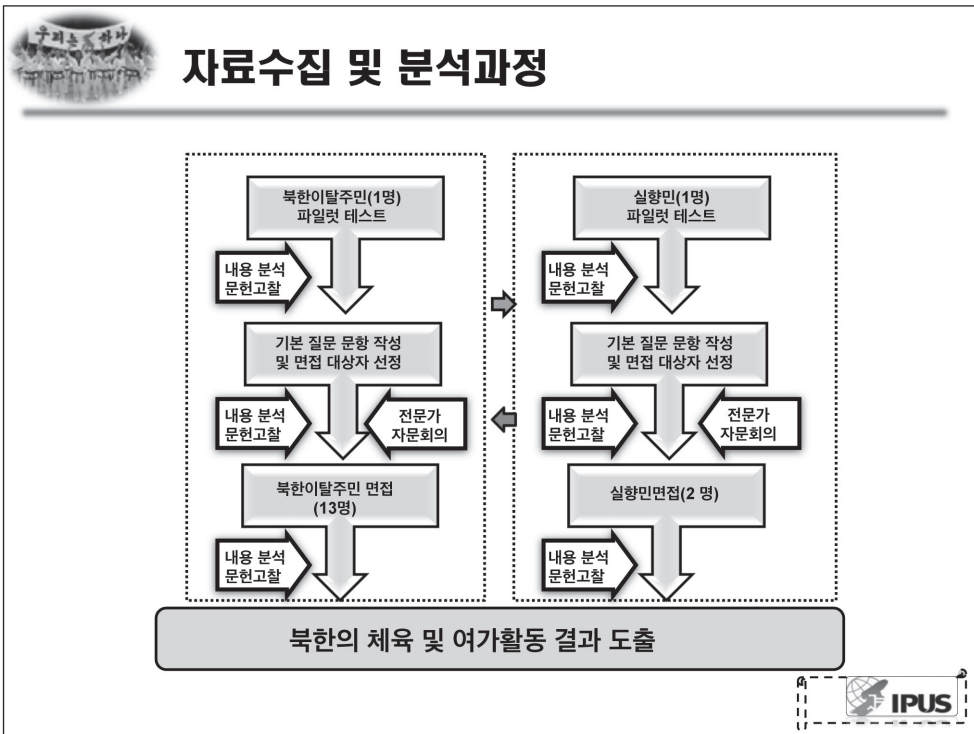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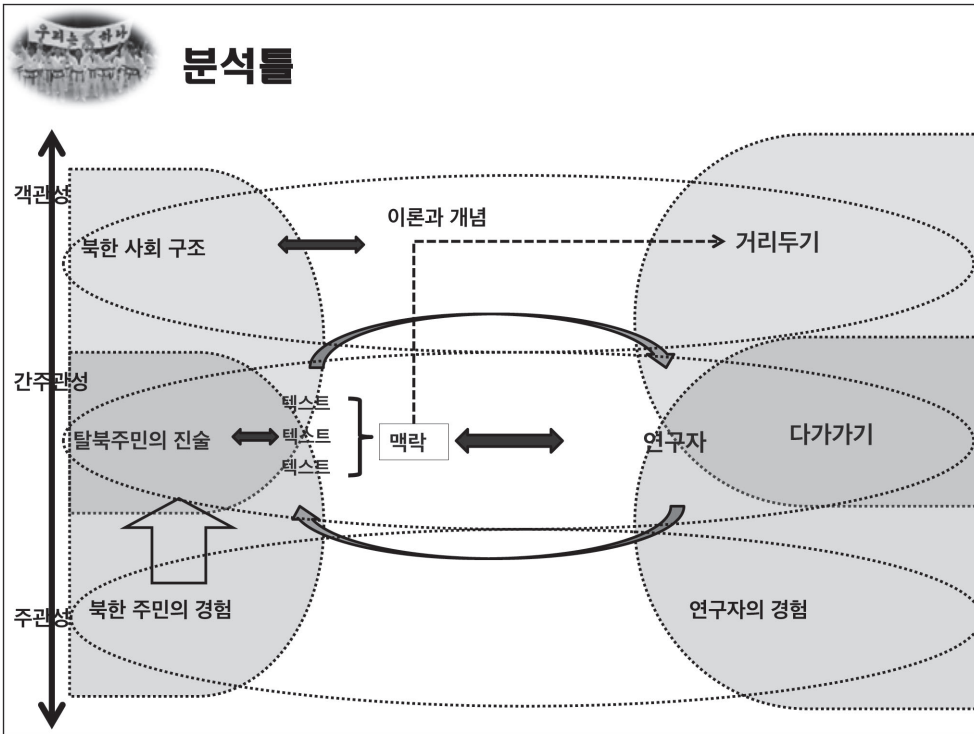


거시수준의 추상적 단일체

- 미시적 수준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공간

- 사회적 공간은 시간에 따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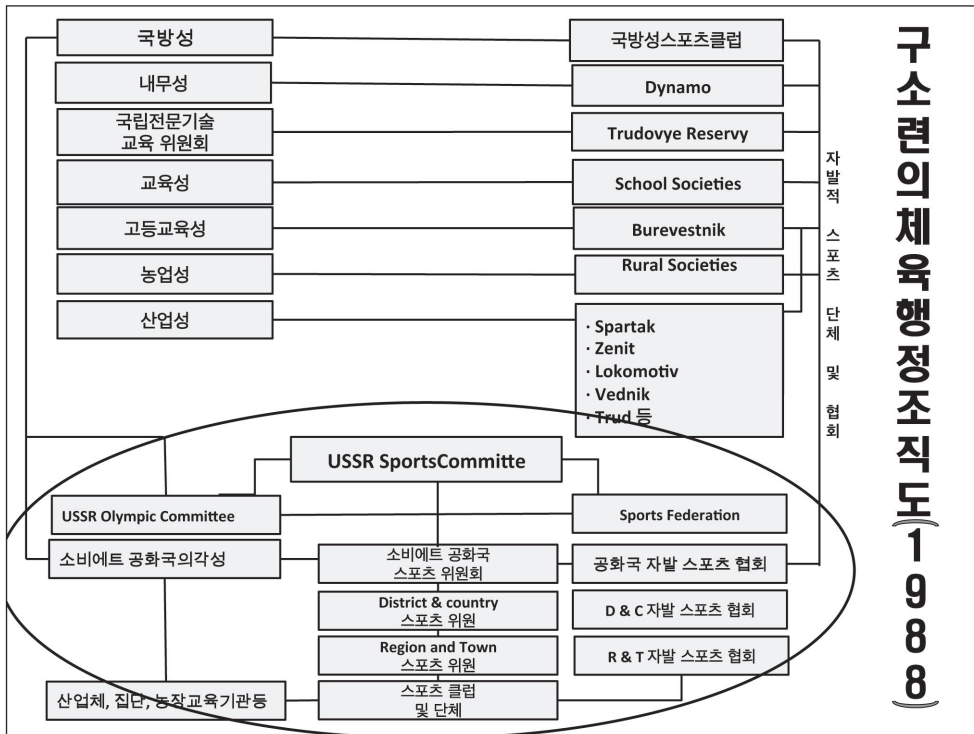
- 방법론: 미시사와 미시사회학의 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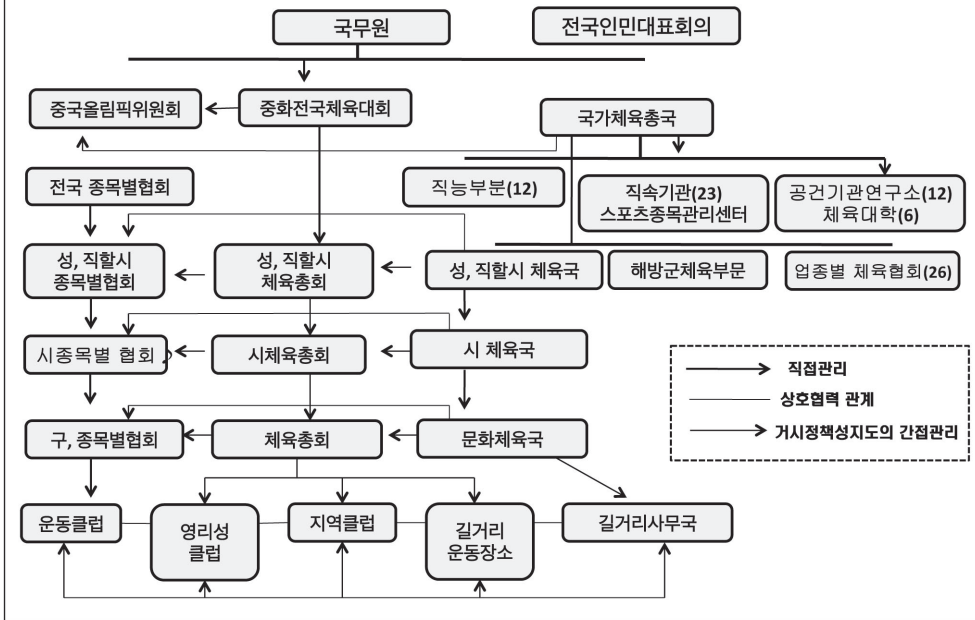


## 면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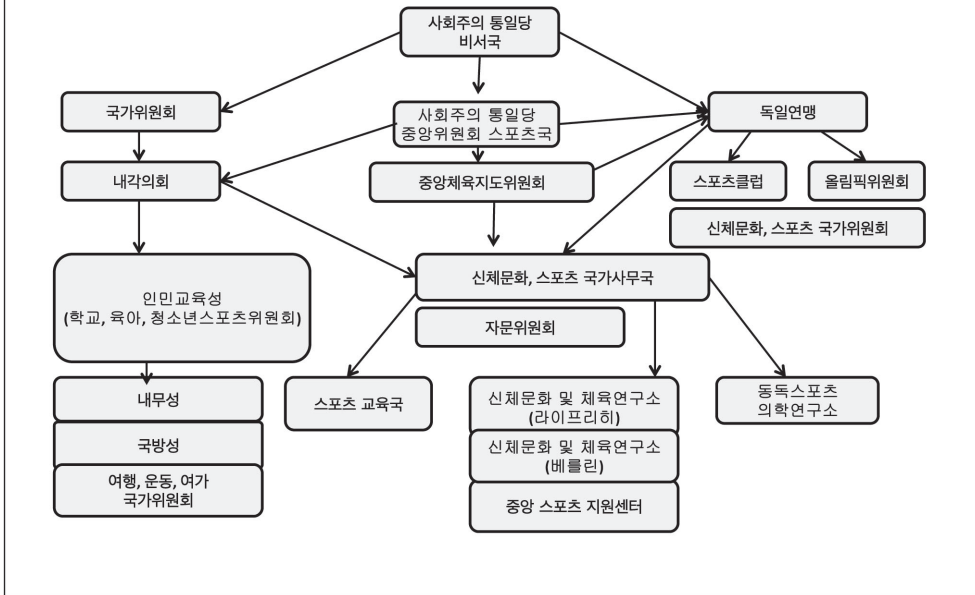
면담자	연령대	면담일시
실향민1	78세	2012. 10. 23
실향민2	80세	2012. 12. 11
실향민3	84세	2013. 1. 2
북한이탈주민1	60대	2012. 9. 26
북한이탈주민2	50대	2012. 10. 09, 2012. 9. 26
북한이탈주민3	50대	2012. 10. 09
북한이탈주민4	40대	2012. 10. 19, 2013. 4. 30
북한이탈주민5	40대	2013. 1. 17
북한이탈주민6	30대	2012. 11. 22
북한이탈주민7	40대	2012. 11. 26
북한이탈주민8	40대	2013. 1. 4
북한이탈주민9	30대	2013. 1. 8
북한이탈주민10	30대	2013. 1. 13
북한이탈주민11	20대	2013. 1. 22
북한이탈주민12	70대	2013. 1. 29
북한이탈주민13	50대	2013. 4. 8
북한이탈주민14	40대	2013. 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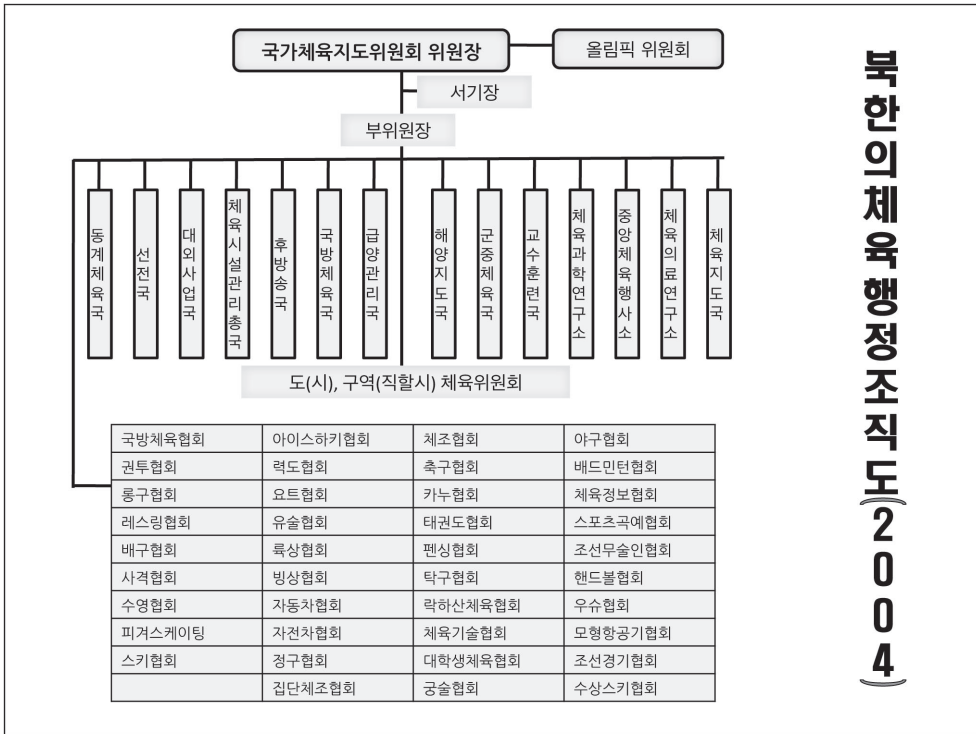
## 중국의 체육행정 조직도(2000)



## 동독의 체육행정 조직도(1983)



# 북한의체육행정조직도(2004)



## 구소련의 GTO 사업 개요

항목	내용
목적	국민 신체 적성 수준 향상, 체육 통제 및 관리, 공산주의 교육
종목	100m 달리기, 전야횡단달리기, 높이뛰기, 넓이뛰기, 수류탄던지기, 포환던지기, 스키, 스포츠행진, 자전거횡단, 수영, 가름보 끌어올리기, 역도, 체조대 위에 누운채로 버팀, 점안에서 손굽혀펴기, 소총사격, 군용소총사격, 관광총군 및 관광기능시험 등 25종목, 22개의 실제 검사로 이루어짐
기간	1931년 3월 ~
구분	BGTO I 소년·소녀(10~13세) GTO II 소년·소녀(14~15세) GTO III 소년·소녀(16~18세) GTO IV 남성(19~34세), 여성(19~39세) GTO V 남자(40~60세), 여자(35~55세)
합격자	GTO휘장과 증명서 부여





## 북한의 인민체력 검정사업개요

항목	내용
목적	인민들의 기본 체력을 정확히 판정하며 체력과 인민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함으로써 인민들의 체력향상을 도모
종목	일반 종목: 남녀공동 100m달리기, 너비뛰기, 단봉던지기. 남자 1000m달리기(여자 500m달리기), 남자 30kg 또는 20kg(17세 이하) 중량물 어깨 위에 세 번들어 올린후 50m 시간제한 없이 운반하는 들힘과 운반힘, 현수, 여자 앞드려팔굽혀펴기 특수종목: 해염, 강행군 등
기간	1949년도부터 매년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실시
구분	소년(남자 17세 이하, 여자 16세 이하), 청년(남자 18-30세, 여자 17-25세) 장년(남자 31세 이상, 여자 26세 이상)
합격자	'체력장', '특수체력장' 수여



## 고난의 행군 이전

### ● 여가의 개념

- 의미상 북한의 과외활동이 우리의 여가활동에 해당함.
- 우리와 달리 당의 정치행사 참여까지 포함함
- 북한 주민들의 여가활동은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

과외활동은 다채로운 문화 활동이라고 해서 소조에 망라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북한에서 일반 노동자들이 개인적인 과외활동을 하는 게 크게 없어요.  
(북한 이탈주민 5면담. 2012. 11. 17)

보통 체육활동, 정치 행사 같은 것들이 과외활동이죠.  
(북한이탈주민 1면담. 2012. 9. 26)





## 고난의 행군 이전

### ● 천렵

- 북한 주민들의 대표적인 여가활동 중에 하나
- 직장 혹은 마을 주민들이 단합을 목적으로 명절이나 휴일에 주로 강가나 냇가에서 행하는 야유회를 의미함.

사회 나온 직장인들이 여기서 말하면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별로 야외활동을 나가죠. 우리는 이것을 천렵 간다 하거든요.. 천렵은 주로 강가로 나가요. 어죽도 끓여먹고, 강냉이도 삶아먹고, 남자들은 술도 하고 해요.  
(북한 이탈주민 7면담. 2012. 11. 26)

단오면 낚시가 좋고 하니깐 강변에 뭐 돼지를 잡아가지고 나간다는가, 강에서 고기 잡고, 못 쇠가마를 가져가서 불을 때면서 뭐 그렇게 했지.  
(북한이탈주민 1면담. 2012. 9. 26)



## 고난의 행군 이전

### ● 군중무용

- 일반인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간단한 동작으로 서양의 민속무용(folk dance)와 비슷하게 짝이 돌아가며 빠뀐다.
- 군중무용의 배경음악은 주로 사상적이며, 북한 주민들은 군중무용을 의무적으로 배우는 정치행사 중에 하나이다.

군중무용을 하는 것은 정치적 생명을 띤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안 하면 생활 총화할 때 비판 상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업적으로 남기기 때문에 명절에 군중무용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이탈주민 14면담. 2013. 5. 3).

개인이 군중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군중무용이 내려와 보급이 되는 거죠. 중앙에서부터 도, 시, 군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는 거죠.  
(북한 이탈주민 7면담. 2012. 11. 26)





## 고난의 행군 이전

### ● 체육대회

- 체육활동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
- 직장인 체육대회: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 등 여러 노동기관들의 노동자들이 연합하여 개최되는 지역의 큰 행사 가운데 하나
- 노동절(5월 1일)이나 북한정권창건일(9월 9일), 조국 해방의 날(8월 15일) 등

예선은 한두 달 전부터 시작을 하지. 이게 국가적으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그 전에는 많이 했는데, 공장 기업소 단위로 모여서 수상식도 했어. 그러던게.. (북한 이탈주민 1면담. 2012. 9. 26)

8월 15일에는 교류차원에서 결승에 농장팀과 공장팀을 붙여놓기도 이렇게 했어. 그런데 구구절, 국경절에는 시골은 빼 놓고 시내에 있는 회사끼리만 체육대회를 했어.(북한 이탈주민 1면담. 2012. 9. 26)



## 고난의 행군 이전

### ●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 학생체육대회에는 주로 체육소조, 구락부 학생 등 운동부 학생 중심
- 학생들은 쉬는 시간과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학우들과 함께 축구, 배구, 피구, 철봉매달리기, 제기뿌리기 등

휴식시간에 운동을 많이 하고, 뽕 차고 놀지. 학급들에서 자체적으로 축구 자주 하더라고. 과외수업이 끝나면 한두 개 학교는 나와서 경기하니깐 운동장이 빌 새가 없었어. (북한 이탈주민 1면담. 2012. 9. 26)

제기를 만들어 가지고 콩 같은 것 넣고 천으로 요만한 거 만들잖아요? 거기다 콩 같은 것 넣거든요. 여기 와서 야구 보면서 어머 저거 제기뿌리기기네! 그랬거든요. (북한 이탈주민 7면담. 2012. 11. 26)





## 고난의 행군 이전

### ● 여성들의 여가생활

- 여성들은 가사부담으로 인해 여가생활의 여유가 적음
- 가두조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친목계 형태의 여가생활 존재
- 사람들과 수다를 중심으로 여가생활을 하나 통제와 감시로 어려움

가두조직에서 여성들이 가끔씩 어느 집에서 모여서 쌀도 모으고 돈도 모아서 떡도 짓고 반찬도 만들어서 여러 명이 모여 음식도 먹고, 율놀이도 하더라고요. (북한 이탈주민 5면담. 2012. 11. 17)

그저 집에 가사일 하고, 이웃집에 놀러가서 수다랑 떨고... (북한 이탈주민 2면담. 2012. 10. 9)

사실 여기 와서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자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 북한에서 그저 황소처럼 일만 했어요. 부당하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질 것도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으니깐. (북한 이탈주민 7면담. 2012. 11. 26)



## 고난의 행군 이전

### ● 관람

- 북한의 공연물은 당의 정책이나 사상을 반영하며, 선전선동부에서 관리 감독
- 공연물(영화, 연극, 무용)의 관람료는 무료 혹은 저렴(5원, 8원 정도)하나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고 공연장이 열악함

북한 예술단이나 음악단은 일률적이예요. 선전선동부에서 강령이 내려옵니다. 김정은이가 대를 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노래나 내용을 가지고 공연물을 만들어요. 위에서大本까지 다 내려오죠. (북한이탈주민 8면담. 2013. 1. 4)

특급 기업소 안에 노동자 회관이 있어요. 거기서 새로 영화 나올 때면 3, 4일 씩 돌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어터지죠. 영화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 회관에 들어가는 데 사람들에게 압박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표를 돈내고 질서 정연하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완력으로 힘 센 놈들이 먼저 들어가 보고 그러는 거지요. (북한 이탈주민 5면담. 2012. 11. 17)





## 고난의 행군 이전

### ● 체육 및 여가시설(1956-61)

	경기장	운동장	농구장	배구장	정구장	수영장	체육관	체육실
1956년	263	3,935	1,896	5,577	119	14	2	4
1958년	240	4,500	10,000		-	13	24	
1959년	4,937		16,045		-	1,330	182	
1960년	71	4,233	-	-	-	1,377	8	183
1961년	86	4,188	-	-	-	-	8	152



## 고난의 행군 이전

### ● 체육 및 여가시설(1961-1964)

	경기장	운동장	체육관	체육시설	수영장	간이 수영장	스키장	그네장
1961년	86(정규)	4,188	8	253	28	120		
1962년	3,177(축구장), 4,600(농구장) 3,608(배구장), 1,399(정구장) 3,647(탁구장), 6,035(씨름장)		14	121	1,535		삼지연스키장신설	
1963년	170(정규) 3,286(축구장), 5,452(농구장) 8,115(배구장), 2,172(정구장) 4,850(탁구장), 5,930(씨름장)		29	354				
1964년	555(축구장), 2,255(농구장) 5,632(배구장), 677(정구장) 4,004(탁구장), 2,534(씨름장)				564개 신설			1,358개 신설



## 고난의 행군 이후

### ● 여가개념의 변화

- 여전히 여가활동에 당의 정치행사 참여까지 포함함
- 북한 주민들의 여가활동은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나 과거와 달리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이 증가함
-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활동도 여가활동에 포함함
- 여성들의 여가활동의 참여가 증가함(경제활동의 여파로)

고난의 행군(苦難-行軍, 북한대기근)

1990년대 중반에 최악의 식량난으로 약 33만 명의 국민들이 아사,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의식도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전후로 식량난을 필두로 한 외화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등 경제위기와 냉전체제의 해체, 그리고 김일성의 사망 및 지배체제의 불안정성 등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고난의 행군 이후

### ● 주패놀이

- 중국에서 건너온 카드놀이의 일종으로 1970년대부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성행
- 단순한 카드놀이에서 노름까지 다양한 놀이 방법으로 남녀 구분 없이 성인들 사이에 여가시간에 많이 함.

회사 사람들 일 끝나면 직장패들은 주로 주패를 많이 하고 놀았어. 노인네들은 화투치기를 많이 하더라고(북한 이탈주민 1면담. 2012. 9. 26)

대학생들도 주패놀이를 하죠. 돈도 내고, 남자들은 담배 한 끼치, 두 끼치를 걸고 해요. 여학생들은 돈으로 하기도 하죠. (북한이탈주민 6면담. 2012. 11. 22)

혼자 앉아서 신수 두표. 점 보는 것. 주패로. (북한 이탈주민 4면담. 2012. 10. 19)





## 고난의 행군 이후

### ● 음주문화

- ▶ 주패놀이와 더불어 남성들 사이에서 음주문화가 발전
- ▶ 과거 명절이나 특정한 날에 배분된 술이 가정에서 술을 상품화 하여 판매 시작

(고난의 행군)이전엔 공장에서 술을... 92년도까지는 거의 없어. 그 이전엔 공장에서 술을 다 담았어.(북한 이탈주민 1면담. 2012. 9. 26)

개인들이 여과를 아주 깨끗하게 해서 술 상표까지 술에다가 색소까지 향료까지 넣어서 공장 제품보다 낫게 해서 팔고 있어. (북한 이탈주민 1면담. 2012. 9. 26)

직장이 끝나면 아래 회사 사장들이 전화오지. 뭐해요? 우리 한잔하러 가요. 어느 작업반에서 저녁에 일 끝나고 들놀이로 어디 좋은 데 간다던데 우리 갑시다. (북한 이탈주민 1면담. 2012. 9. 26)



## 고난의 행군 이후

### ●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 ▶ 고난의 행군 이후 체력소모가 많고, 개인의 경제력을 요구하는 체육소조활동의 선호도가 떨어짐
- ▶ 학생들은 쉬는 시간과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학우들과 함께 축구, 배구, 피구, 철봉매달리기, 제기뿌리기 등

여학생들은 즐넘기 있잖아요. 자유의 강산에서 우리자라고 (노래) 다리를 줄다리를 걸고 내렸다 올렸다하며 놀았죠.(북한이탈주민5면담. 2012. 11. 17)

체육은 지금 많이 불리한 상태에서 소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체육소조운영이 거의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잘 먹지를 못하니까 운동해서 이득이 없단 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4면담. 2012. 10. 19)





## 고난의 행군 이후

### ● 여성들의 여가생활

- 여성들의 여가생활은 주로 경제활동에 투자
- 술, 두부 등 음식을 만들어 빨거나 댕기발을 가꿈

이제는 집집에서 술을 만들어 팔어. 여자들이 여가시간에 술도 하고 빵도 구워다 팔고, 두부도 하고 그랬어요. (북한 이탈주민 1면담. 2012. 9. 26)

여성들 중에는 단층집이 있는 사람들은 밭 지는 것도 하고, 농촌 사람들은 노는날에 자기 댕기발이라는게 있어요. 여가시간에 그것을 하려고 하지. 평일에는 공동일을 해야 하니까 노는 날에 그것을 관리하죠. (북한 이탈주민 2면담. 2012. 10. 9)



## 고난의 행군 이후

### ● 관람

- 경제제난과 에너지난으로 영화, 연극, 음악과 같은 공연물 상연이 드뭄
- 지방의 경우 공연물이 거의 없음

지방은 연극단 같은 것이 없어요. 평양 연극단이 순회공연으로 지방으로 내려와야 가능한 거죠. 문화회관에서 드물게 영화를 상연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영화를 한 번도 못봤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4면담. 2012. 10. 19)

(80년대 학교 다닐 때)영화 많이 봤죠. 공연도 보고.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 저서 회관은 있는데 그 기능을 수행 못하는 거죠.  
(북한 이탈주민 4면담. 2012. 10. 19)





## 고난의 행군 이후

### ● 체육 및 여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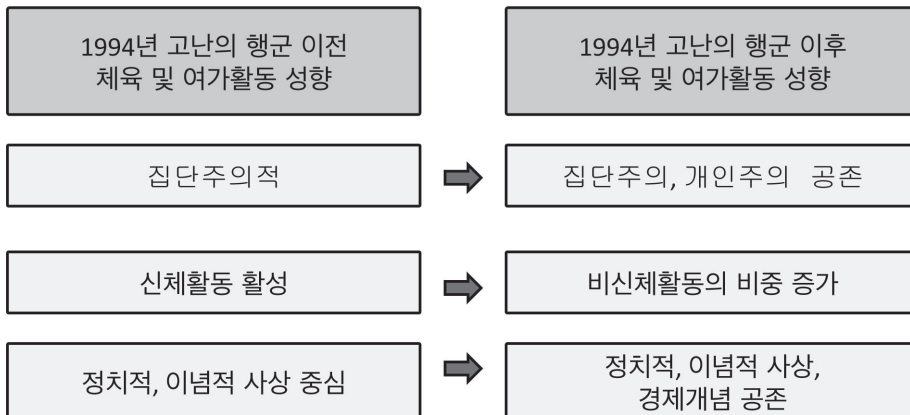
- 지방에서는 체육 시설이 용도 변경(주민대피소)
- 여가시설들 중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된 것들도 있음

경계가 어려워지면서 운동시설들이 없어지고, 공설운동장을 주민대표(주민대피소, 방공호)를 파고 공사 하면서부터 아예 다 망가졌어. 원형으로 돼 있었던 좌석의 중간을 파 놓으니깐. 전쟁준비 한다고.(북한 이탈주민 1면담. 2012. 9. 26)

우리 구역회관 같은 경우는 탁구를 개인이 운영한단 말입니다. 회관측에다 건물세 내고. 한 번 치는데 시간당 얼마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학생들 데리고 일요일에 탁구장 가서 탁구도 치고. 쌀 1키로 값인 이천 정도 낸 것 같아요.  
(북한 이탈주민 4면담. 2012. 10. 19)



## 고난의 행군 전후 체육 및 여가활동의 변화



Vielen Dank für Ihre  
Aufmerksamkeit!



감사합니다  
Thank you



# 북한의 체육 및 여가활동에 관한 토론

김흥태 (대진대)

## 1. 북한의 체육 및 여가활동 연구에 관한 제언

첫째, 북한의 체육 및 여가활동에 관한 새로운 연구동향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겠다. 다만 체육의 포괄적 개념 내에 위치하는 여가활동 내용 위주의 전개로 그 연구영역이 제한적이다.

둘째, 북한의 체육 및 여가활동이라는 광의의 범주에 관한 최신 연구동향의 반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최근 북한은 김정은 집권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 체육강국 건설을 천명하며, 이에 상응하는 일련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북한체육과 남북체육교류협력 등에 관한 선행연구의 고찰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북한 체육동향의 반영이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적용한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한 전개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미시사와 미시사회학적 접근을 통한 구체적 사례분석을 활용한 연구방법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다. 다만 단천지역 선택에 따른 의의 및 당위성 등과 같은 공간적 위치 선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언급이 요청된다.

넷째, 연구내용의 전개에 있어서 자료 수집 및 활용의 충실성이 인정된다. 다만 선행연구의 폭이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심층면담을 통한 구체적 사례 활용의 충실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섯째, 관련 전공학계 특히 체육사 및 여가관련 관련 전공학계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자체가 희소성이 있으며, 아울러 북한 이탈주민 및 실항민을 통한 심층면접에 기인한 연구내용의 전개는 새로운 연구동향을 선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북한 체육과 여가활동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확산되는 계기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의미 있는 가치로 평가가 가능 할 것이다.

## 2. 현대사회에서의 체육 및 여가생활의 함의

○ 현대사회의 급격한 가변성과 폭넓은 다원성은 현 시대의 주된 경향성으로 대변 할 수 있겠다. 미래 학자인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현대사회 변화의 특징을 언급하기로 '변화의 가속성, 변화의 다양성, 변화의 총체성'이라는 표현을 상기하며, 21세기 현대사회는 변화의 폭과 깊이와 함께 체육의 및 여가의 의미 또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 현대사회에서 체육은 포괄적 의미로 적용되며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현대 후기 산업사회에서 체육은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또는 보편적 사회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체육에로의 직·간접적인 참여자의 급증과 영리 및 비영리적 체육 시설이 확대 조성되고 있으며, 체육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학문적 관심과 위상이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체육은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직·간접적인 관련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오늘날의 산업화 사회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는 체육의 영역이 극히 제한적인 사회 현상이었다. 특정 사회계층, 연령층, 성 등에 국한된 제한적 활동이었으나, 현대 고도산업 사회에서는 대중화와 평등화를 앞세워 주요 관심 분야로서,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삶의 중심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 특히 여가시간 증가에 기인한 여가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여가혁명이 진전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 정착과 함께 주5일 수업제 실시, 그리고 개인 가처분 소득과 시간의 증가 등은 삶의 질 제고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는 개개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다양한 욕구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건강과 행복 추구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활동적인 심신활동은 현대인의 생활에 중핵적 활동이며 필수불가결한 필요충분조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가 인식되며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 위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체육의 개괄적 이해를 전제로 새로운 시대상에 부합되는 현대사회 체육의 특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의 생활화(生活化) 지향이다

둘째, 체육의 평등화(平等化) 지향이다

셋째, 체육의 정보과학화(科學化) 지향이다.

넷째, 체육 환경의 최적화(最適化) 지향이다.

다섯째, 체육의 산업화(産業化) 지향이다.

여섯째, 체육의 신경향성(新傾向性) 등이 나타나고 있다.

○ 첨단산업사회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현대사회는 다양화·다원화 된 삶의 방식을 전제로, 여가정보 사회로 그 함축된 의미를 대변할 수 있겠다. 즉 주 5일 근무에 따른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 등은 바람직한 여가선용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 중에서 체육활동은 보다 근원적이고, 진전된 여가 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순기능으로 기여하리라 믿는다.

○ 현대사회에서 체육활동은 인간의 여가 시간을 건설적, 교육적으로 선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건전한 사회적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 또한 운동 부족의 현대인에게 생존에 필요한 적정량의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며, 사회체계의 유지와 존속에 기여하여 국민 통합의 창출에 공헌한다. 따라서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체육활동은 가장 중요한 생활의 일부이며, 나아가서 생활의 중핵적(中核的) 요소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경제사회 발전과 보다 나은 멋과 여유를 향유하려는 문명사회의 기본적인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 여가란 노동 및 기타 사회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며, 휴식, 기분전환, 자기개발 및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해 활동하는 시간으로서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한 창조적 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여가활동은 모든 것(anything), 어디서나(anywhere), 언제나(anytime)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여가는 최근 경제적 측면에서 거대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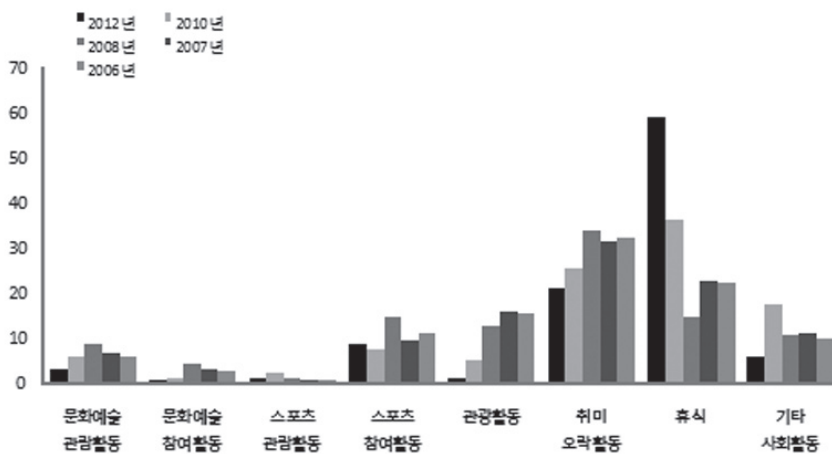
으로 산업화되고 있으며, 문화적 측면에서 문화·문명의 거울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 각 기관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작용과 상호 작용뿐만 아니라 의식, 동기 만족 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 현대 사회는 ‘노동의 윤리가 지배하던 산업사회와 달리 인간 삶의 주체적인 활동으로서의 ‘여가의 윤리가 지배하는 사회상이 전개 될 후기 산업사회로 빠르게 재편되었다. 즉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다양한 표현으로서 ‘대중여가’(mass leisure) 또는 ‘대중여가시대’(mass leisure age) 또는 ‘여가사회’(leisure society) 등으로 표현되며, 이는 집약된 여가사회의 폭넓은 상징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겠다.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함께 발표한 2012년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서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일평균 여가시간 및 월평균 여가비용은 ‘10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민과반수가 주요 여가활동으로 TV시청 등 소극적 휴식활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일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3시간, 휴일 5.1시간, 평균 여가비용은 12만 5천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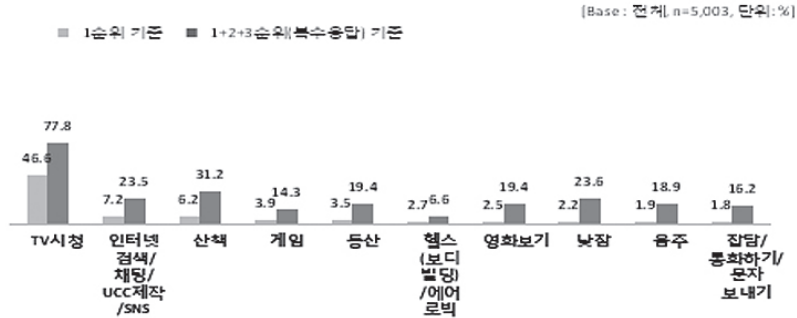
〈그림 1〉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 추이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그림 2〉 2012 상위 10순위 여가활동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 영국의 여가 사회학자 로제크(Rojek)는 현대사회의 여가 특징을 첫째, 가정오락을 중심으로 하는 ‘사유화’(privatization), 둘째, 레저추구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지향하는 ‘개성화’(individualization), 셋째, TV, 알코올, 성, 담배, 도박 등 이윤추구의 레저 지향인 ‘상업화’(commercialization), 넷째, 흥분된 사회, 난폭한 정서로부터 고요함을 찾는 ‘평온화’(Pacification)로 나타내고 있다.

○ 자기 중심적이고, 자유 방임적인 여가 활용의 형태가 아닌 창조적이며, 인간적·사회적 가치 기준에 부합되는 다양한 여가 환경의 조성은 현대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인간의 기본권 이리의 충족을 보장하며, 자아실현과 자아확장에 공헌하며, 나아가서 무한한 긍정적 가치로 인류생활의 진보에 기여할 것이다.

### 3. 북한 체육강국 건설의 동향

○ 체육강국 건설 위해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신설

－ 북한체육의 기본 목표는 “체육을 통해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 국방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체육을 집단주의 정신 함양과 노동력국방력 강화의 수단적 가치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종전 북한 체육정책을 전반적으로 지도·통제관장해온 곳은 체육지도위원회였다. 당의 지도 아래 대내외 체육경기를 조직하고 각종 스포츠 행사 개최 및 인민 체력검정 실시, 우수선수 발굴이 주요 업무였다.
-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국가의 체육정책과 체육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조직된 국가체육지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은 장성택 국방위 부위 원장이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신설과 더불어 정치군사 강국과 경제강국에 이은 ‘체육강국’ 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도 제시되었다.

○ 국가체육지도위원회는 ‘체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내각에 소속돼 있지 않고 국방위 원화에 소속되어 있다.

- 국가체육지도위원회에 포함된 인사는 당·장군에 총망라돼 있다. 부위원장은 노두철 내각 부총리와 최부일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이영수 당중앙위 근로단체부장이다.
- 통일부와 전문가들에 의하면 국가체육지도위원회에 당·군·근로단체 핵심 고위급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포진 되어 있으며, 이는 당 중앙위 정치국 32명의 핵심 파워 엘리트 보다 많은 37명의 파워 엘리트로 국가체육지도위가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영화나 음악을 체제 선전 도구로 삼은 반면 김정은 제 1위원장은 스포츠를 통해 애국심을 구취하고 희망적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선진국·후진국을 막론하고 스포츠는 강력한 애국심 고취 기재로 작용한다.

○ 1980년대 후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대외 체육교류를 강조, 국제대회 참가 및 북한 개최 국제대회 창설, 대회유치를 위한 경기장 건설이 활발히 이뤄져 왔다. 1990년대 들어서는 야구·볼링 등 부르주아 스포츠 보급 및 관련시설이 건설되기도 했다.

○ 김정은 체제 이후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은 2011년 신년사에서 “축구강국, 체육강국”을 언급한 이후 각종 담화 및 사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육 사업을 강화할 것을 독려해 오고 있다.

○ 북한 노동당 가관지 노동신문은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 것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온 나라에 체육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체육부문 사

업에서 일대 혁신을 안아오는 것은 현 시기 강성국가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 신문은 이어 “천만군민을 투쟁과 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데서 백마디, 천마디의 말로도 대신 할 수 없는 커다란 호소력과 감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제 체육경기성과”라고 강조, 스포츠를 통해 내부 결속 및 체제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이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체육강국 건설은 대내적으로는 위민사상(애민사상) 및 대외적으로 체제 위상강화를 염두 한 통치이념이자 정치적 수사의 의미로 체제안정과 체제 결속력 강화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 4. 북한의 체육강국 건설에 따른 의미 있는 변화

○ 북한이 2012년 11월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신설해 체육강국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후 스포츠 과학 연구시설이 들어서고 첨단 스포츠 기기가 개발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보도 되고 있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2일 평양체육단이 올해 완공한 체육과학연구 기지의 과학정보연구실을 소개했다.
- 이 연구실은 인터넷으로 스포츠 자료를 검색하고 전산자료를 볼 수 있는 전자 열람실, 운동선수의 신체검사와 피로해소를 돕는 기능검사실, 스포츠 영상자료를 보며 토론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있다.
- 북한에서는 체육과학원이 스포츠 과학 연구를 총괄하며 체육과학연구소, 체육영양학연구소, 체육기자재연구소 등이 부문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또한 주목할만한 최식 스포츠 기기들도 잇달아 개발되었다고 보도 된다. 지난 3월에는 조선체육대학 체육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심리훈련조정지원체계’가 조선 신보에 소개됐다.

〈표 1〉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구성원

국민일보 2013.10.5

직책	성명	당·정·군 주요직책
위원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사망)
부위원장	최부일 이영수 장선강	내각 부총리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당 중앙위 근로단체부장
위원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조연준 주규창 김용진 박봉주 한광상 이종무 오금철 전용남 현상주 이명길 노성실 김동일 김영호 김승두 장 철 최광진 안정수 조영철 전길수 이용남 이성호 문응조 김성의 차희림	비서 겸 선진선동부장 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의장 비서 겸 국방위 위원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비서 겸 국제부장 비서 겸 간부부장 비서 겸 계획제정부장 비서 겸 평양시 당 책임비서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기계공업부장 내각 부총리 내각 총리 재정경리부 제1부부장 체육상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1비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장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장 대흥단군당위원회 책임비서 인민군 소장 교육위원장 국가과학원장 재정상 경공업상 식료업용공업상 철도상 무역상 상업상 수매양정상 정보없음 평양시 인민위원장

○ 조선중앙통신은 2012년 11월 15일 “북한과 중국이 14일 평양에서 ‘2013년 체육교류의정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인식에는 북한 측에서 손광호부상을 비롯한 체육성 일군들이, 중국 측에서 오제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국 가체육총국대표단성원들과 오세광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문화참사가 참가했다”고 전했다.

○ 북한 평양방송은 최근 2013년 1~10월 북한이 60여 개의 국제체육대회에 참가해 360여 개의 메달을 땀다고 보도한 바 있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체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체육과 관광을 결합해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연계 관광상품을 판매했다. '평양 마라톤 관광 2013' 3박4일 상품이 999유로(약 140만 원)에, 'Nordic Ways Vasa 중-북자전거 관고아축전' 연계 나선지역 2일 관광 상품이 1500위안(약 26만원)에 판매됐다는 설명이다.

○ 북한은 2013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육관광을 기본으로 명승지를 관광하는 상품도 준비하고 있다.

- 북한 국가관광총국 김영일 부국장은 2월 27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서 “최근 조선(북한)을 관광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늘어나 관계부문에서도 새로운 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나라의 체육애호가들이 조선의 축구, 농구, 배구 애호가들과 시합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명성지도 관광하는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마식령스키장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본격 유치사업 착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2014년 1월 24일 첫 스키 관광객이 방북할 예정이며, 일주일 동안 평양과 개성을 거쳐 스키장에 머무는 비용은 대략 2900달러에서 3300달러 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제한했던 12월 15일부터 1월 15사이에 관광객 방북을 허용한 것은 처음이다.

○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가마중대 훈련장이 근로자와 청소년의 체력단련을 위한 승마장으로 변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선군(先軍)'을 고수 하고 있지만 이례적으로 군대 시설을 체육 시설로 바꾸는 사례까지 등장한 것이다.

○ 북한 성기관들의 후원을 통해 김 제1위원장의 체육강국 건설 지시 이행에 필요한 기자재와 선수 배급품이 조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성기관·무역회사는 종목별 협회를 담당(협회장 겸직)해 기자재와 선수 생활용품을 책임지고 공급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마라톤-건설건설재공업성 △탁구-조선민족보험총회사 △역도-인민 봉사총국 △피겨·빙상-재정성 △레슬링-무역성 등이다.

○ 김제위원장은 국정을 챙기는 와중에서도 올해 들어서 한 달에 한번 꼴로 체육경기를 관람했다. 김정은 정권이 비정치분야인 스포츠에 신경을 쓰는 것은 민심을 사로잡고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 북한 언론에서도 체육 비중이 커지고 있다.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5월부터 스포츠 코너를 따로 만들어 국제 및 국내 경기들을 매일 비중 있게 중계 하고 있다. 북한 언론에서 스포츠 코너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 김정은 체제 들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전례가 없었던 2013년 9월 개최된 평양 아시아클럽대항역도선수권대회에서 최초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가 실현되었으며, 아울러 조선중앙TV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 여자부 남북 대표팀의 맞대결을 중계하며 득점과 함께 태극기와 인공기 이미지를 나란히 내보냈다.

○ 김정은 제위원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체육강국 건설의 기치 아래 다방면에서 북한 체육의 양상이 일신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의미부여를 떠나 남북체육교류협력 측면에서 또한 통일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긍정적 의미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표 2〉 북한의 주요 체육대회 현황

세계일보, 2012.11.27.

 대회명	목적	창설 및 개최 일시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	김정일 생일(2월16일) 기념	1977년 창설, 매년 2~3월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김일성 생일(4월15일) 기념	1969년 창설, 매년 4~5월
오산대상 체육경기대회	김정숙 생일(12월24일) 기념	1997년 창설, 매년 12월
전국체육 구락부생 체육경기대회	신인선수 발급	1982년 창설, 매년 8월
공화국 창건기념 체육경기대회	정권창권(9월9일) 기념	1977년 창설, 매년 9월
당창건 기념 체육경기대회	당창건(10월10일) 기념	1975년 창설, 매년 10월
보천보핵불상 체육경기대회	보천보전투 승리(1937년16월4일) 기념	1960년 창설, 매년 6~7월
공화국선수권대회	우수선수발급	1979년 창설, 매년 10~11월
인민체육대회	체육활동 대중화	1960년 창설, 1963년부터 5년주기로 9~10월
전승컵 체육경기대회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	1994년 창설, 매년 7월
9·5상 대학생 체육대회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기념	1997년 창설, 매년 10~11월
정일불상 체육대회	학교체육 전문화 방침 지시 기념	1995년 창설, 매년 3~4월
장자신상 체육대회	학교체육 전문화 방침 지시 기념	1995년 창설, 매년 10월

자료: 통일연구원, 2009 국민개요

## ■참 고 문 헌

- 김흥태 외 1인(2013),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과 남북체육교류협력 추진방안,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7권 제4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 김흥태(2013), 북한의 체육강국 구상과 남북체육교류 전망에 관한 토론: 2013 통일문화정책포럼 공개세미나 논집, 문화체육관광부.
- 김흥태(2004), 지속가능한 노인여가정책에 관한 연구, 한구사회체육학회지 제22호, 한국사회체육학회.
- 김흥태(2003), 현대사회와 스포츠의 확장성,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25권,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 김흥태(2003), 현대체육의 신경향성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2권 2호, 한국체육과학회.
- 세계일보, 2012.11.27.
- 국민일보, 2013.10.05.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 제4회의

#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중국 기업의 대북거래

- 발표 1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북한 이탈주민 :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비교분석  
한경혜 (생활과학대학)
- 발표 2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에 관한 기초 문헌 연구  
신성호 (국제대학원)
- 발표 3  
중국 대북한 거래기업 분석:  
중국 현지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김병연 (경제학부)



2011년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사업비 지원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북한 이탈주민 :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비교분석

2014. 2. 25

한경혜(서울대) · 김상욱(성균관대)

### 연구의 필요성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의 통합적 질서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한국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화적 수용성을 다른 소수자 집단과 비교하는 근원적 실증연구가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과 국내의 다른 이주민들에 대한 우리 주류사회의 문화적 수용을 상대적·등가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이주민 집단 사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위치를 보다 정교하고도 등가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의 측정 및 조사연구가 요구됨
  - 특히 최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거리감이 결코 적지 않고 약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할 것임

## 연구의 목적

-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여타 소수자 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차이 비교분석
-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출신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수용성 정도와 그 결정요인 분석
- 각 집단별로 차별화되고 효과적인 수용성 증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적이고 정책적인 논의의 발전

## 선행연구 검토

###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 수용성 관련선행연구

- 다문화 사회의 수용성에 관한 태도 :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태도, 이주자들에 대한 태도로 구분
  - 민무숙 등(2010) : 자기와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 배제, 서로 다른 문화의 동등한 상호인정, 조화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협력 및 노력을 수용하려는 태도
  - 윤인진과 송인호(2011) :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인정 및 존중, 다른 문화에 대한 열린 사고, 이주민들을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태도
  - 황정미 외(2007) : 다민족·다문화 지향성,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긍정 및 다양한 민족·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

- 다문화 수용성 측정 척도 : 종족배제주의

- 황정미(2007)

- 단일민족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인종-민족을 배제하는 태도가 강한 반면, 북한에 대해 개방적이고 경제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응답자 일수록, 양성평등 의식이 높을 사람일수록 종족적 배제주의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외국인 이주자의 증대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종족적 배제주의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음

- 김혜숙 등(2011)

-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클수록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커지고 이러한 경향은 정체성이 위협받을 때 더 높아졌다고 함

- 한국인의 정체성

-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2005) , ARI & EAI : 한국국적 유지
- 정기선(2004) : 민족적 요인 < 시민적 요인
- 강원택(2006) : 법적인 국적 유지, 한국어 사용
- 최현(2007), 황정미(2007) : 한국국적 유지,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Blumer(1958), Quillian( 1995)

- 이주자 집단의 규모 확대나 불확실한 경제상황

- Raijman and Semyonov(2004)

- 이주자들에게 주류집단과 동일한 권리 부여

- 황정미(2010)

- 단일민족 자긍심이 높을수록 보편적 권리수용 태도가 낮았고, 개입-참여적 시민성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더 지지함

- 송미영(2009)

- 이주외국인의 성별, 이념성향, 외국문화의 접촉경험 등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화적 수용성 관련 선행연구

- 국내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화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정착 지원과 서비스 전달체계 및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졌음
- 정기선(1998), 안산지역 거주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493명 조사
  - 한국인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이중적인 시각을 지님
  - 동정심과 동시에 동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유리된 집단으로 보고 있음
- 송경재 등(2004)
  - 북한이탈주민과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막연한 비현실적인 동정심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인식함
- 김상학(2004), 2002년 대학생 1,005명
  - 사회적 거리감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외국인 노동자 > 동성애자
  - 접촉 경험이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킴

- 양계민과 정진경(2005)
  -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없는 집단이 부정적 정서와 함께 연민의 정서가 매우 높았음
- 주은주·오정수(2011), 대전북한이탈주민접촉유경험자 20세이상 지역민
  - 다른 문화에 대한 적응능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북한이탈주민과 친밀하게 느낄수록, 새터민과의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아짐
- 이명진 등(2010)
  - 사회적 거리감 : 미국 > 북한이탈주민 > 조선족
  - 국민과 결혼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찬성이 미국보다 많아 민족적 동질성이 크게 반영되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수용적인 태도를 보임
- 김동수 등(2011)
  - 조선족 수준의 매력적이지도 부정적이지 않은 외모, 소극적이지만 성실함, 한국인에 비해 비교적 열등감을 가졌으며 한국인과 우호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특기 및 재능, 경제적 능력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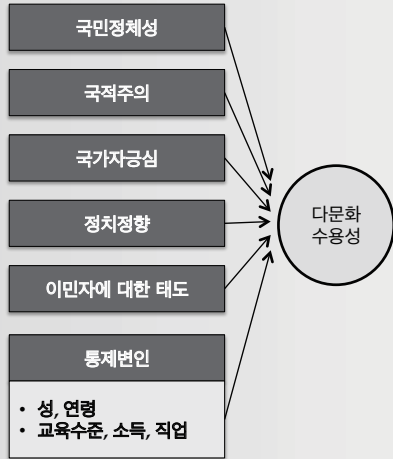
## 분석자료

- 2010년 한국종합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 KGSS)
  - 조사기간 : 2010. 6. 27 ~ 8. 31
  - 조사대상 :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500명
  - 조사방법 : 면접조사
  - 조사기관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SRC)
  - 표본추출방법
    - 최종표집지역 수를 200개로 정하고 이를 1차 표집단위인 전국 광역시·도의 가구 수 분포에 비례하여 배분
    - 각 광역시·도로부터 배분된 수만큼의 2차 표집단위인 동·읍·면을 인구비례 확률 표집 원칙을 적용하여 무작위 추출
    - 추출된 각 동·읍·면으로부터 한 개의 최종 표집지역(동의 경우에는 통/반, 면의 경우에는 리)을 무작위 선정
    - 선정된 통/반 또는 리에서 10개의 가구를 계통 표집
    - 계통 표집된 가구 내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들 가운데 태어난 월·일이 가장 빠른 사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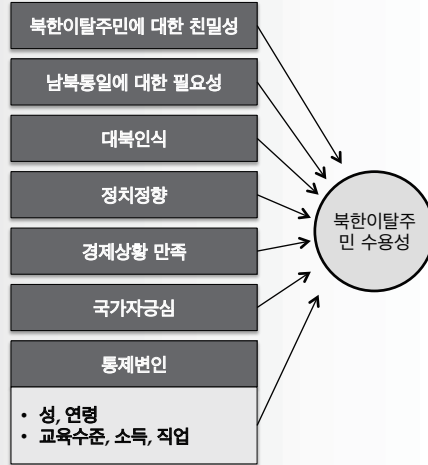
- 통일의식조사
  - 조사기간 : 2007년부터 매년 조사
  - 조사대상 : 전국의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남녀
  - 조사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표본추출방법 : 다단계층화무작위추출법
    - 전국의 인구현황에 따라 조사표본을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배분한 후, 각 지역 별로 모집단 비율에 따라 층화하여 최종조사지점을 추출
  -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남북교류, 탈북자문제, 북핵문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등 통일에 대한 포괄적인 국민여론을 파악하고자 실시됨
    - 측정문항은 대부분 동일반복문항들로 구성되어 한국인의 통일의식 변화에 대한 시계열 연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장점이 있음

## 분석내용

연구모형 1



연구모형 2



## 한국종합사회조사(KGSS2010) 분석내용

구분	내용
다문화 수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북한이탈주민 및 외국 출신의 소수자 집단의 증가에 대한 태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결혼이주 여성, 생산기능직 외국인 근로자, 전문기술직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중국동포(조선족),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사업가 및 투자자 등 7개 소수자 집단의 증가에 대한 태도</li> </ul> </li> <li><b>북한이탈주민 및 이주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 내 직장에서 동료로 지내는 것,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나와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등 7개 문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li> </ul> </li> <li><b>집합적 위협 인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li> <li>- 일반적으로 이주자들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더 피해를 준다</li> <li>- 이주자들이 많아지면 사회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li> </ul> </li> <li><b>보편적 권리 수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국적이 없어도 합법적으로 한국에 이주한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과 동등한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li> <li>-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가족을 데려올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li> <li>- 합법적으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한 외국인들에게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li> </ul> </li> </ul>
국민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종족정체성:</b>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li> <li><b>시민정체성:</b>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한국의 정치체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li> <li><b>국적주의:</b> 한국 국적을 갖는 것</li> </ul>
국가자긍심	자랑스럽지 않다, 자랑스럽다
정치정향	진보, 중도, 보수
이주자에 대한 태도	국수적, 중도적, 개방적
통제변인	성 / 연령 / 교육수준 / 소득수준 / 직업

## 통일의식조사(2007-2010) 분석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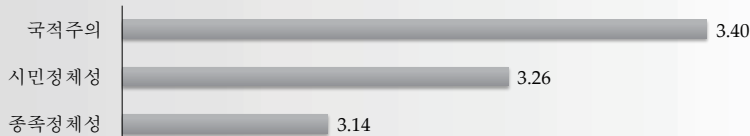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성	•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수용에 대한 태도: 동네 이웃, 직장동료, 사업 동업자, 결혼상대자 등의 관계에 대한 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성	•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태도
남북통일의 필요성	•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태도
대북인식	• 북한이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인식: 지원, 협력, 경쟁, 경계, 적대
정치정향	• 진보, 중도, 보수
경제상황만족	•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
국가자긍심	• 한국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태도
통제변인	• 성 / 연령 / 교육수준 / 소득수준 / 직업

## 한국인의 문화수용성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출신 소수자 집단에 대한 비교분석

## 국민정체성

- 국적주의 3.40점, 시민정체성 3.26점, 종족정체성 3.14점
  - 종족정체성 : 남성 <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단순노무직이 더 중요하게 생각함
  - 시민정체성 : 남성 <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며,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직/전문/준전문직이 가장 그렇지 않음
  - 국적주의 : 남녀 간 큰 차이는 없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소득수준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가장 나타나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한국국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 진정한 한국사람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 : 1=전혀 중요하지 않음, 2=별로 중요하지 않음, 3=다소 중요, 4=매우 중요 (단위: 점)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출신의 소수자 집단 증가에 대한 태도

-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대해서 생산직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주여성, 중국동포보다는 높게 평가되었지만 외국인 사업가/투자자, 외국인 유학생,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이 중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대한 평가는 2.97점으로 평가되어 중간값을 약간 밑돌아 증가보다는 변화 없기를 바라는 것 경향을 보임
- 외국인 사업가/투자자에 대한 평가는 4.06점으로 증가를 바라지만 중국동포는 2.82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어 이들의 증가를 바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주: 1=매우 감소, 2=다소 감소, 3=변화없음, 4=다소 증가, 5=매우 증가 (단위: 점)

### 국가자긍심, 정치정향, 이주자에 대한 태도별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출신 소수자 집단의 증가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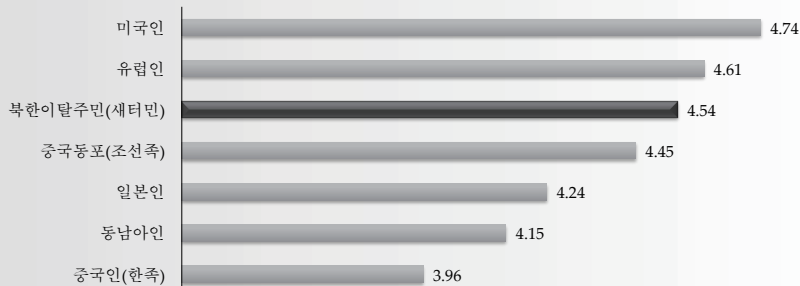
-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를 바라는 반면, 자긍심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소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 정치정향별로는 진보는 증가, 중도는 현상유지, 보수는 감소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 이주자에 대한 태도가 국수적이면 감소를 바라고 중도적 또는 개방적이면 증가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북한이탈주민			X <sup>2</sup>
		감소 선호	현상유지 선호	증가 선호	
국가 자긍심	자랑스럽지 않다	70(35.5)	59(29.9)	68(34.5)	.837
	자랑스럽다	435(33.0)	435(33.0)	447(33.9)	
	소계	505(33.4)	494(32.6)	515(34.0)	
정치 정향	진보	140(29.3)	141(29.5)	197(41.2)	17.630**
	중도	189(37.0)	174(34.1)	148(29.0)	
	보수	151(32.3)	160(34.3)	156(33.4)	
	소계	480(33.0)	475(32.6)	501(34.4)	
이주자 태도	국수적	205(41.4)	150(30.3)	140(28.3)	34.926***
	중도적	266(28.9)	326(35.4)	328(35.7)	
	개방적	9(20.0)	10(22.2)	26(57.8)	
	소계	480(32.9)	486(33.3)	494(33.8)	

\* p<.05, \*\* p<.01, \*\*\* p<.001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출신 소수자 집단과의 관계 수용 정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계 수용도는 4.54점으로 중국동포, 일본인, 동남아인, 중국인에 비해서는 관계 수용에 우호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국인이나 유럽인에 비해서는 덜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자긍심, 정치정향, 이주자에 대한 태도별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출신 소수자 집단과의 관계 수용 정도

-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수용에 대한 정도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 유무에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의 수용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음
- 정치정향과 이주자에 대한 태도는 각각 진보적일수록 개방적일수록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
국가 자긍심	자랑스럽지 않다	207	4.56	2.384	.008
	자랑스럽다	1,341	4.55	2.379	
	소계	1,548	4.55	2.379	
정치 정향	진보	489	5.00	2.175	10.772***
	중도	518	4.56	2.405	
	보수	476	4.32	2.354	
	소계	1,483	4.62	2.330	
이주자 태도	국수적	498	3.98	2.484	29.992***
	중도적	941	4.83	2.239	
	개방적	48	5.85	1.584	
	소계	1,487	4.58	2.352	

\* p<.05, \*\* p<.01, \*\*\* p<.001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출신 소수자 집단의 위협 인지와 권리수용에 대한 인식

위협 인지와 권리수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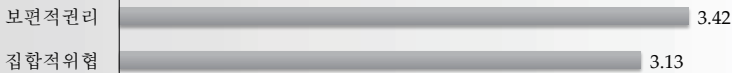
구분	성분	
	1	2
이주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732	-.082
일반적으로 이주자들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더 피해를 준다	.810	.022
이주자들이 많아지면 사회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694	.038
한국국적이 없어도 합법적으로 한국에 이주한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과 동등한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061	.777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족을 데려올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082	.758
합법적으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한 외국인들에게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지방 선거에서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	.101	.698
신뢰도(Cronbach's $\alpha$ )	.613	.599
고유치	2.130	1.264
설명변량	35.492	21.062
KMO 표본적합도	.681***	

주 1) 요인추출방법 : 주성분 분석

2) 회전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

### 집합적 위협인지 및 보편적 권리 수용 인식

- 집합적 위협에 대한 인지는 3.13점, 보편적 권리 수용 인식은 3.42점으로 보편적 권리수용 인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집합적 위협에 대한 인지
    - 남성 <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위협 인지가 높고, 소득수준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고 300-399만원이 가장 낮게 나타나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위협 인지가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관리직/전문/준전문직이 가장 낮고 단순노무직이 가장 높음
    - 집합적 위협 인지는 대체로 다문화 사회의 긍정성과는 반대양상을 보임
  - 보편적 권리에 대한 수용성
    - 남성 >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가장 낮고 300-399만원이 가장 높음
    -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가장 높고, 기능직/조립직이 가장 낮음



### 국가자긍심, 정치정향, 이주자에 대한 태도별 집합적 위협 인지와 보편적 권리 수용에 대한 인식

- 집합적 위협 인지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사람들이 더 위협적이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치정향은 중도와 보수인 경우가 같은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이주자에 대한 태도는 국수적일수록 더 위험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
국가 자긍심	자랑스럽지 않다	200	3.10	0.691	-1.575
	자랑스럽다	1,318	3.18	0.679	
	소계	1,518	3.17	0.681	
정치 정향	진보	489	3.14	0.694	.536
	중도	506	3.18	0.656	
	보수	471	3.18	0.687	
	소계	1,466	3.16	0.679	
이주자 태도	국수적	499	3.79	0.504	716.880***
	중도적	946	2.91	0.474	
	개방적	48	1.90	0.402	
	소계	1,493	3.17	0.675	

\* p<.05, \*\* p<.01, \*\*\* p<.001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출신 소수자 집단에 대한 문화적 수용성의 결정요인 분석

###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출신 소수자 집단의 증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북한이탈주민 : 여성 < 남성, 중졸 이하 < 대졸 이상,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수용적임
-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 여성 < 남성, 개방적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수용적임
- 생산직 외국인근로자 : 연령이 높을수록, 중졸 이하 < 고졸 이상, 개방적일수록 생산직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에 수용적임
- 전문직 외국인근로자 : 여성 <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중졸 이하 < 대졸 이상, 개방적일수록 전문직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에 수용적임
- 중국동포 : 연령이 높을수록, 중졸 이하 < 대졸 이상, 개방적일수록 중국동포의 증가에 수용적임
- 외국인 유학생 : 여성 <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은 사람들, 종족정체성이 약할수록, 시민정체성이 강할수록, 진보적일수록, 개방적 태도를 가질수록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에 수용적임
- 외국인 사업가/투자자 : 여성 < 남성, 대졸 이상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 종족정체성이 약한 사람들, 시민정체성이 강할수록 외국인 사업가/투자자의 증가에 수용적임

## 이주자 집단 증가태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결혼이주여성, 생산직 외국인근로자, 전문직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구분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결혼이주여성				생산직 외국인근로자				전문직 외국인근로자			
	M1(N=1,222)		M2(N=1,140)		M1(N=1,226)		M2(N=1,144)		M1(N=1,234)		M2(N=1,151)		M1(N=1,231)		M2(N=1,149)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남성	.230	.106***	.249	.116***	.132	.067*	.114	.058	.039	.019	-.011	-.005	.126	.061*	.085	.042
연령	.003	.041	.004	.055	.002	.026	.003	.043	.006	.085*	.007	.110**	.004	.064	.006	.085*
고졸	.322	.144**	.223	.102*	.029	.014	.009	.004	.213	.103*	.217	.106*	.165	.078	.133	.064
대졸이상	.443	.201***	.333	.154**	.015	.008	.003	.001	.359	.175**	.355	.176**	.303	.144**	.267	.129*
소득	.040	.044	.036	.040	-.013	-.016	-.020	-.024	-.001	-.001	.003	.004	.009	.010	.010	.012
사무직	-.079	-.027	-.071	-.025	.019	.007	.025	.009	-.053	-.019	-.022	-.008	-.005	-.002	.025	.009
판매서비스직	-.080	-.030	-.070	-.027	-.040	-.016	.003	.001	.100	.040	.170	.069	-.055	-.021	-.007	-.003
기능조립직	.060	.019	.112	.035	-.070	-.024	-.043	-.015	-.107	-.036	-.052	-.017	-.185	-.061	-.122	-.040
단순노무직	.153	.054	.158	.054	-.035	-.014	-.024	-.009	-.173	-.066	-.087	-.032	.055	.021	.097	.035
종족정체성			-.075	-.058			.045	.037			.034	.028			.015	.012
시민정체성			.056	.030			.039	.023			.037	.021			.027	.015
국적주의			-.010	-.006			-.095	-.067			-.064	-.045			-.037	-.025
국가자긍심			-.073	-.023			-.151	-.052			-.038	-.013			-.143	-.047
진보			.203	.089**			-.016	-.008			.059	.028			.083	.038
보수			.138	.060			-.010	-.005			-.019	-.009			.082	.038
중도적			.217	.097**			.199	.097**			.435	.209***			.412	.194***
개방적			.582	.100***			.351	.065*			.789	.145***			.768	.138***
상수	2.234***		2.159***		2.779***		2.827***		2.480***		2.058***		2.825***		2.544***	
R <sup>2</sup>	.039		.067		.006		.021		.027		.082		.021		.066	
Adj. R <sup>2</sup>	.032		.053		-.002		.006		.020		.068		.014		.052	

\* p<.05, \*\* p<.01, \*\*\* p<.001

### 이주자 집단 증가태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중국동포,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사업가/투자자

	중국동포(조선족)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사업가/투자자			
	M1(N=1,221)		M2(N=1,143)		M1(N=1,229)		M2(N=1,148)		M1(N=1,234)		M2(N=1,150)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남성	.110	.057	.114	.059	.142	.078**	.113	.063*	.232	.124***	.214	.116***
응답자연령	.003	.049	.005	.080*	.004	.065	.005	.082*	.000	.008	.001	.017
고졸	.276	.138**	.224	.113*	.024	.013	.020	.011	.239	.124**	.199	.105*
대졸이상	.357	.180**	.275	.141**	.011	.006	.016	.009	.340	.178***	.298	.159**
소득로그	.024	.030	.028	.034	.050	.067*	.059	.079*	.091	.116***	.084	.109**
사무직	-.030	-.011	-.033	-.013	.095	.038	.101	.042	.100	.039	.119	.048
판매서비스직	-.020	-.008	-.025	-.011	.042	.019	.045	.021	.134	.058	.125	.055
기능조립직	-.058	-.020	-.006	-.002	-.143	-.054	-.067	-.025	-.056	-.020	-.022	-.008
단순노무직	.098	.038	.101	.039	-.017	-.007	.048	.020	.086	.035	.109	.044
종족정체성			-.029	-.025			-.099	-.091*			-.143	-.127***
시민정체성			.075	.045			.107	.070*			.132	.083*
국적주의			-.074	-.054			.068	.053			.073	.055
국가자긍심			-.135	-.048			-.011	-.004			-.004	-.001
진보			.055	.027			.147	.078*			.103	.052
보수			-.050	-.024			-.042	-.022			.060	.030
중도적			.286	.143***			.071	.038			.081	.042
개방적			.557	.106***			.342	.070*			.252	.050
상수	2.245***		2.195***		3.294**		2.837***		3.152***		2.866***	
R <sup>2</sup>	.021		.054		.015		.038		.060		.073	
Adj R <sup>2</sup>	.014		.040		.008		.024		.053		.059	

\* p<.05, \*\* p<.01, \*\*\* p<.001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출신 소수자 집단과의 관계 수용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수용성 : 여성 < 남성, 종족 이하 < 대졸 이상, 개방적일수록 긍정적, 종족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덜 긍정적임
  - 중국동포 : 여성 <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종족 이하 < 대졸 이상, 개방적일수록 긍정적,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덜 긍정적임
  - 중국인 : 여성 < 남성,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방적일수록 긍정적, 종족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덜 긍정적임
  - 일본인 : 여성 < 남성,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방적일수록 긍정적, 종족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덜 긍정적임
  - 동남아인 : 여성 < 남성,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방적일수록 긍정적, 종족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덜 긍정적임
  - 미국인 : 여성 < 남성, 개방적일수록 긍정적, 종족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덜 긍정적이며, 관리직/전문/준전문직에 비해 기능조립직의 사람들은 덜 긍정적임
  - 유럽인 : 여성 <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방적일수록 긍정적, 관리직/전문/준전문직에 비해 기능조립직의 사람들은 덜 긍정적임

### 이주자 집단과의 관계수용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북한이탈주민, 중국동포, 중국인, 일본인

구분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중국동포(조선족)				중국인				일본인					
	M1(N=1,246)		M2(N=1,156)		M1(N=1,244)		M2(N=1,154)		M1(N=1,244)		M2(N=1,153)		M1(N=1,242)		M2(N=1,152)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남성	.921	.197***	.901	.198***	.730	.163***	.679	.154***	.387	.083**	.337	.073*	.465	.101**	.434	.096**		
연령	.000	.001	.009	.057	.011	.076	.022	.150***	-.001	-.006	.011	.069	-.011	-.072*	-.002	-.015		
고졸	.621	.129**	.436	.093*	.417	.090	.314	.069	.268	.056	.125	.027	.208	.044	.104	.022		
대졸이상	1.013	.213***	.797	.173**	.711	.155**	.500	.112*	.504	.106*	.249	.054	.688	.146**	.509	.111*		
소득	.076	.039	.074	.039	.061	.033	.054	.029	.079	.041	.080	.042	.073	.038	.064	.034		
사무직	-.023	-.004	.001	.000	.027	.004	.034	.006	.172	.027	.165	.027	.123	.019	.201	.033		
판매서비스직	-.153	-.026	-.115	-.021	-.264	-.048	-.269	-.049	-.270	-.047	-.274	-.048	-.153	-.027	-.041	-.007		
기능조립직	.062	.009	.213	.032	-.285	-.043	-.168	-.026	-.338	-.049	-.232	-.034	-.457	-.067*	-.383	-.057		
단순노무직	-.128	-.021	.121	.020	-.271	-.046	-.054	-.009	-.292	-.048	-.173	-.028	-.270	-.045	-.074	-.012		
종족정체성				-.213	-.077*			-.224	-.084*				-.265	-.095**			-.236	-.086*
시민정체성				.068	.017			.093	.025				-.056	-.014			-.133	-.034
국적주의				-.032	-.010			-.063	-.020				-.146	-.044			-.002	-.001
국가자긍심				.083	.012			-.069	-.011				.105	.016			-.062	-.009
진보				.298	.062			.211	.045				.152	.031			.112	.023
보수				-.225	-.046			-.335	-.071*				-.218	-.044			-.103	-.021
중도적				.636	.134***			.842	.183***				.880	.184***			.780	.166***
개방적				1.372	.110***			1.270	.106***				1.065	.085**			1.603	.130***
상수	3.207***		2.971***		3.023***		2.821***		3.250***		3.735***		3.916***		4.324***			
R <sup>2</sup>	.088		.119		.056		.110		.035		.086		.065		.105			
Adj R <sup>2</sup>	.081		.105		.049		.097		.028		.072		.058		.092			

\* p<.05, \*\* p<.01, \*\*\* p<.001

### 이주자 집단과의 관계수용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동남아인, 미국인, 유럽인

구분	동남아인				미국인				유럽인				
	M1(N=1,242)		M2(N=1,152)		M1(N=1,244)		M2(N=1,154)		M1(N=1,242)		M2(N=1,152)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남성	.521	.117***	.444	.102**	.396	.097**	.324	.081**	.560	.131***	.462	.111***	
연령	-.003	-.017	.007	.050	-.012	-.092**	-.003	-.022	-.021	-.149***	-.011	-.079	
고졸	.233	.051	.079	.018	.217	.051	.175	.043	.305	.069	.245	.057	
대졸이상	.653	.144**	.424	.096	.453	.108*	.356	.088	.655	.150***	.556	.132*	
소득	.034	.019	.041	.023	.030	.017	.023	.014	.014	.008	-.001	-.001	
사무직	.174	.029	.213	.036	.059	.011	.082	.015	-.051	-.009	-.011	-.002	
판매서비스직	-.195	-.036	-.104	-.019	-.002	.000	.070	.014	-.066	-.012	.002	.000	
기능조립직	-.392	-.060	-.241	-.037	-.446	-.074*	-.324	-.055	-.607	-.096**	-.454	-.074*	
단순노무직	-.143	-.025	.100	.017	-.296	-.056	-.055	-.010	-.249	-.045	-.034	-.006	
종족정체성				-.329	-.124***			-.188	-.078*			-.228	-.090**
시민정체성				-.012	-.004			-.145	-.051			-.088	-.029
시민정체성				-.075	-.020			-.060	-.018			-.111	-.031
국가자긍심				-.076	-.012			-.229	-.039			-.264	-.043
진보				.152	.033			.193	.046			.084	.019
보수				-.198	-.042			-.066	-.015			-.127	-.028
중도적				.928	.205***			.634	.153***			.687	.158***
개방적				1.328	.112***			1.237	.114***			1.406	.124***
상수	3.601***		4.002***		4.789***		5.441***		4.984***		5.819***		
R <sup>2</sup>	.047		.109		.054		.091		.093		.130		
Adj R <sup>2</sup>	.040		.095		.047		.078		.086		.117		

\* p<.05, \*\* p<.01, \*\*\* p<.001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출신 소수자 집단에 대한 집합적 위협 인지 및 보편적 권리 수용성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집합적 위협 인지: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위협을 크게 느끼고, 고학력일수록, 개방적일수록 덜 심각하게 받아들임
  - 보편적 권리의 수용 : 시민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개방적일수록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수용을 지지하는 반면, 국적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이주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임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출신 소수자 집단에 대한 집합적 위협 인지 및 보편적 권리 수용성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구분	집합적 위협				보편적 권리			
	M1(N=1,235)		M2(N=1,158)		M1(N=1,238)		M2(N=1,156)	
	b	β	b	β	b	β	b	β
남성	-.039	-.026	-.001	-.001	.054	.034	.048	.031
연령	.006	.119**	.002	.044	-.002	-.038	.001	.010
고졸	-.214	-.140**	-.102	-.068	.020	.012	.025	.016
대졸이상	-.307	-.204***	-.165	-.111**	.100	.062	.113	.071
소득	-.005	-.008	.004	.006	-.016	-.025	-.019	-.029
사무직	.067	.033	-.011	-.006	.058	.027	.098	.047
판매서비스직	.019	.010	-.048	-.026	-.023	-.012	.029	.015
기능조립직	.067	.031	-.026	-.012	-.147	-.063	-.095	-.041
단순노무직	.059	.030	-.052	-.026	-.079	-.038	-.016	-.008
종족정체성			.032	.036			-.054	-.057
시민정체성			.035	.028			.142	.106**
국적주의			-.012	-.012			-.103	-.092*
국가자긍심			.029	.013			.008	.003
진보			-.018	-.012			.031	.019
보수			-.035	-.022			-.073	-.043
중도적			-.871	-.567***			.254	.156***
개방적			-2.027	-.504***			.751	.176***
상수		3083***		3.576***		3.550***		3.287***
R <sup>2</sup>		.069		.478		.016		.078
Adj R <sup>2</sup>		.062		.470		.009		.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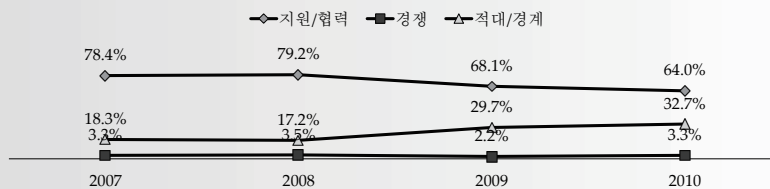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 한국인의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친밀감과 수용성

### 북한 및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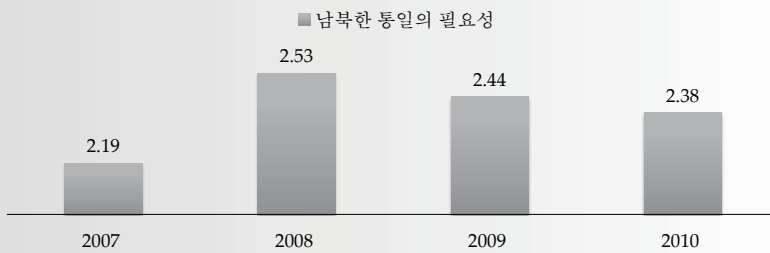
#### • 북한에 대한 인식

- 북한 관련 인식은 북한을 지원/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경쟁 또는 적대/경계 상대로 보는 경우보다 여전히 더 높지만, 2008년 이후 북한에 대한 지원/협력 인식은 점차 감소한 반면, 경쟁 인식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이후 지원/협력 인식은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64.0%까지 낮아진 반면, 경쟁 인식은 2008년 17.2%에서 2010년 32.7%로 15.5% 증가하였으며, 적대/경계 인식은 2008년 3.5%에서 2010년 3.3%로 0.2% 감소하여 2007년 수준과 동일하게 나타남



• 남북통일의 필요성 인식

- 남북통일의 필요성 인식은 2008년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2.53점에서 2010년 2.38점으로 0.15점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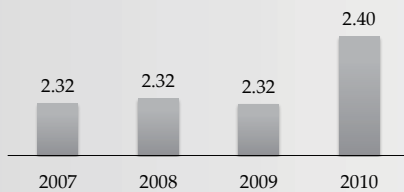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과 수용성 인식의 변화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3점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에 비해 2010년에는 2.40점으로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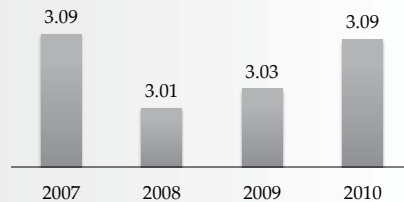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 친근감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 인식

- 2008년 3.01점,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2007년 수준인 3.09점을 회복
- 통일의 필요성은 낮아졌으나 수용성은 다시 증가함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수용성



## 북한이탈 주민의 수용성 회귀분석결과

### • 2007년

-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우호적임
- 연령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부정적임
- 직업별로는 관리직/전문/준전문직에 비해 농·수·축산직, 자영업, 블루칼라 직종이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이 높을수록, 남북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수록,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우호적이고 수용적임

### • 2008년

-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연령에서는 30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우호적이고 수용성이 높음
- 농·수·축산직의 사람들이 2007년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태도로 변화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이 높을수록, 남북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우호적이고 수용적임

### • 2009년

-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에서는 40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수용적임
-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부정적임
- 농·수·축산직과 자영업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수용성이 낮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이 높을수록,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수록 수용적임

### • 2010년

-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소득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수용적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이 높을수록,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긍정적임
- 북한을 지원하고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과 국가자긍심이 강한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우호적임
-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부정적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 회귀분석결과

구분	2007				2008				2009				2010				
	M1(N=1,182)		M2(N=1,174)		M1(N=1,195)		M2(N=1,195)		M1(N=1,194)		M2(N=1,186)		M1(N=1,197)		M2(N=1,197)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성별	남성	.262	.158***	.157	.094**	.263	.147***	.210	.117***	.169	.096**	.130	.074*	.150	.088**	.155	.091**
연령	30대	.023	.012	-.054	-.028	.275	.133***	.166	.081**	.147	.073	.112	.056	.080	.041	-.001	.000
	40대	-.072	-.038	-.169	-.089*	.218	.110*	.075	.038	.344	.171***	.224	.112**	.116	.059	-.025	-.013
학력	50대	-.072	-.037	-.173	-.088*	.180	.086	.034	.016	.177	.085	.042	.020	.099	.049	-.080	-.040
	고졸	.028	.017	.014	.009	-.008	-.004	-.007	-.004	.134	.075	.066	.037	.072	.041	.041	.023
월평균가구소득	대졸이상	.095	.057	.053	.032	-.034	-.019	-.105	-.057	.282	.160*	.152	.087	.156	.091	.043	.025
	200-299만원	-.045	-.025	-.039	-.022	-.053	-.028	.072	.038	-.085	-.044	-.032	-.017	-.059	-.030	-.014	-.007
직업	300-399만원	.001	.001	.001	.020	.010	.093	.047	-.139	-.072	-.067	-.035	.118	.062	.140	.073*	
	400만원이상	.074	.036	.065	.032	-.006	-.002	.102	.044	-.269	-.128**	-.178	-.084*	.121	.064	.140	.074*
북한이탈주민 친밀감	농수축산	.425	.079	.412	.076*	-.544	-.100**	-.405	-.074*	-.411	-.068	-.352	-.059*	-.003	-.001	.112	.021
	자영업	.263	.136**	.212	.110*	-.218	-.094	-.151	-.065	-.359	-.168*	-.252	-.118**	.155	.074	.187	.090
남북통일의 필요성	블루칼라	.202	.097*	.191	.091*	-.100	-.045	-.060	-.027	-.194	-.090*	-.159	-.074	.088	.041	.136	.063
	화이트칼라	.186	.087	.168	.078	-.181	-.081	-.117	-.052	-.179	-.080	-.137	-.062	-.097	-.045	-.007	-.003
보수	전업주부	.160	.077	.169	.081	-.248	-.121*	-.146	-.071	-.208	-.096	-.130	-.060	-.009	-.004	.119	.056
	경제상황만족			.464	.357***			.625	.444***			.499	.377***			.546	.433***
국가자긍심	지원협력			.118	.159***			.078	.106***			.075	.098***			.070	.094**
	경쟁			.069	.034			.061	.028			.094	.050			.114	.064*
국가자긍심	진보			.025	.005			-.049	-.010			-.079	-.013			-.037	-.008
	보수			.125	.065*			.062	.030			-.055	-.027			-.014	-.008
국가자긍심	경제상황만족			.067	.036			-.021	-.011			-.050	-.025			-.070	-.034
	국가자긍심			-.003	-.001			-.143	-.054			.063	.026			-.099	-.054*
상수	상수	2.757***		1.319***		2.910		1.142***		2.922***		1.595***		2.747***		1.141***	
	R <sup>2</sup>	.045		.224		.043		.263		.049		.220		.034		.268	
Adj R <sup>2</sup>	Adj R <sup>2</sup>	.033		.209		.031		.250		.038		.206		.022		.254	

\* p<.05, \*\* p<.01, \*\*\* p<.001

### 결론 및 제언

####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출신 소수자 집단에 대한 문화적 수용성 비교

-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대한 태도
  - 생산직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주여성, 중국동포보다는 높게 평가되었지만 외국인 사업자/투자자, 외국인 유학생,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를 바라는 반면, 자긍심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소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정향별로는 진보는 증가, 중도는 현상유지, 보수는 감소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 이주자에 대한 태도가 국수적이면 감소를 바라고 중도적 또는 개방적이면 증가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 및 이주자 집단에 대한 관계 수용 정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계 수용도는 7점 만점에 4.54점으로 중국동포, 일본인, 동남아인, 중국인에 비해서는 관계 수용에 우호적이지만 미국인이나 유럽인에 비해서는 덜 우호적임
  - 국가에 대한 자긍심 유무에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의 수용도를 보였으나 정치정향과 이주자에 대한 태도는 각각 진보적일수록 개방적일수록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집합적 위협에 대한 인지와 보편적 권리 수용 인식
  - 보편적 권리수용 인식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
  - 집합적 위협 인지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사람들이 더 위협적이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정향은 중도와 보수인 경우가 같은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이주자에 대한 태도는 국수적일수록 더 위협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 증가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대해 여성보다는 남성이, 중졸 이하 보다는 대졸 이상이 긍정적이며,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긍정적인
  -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의 수용성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중졸 이하에 비해 대졸 이상이 긍정적인 반면, 종족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덜 긍정적이며, 이주민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가질수록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함
  - 집합적 위협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크게 느끼며, 고학력일수록, 이주자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가질수록 이주민 증가가 초래할 위협에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함
  - 보편적 권리의 수용에 대해서는 시민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수용을 지지하는 반면, 국적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이주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이며, 이주민에 대해 개방적일수록 보편적 권리 수용에 관용적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과 수용성

- 북한 관련 인식 : 북한을 지원/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경쟁 또는 적대/경계 상대로 보는 경우보다 여전히 더 높지만, 2008년 이후 북한에 대한 지원/협력 인식은 점차 감소한 반면, 경쟁 인식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북통일의 필요성 인식 : 2008년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의 남북통일 필요성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 인식(5점 만점)
  - 2008년 3.01점이었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은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2007년 수준인 3.09 점을 회복함
  - 북한을 지원/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과 남북통일의 필요성은 낮아지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일외식조사에서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2007년
    - 여성에 비해 남성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우호적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부정적임
    - 직업별로는 관리직/전문/준전문직에 비해 농·수·축산직, 자영업, 블루칼라 직종이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이 높을수록, 남북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수록,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우호적이고 수용적임
  - 2008년
    -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연령에서는 30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우호적이고 수용성이 높음
    - 농·수·축산직의 사람들이 2007년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태도로 변화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이 높을수록, 남북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우호적이고 수용적임
  - 2009년
    -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에서는 40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수용적이며,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부정적이며, 직업별로는 농·수·축산직과 자영업자들의 수용성이 낮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이 높을수록,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수록 수용적임
  - 2010년
    -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소득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수용적이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이 높을수록,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긍정적임
    - 북한을 지원하고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과 국가자극성이 강한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우호적이며,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부정적임

#### **연구의 제한점**

- 이상의 실증분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출신 소수자 집단의 문화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가치관이나 태도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
-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여타 태도를 부가적으로 개발해서 가일층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실증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활용성과 기대**

-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인들이 문화적 수용성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경험적으로 밝혀냄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학술적·정책적 논의가 더 확산될 수 있음
- KGSS를 통해 생산된 양질의 사회조사 자료를 ‘통일한국’과 관련된 보다 많은 담론들을 추동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 통일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연구자들의 활용을 기대함



#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 기초문헌연구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책임자)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공동연구원)

## 목 차



- 연구의 목적과 내용
- 세계전략
- 아시아정책
- 한반도정책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변화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동북아 전략, 한반도 전략의 내용을 파악
-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정책 발언,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 미국 내 정책 연구 기관의 연구결과 등을 선별하여 향후 한국 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1차 문헌의 자료를 총괄적으로 정리
- 오바마 행정부 들어 미국의 소위 축소전략(retrenchment) 및 아시아 중시/재균형전략의 내용 변화를 추적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전략 변화 추이를 연구하여 향후 한국의 대미 전략의 방향을 제시

## 미국의 세계전략을 둘러싼 논쟁; 축소전략

- Paul K. MacDonald, Joseph M. Parent의 논문들
- 미국은 과연 쇠퇴하는가? 축소전략을 사용하는가? 등의 질문
- “retrenchment” as a policy of retracting grand strategic commitments in response to a decline in relative power.
- Abstractly, this means decreasing the overall costs of foreign policy by redistributing resources away from peripheral commitments and toward core commitments.
- Concretely, declining great powers select from a wide menu of policy options, but these options may be categorized as economizing expenditures, reducing risks, and shifting burdens.
- 쇠퇴하는 국가로서 미국은 핵심이익만을 보호하면 주변적 이익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다는 가설. 이를 문서로 검증하는 일이 필요함.

## 세계전략

- President Barack Obama'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8, 2014
- You see, in a world of complex threats, our security and leadership depends on all elements of our power – including strong and principled diplomacy. American diplomacy has rallied more than fifty countries to prevent nuclear materials from falling into the wrong hands, and allowed us to reduce our own reliance on Cold War stockpiles.
- 미국의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리더십 유지의 필요성 강조, 더불어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이 미국 패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 지적됨

## 세계전략

- President Barack Obama'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8, 2014
- because of the extraordinary troops and civilians who risk and lay down their lives to keep us free, the United States is more secure. When I took office, nearly 180,000 Americans were serving in Iraq and Afghanistan. Today, all our troops are out of Iraq. More than 60,000 of our troops have already come home from Afghanistan. With Afghan forces now in the lead for their own security, our troops have moved to a support role. Together with our allies, we will complete our mission there by the end of this year, and America's longest war will finally be over.

미국의 가장 큰 해외 파병국으로서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설명.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18만이 이라크 병력 완전 철수, 현재 6만의 아프간 파병 미군이 존재하지만 현재 주력군에서 지원군으로의 성격변화 추진 중

## 세계전략

- President Barack Obama'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8, 2014
- While we have put al Qaeda's core leadership on a path to defeat, the threat has evolved, as al Qaeda affiliates and other extremists take root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 Yemen, Somalia, Iraq, and Mali, we have to keep working with partners to disrupt and disable these networks. In Syria, we'll support the opposition that rejects the agenda of terrorist networks. Here at home, we'll keep strengthening our defenses, and combat new threats like cyberattacks. And as we reform our defense budget, we have to keep faith with our men and women in uniform, and invest in the capabilities they need to succeed in future missions.
- 향후 예멘, 소말리아, 이라크, 말리, 시리아 등지에서 여전히 활약하고 있는 중동의 알카에다 네트워크에 대처하는 것이 향후 미국 외교전략의 핵심적 요건임을 강조.

## 세계전략

- President Barack Obama'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8, 2014
- So, even as we aggressively pursue terrorist networks - through more targeted efforts and by building the capacity of our foreign partners - America must move off a permanent war footing. That's why I've imposed prudent limits on the use of drones - for we will not be safer if people abroad believe we strike within their countries without regard for the consequence. That's why, working with this Congress, I will reform our surveillance programs - because the vital work of our intelligence community depends on public confidence, here and abroad, that the privacy of ordinary people is not being violated. And with the Afghan war ending, this needs to be the year Congress lifts the remaining restrictions on detainee transfers and we close the prison at Guantanamo Bay - because we counter terrorism not just through intelligence and military action, but by remaining true to our Constitutional ideals, and setting an example for the rest of the world.
- 오바마 행정부는 반테러 전쟁 수행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직접 파병 자제, 드론 등의 첨단 무기 사용, 의회와의 협조 하에 군사 전략의 신뢰성 획득 등을 중요한 전략 방향으로 제시함.

## 세계전략

- The White Hou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up>st</sup> Century Defense*, 2012, January
- The demise of Osama bin Laden and the capturing or killing of many of her senior al-Qa.'ida leaders have rendered the group far less capable. However, al-Qa.'ida and its affiliates remain active in Pakistan, Afghanistan, Yemen, Somalia, and elsewhere. More broadly, violent extremists will continue to threaten U.S. interests, allies, partners, and the homeland.
- The primary loci of these threats are South Asia and the Middle East. With the diffusion of destructive technology, these extremists have the potential to pose catastrophic threats that could directly affect our security and prosperity. For the foreseeable future,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take an active approach to countering these threats by monitoring the activities of non-state threats worldwide, working with allies and partners to establish control over ungoverned territories, and directly striking the most dangerous groups and individuals when necessary.*
-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환경 평가를 보여주는 문서. 여전히 잔존하는 알카에다 세력이 주된 관심이며, 남아시아, 중동 등에 존재하는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 적극적 대처가 미국 세계전략의 핵심 과제를 천명

## 세계전략

- The White Hou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up>st</sup> Century Defense*, 2012, January
- Our defense efforts in the Middle East will be aimed at countering violent extremists and destabilizing threats, as well as upholding our commitment to allies and partner states. Of particular concern are the proliferation of ballistic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U.S. policy will emphasize Gulf security, in collaboration with Gulf Cooperation Council countries when appropriate, to prevent Iran.'s development of a nuclear weapon capability and counter its destabilizing policies. The United States will do this while standing up for Israel's security and a comprehensive Middle East peace. *To support these objectives,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place a premium on U.S. and allied military presence in .- and support of .- partner nations in and around this region.*
- 중동 전략의 핵심을 지적한 부분으로 동맹 중시, 대량살상무기 방지, 걸프지역 안보 확보, 이란 핵문제 해결, 이스라엘과 안보 공조, 지속적인 군사력 역할 강조 등이 논의됨.

# 세계전략

- The White Hou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up>st</sup> Century Defense*, 2012, January
- The United States has enduring interests in supporting peace and prosperity in Europe as well as bolstering the strength and vitality of NATO, which is critical to the security of Europe and beyond. Most European countries are now producers of security rather than consumers of it. Combined with the drawdown in Iraq and Afghanistan, this has created a strategic opportunity to rebalance the U.S. military investment in Europe, moving from a focus on current conflicts toward a focus on future capabilities. *In keeping with this evolving strategic landscape, our posture in Europe must also evolve.* As this occurs, the United States will maintain our Article 5 commitments to allied security and promote enhanced capacity and interoperability for coalition operations.
- 유럽 전략으로 나토의 중요성, 유럽이 안보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 향후 유럽의 자립적 안보 능력 확보를 위해 미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 결국 유럽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군사 역할의 축소를 간접적으로 논의

# 세계전략

- Leon E. Panetta, *The Forces of the 21<sup>st</sup> Century*, 2012 December 18
- You see, in a world of complex threats, our security and leadership depends on all elements of our power - including strong and principled diplomacy. American diplomacy has rallied more than fifty countries to prevent nuclear materials from falling into the wrong hands, and allowed us to reduce our own reliance on Cold War stockpiles.
- the goal of our new defense strategy is to help shape the force of the 21st century, to try to adapt our forces and operating concepts so that we are better prepared for an unpredictable and dangerous future, even in an era of constrained resources.
- The first element of the strategy is to build a force that is clearly going to be smaller and leaner. The second element of our defense strategy is to maintain our force projection where we need it, in the Middle East and in the Asia Pacific region. The third element of our strategy is that as we do force projection in the Asia Pacific and in the Middle East, we still have to maintain our global leadership and presence by building innovative partnerships and partner capacity across the globe and using these innovative rotational deployments as a way to do exercises and training with other countries, developing their capabilities so that they can help provide for their own security, in Latin America, in Africa, in Europe and elsewhere. The fourth element of the new defense strategy is that we must always remain capable of being able to confront and defeat aggression from more than one adversary at a time anywhere, anytime. And the fifth element, the last element of our strategy, is that this cannot just be about cutting back on defense. We must also be able to invest in the future, to protect and prioritize key investments in technology and new capabilities, as well as our capacity to grow, to adapt, and to mobilize as needed.
- 미 국방전략의 미래에 관한 요약으로 미국의 지속적 군사 역할을 위해 효율화, 경량화된 전력 유지, 군사력 투자 능력 확대, 아시아, 중동을 넘어선 지구적 군사력 확보, 2개 이상 적의 동시 대처, 미래를 향한 군사력 투자 등을 5대 전략 방향으로 제시함.

# 세계전략

-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10
- 2012 *Army Strategic Planning Guidance*
- • Counterterrorism and Irregular Warfare
- • Deter and Defeat Aggression
- • Project Power Despite Anti-Access/Area Denial Challenges.
- • Count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 Operate Effectively in Cyberspace
- • Operate Effectively in Space
- • Maintain a Safe, Secure, and Effective Nuclear Deterrent
- • Defend the Homeland and Provide Support to Civil Authorities
- • Provide a Stabilizing Presence
- • Conduct Stability and Counterinsurgency Operations
- • Conduct Humanitarian, Disaster Relief, and Other
- 미 국방전략의 보다 세부적인 중점 사항을 볼 수 있는 문서들로, 향후 불특정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 확보를 추구하고 있음.
- 2012 *Army Strategic Planning Guidance*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2030: Alternative Worlds* 등도 참조.

# 세계전략

- The White House, *National Strategy For Global Supply Chain Security*, 2012 January
- Goal 1: Promote the Efficient and Secure Movement of Goods
- Goal 2: Foster a Resilient Supply Chain
- Galvanize Action – Integrate and spur efforts acros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s well as with state, local, tribal and territorial governments, the private sector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Manage Supply Chain Risk – Identify, assess, and prioritize efforts to manage risk by utilizing layered defenses, and adapting our security posture according to the changing security and operational environment.
- 미국은 군사비 축소 및 패권 약화에 대한 국제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공공재 생산 능력을 여전히 중시하며 대표적으로 지구적 공급망의 안전 확보를 중시. 이를 통해 세계의 국가들에게 미국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추구함.
- CRS Report for Congress, Robert Pirog, *Natural Gas in the U.S. Economy: Opportunities for Growth*, 2012, Nov.; US Trade Promotion Coordinating Committee, *2012 National Export Strategy: Powering the National Export Initiative*, 2012 December 도 참조.

## 세계전략

- CRS Report for Congress, Christopher M. Blanchard, *Change in the Middle East: Implications for U.S. Policy*, March 7, 2012
- CRS Report for Congress, Robert Pirog, *Natural Gas in the U.S. Economy: Opportunities for Growth*, 2012, Nov.
- Richard L. Kugler, *New Directions in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Defense Plans, and Diplomacy: A Review of Official Strategic Documents*,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Centre for Technology and National Security Policy
- CRS Report for Congress, Amy F. Woolf, *US Strategic Nuclear Forces: Background, Development, and Issues*, 2013, Jan.
-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David W. Barno, *Sustainable Pre-eminence: Reforming the US Military as a Time of Strategic Change*, 2012, May
-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Richard Fontaine, *America's Path: Grand Strategy for the Next Administration*, 2012, May
- 미국의 의회 및 정부 관련 싱크탱크 문서들도 미국의 대전략 개념에 대한 내용을 보여줌.
-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미국 대전략 목적으로는 본토에 대한 핵테러 방지/비확산/ 나토 및 동아시아 동맹망 유지/ 지구적 원유공급망 안전 확보/ 개방적 국제무역질서 유지/ 인권, 민주주의, 법치 확산/ 기후 변화 대처 및 국제제도 확보 등임.

## 아시아

- 배경
- 아시아 중시(Pivot, Rebalancing)
- 동맹정책
- 대중국 정책
- 다자외교
- 경제협력

## 아시아: 배경

- 초기
  - 중동에서의 시급한 반테러 전쟁과 아시아의 장기적 부상
  - 반테러 전쟁 수행을 위해 중국과의 공생 및 협력 강조
- 후기
  - “미국 역사상 양자관계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중요한 관계” - 클린턴
  -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심 강화
  - 중국의 부상을 환영 그러나 여기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 요구
  - 향후 미국의 국방비 삭감에도 아시아 지역의 전력과 투자는 계속 유 (신국방전략보고서: DSR 2012)
  - 기존 동맹국 (한국,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태국) 과 협력강화
  -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과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 아시아: PIVOT

- Barack Obama, “Renewing American Leadership,” Foreign Affairs, Vol. 86, No. 4 (July/August 2007), p. 12
- 후보시절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시아는 일차적인 고려의 대상이 아님. 이라크 전쟁을 조기에 정리하고, 미국의 군사력을 보강하며,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할 것과 이를 위해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로 인해 손상된 동맹의 회복과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 아시아는 이중 동맹의 재건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하면서 양자동맹을 넘어서는 새로운 다자적 협력체를 형성할 것을 제시. 중국과는 기존 부시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여 성장하는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과 미중 간 경쟁과 협력의 복합적인 모습을 강조.
- “As China rises and Japan and South Korea assert themselves, I will work to forge a more effective framework in Asia that goes beyond bilateral agreements, occasional summits, and ad hoc arrangements, such as the six-party talks on North Korea. We need an inclusive infrastructure with the countries in East Asia that can promote stability and prosperity and help confront transnational threats, from terrorist cells in the Philippines to avian flu in Indonesia. I will also encourage China to play a responsible role as a growing power -- to help lead in addressing the common problems of the twenty-first century. We will compete with China in some areas and cooperate in others.”

# 아시아: PIVOT

- Hillary Rodham Clinton, "Remarks on Regional Architecture in Asia: Principles and Priorities," Imin Center-Jefferson Hall, Honolulu, Hawaii (January 12, 2010),
- 오바마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이 된 힐러리 클린턴은 첫 해외 순방지로 아시아의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을 방문하고 2010년 미국은 아시아 중시정책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
- 클린턴 장관은 1월 12일 하와이 동서센터에서 행한 연설에서 아시아가 미국 대외전략의 중심으로 옹아오고 있음을 천명하고 이와 관련한 대아시아 개입의 5원칙을 천명: 1) 동맹이 아시아 연계의 기초가 될 것임 2) 지역제도가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안보와 안정의 진작, 경제적 기회와 성장의 확대,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작에 기여해야 함 3) 지역건축이 효과적이고 결과를 도출해야함 4) 목표를 추구함에서 유연한 접근 5) 어떠한 지역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결정: APEC, EAS
- "By now - almost a year into the new Administration - it should be clear that the Asia-Pacific relationship is a priority of the United States.. We start from a simple premise: America's future is linked to the future of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future of this region depends on America. The United States has a strong interest in continuing its tradition of economic and strategic leadership, and Asia has a strong interest in the United States remaining a dynamic economic partner and a stabilizing military influence."

# 아시아: PIVOT

- Kurt Campbell, "Principles of U.S.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Testimony, Before the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January 21, 2010)
- 커트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은 아시아전략의 5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1) 동맹과 양자관계가 중심 2) 공동의 경제 안보 아젠다 설정 3)결과 중심의 협력 4) 다자협력의 유연성과 창조성 5) 미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의 주요한 협력체 건설
- "In her January 12 speech in Honolulu, Secretary Clinton detailed the five principles for how we view the Asia-Pacific architecture and U.S. involvement evolving. These include the foundation of the U.S. alliance system and bilateral partnerships, building a common regional economic and security agenda, the importance of result-oriented cooperation, the need to enhance the flexibility and creativity of our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the principle that the Asia-Pacific's defining institutions will include all the key stakehold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 아시아: PIVOT

- Robert Gates, "Remarks by Secretary Gates at the Shangri-La Dialogue,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Singapore (June 03, 2011),
- 게이츠 국방장관도 상그리라 회의에서 아시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미국의 예산감축에도 아시아에 대한 투자와 군비강화는 지속될 것임을 역설
- "I am confident that these key remaining modernization programs - systems that are of particular importance to our military strategy in Asia - will rank at or near the top of our defense budget priorities in the future. Many of those key modernization programs would address one of the principal security challenges we see growing over the horizon: The prospect that new and disruptive technologies and weapons could be employed to deny U.S. forces access to key sea routes and lines of communication. The U.S. Navy and Air Force have been concerned about anti-access and are a denial scenarios for some time. These two military services are working together to develop a new concept of operations - called "Air-Sea Battle" - to ensure that America's military will continue to be able to deploy, move, and strike over great distances in defense of our allies and vital interests."

## 아시아: PIVOT

-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Magazine* (October 11, 2011),
- 힐러리 장관은 2011년 10월 지난 60년간 유럽중심외교에서 앞으로 60년간은 아시아 중심외교로 바뀔것을 천명하며 6원칙을 발표 : 1) 역사적 양자동맹 강화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2)중국을 포함한 신흥 국가와의 협력 강화 3)지역 다자기구와의 교류 확대 4)무역 및 투자 증대 5)포괄적인(broad-based) 미군 배치 (military presence) 6)민주주의와 인권 증대
- "Our work will proceed along six key lines of action: strengthening bilateral security alliances; deepening our working relationship with emerging powers, including with China; engaging with regional multilateral institutions; expanding trade and investment; forging a broad-based military presence; and advanc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 As we move forward to set the stage for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over the next 60 years, we are mindful of the bipartisan legacy that has shaped our engagement for the past 60. And we are focused on the steps we have to take at home -- increasing our savings, reforming our financial systems, relying less on borrowing, overcoming partisan division -- to secure and sustain our leadership abroad. This kind of pivot is not easy, but we have paved the way for it over the past two-and-a-half years, and we are committed to seeing it through as among the most important diplomatic efforts of our time."

# 아시아: PIVOT

- Barack Obama, "Remarks By President Obama to the Australian Parliament," Parliament House, Canberra, Australia (November 17, 2011),
-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1월 호주 방문에서 국방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에 더욱 많은 군사력을 강화할 것을 천명
- "As we end today's wars, I have directed my national security team to make our presence and mission in the Asia Pacific a top priority. As a result, reductions in U.S. defense spending will not – I repeat, will not – come at the expense of the Asia Pacific. My guidance is clear. As we plan and budget for the future, we will allocate the resources necessary to maintain our strong military presence in this region. We will preserve our unique ability to project power and deter threats to peace. We will keep our commitments, including our treaty obligations to allies like Australia. And we will constantly strengthen our capabilities to meet the needs of the 21st century. Our enduring interests in the region demand our enduring presence in the region. The United States is a Pacific power, and we are here to stay. Indeed, we are already modernizing America's defense posture across the Asia Pacific. It will be more broadly distributed – maintaining our strong presence in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while enhancing our presence in Southeast Asia. Our posture will be more flexible – with new capabilities to ensure that our forces can operate freely. And our posture will be more sustainable, by helping allies and partners build their capacity, with more training and exercises"

# 아시아: PIVOT

- Leon E. Panetta, "Submitted Statement -- Senate Budget Committee (Budget Request)," Capitol Hill, Washington D.C. (February 28, 2012)
- 신임 파네타 국방장관은 2012년 예산 요청에서 아시아 중시 전략을 재균형으로 표현하며 아태지역에서 전략폭격기, 항공모함과 전투기 전단, 대형 상륙함, 육군과 해병대 재배치 등 이지역 군사력 유지, 강화를 천명
- Rebalance global posture and presence to emphasize Asia-Pacific and the Middle East. The strategic guidance made clear that we must protect capabilities needed to project power in Asia-Pacific and the Middle East. To this end, this budget: 1) Maintains the current bomber fleet; 2) Maintains the aircraft carrier fleet at a long-term level of 11 ships and 10 aircraft wings; 3) Maintains the big-deck amphibious fleet; 4) Restores Army and Marine Corps force structure in the Pacific after the drawdown from Iraq and as we drawdown in Afghanistan, while maintaining a strong presence in the Middle East.

## 아시아: PIVOT

- Leon E. Panetta, Shangri-La Security Dialogue, As Delivered by Secretary of Defense Leon E. Panetta, Shangri-La Hotel, Singapore, (June 02 2012),
- 파네타 장관은 2012년 6월 상그리라 회의에서 향후 5년간 태평양 함대를 현대화 하면서 6척의 항공모함을 포함 2020년까지 유럽과 비교하여 해군력을 50/50에서 60/40으로 재배치 할 것을 밝힘
- “over the next five years we will retire older Navy ships, but we will replace them with more than 40 far more capable and technologically advanced ships. Over the next few years we will increase the number and the size of our exercises in the Pacific. We will also increase and more widely distribute our port visits, including in the important Indian Ocean region. And by 2020 the Navy will reposition its forces from today’s roughly 50/50 percent split between the Pacific and the Atlantic to about a 60/40 split between those oceans. That will include six aircraft carriers in this region, a majority of our cruisers, destroyers, Littoral Combat Ships, and submarines.”

## 아시아: PIVOT

- Susan E. Rice, “America’s Future in Asia” As Prepared for Delivery, Georgetown University, Gaston Hall, Washington, D.C. (November 20, 2013),
- 오바마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이 된 수잔 라이스는 아시아 중시정책 오바마 행정부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남을 것임을 밝힘
- “Thus, rebalancing toward the Asia Pacific remains a cornerstone one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No matter how many hotspots emerge elsewhere, we will continue to deepen our enduring commitment to this critical region.”

## 아시아: 동맹정책

- Hillary Clinton, “Remarks on Regional Architecture in Asia: Principles and Priorities,” Imin Center-Jefferson Hall, Honolulu, Hawaii (January 12, 2010)
- 힐러리 장관은 일본, 한국, 호주, 태국, 필리핀을 중심한 역사적 양자 동맹이 미국 아시아 중시 정책의 첫번째 핵심 원칙임을 밝힘.
- “First, the United States’ alliance relationships are the cornerstone of our regional involvement. The United States’ alliances with Japan, South Korea, Australia,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are among the most successful bilateral partnerships in modern history. The security and stability provided through these relationships have been critical to the region’s success and development. Our shared values and strategic interests enabled generations to grow up and prosper in a region largely at peace, and they remain key to maintaining stability and security. Our commitment to our bilateral relationships is entirely consistent with – and will enhance – Asia’s multilateral groupings.”

## 아시아: 동맹정책

- Robert Gates, “Remarks as Delivered by Secretary of Defense Robert M. Gate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Shangri-La—Asia Security), Shangri-La Hotel, Singapore (June 05, 2010)
- 게이츠 국방장관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 주둔이 지리적으로 보다 분산되고, 더욱 탄력적인 작전이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3원칙에 의해 전개될 것을 천명
- “the U.S. defense posture in Asia is shifting to one that is more geographically distributed, operationally resilient, and politically sustainable.”

## 아시아: 동맹정책

- Leon E. Panetta, Shangri-La Security Dialogue, As Delivered by Secretary of Defense Leon E. Panetta, Shangri-La Hotel, Singapore,
- 일본과의 동맹은 21세기에도 미국 동맹정책의 기초가 될 것이며 특히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으로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추구하며 괌이 서태평양 미국의 허브역할을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임
- the United States-Japan alliance will remain one of the cornerstones for regional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21st century... In the past several months we have strengthened the alliance and our broader strategic objectives in the region with a revised plan to relocate Marines from Okinawa to Guam. This plan will make the U.S. presence in Okinawa more politically sustainable, and it will help further develop Guam as a strategic hub for the United States military in the Western Pacific, improving our ability to respond to a wide range of contingenc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 아시아: 동맹정책

- Susan E. Rice, "America's Future in Asia" As Prepared for Delivery, Georgetown University, Gaston Hall, Washington, D.C. (November 20, 2013)
- 수잔 라이스 국무장관에 의하면 호주와는 다윈에 해병대를 순환배치하기로 하였으며, 태국 및 필리핀과는 해상안보와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맹국들간에 3자 협력강화 노력을 하고 있음
- "With Australia, we are bringing our militaries closer by rotating Marine s through Darwin and deepening cooperation in newer areas like missile defense and space and cyber security. And, we're doing more with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to address maritime security and disaster response. To diversify the network of security relationships in the region, we are strengthening trilateral cooperation with our allies and our security partners and encouraging them to cooperate more closely among themselves."

## 아시아: 대중국정책

- Kurt Campbell in *The Power of Balance: America in Asia* (CNAS)
- 오바마 행정부 초기부터 대중국 정책의 핵심을 경쟁 관계보다는 서로 공동의 이해를 기초로 상생하는 관계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
- “A balance of power perspective would see a zero-sum competition between states based largely on military power, and attempt to maintain strong coalition of states to balance a rising China. In contrast, a power of balance perspective is cognizant that the state is now just one of many actors in the int’l system, and sees many win-win situations in diplomacy and trade”

## 아시아: 대중국정책

- APEC Hilary Clinton, “U.S.-Asia Relations: Indispensable to Our Future,” Remarks at the Asia Society, New York, (February 13, 2009)
- 클린턴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이전의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넘어, 중국의 성장이 미국에 위협이라는 견해를 일축하고 양자간의 공동 관심과 기회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의 관계를 추구하는 중국과의 긍정적 관계 설정이 미국의 미래 평화와 번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
- “Now, some believe that China on the rise is, by definition, an adversary. To the contrary, we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an benefit from and contribute to each other’s successes. It is in our interest to work harder to build on areas of common concern and shared opportunities. China has already asserted itself in positive ways as chair of the Six-Party Talks and in it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eacekeeping efforts. And our two countries, I’m happy to say, will resume mid-level military-to-military discussions later this month. And we look forward to further improved rela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 Even with our differences, the United States will remain committed to pursuing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hina, one that we believe is essential to America’s future peace, progress, and prosperity.”

## 아시아: 대중국정책

- Barack Obama,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Ronald Reagan Building and International Trade Center Washington, D.C., (July 27, 2009)
- 2010년 7월에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양국 외무/재무 장관간의 4자 전략대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미중간의 양자관계가 21세기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로 규정하면서, 양국과 세계의 공동번영을 위해 첫째, 경제, 둘째, 에너지, 셋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넷째, 과학분자, 해적, 전염병 등을 포함한 초국경 위협 대처 등의 분야에서 함께 협력할 것을 제시한다. 특히 오바마는 미중 양국내에 서로에 대한 대중국 봉쇄론과 중국위협론의 불신이 있음을 적시하면서 이를 불식시키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중국의 부상과 번영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밝은 미래를 건설할 것을 제시한다.
- "Let us be honest: We know that some are wary of the future. Some in China think that America will try to contain China's ambitions; some in America think that there is something to fear in a rising China. I take a different view. And I believe President Hu takes a different view, as well. I believe in a future where China is a strong, prosperous and successful member of the community of nations; a future when our nations are partners out of necessity, but also out of opportunity. This future is not fixed, but it is a destination that can be reached if we pursue a sustained dialogue like the one that you will commence today, and act on what we hear and what we learn."

## 아시아: 대중국정책

- Robert Gates, "A Balanced Strategy: Reprogramming the Pentagon for a New Age," *Foreign Affairs*, Vol. 88, No. 1
-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2009년 포린 어페어지에 미국의 21세기 국방정책에 대해 기고한 글에서 여러 비전통 위협의 등장과 더불어 중국의 사이버전, 대위성 전략, 대공/대함 무기, 잠수함 및 탄도 투사 능력에 주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
- "In the case of China, Beijing's investments in cyberwarfare, anti satellite warfare, anti aircraft and antiship weaponry, submarines, and ballistic missiles could threaten the United States' primary means to project its power and help its allies in the Pacific: base s, air and sea assets, and the networks that support them. This will put a premium on the United States' ability to strike from over the horizon and employ missile defenses and will require shifts from short-range to longer-range systems, such as the next-generation bomber."

## 아시아: 대중국정책

- Hillary Clinton, "Inaugural Richard C. Holbrooke Lecture on a Broad Vision of U.S.-Chin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Benjamin Franklin Room, Washington, DC (January 14, 2011)
- 힐러리 장관은 21세기 미중관계의 3요소로 아태지역차원에서의 신뢰와, 미중양자간 신뢰,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 공동노력을 제시. 동시에 가장 중요한 현안의 하나로 북핵문제 해결에 함께 협력할 것을 제시
- "As we build on our record of the past two years and shape the future of our relationship, the Obama Administration is pursuing a strategy with three elements that all reinforce one another. We are practicing robust regional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we are working to build trust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we are committed to expanding economic,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wherever possible... The second element of our strategy is to focus on building bilateral trust with China... The third element of our strategy is expanding our work together, along with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dress these shared challenges. Global recession, nuclear proliferation, terrorism, piracy on the high seas - these are threats that affect all of us, including China"

## 아시아: 대중국정책

- Leon E. Panetta, "Secretary Panetta Delivers Remarks to the Engineering Academy of Armored Forces in Beijing," China (September 19, 2012)
- 파네타 국방장관은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며 건설적인 군사관계를 바탕으로 두 태평양 세력간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
- Our rebalance to the Asia-Pacific region is not an attempt to contain China. It is an attempt to engage China and expand its role in the Pacific. It's about creating a new model in the relationship of our two Pacific powers. It's about renewing and revitalizing our role in a part of the world that is rapidly becoming more critical to our economic, diplomatic, and security interests. And as I've made clear, essential to all of these goals -- essential to these goals is a constructive military-to-military relationship with China

## 아시아: 대중국정책

-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Press Briefing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Tom Donilon," Westin Mission Hills, Palm Springs, California (June 8, 2013)
- Obama-Xi 정상회담 (2013년6월7,8일)
- 이제까지와는 다른 정상회담: 시간, 형식, 기간, 미중간 신형강대국 관계 형성: 협력과 공존, 포괄적 의제: 경제, 환경, 사이버, 군사협력; 동아시아: 북핵 (비핵화)과 영토문제 (여전한 온도차?)
- "So the setting, the style, the length of discussion, the breadth of the issues discussed, and the timing I think all underscore the point that this is an important and unique meeting between the U.S. President and the leader of China. And again, I think if you go back through and do a careful study of the encounters between the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I think that really does become quite clear... We have, from the outset of the second term, undertaken to, in a deliberate and purposeful way, engage with the leadership of -- the new leadership of China... So again, we've had a purposeful and deliberate effort to engage with the leadership of China and to work on this relationship as we go into our second term."

## 아시아: 대중국정책

- Susan E. Rice, "America's Future in Asia" As Prepared for Delivery, Georgetown University, Gaston Hall, Washington, D.C. (November 20, 2013)
- 라이스 국무장관은 미중간 신형 강대국 관계 수립을 위해 경쟁을 관리하고 공동의 이해에 깊은 협력관계를 수립할 것을 제시;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 이란핵문제, 수단분쟁 등에 협력할 것과 이를 위해 대해적 작전이나 해양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시
- When it comes to China, we seek to operationalize a new model of major power relations. That means managing inevitable competition while forging deeper cooperation on issues where our interests converge—in Asia and beyond. We both seek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Iranian nuclear issue, a stable and secure Afghanistan, and an end to conflict in Sudan. There are opportunities for us to take concerted action to bolster peace and development in places like sub-Saharan Africa, where sustainable growth would deliver lasting benefit to the peoples of Africa as well as to both our countries. We're improving the quality of our military-to-military relationship with China, as we enhance our strategic security dialogues and cooperate on issues like counter-piracy and maritime security. Greater military engagement and transparency can help us manage the realities of mistrust and competition, while augmenting the high-level communication that has been a hallmark of this Administration's approach to China.

## 아시아: 다자외교

- Kurt Campbell, "Principles of U.S.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Testimony, Before the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January 21, 2010)
- 미국은 다자외교를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동문제와 초국경 위협을 대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을 것이며 APEC이나 ASEAN, ARF 등의 역할을 주시함
- Strong, multilateral links to Asia can help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remains a critical part of this dynamic region. Multilateral engagement can be an effective way to address our efforts to deal with transnational security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pandemics, or environmental degradation. For example, steps taken by APEC and ASEAN to improve cooperation among reg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ies is an important step in light of the spate of recent natural disasters that have battered the region. Multilateral efforts are also proving effective in addressing new transnational threats such as terrorism, piracy that threatens our sea lanes, and traffickers who exploit women, children, laborers, and migrants.

## 아시아: 다자외교

- Hillary Clinton, "Intervention at the East Asia Summit," Hanoi, Vietnam, (October 30, 2010)
- 힐러리 장관은 미국이 EAS와 같은 다자회의에 깊은 관여를 할 것 2) ASEAN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3) EAS가 보다 중요한 안보문제를 논의할 것 4) 다른 다자회의와 유기적으로 상호보완할 것을 제시 5) 다자협약의 양자 관계와 상호 보완될 것
- First, we are making an enduring commitment to this institution. Second, as the EAS evolves, we believe that ASEAN should continue to play a central role. Its leadership is essential to greater cooperation across the region, and its members can help this institution translate dialogue into results that benefit all our peoples. We view ASEAN as a fulcrum for the region's emerging regional architecture. Third, given its membership and its growing stature, we believe that the EAS should pursue an active agenda that involves the most consequential issues of our time—including nuclear proliferation, the increase in conventional arms, maritime security, climate change, and the promotion of shared values and civil society. Fourth, we believe that the discussions in this forum should complement and reinforce the work being done in other forums. There are many regional institutions in the Asia-Pacific, including the EAS,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ASEAN Regional Forum, and the ASEAN Defense Ministerial Meeting. Finally, as we engage with the EAS and other institutions, we will continue to leverage the strength of our bilateral relationships, starting with our alliances.

## 아시아: 경제협력

-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Magazine* (October 11, 2011)
- 힐러리 장관은 환태평양파트너십 (TPP)을 통해 노동자와 환경, 지적재산권 등을 보호하는 높은 수준을 다자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아태지역의 보다 광범위한 자유무역체제를 창출하기를 희망
- We are also making progress o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which will bring together economies from across the Pacific -- developed and developing alike -- into a single trading community. Our goal is to create not just more growth, but better growth. We believe trade agreements need to include strong protections for workers, the environment,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They should also promote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spread of green technology, as well as the coherence of our regulatory system and the efficiency of supply chains... Our hope is that a TPP agreement with high standards can serve as a benchmark for future agreements -- and grow to serve as a platform for broader regional interaction and eventually a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 한반도: 한미동맹

- Robert Gates, "Remarks as Delivered by Secretary of Defense Robert M. Gate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Shangri-La—Asia Security), Shangri-La Hotel, Singapore (June 05, 2010)
- 게이츠 장관은 천안함 피격에 대해 북한의 소행임을 분명히 밝히고 합동 훈련과 유엔안보리 공조 등을 통해 한국정부에 대한 지지의사를 확고히 밝힘
- On the other hand, we all face the reality of North Korea, which continues to undermine the peace and stability of Asia. As you know, on March 26th, North Korea, in an unprovoked attack, sank the Cheonan – a South Korean ship patrolling South Korean territorial waters – and in so doing killed 46 South Korean sailors. This sinking is far more than a single, isolated incident – with tragic results for the sailors and their families. It is, rather, part of a larger pattern of provocative and reckless behavior. ..My government has offered full support of our ally in this difficult hour. We will conduct combined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and support action i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t the same time, we are assessing additional options to hold North Korea accountable.

## 한반도: 한미동맹

- Hillary Clinton, "America's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Kahala Hotel, Honolulu, HI, (October 28, 2010)
- 힐러리 장관은 한미동맹을 미국의 지역안보 전략의 핵심고리로 표현하며 한반도를 넘어서 아프카니스탄과 대해적 작전, G-20, 한미자유무역협정 등을 그 사례로 적시
-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a lynchpin of stability and security in the region and now even far beyond. We are working together in Afghanistan, where a South Korean reconstruction team is at work in Parwan Province; in the Gulf of Aden, where Korean and U.S. forces are coordinating anti-piracy missions. And of course, beyond our military cooperation, our countries enjoy a vibrant economic relationship, which is why our two Presidents have called for resolving the outstanding issues related to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by the time of the G-20 meeting in Seoul.

## 한반도: 한미동맹

- Leon E. Panetta, Shangri-La Security Dialogue, As Delivered by Secretary of Defense Leon E. Panetta, Shangri-La Hotel, Singapore, (June 02 2012)
- 파네타 장관도 한미동맹을 미국 아태지역 동맹 중 일본과 더불어 핵심고리로 지칭하며 지구적 도전을 함께 해결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환 할 것을 제시
- "Another linchpin of our Asia-Pacific security is the U.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a year of transition and provo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alliance has been indispensable, and I have made it a priority to strengthen it for the future. To that end, even as the United States reduces the overall size of its ground forces in the coming years in a transitional way over a five-year period, we will maintain the United States Army's significant presence in Korea. We are also boosting our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haring with the Republic of Korea, standing firm against hostile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 while transforming the alliance with new capabilities to meet global challenges."

## 한반도: 북핵문제

- Hillary Clinton, Remarks with Japanese Foreign Minister Seiji Maehara and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Kim Sung-hwan, Washington, DC (December 6, 2010)
- 힐러리 장관은 북한에 대해 미국의 대화의지를 밝히면서 동시에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며 따라서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과 2005년 공동선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
- “The path to a better relationship and a secure and prosperous future is still open to North Korea if it makes the right choices. We remain committed to seeking opportunities for dialogue. But we will not reward North Korea for shattering the peace or defy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trilateral meeting reaffirmed the steps that North Korea must take in order for a resumption of Six-Party Talks to produce results. North Korea must improve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cease its provocative behavior. North Korea must als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take concrete steps to implement its denuclearization commitments under the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 한반도: 북핵문제

- Kurt Campbell,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Remarks at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Washington, DC (March 1, 2011)
- 커트 캠프 차관보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미중 양국이 이를 위해 협력할 것을 강조
- “The President also expressed appreciation for China’s role in reduc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but underscored the need for China to leverage its uniqu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o compel Pyongyang to abide by its commitment to the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 as well as its obligations under UNSCR 1718 and 1874. Both leaders agreed that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our paramount goal and that North Korea must avoid further provocations.”

## 한반도: 북핵문제

- Susan E. Rice, "America's Future in Asia" As Prepared for Delivery, Georgetown University, Gaston Hall, Washington, D.C. (November 20, 2013)
- 라이스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열려있지만 북한의 기만에는 속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중국과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시 강조
- "Consequently, one of our most pressing security goals is to roll back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other WMD programs. To that end, we are prepared for negotiations, provided that they are authentic and credible, get at the entirety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 and result in concrete and irreversibl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Pyongyang's attempts to engage in dialogue while keeping critical elements of its weapons programs running are unacceptable, and they will not succeed. We will continue to join with international partners, especially China, to increase pressure on North Korea to denuclearize."

## 한반도: 통일

- Barack Obama, "Remarks by President Obama at Hankuk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March 26, 2012)
- 오바마 대통령은 언젠가 한반도의 통일이 반드시 올 것을 기약하며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상을 제시
- " Looking out across the DMZ yesterday, but also looking into your eyes today, I'm reminded of another country's experience that speaks to the change that is possible in our world. After a terrible war, a proud people was divided. Across a fortified border, armies massed, ready for war. For decades, it was hard to imagine a different future. But the forces of history and hopes of man could not be denied. And today, the people of Germany are whole again -- united and free. No two places follow the same path, but this much is true: The currents of history cannot be held back forever. The deep longing for freedom and dignity will not go away. (Applause.) So, too, on this divided peninsula. The day all Koreans yearn for will not come easily or without great sacrifice. But make no mistake, it will come. (Applause.) And when it does, change will unfold that once seemed impossible. And checkpoints will open and watchtowers will stand empty, and families long separated will finally be reunited. And the Korean people, at long last, will be whole and free"

# 중국 대북한 거래기업 분석

-중국 현지설문조사를 중심으로-

2014. 2. 25.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 발표순서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 북중경협에서 단동의 위상
3. 단동의 대북경협 제도
4. 단동의 대북경협 인프라
5. 단동 기업설문조사 분석과 평가

# 1. 연구 배경

## 북중경협의 행위자인 중국기업과 배경이 되는 경협제도 연구 부족

- 북한경제에서 북중경협의 갖는 중요성이 증대
  - 2012년 기준으로 북한무역액 87억 불 중 중국 비중 68.5%인 60억 불
  - 2011년 중국 상무국 발표 대북투자액 5천 5백만 불, 전년대비 5배 증가
- 국내연구는 대부분 거시적 추세 파악 수준, 핵심 행위자인 중국기업 연구 부족
  - 중국 공식통계, 언론보도자료, 단기 인터뷰 조사 등에 주로 의존
  - 총량 데이터 이면에는 다양한 이질적 기업그룹과 북중 사업관계망 존재
- 또한, 최근 변화된 북중경제관계의 제도에 대한 분석이 미흡
  - 최근 북중 무역, 북한 인력진출과 관련된 제도의 상당한 변화가 관찰
  - 기존연구는 2000년대 초반 국내 문헌을 재인용하는 수준에서 제도 분석

3

# 1. 선행연구 검토

## 1. 집계자료를 바탕으로 북중관계 전반 현황과 특징 분석한 연구

- 조명철 외(2005): 무역, 투자, 원조 통계로 대중국 의존도 추이 설명, 165명 탈북자 설문 조사를 통해 북한 내부 생산, 유통, 수출, 금융 전반의 대중의존 현상 설명
- 이영훈 (2006): 북중무역의 증가는 2000년 북한 경제성장률 3.5% 이상 증가시킴, 북중무역 증가 없이는 마이너스 성장 지속 주장
- 고일동 외(2008): 북중간 거래가격의 패턴 분석을 통해, 거래가격은 우호가격과 같은 정책적 배려보다는 상업적 동기에 의해 결정됨을 보고함. 또한 제재로 인한 북일무역의 감소는 북중무역의 증가보다는 남북교역으로 대체됨을 주장

## 2. 기업 측면에서 북중경제관계 분석한 연구

- 이종운 외 (2013): 접경지역 중국기업, 관료 인터뷰 자료를 근거, 북중거래는 현금, 현물거래 위주이며, 대북투자는 자재를 공급 후, 현물로 상환 받는 방식이 주를 이룸
- Haggard et al (2011,2012): 2007년에 실시된 지린성, 랴오닝 성 대북거래기업 250개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함.
  - Haggard et al (2011) 소규모, 민간기업일수록 대북사업 진입확률이 높고, 투자기업인 경우 회사가 크고, 분쟁해결을 북한 정부를 통한 수록 진입확률 높음.
  - Haggard et al (2012) 결제기간을 신뢰의 척도로 보고, 신뢰기간의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북중국영기업간 거래, 긴 거래기간, 북한 사업파트너를 직접 찾는 경우 등이 신뢰에 양의 영향을 줌.

4

## 2. 북중경협에서 있어 단동의 위상1

■ **무역량** 북중 무역액 중 30~40%가 단동의 대북무역액

■ 지린성 연변자치주에 비해 3~24%까지 무역량의 우의를 나타냄.

- 단동 입지적 장점으로 인한 보세, 변경무역의 거점, 배후 시장의 차이에서 기인

연도	북중무역액	연변자치주		단동시	
		대북무역액	비중	대북무역액	비중
2005	15.8	2.6	16%	6.3	40%
2006	17.0	2.7	16%	4.6	27%
2007	19.7	2.8	14%	6.0	30%
2008	27.9	6.8	24%	7.6*	27%
2009	26.3	5.1	19%		
2010	34.7			10.0**	29%
2011	56.3			18.6***	33%

5

## 2. 북중경협에서 있어 단동의 위상2

■ **물동량** 북중 수출입 물동량기준으로 60~70% 경유

■ 육로(철도, 도로), 수로(해항, 하항), 관로 통상구를 모두 보유한 유일한 접경도시

- 북중 전체물동량 500~600만 톤 중 300~400만 톤 단동 경유 추정

통상구 이름	종류	북한 세관	화물 물동량(만 톤)			
			2008	2009	2010	2011
단동(丹东)	도로	신의주	37.4	53.0	46.6	60.6
	철로		63.2	41.9	30.6	46.3
	관도		52.8	51.9	52.5	52.9
	항구		422.5	426.7	454.5	580.8
난핑(南坪)	도로	무산	86.0	68.0	53.1	44.1
취엔허(圈河)	도로	원정	18.5	18.7	12.2	19.6

6

### 3. 단둥 대북경협 제도특징

- 일반(원유 제외), 변경, 보세 무역의 비중이 20% 내외로 비슷
  - 일반무역 중 50만 톤의 원유 수입액 1.9억 달러를 제외하면, 일반, 변경, 보세무역 비중이 20% 내외로 비슷함
  - 따라서, 이 세 가지 무역방식 중 단둥 지역에서 특히 중요한 '변경무역'과 '보세무역' 중심으로 무역제도의 특징을 설명

<표2-5> 단둥 통상구의 무역 방식별 비중

무역방식	2005년* (대북 무역통계)	
	무역액 (억 달러)	비중 (%)
일반무역	4.3	52.4
변경(소액)무역	2.1	26.5
보세무역	1.3	15.9
가공무역	0.2	1.9

7

### 3. 단둥 대북경협 제도: 변경무역

#### ■ 변경무역

- 정의: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이 낙후된 변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정 지역에 한해 특혜를 부여하는 중국만의 특수한 무역방식
- 일반무역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세제상 혜택이었으나, 최근 관련 제도 폐지
  - > 2008년 재정부가 발표한 '변경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 및 세수정책 관련 통지(关于促进边境贸易发展有关财税政策的通知): 세제혜택 폐지-> 중국 WTO 가입에 따른 정책변화
- 변경무역의 여전히 북중무역의 20%이상의 점유하는 이유: 수출쿼터의 우선권
  - > 변경무역 주요수출품인 밀가루, 쌀 등은 수출 시 쿼터 허가증이 필요한 물품

<중국의 대북한 일반무역, 변경소액무역 수출 상위 상품구조>

품목명/연도	일반무역				품목명/연도	변경소액무역			
	2009	2010	2011	2012		2009	2010	2011	2012
원유	239	326	518	578	화물자동차	20	42	72	57
통신기기	23	61	83	84	밀가루	27	40	48	54
화물자동차	30	46	67	84	쌀	26	18	25	25
합성직물	21	40	55	66	합성직물	29	15	13	32
석유제품	24	29	46	47	콩기름	24	13	18	24

8

### 3. 단둥 대북경협 제도: 보세무역1

#### 보세무역

- 정의: 북한 물품이 중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수출되거나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북한으로 들어가는 무역형태
- 북한의 수출입 과정에서 중국을 경유할 뿐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북중교역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무역방식
- 그러나 보세무역은 2000년대 초에 북한의 대중수출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2010년 이후에도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 무역방식
- 중국의 보세무역 방식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아래 두 가지로 분류
  - ▶ 보세창고수출입화물(保税仓库进出境货物 또는 保税监管场所进出境货物; Bonded warehousing trade) : 단둥과 같이 보세구가 없는 지역에서 보세창고를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수출입되는 방식
  - ▶ 보세구중계화물(保税区仓储转口货物 또는 海关特殊监管区域物流货物; Entrepot trade by bonded area) 두 가지로 분류: 국가가 지정한 보세구를 경유하는 화물을 말하며 통관 절차는 공식적인 수출입 통관서류 없이도, 간소한 세관 등기서류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한 무역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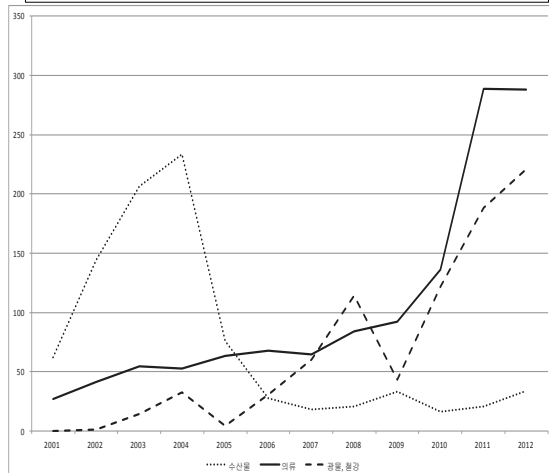
9

### 3. 단둥 대북경협 제도: 보세무역2

<중국의 대북한 보세무역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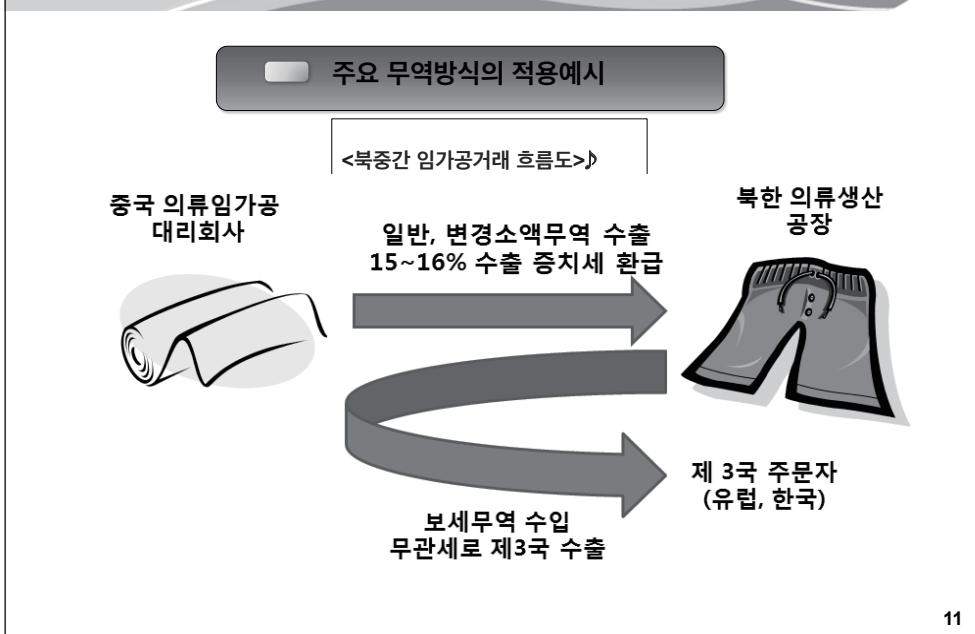
연도	보세창고수출입	보세구중계화물	중국 대북수입 중 비중
2001	94.6	0.2	57%
2002	191.8	0.2	71%
2003	278.0	0.4	70%
2004	321.1	0.1	55%
2005	145.7	0.0	29%
2006	127.5	3.0	28%
2007	150.6	3.2	26%
2008	231.6	5.2	31%
2009	196.8	4.8	23%
2010	301.8	9.9	26%
2011	497.4	23.0	21%
2012	539.2	33.0	23%

<중국 대북한 보세무역 수입의 상품별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0

### 3. 단등 대북경협 제도: 거래예시



### 3. 단등 대북경협 제도: 인력수입

**인력진출** 대북제재가 본격화 된 2009년 이후 북한 방문자 수 급증

- 북중간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을 이용한 북한 노동력 유입 급증
  - 공식 노동허가(노동자), 고용허가(기업) 취득한 경우는 매우 드물
  - 대부분의 북한노동자는 1달 거주가 가능한 '주민국경통행증' 발급받고 취업
  - 단등의 북한 노동자 수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정, 2009년 이후 방문자 10만 명 대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방문자수	36,343	46,305	49,923	53,860	110,158	157,653	188,306

**<단등시 기업의 북한인력 고용허가 기준>**

- 허가분야: 복장가공, 식품가공, IT 산업
- 허가기간: 1년 단위 (매년 재심 신청 해야함)
- 고용상한: 총 직원의 20% 초과 금지
- 허가조건: 공장설립 1년 이상 기업, 1년간 세금완납 증명, 자본금 100만 달러 이상 등
- 신청기관: 단등시의 경우 공안국, 노동취업국, 외사관공실, 대외무역경제협작국 등 4개 부문에 신청 이후, 라오닝 성정부 노동보장 부문의 심사와 비준 필요

## 4. 단둥 대북경협 인프라 개요



13

## 4. 단둥 대북경협 인프라: 신도시

<단둥 신도시와 건설 중인 신압록강대교>



<SK 보세창고>



14

## 4. 단둥 대북경협 인프라: 구도시

<단둥 통상구 정문 모습>



<화위엔 보세창고>



15

## 5. 단둥기업설문조사: 조사개요

### ■ 조사개요 단둥 소재 대북거래 기업 176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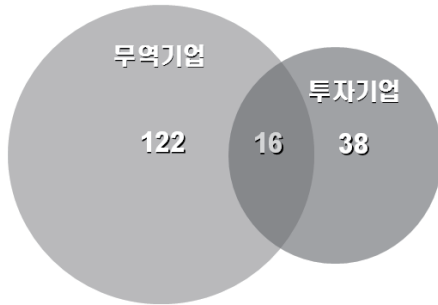
1. 조사기간: 2012년 2월~7월, 2013년 2월, 7~8월
2. 조사방법: 개별 면접식 조사
3. 설문조사구성: △회사 기초정보, △사업 환경, △무역기업 대상설문, 투자기업 대상설문 등 4부분으로 구성
4. 설문설계: 아래 설문지 참고
  - EBRD 'Business Environment and Enterprise Performance Survey(BEEPS)'
  - World Bank 'Institutional Obstacles for Doing Business'
  - KDI '대북경협기업조사'
  - 무역협회의 '남북경협 전망 및 애로사항 조사'
5. 표본수: 단둥 대북거래기업의 10~20% 범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추정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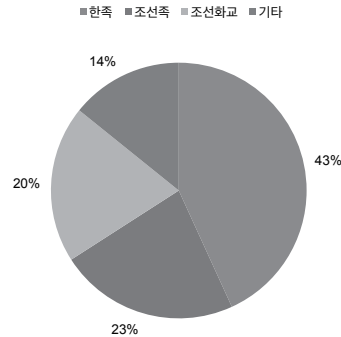
## 5. 단등기업설문조사: 회사분류

- 회사분류: 사업방식 (무역/투자), 민족적 배경(한족/조선족/북한화교기타)

〈사업 방식별 분포〉



〈민족적 배경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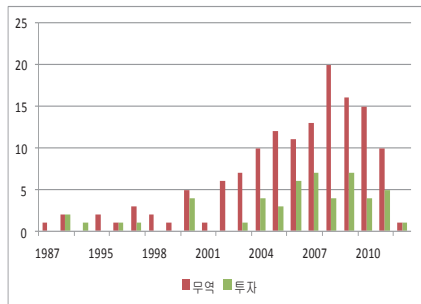


17

## 5. 단등기업설문조사: 진입시기

- 중국기업의 대북사업은 진입은 2000년 기점으로 확대, 2008년 이후 급증
  - 이는 2008년 이후 남북경협 감소, 북중경협 확대 추세와 대체로 일치
- 최근 대북거래 기업 진입 증가는 주로 한족, 화교 기업에 의해 주도
  - 조선족기업과 기타(한국계) 2000년 중반 비교적 활발히 진입 (남·북·중 연계무역)

〈사업방식 별 진입시기〉



〈민족적 배경 별 진입시기〉



18

## 5. 단등기업설문조사: 퇴출요인

- 조선족 기업과 기타기업의 퇴출비율이 높게 조사됨
  - 퇴출기업의 공통점은 한국시장과의 연계성이 크다는 점임.
  - 5.24조치 등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목표 시장을 상실 또는 축소되는 것이 사업포기의 주요 요인

<민족배경별 생존과 퇴출기업 분포>

	한족	조선족	조선화교	기타	총계
생존기업	75	35	34	21	165
퇴출기업	1	5	1	4	11
퇴출비율	1%	13%	3%	19%	
총계	76	40	35	25	176

19

## 5. 공통설문(사업방식): 거래대방

- 민족배경에 따라 북한 거래대방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임
  - 거래규모가 큰 한족기업은 군대 소속 기업과의 거래 비중이 높음.
  - 위탁가공 비중이 높은 조선족 기업은 신의주 시 등 지방행정기관 비중 높음
  - 도소매 위주인 조선화교 기업은 개인과의 거래비중이 높음

<민족배경별 북한거래 기업 소속기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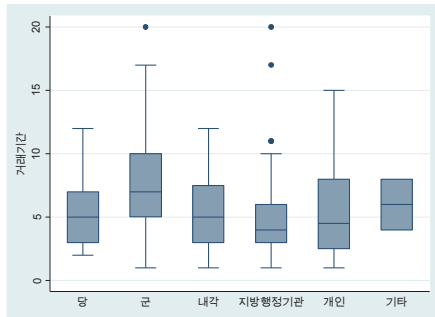
	한족	조선족	조선화교	기타	전체
군	24%	15%	20%	13%	19%
당	25%	28%	26%	8%	23%
내각	16%	18%	6%	29%	16%
지방행정기관	25%	40%	23%	8%	26%
개인	9%	0%	23%	42%	1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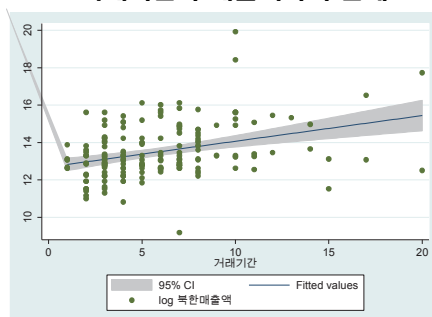
## 5. 공통설문(사업방식): 거래기간

- 북한 거래상대 기업이 '군 소속기업'일 경우, 거래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조사됨.
  - 군 소속기업과의 신뢰관계가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된다고 해석가능.
- 거래기간과 매출액 사이에는 상당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
  - 장기간 거래관계로 신뢰가 형성되면, 매출액 증가에도 긍정적 기여

〈소속기관별 거래기간의 차이〉



〈거래기간과 매출액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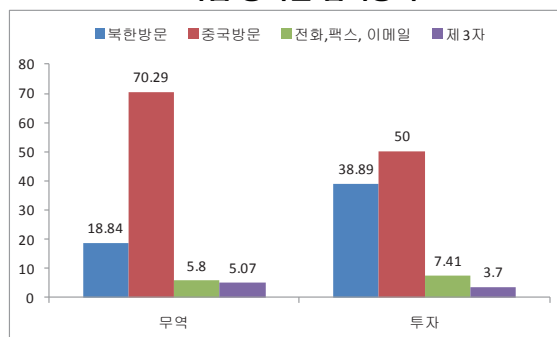


21

## 5. 공통설문(사업방식): 협의방식

- 무역기업과 투자기업 모두에서 주요 협의방식은 '중국방문'으로 조사됨
  - 중국기업이라 할지라도 북한에서의 사업협약이 용의하지 않음 (고비용, 현장 방문, 자유로운 협의가 어려움).
  - 단동 현지에 다수 북한 주재원의 상주 (120개 사무소)
  - 북한기업인이 해외출장을 선호하는 경향

〈사업 방식별 협의방식〉



22

## 5. 공통설문(사업환경): 예측가능성

-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 예측가능성’은 무역기업, 투자기업 모두에서 매우 낮게 조사됨.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 예측가능성〉

		한족	조선족	화교	기타	전체
무역 (n=138)	가능	23.2%	37.5%	22.6%	31.6%	27.5%
	불가능	76.8%	62.5%	77.4%	68.4%	72.5%
투자 (n=54)	가능	44.0%	25.0%	44.4%	62.5%	42.6%
	불가능	56.0%	75.0%	55.6%	37.5%	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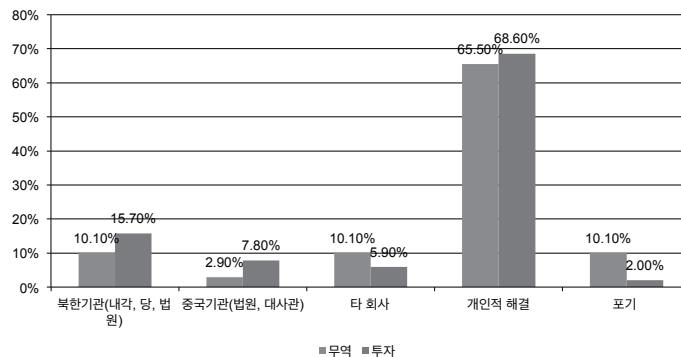
- 이와 관련되어, 사업 상 제약요인을 묻는 문항에 무역기업, 투자기업 모두 ‘북한정책의 잦은 변화’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무역기업의 29%, 투자기업의 35%가 응답함.
  - 북한정부의 임의적 수출입 중단 조치, 기업 관리인 교체, 핵실험 등의 도발행위에 따른 장기간 통관중단 등이 포함됨.
- 이는, 북한은 개별기업 차원의 위험요인보다 국가차원의 위험요인이 크다는 사실을 나타냄.

23

## 5. 공통설문(사업환경): 분쟁해결

- 대북거래에서 분쟁 발생 시, ‘개인적 해결’ 응답이 무역, 투자 기업 모두에서 70% 가까이 차지함.
  - 이는 공식 채널을 통한 분쟁해결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분쟁해결방식〉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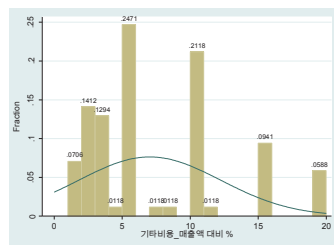
## 5. 공통설문(사업환경): 뇌물

- 대북사업에서 뇌물은 필수적이고, 관행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북 사업 시, 접대비, 사례비 등의 기타비용을 지불 했는가?’ 라는 문항 53.%가 ‘있다’ 고 응답
  - 와크를 가진 기업과의 거래관계 개시, 유지, 가격 협상 등에 뇌물 필요
- 기타비용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전후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그러나 매출액의 10% 이상이란 응답도 전체 38%나 차지

〈뇌물관련 응답비율〉

기타비용 지불 여부	비율
지불한적 있음	53.4%
지불한 적 없음	26.4%
모름	20.1%
Total	100%

〈기타비용의 매출액 대비 비중〉



25

## 5. 공통설문: 특구, 북한경제 전망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의향〉

	한족	조선족	화교	기타	총계
긍정적 고려	24%	10%	9%	20%	17%
상황에 따라 결정	32%	28%	11%	28%	26%
고려하지 않음	45%	63%	80%	52%	57%

〈북한경제에 대한 장기전망〉

	한족	조선족	화교	기타	총계
상당히 개선	20%	28%	11%	12%	19%
다소 개선	43%	45%	20%	32%	38%
현재와 비슷	34%	23%	69%	52%	41%
다소 악화	1%	5%	0%	4%	2%
상당히 악화	1%	0%	0%	0%	1%

- 북중접경지역 경제특구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 우세

- 부진한 특구사업 진척 상황이  
때문으로 해석
- 한족에서 긍정응답이 가장 높  
게 조사

- 북한경제 전망은 긍정 응답이  
높게 조사

-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  
반영

26

## 5. 무역기업 설문: 기업분류

- 무역형태별로 일반수출/일반수입/위탁가공/도소매 업체 분류
  - 위탁가공: 의류, 가발, 전자제품(트렌스) 임가공
  - 일반수출: 전기·기계 설비, 건설자재, 중고차, 경공업 품
  - 일반수입: 광물, 농수산물
  - 도소매: 단동 중소기업 상가운영, 북한 개인 상대로 거래, 수출입 대리회사를 통해 상당 물량 대북수출
- 민족 배경에 따라 주요 무역형태에서 차이를 보임.
  - 한족: 일반수출입, 조선족: 위탁가공, 조선화교 : 도소매

<민족배경별 무역기업의 분포> ㄴ

	한족	조선족	조선화교	기타	Total
일반수출	41%	19%	23%	5%	27%
일반수입	30%	28%	13%	21%	25%
위탁가공	18%	47%	32%	42%	31%
도소매	11%	0%	32%	32%	16%

27

## 5. 무역기업 설문(성과요인1)

- 한족기업은 매출액, 이윤율로 측정된 성과지표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나타냄.
- 이러한 성과의 차이는 각 민족별 대북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상이하기 때문임.
  - 대북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크게 △사업 대방, △사업분야, △목표 시장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민족 배경별 무역기업 성과 비교 >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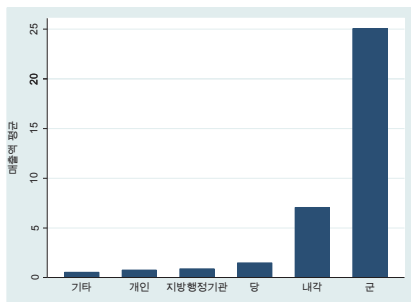
	한족	조선족	조선화교	기타	전체
대북사업 매출액(\$)	9,522,857	5,148,175	640,645	1,081,053	5,350,881
대북사업 직원 일인당 매출액(\$)	711,989	222,925	200,606	143,636	426,633
매출 이윤율(%)	17.4	14.6	18.6	13.9	16.6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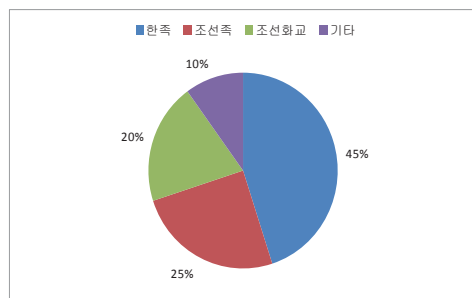
## 5. 무역기업 설문(성과요인): 대방

- 북한 군소속 기업들과 거래 시에 매출액과 이윤율 평균이 다른 기관 소속 기업에 비해 매우 높게 조사됨.
- 중요한 점은 한족기업이 군 소속 기업들과 거래가 많다는 점.
  - 군대 소속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한족기업과 거래

<북한 군 소속 기업의 매출액 비교>



<북한 군 소속 기업 민족별 거래기업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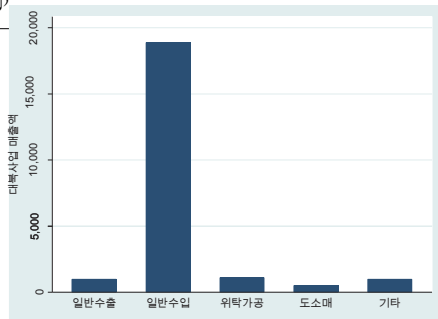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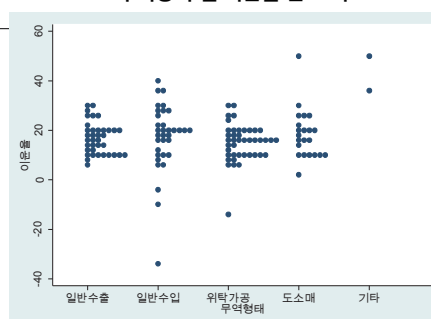
## 5. 무역기업 설문(성과요인): 분야

- 대북 수입업체의 매출액, 이윤율이 다른 무역방식에 비해 상당히 높음.
  - 일반수입을 통해 북한 '지하자원'과 '수산물'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
  - 한족 기업의 경우, 중국과 북한 정부의 상층부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수출입 분야에 진입 가능

<무역방식 별 매출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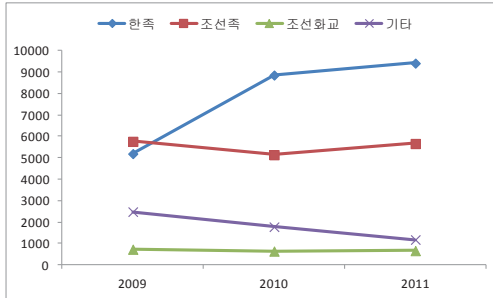


<무역방식 별 이윤율 분포 비교>



## 5. 무역기업 설문(성과요인): 시장

<민족배경 별 무역액 추이변화>



- 지난 3년 민족에 따른 매출액과 수익률 추이가 상이하게 조사됨.
- 배경에는 각 민족별 중점을 두고 있는 목표 시장과 깊은 관련이 있음.

- 매출액이 증가한 한족과 북한화교 기업군인 경우 주로 중국 시장을 대상
- 조선족 기업과 한국계가 다수인 기타 기업 등 매출액이 축소된 기업군은 한국을 주 시장

<민족배경 별 목표 시장>

	한족	조선족	화교	기타	전체
중국	77%	44%	77%	5%	59%
한국	21%	44%	19%	68%	33%
기타	2%	13%	3%	26%	8%

31

## 5. 무역기업 설문: 이윤율 예상

- 북한의 불확실한 사업 환경으로 장기(3년) 이윤 예상에 대해 ‘모름’의 응답이 단기(1년)에 비해 두 배나 높은 53%로 조사됨.
- 민족배경 별 상이한 응답패턴 관찰됨.
  - 한족, 북한화교 기업: 단기에는 ‘긍정’ 응답, 장기에는 ‘모름’ 응답 많음.
  - 조선족 기업: 단기에는 ‘부정’ 응답, 장기에는 ‘긍정’ 응답이 다수
    - 향후 한국 제재에 대한 상이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민족배경 별 무역기업의 장단기 이윤예상>

	한족	조선족	화교	기타	전체
<b>1년 이윤예상</b>					
긍정적	43%	41%	60%	47%	47%
부정적	34%	53%	7%	26%	31%
모름	23%	6%	33%	26%	22%
<b>3년 이윤예상</b>					
긍정적	30%	50%	37%	37%	37%
부정적	6%	19%	-	26%	10%
모름	64%	31%	63%	37%	53%

32

## 5. 무역기업 설문: 결제방식, 시기

- 중국기업의 대북결제는 주로 ‘현금결제’ 방식으로, ‘거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북중거래의 낙후성과 낮은 신뢰수준을 보여줌.
- 은행결제 비중은 15% 정도지만, 이는 통상적인 국제무역에서의 결제방식이 아님.
  - 1) 북한의 지정된 해외계좌에 송금환(T/T) 입금, 2) 단동 광선은행 지점에서 일종 ‘환치기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짐.

		일반수출	일반수입	위탁가공	도소매	계
결제방식	은행 결제	16%	27%	14%	0%	15%
	현금	70%	38%	51%	86%	59%
	현물	3%	6%	5%	0%	4%
	현금과 현물 혼합	14%	29%	30%	6%	22%
결제시기	거래이전 지급	29%	24%	2%	19%	15%
	거래와 동시	62%	32%	9%	91%	40%
	거래 후 10일	8%	3%	14%	0%	7%
	거래 후 30일	11%	38%	67%	9%	36%
	거래 후 30일 이상	0%	3%	7%	0%	3%

33

## 5. 투자기업 설문: 기업분류

- 투자형태별: 합영/합작/설비 제공형 투자/북한인력 수입 으로 분류
  - 합영/합작 등 공식투자는 14개사로 전체 26%에 불과
  - 이에 반해, ‘설비 제공형 투자’ 30개 사로 56% 차지
    - > 설비 제공형 투자: 북한 필요 설비를 제공하고, 북한에서 생산된 의류, 광물 등으로 설비 투자비를 상계하는 방식
  - 북한인력 수입회사는 10개사로, 평균 고용인력 245명 (주로 의류, 수산물 가공공장 등에서 고용)

<투자기업 분포>

	한족	조선족	화교	기타	총계
합영	12%	25%	11%	0%	13%
합작	12%	17%	11%	13%	13%
설비제공형 투자	48%	58%	78%	50%	56%
북한인력 수입	28%	0%	0%	38%	19%

34

## 5. 투자기업 설문:성과요인1

- 투자액은 한족기업이 높은 반면, 투자 수익률은 북한화교 기업이 높음
- 투자 이윤율 변화 추이: 한족 기업의 이윤율 증가가 큰 반면, 조선족과 기타기업의 이윤율은 감소
  - 무역기업 성과 패턴과 유사→ 동일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효과 작용

<민족 배경별 투자기업 성과 비교 > 1

	한족	조선족	화교	기타	전체
투자액(\$)	1,916,000	1,659,167	372,222	1,371,429	1,523,774
투자 이윤율(%)	18.7	3.0	21.8	16.3	15.2

<민족 배경별 투자기업의 지난 2~3년간 이윤율 변화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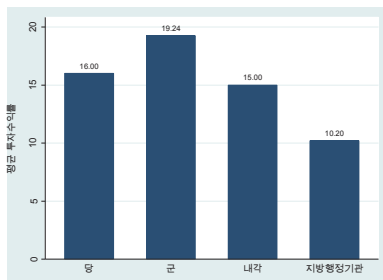
	한족	조선족	화교	기타	전체
증가	32.0	9.1	22.2	16.7	23.5
감소	16.0	36.4	-	50.0	21.6
변화 없음	52.0	54.6	75.0	33.3	54.9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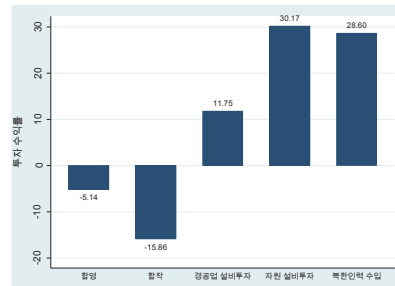
## 5. 투자기업 설문:성과요인2

- 북한대방이 북한 거래대방이 ‘군 소속 기업’일 때 성과우수
- 사업분야가 ‘설비 제공형 투자’, ‘북한인력 수입’ 일 때 성과우수
  - 특히, 투자 수익률이 높은 ‘자원 설비제공 투자’와 ‘북한인력 수입’ 분야에 한족기업이 진출이 집중

<북한 대방의 소속기관별 투자 이윤율 비교>



<투자방식별 평균 투자수익률 비교>



36

## 5. 투자기업 설문:성과전망

- 족 배경 관계없이 단기(1년) 예상은 긍정적 응답이, 장기(3년) 예상은 ‘모른다’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이는 투자기업의 절반이 ‘설비제공형’ 투자기업으로, 투자기업이라 할지라도 장기적 사업보다는 단기적 거래에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민족배경 별 투자기업의 장단기 이윤예상>

	한족	조선족	화교	기타	전체
1년 이윤예상					
긍정적	64.0	54.6	33.3	50.0	55.1
부정적	16.0	36.4	-	-	16.3
모름	20.0	9.0	66.7	50.0	28.6
3년 이윤예상					
긍정적	29.2	30.0	22.2	75.0	31.9
부정적	4.2	30.0	-	-	8.5
모름	66.7	40.0	78.8	25.0	59.6

37

## 5. 투자기업 설문:자금조달

- 대북 투자기업의 자금 조달은 ‘자체조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대북사업 위험성으로 인해 ‘은행융자’를 통한 자금마련이 어렵기 때문
- 한족 기업인 경우 ‘은행융자’ 비율이 36%로 다른 민족그룹에 비해 높은 비중을 나타냄.
  - 그러나 ‘은행 융자’인 경우라도, 대북사업 건이 아닌, 중국 내의 다른 사업으로 받은 융자금을 대북사업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임.

<민족배경 별 투자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한족	조선족	조선화교	기타	전체
자체조달	56%	58%	22%	75%	54%
은행융자	36%	17%	22%	25%	28%
가족, 친척 및 친구	8%	25%	56%	0%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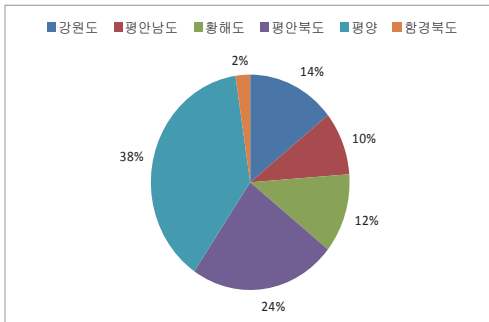
38

## 5. 투자기업 설문:투자지역

- 평양이 가장 높은 비중, 그 뒤를 단동과 인접한 평안북도(신의주) 차지

- 단동과 도로, 기차 등 교통 연결망이 발달해 있기 때문
- 업종별: 의류, 신발 (평양, 신의주), 광물(전 지역), 농수산물(북한 서부지역)

<투자기업의 북한 투자지역 분포>



<투자업종별 투자지역 비교>

업종	투자지역	비중
의류, 신발	신의주	38%
	평양	63%
광물	강원도	25%
	평안남도	25%
	평안북도	15%
	평양	15%
	황해도	20%
농수산물	신의주	17%
	청진	17%
	평양	50%
	해주	17%

39

감사합니다.

4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Center for the Pacific and Educator Studies  
SNU National University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문화관 151-742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 +82 (0)2-880-4052~4 F +82 (0)2-874-7305 <http://tongil.snu.ac.kr>